ISSN 2734-1275

제3권 제1호
Vol. 3, No.1, Dec 2022

장애의 재해석연구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한국장애인재단

VOICEYE
KOR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의 오른쪽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리더기 혹은 스마트폰 어플(보이스아이)을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ISSN 2734-1275

제3권 제1호
Vol. 3, No.1, Dec 2022

장애의 재해석연구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한국장애인재단

목 차

-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장애는 재해석될 수 있는가?:**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중심으로
  박설희 1

- **보이지 않는 감각의 공동체:**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급 내 감각의 사회화와 장애의 재구성
  김성인 35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LSTM 기반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예측 연구**
  이정민·박영빈 71

-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 연구:**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 중심으로
  채 민 99

-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관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검증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홍서준·최아영 131

-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의 차이 분석**
  이희라·이재용 163

•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성인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채우정·한용재 189

•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현황과 방안:**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고찰하며
신지수·김규리 217

• **2030세대의 대물림된 장애 혐오에 대한 Apologia:**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에 대한 문학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정서빈·유은빈·이의경 249

• **어플리케이션 비대면 진료, 처방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치료명령제도 및 외래치료지원제도 모델 제안:**
국내와 사례 및 피드백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수·고여정 283

• **장애인의 코로나19 전후 우울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희·이서윤·장은지 309

•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잘삶을 위한 평생교육 현황과 실천적 과제 고찰**
김도경·한태경 329

•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독립보행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도보편의시설 문제를 중심으로
김민서·최영은·김재연 353

• **중증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학적 고찰**

화지원 383

•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임신·출산영역을 중심으로

정진이·이재문 409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1 - 33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장애는 재해석될 수 있는가?: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중심으로

박설희*

본 논문은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역사이며 현재 상황일 때, 장애라는 개념은 사회 구성원이 각자 장애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반영하며, 동시에 구성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 저마다 장애에 대해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인식이 경험에 의존하는 한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재해석은 가능하다.

본 논문이 논거로 차용하고 있는 것은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이다. 상상은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으로 인간의 일차적인 인식 방법에 해당한다. 상상과 변용은 우리의 행위와 판단에 양면적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1) 이미지의 관성, (2) 상상의 우연성, (3) 상상의 부분성을 상상의 양면성에 대한 세부 특성으로 보고, 이를 통해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과 그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경험을 통한 인식이 이미 그리고 언제나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의 재해석은 구성원들이 겪는 장애에 대한 다양한 그리고 무수한 변용에서 시작될 것이다.

주제어 : 장애의 재해석, 사회적 장애모델, 스피노자, 상상, 변용, 비장애중심주의

* 충북대학교 서양철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2022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자아낸 두 장면은 우리 공동체가 비장애중심적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주지시켰으며, 장애가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질문하게 했다. 나의 경험이 모두의 경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몇몇은 이런 인상을 공유할 것이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이 문장을 보고 누군가는 '자기 차가 없나 보군,' 또는 '서울에 사나?' 정도의 생각을 할 것이다. 이 문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의 표어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출근길이라는 말에 걸린 장애인고용률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지하철을 탄다는 것은 우선 지상에서 지하의 역사로 이동해서 지하철을 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호선으로 환승을 하는 것을 말하고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을 하는 것 또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무 역에서나 내려서 화장실을 들르는 것, 깜박 졸아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다면 어디에서라도 반대 방향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음을 말한다.

이 모든 과정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거나, 시설이나 경로가 부재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서울 바닥을 거미줄처럼 지나는 지하철은 장애인에게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 이동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토로하는 불편이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받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거론되는 데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쩌면 지난봄 우리가 가졌던 이동권에 관한 관심은 구체적인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날의 소동 정도로 잊혀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동권 문제가 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여름이 되어서는 '이상한변호사우영우'에 사람들이 열광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단어에 '우영우'를 떠올리며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것이다. 이는 매체가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에 관해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보도해왔던 이전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람들은 '우영우변호사'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어떻게 김밥을 먹는지, 어떻게 친구와 인사하는지 등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제작자들과 연기자들의 고심한 듯한 만듦새에 감탄하면서, 마음 놓고 '우영우'를 사랑했다.[1]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인들에게

---

1) 이 드라마의 인기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이야기나 다 그렇겠지만, 이 드라마는 선택적으로 사실적이고 선택적으로 환상적이다. 하나의 이야기는 모든 문제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현재까지의 논의의 빈칸은 미래의 구성원들이 고민해야 할 몫이다. 이처럼 이 드라마의 한계를 고민하려는 시도는 열

VOICEYE
voiceye.com

어떤 인상과 기대를 가질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겠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인 중 극소수가 가지는 서번트 증후군을 함께 보이는 우영우 캐릭터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과잉대표하는 작금의 현상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인기가 해당 드라마의 세계관을 초월해 현실에 가닿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드라마에 관한 관심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함께 사는 장애인의 문제로 확장시키려는 심층 기사, 칼럼, 유튜브 영상 등이 속속 등장했고,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드라마에 대한 감상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움직임이 드라마의 유행을 타고 널리 확장되는 양상은 아니었다. 대다수의 반응은 다시 우영우라는 판타지로 환원되거나, 공허한 '힘내세요'만 그득하거나 하는 실정이었다. 드라마는 끝이 났고, 사람들은 벌써 시즌 2를 기다린다지만, 드라마에 담기지 못한 삶들은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다. 반지하 주택에 살던 여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비를 피하지 못해 사망한 것도,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고 보호자가 자살한 것도 이번 여름, 같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장애인의 삶에 대한 어떤 인식을 야기한 원인으로서 위의 두 사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가를 드러낸다. 이동권 시위에서는 공감과 반감이 분분했지만, 우영우 세계관에는 기꺼이 열광하고 동요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사람들은 현실의 사태에는 중립적이기를 자처하고 가상의 캐릭터를 응원하는 것으로 현실의 장애인과의 연대를 대체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무관심 하고 심지어는 반감을 보이는 것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식과 정의가 장애인의 삶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비장애인의 이러저러한 생각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바를 반영한다. 특히 비장애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장애인을 이해하는 관점이 된 작금의 현실은 우리 공동체가 장애 정의를 공통의 상식으로 구축하는데 실패했음을, 그리고 개개인들이 자신의 기호와 편의를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공적인 비판을 제기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하나 마나 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비장애중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재해석될 수 있을까?

UPIAS가 제시하고 마이클 올리버가 명시화한 사회적 장애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사회적 장벽의 구축을 통해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게 만드는 사회적 제도들의 결과"[2]이다.

광했던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려거나,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지면을 빌어 소개하고 싶은 글은 비마이너에 2022년 8월에 실린 안희재(「우영우가 침묵한 것」)의 글이다.

2) 해당 직접인용은 Colin Barnes, Michael Oliver and Len Barton. (2002)의 75쪽에 해당하며, 사회적 장애모델에 관한 서술들은 해당 책과 다음 책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김도현 (2009).

장애는 단순히 개인이 가진 손상에서 기인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개인을 사회가 방치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해지는 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 장애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재생산된다. 손상을 입은 개인이 배제되는 사태가 사회적으로 일어날 때, 장애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본 논문이 제기하는 질문은 '장애는 과연 재해석 될 수 있는가?'이다. 장애는 시대와 공간, 상황에 따라 야속하고 교묘하게 재생산된다. 그런데 이 사회가 비장애중심적이라면, 장애라는 개념이 재해석될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역사를 반추할 때 장애는 재해석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가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변하고 있다. 이는 끊임없는 장애 당사자의 투쟁의 결과일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적인 검토를 통해 재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의 과정 그 자체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인식은 개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 그렇다면 비장애중심적인 사회에서 장애가 과연 재해석 될 수 있는가, 오히려 비장애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생산되지 않는가? 재생산과 재해석은 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나 이대로는 안된다, 다른 세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장애의 재해석이 실질적인 가능성을 가지는가?

본 논문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경험은 인식의 토대가 되고, (2) 그 인식의 결과 장애는 재생산되고 (3) 또한 같은 방식을 통해 장애는 재해석된다. 2장인 예비적 논의에서는 이 전제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경험을 통한 인식이 장애를 재생산하거나 재해석하는 계기가 된다는 주장의 전거로서, 본 논의는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경유할 것이다.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3장에서 다룰텐데, 『윤리학』[3]에서 상상과 변용에 대한 진술을 인용하면서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상상과 변용은 우리의 행위와 판단에 양면적으로 작용한다. 상상은 외부 사물에 의한 변용으로 촉발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경험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장애 개념은 고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상이 대상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이라는 특성을 간과하는 순간, 우리는 세계를 왜곡되게 그리고 편향되게 이해하게 된다. 변용은 변용에 참여하는 대상의 본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인간 신체의 변용은 변용되는 신체 각각의 구성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별적이다.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의해 재해석될 수 있으며, 장애의 사회적 재해석은 사회 구성원들

3) 이후에서 본문 및 각주에서 『윤리학』을 인용할 경우, 다음의 기호를 사용할 것이다. E(『윤리학』), D(정의), A(공리), P(정리), dem(증명), S(주석), C(따름정리), App(부록), L(보조정리), Po(공준). 또한 『윤리학』의 국문본은 박기순(출간예정)을 인용했다.

VOICEYE voiceye.com

사이의 경험과 경험에 의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과 경험에 의해 얻은 인식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Ⅱ. 예비적 논의

본 장에서 규명해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구성원들의 경험을 통한 인식이 장애를 재생산하거나 재해석한다는 본 논의의 전제가 사회적 장애모델의 이론적 지평에서 수용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관점과 유사하고 또 다른가? 또한 스피노자의 철학은 장애학의 이론적 구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4] (2)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본 논문의 중심 근거로 삼을 때, 스피노자의 인식론 전체에서 간과하게 되는 점이나, 미리 유념해야 하는 한계는 무엇인가?

1. 사회와 개인의 관계

본 논문의 본격적인 논증에 앞서, 우리는 먼저 본 논의의 구도가 야기할 수 있는 오해를 해명해야 한다. 본 논문은 장애가 사회적인 구성물이라는 사회적 장애모델을 수용하면서,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들의 경험을 통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설정은 얼핏 보기에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장애가 사회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인식적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인식에서 장애의 사회적 구성을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다.[5] 여기서 또 두 가지의 문제가 따라 나온다. 첫째, 장애의 구성이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장애의 재해석이 개인의 인식 수준에서 야기된다면, 장애의 구성과 장애의 재해석은 형식상 다른 것인가? 둘째, 장애의 구성과 장애의 재해석이 형식상 동일하다면, 장애의 재해석이 개인의 인식을 원인으로 삼는다는 바로 그 점에서, 장애의 사회적 구성 역시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들은 모두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있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 장애모델에 관한 몇몇 장애학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본 논문의 설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를 구별한다. 이는 장애를 구조적이

4) 해당 질문들은 다음 두 저작을 통해 제기 및 발전되었다. 김도현(2009), Priestley, M. (1998)

5) Pristley, M.(1998)는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더욱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구도는 이 점에서 Pristley, M.와 상충한다. 우리의 논의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장애를 구성하고 또 재해석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고 공적인 문제로 보기 위함이며, 장애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비장애중심적인 제도와 문화를 비판하는 장애인 권리 운동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장애모델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존해 장애가 결정되고, 의료기술을 통한 교정 및 재활로 추상적인 정상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료적 모델과도 구분된다. 또한 장애가 사회적 배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장애 모델은 다른 소수자 운동과 정체성 정치와도 만난다. 장애가 사회적 배제와 동의어 관계라면, 이는 장애인은 배제된 자, 억압된 자, 즉 피지배 집단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장애모델은 사회를 바꾸려는 실천으로 연구자와 활동가를 이끈다. 장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면, 장애학과 장애 운동은 이를 마치 결정된 것처럼 여기는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가 강제한 장애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장애 당사자는 제도와 문화 구성에 참여하고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으로 정치적 투쟁을 전개한다. 사회가 축조한 장애라는 장벽에 대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는 집단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의 비판과 저항이 장애의 의미를 탈바꿈하고 재해석할 것이다.

이런 시각은 페미니즘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데, “젠더와 같이, 장애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구체적 현상이지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본질이 아니다.”(Shakespeare, 2006: 216) 한편, Priestley(1998)은 여성주의 장애학을 개인적 모델이자 관념론적 맥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는 여성주의가 사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환기시키고자 하고, 개인적 경험과 정체성을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하려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성주의나 포스트모던 이론이 사회적 장애모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비판적이다. “구조적 장벽barrier과 억압적 문화 표현은 그것이 장애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알려질 때만 적절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그러나 이것은 존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 문제에 해당한다. 방해물들이 생성되는 방식과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는 방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장애인의 경험은 항상 장애물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일테지만, 그것은 그들의 경험 외부에 그런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Priestley, 1998: 85) 이처럼 Priestley는 인식의 영역과 존재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려한다.

Priestley의 우려는 타당하지만, 이런 우려만으로 인식론적 문제제기가 개인적 모델로 한정될 수는 없다. 인간의 경험을 통한 인식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인식은 세계를 부분으로만 이해하지만, 인식은 인간 정신 내부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작용이 아니다. 오히려 경험을 통한 인식은 외부 사물의 영향 아래 놓인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인식적 한계이자 인간 일반의 실존적 조건에

VOICEYE voiceye.com

해당한다. 이런 오류를 인정하는 지점이 바로 스피노자의 상상이 가지는 특이점이다. 이런 오류를 포함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는 보편 관념, 언어, 일차적인 세계관을 구성하기 때문에, 장애라는 개념 역시 일차적으로는 이 지점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인식을 개인적인 수준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근거가 된다.

곧 살펴보겠지만 스피노자는 인간을 자연의 부분으로 인식하며, 인간이 다른 사물과 관계 맺으며-협력하거나 또는 충돌하거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인식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특히 우리가 본 논문에서 다룰 상상의 경우, 외부 사물과의 만남을 통해, 엄밀하게는 외부 사물에 의해 우리 신체가 변용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얻은 인식은 우리 신체 상태에 대한 인식이지만 외부 사물의 본성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 인식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장애가 한 개인의 삶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배제되는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주장을 펼치며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장애는 정체성으로서 기능한다. “정체성은 그러므로 사회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연결하고, 공동체의 맥락에 그들 자신을 기입하는 개인적인 것들을 포함한다.”(Shakespeare, 1996: 99) 따라서 개인의 경험과 이를 통해 얻어진 인식을 중심으로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비극으로 보는 개인적 모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6)]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장애는 장애 당사자의 삶에서 경험으로 재생산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의 정체성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가 기대하는 장애 개념을 반영하거나 그와 충돌한다.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장애는 한 인간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의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회가 추상화하는 장애라는 개념에 누락되는, 손상이 있는 개인들의 다양한 삶이 존재하며, 손상이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다른 삶의 형태를 모두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7)]

한편, 장애를 개인의 정체성으로 간주할 때, 장애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이해는 다소 복잡한

---

6) Priestley(1998)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 개인주의적-유물론적 입장은 손상된 신체를 분석의 단위로 보는데, 의료적 모델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여기서 장애의 원인은 사회구조, 문화가 아니라 신체의 손상이다. 둘째, 개인주의적-관념론적 입장은 개인의 인지적 상호작용과 감정적 경험에 집중한다. 여기서 장애는 개인적인 경험의 산물이자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절충안에 해당한다. 이 입장은 손상에 대한 장애인의 적응과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태도에 관해 주로 연구한다.

7)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손상의 영향과 사회적 장벽의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아주 어렵다.”(Shakespeare, 2006: 218) 본 문단의 내용은 사회적 장애모델에 지적된 한계들과도 상응한다.

맥락에 놓인다. 단순하게는 장애를 긍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정체성 논의와 달리,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가 제거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장애모델은 장애를 사회적 억압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애인은 이미 그리고 언제나 피지배 집단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비장애중심주의에서 억압받는 존재로서 장애인의 저항 담론과 장애 정체성을 토대로 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자기 긍정은 상충한다. 물론 사회적 장애모델은 영국의 장애인 권리 투쟁과 함께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전제들은 운동 전략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론의 영역에서 사회적 장애모델이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은 장애를 특정한 방식으로 한계짓고 장애인의 삶을 소외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다.

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은 타인과 공동체,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에 독립되어 고려될 수 없다. 또한 그 경험과 인식은 정신과 신체에 모두 관계 맺고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은 그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조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사회는 비장애인을 과잉해서 대표한다는 점에서 비장애중심적이고, 장애인을 비가시화하면서 편협하고 고정된 방식으로만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비장애인의 인식과 경험 역시 비장애중심사회의 맥락 아래 놓여 있으며, 이 사회의 구성이란 그 사회의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성요인으로 삼는다. 따라서 장애를 둘러싼 일상의 경험과 그 인식을 논의의 중심에 둘 때,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장애의 사회적 구성은 사회의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인식에 의해 구체화 된다. 사회적 구조나 제도는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생성되고 지속되며, 문화나 상징들은 구성원들의 행위와 학습을 통해 구성되고 재생산된다. 사회가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수준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나 문화를 결정하는, 구성원들과 무관한 사회라는 주체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적인 것들인 구조와 문화 그리고 사회의 구성물인 장애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은 부분적일 수 있고, 때문에 편견을 포함할 수도 있다. 개인들이 사회의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경험과 인식은 장애의 사회적 구성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같은 이유로 장애의 재해석은 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선행연구에 소개된 스피노자의 개념들과 상상 논의의 함의

본 절에서는 우선 선행연구 격에 해당하는 각각의 국내 논의에서 제시되는 스피노자의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를 본 연구의 주안점에 따라 재서술할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범위를 스피노자의 철학 중 '인식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와 그 가운데도 1종 인식인 '상상'으로 한정하는 이유,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2000년 이후로 국내외 장애학 연

KCI VOICEYE voiceye.com

구는 스피노자의 논의를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전근배(2021), 최현경과 강진숙(2022), 장정연(2018, 2021), 최진(2022)의 논문에서 스피노자가 논의 전개의 중심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첫째, 전근배(2021)의 연구는 최근 장애인 정책 논의에서 회자되고 있는 '독립'과 '케어' 개념이 내포하는 의미를 재해석한다. 스피노자 논의의 맥락에서 독립은 외부 세계와 독립된 인간, 우월한 능력을 이미 항상 확보한 인간의 지배력 행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스피노자에게 자유로운 인간은 자의적으로 행위 하는 개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다른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인간을 말한다. 전근배(2021)의 연구는 스피노자 철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코나투스'를 통해 현재 장애인 정책의 쟁점인 '탈시설' 및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조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론과 현장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코나투스'를 중심으로 '독립' 개념의 재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전근배(2021)의 연구는 스피노자 철학을 장애학에 접목하는 후속 연구의 가능성 역시 시사한다.

코나투스(conatus)란 『윤리학』3부 정리 6과 7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E3P7)는 노력이자, "그 사물 자체의 현행적 본질"(E3P7)을 말한다. 인간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자신의 생존을 무한적으로 지속하려고 노력하며, 이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펼치고, 자신의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노력 역시 포함한다. 이런 노력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취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것,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을 피하려는 태도이다. 각자는 이런 유용성의 기준에 따라 외부 사물을 비롯한 타인과 관계 맺는다. 개인이 저마다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각자가 처한 실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타인을 해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존재는 같은 인간이며, "할 수 있는 한에서 모두 함께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모두 함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것을 각자를 위해 추구하는 것"(E4P18S)이다. 그러나 많은 인간은 쉽게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과 외부 사물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부적합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각자가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예속되게 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 스스로가 각자가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 보존을 해치거나 타인의 존재 보존을 해롭게 하기도 한다.

'코나투스'는 모든 사물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생존을 지속하려는 판단과 행위이자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와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인간의 행위와 사유의 근거에 해당한다. 이런 노력은 필연적으로 관계 맺기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관계 맺기란 무한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구성하는 부분들과의 관계 맺기, 나를 둘러싼 사물들, 자연, 환경과의 관계 맺기, 나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관계 맺기, 하나의 공동체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 맺기, 그리고 나의 의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개념들 또는 역사적 관습과의 관계 맺기 등이다.

스피노자의 사유는 이런 무수한 관계 맺기의 구성과 재구성을 존재론의 수준에서, 인간학의 수준에서, 그리고 정치철학의 수준에서 시도한다. 더욱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사유를 비롯한 인간의 정신작용과 각종 행위는 이러저러한 관념들, 경험들의 관계 맺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간은 왕국 속의 왕국에 존재하는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물과 함께 자연의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스피노자의 사유는 21세기에 이르러 로지 브라이도티나 브루노 라투르 등이 시도하는 탈인간중심주의(Posthumanism)적 기획에서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여타 17세기 철학이 가지는 시대적 한계-여성, 장애인 등을 배제하고 비장애 백인 성인 남성을 인간의 기본값으로 여기는 등-를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8)]

한편, 스피노자는 신을 시기와 질투 등 희노애락에 휩싸이는 인간처럼 여기고, 만물의 작동을 인간에게 보상과 처벌을 내리려는 신의 목적적인 행위의 귀결로 여기는, 인간의 일반적인 사유 경향성을 전적으로 비판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누군가의 의지와 목적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자연의 다른 부분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의 인과 작용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간은 사물과 현상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의식하고, 자신이 유용하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행위하고 판단한다.[9)] 이것이 바로 미신과 편견이 생성되는 이유이다. 이처럼

---

8) Abrams, T. (2017)는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개념의 의의와 들뢰즈가 해석하는 스피노자 철학을 비교하면서 이 두 사상이 장애학과 조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Abrams는 스피노자의 민주주의에 관한 서술에서 여성의 본성을 근거로 삼아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대목을 근거로 과연 장애학이 스피노자의 논의를 포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스피노자의 여성 배제 주장은 그 자체로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 논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김은주(2020)의 연구를 참고하라.

9) 해당 내용은 『윤리학』1부 부록에서 제시된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의지작용과 욕구를 의식하지만, 자신을 그렇게 욕구하고 의지하도록 만든 원인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로서는 그것들을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믿는다. 둘째, 인간은 모든 것을 어떤 목적 때문에, 말하자면 자신이 욕구하는 유용한 것 때문에 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행해진 것들에 대해 항상 목적인만을 알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 듣게 되면 만족해한다. … 그리고 이렇게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기질에 따라 타인의 기질을 판단하게 된다. … 인간은 모든 자연물을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 수단을 자신이 발견하긴 했지만 자신이 마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용하도록 그 수단을 마련해준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갖

VOICEYE voiceye.com

미신의 발생에 대한 설명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그 무지에서 따라 나오는 편협한 사유에 대한 이해에 적용될 수 있다.

스피노자에게 '개별 사물'은 상이한 본성을 가진 여러 사물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결과를 산출해 낼 때, 이 사물들이 부분으로 참여해 구성하는 이 관계 자체를 말한다.[10] 이런 의미에서 인간, 고양이, 노트북 등 모든 존재하는 사물은 물론, 인간들이 구성하는 여러 공동체들—예를 들어 가족, 부모, 연인, 국가, 돌봄 관계 등— 역시 개별 사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논의에서 개별 사물은 곧 구성된 관계를 말하며, 이는 피부로 온전히 마감되어 다른 사물과 분리되고 접촉하는 인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사물이란 모두 부분으로 참여하는 어떤 사물들의 구성이자, 다른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사물의 존재는 자연히 다른 사물들의 존재를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 스피노자에게 인간의 실존은 그 실존을 보존할 수 있도록 부분으로 참여하는 다른 사물과 타인들을 상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렇게 구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인간이 다른 관계에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우리는 개별 사물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들에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재현되고 재생산되는 장애에 대한 편향적인 개념들, 장애 당사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기의식 등도 역시 하나의 개별 사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편견 역시 하나의 관계이자 존재로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경험들은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공동체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이 겹쳐져 하나의 개념을 구성한다. 여러 관념과 경험들이 부분으로 참여해 하나의 편향된 개념을 구성하며, 이 편견은 부분이 되는 경험들의 연관이 해체되면 그 수명을 다할 것이다. 또는, 편견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관념과 경험으로 교체된다면 어떤 편견은 재해석될 수 있다.

둘째로, 최현경과 강진숙(2022)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촬영하는 장애 당사자 크리에이터와의 인터뷰 및 참여 관찰을 통해 '정동 체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주류 미디어에서 일방적으로 대상화되던 장애인 이미지가 장애 당사자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주목하는 가운데 당사자들의 영상 제작 활동, 유튜브 채널 운영 경험에 주목한다. 최현경

게 된다. …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고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모든 것을 행한, 인간과 같은 자유를 지닌 어떤 자연의 통치자 또는 통치자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 … 그래서 그는 신들이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인간을 자신들에게 묶어두고 그 인간으로부터 최고의 경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 이렇게 이 편견은 미신으로 바뀌었고 … 각자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모든 사물의 목적인을 이해고 그것을 설명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10) 해당 내용은 『윤리학』2부 정의7에서 제시된다. "나는 개별 사물을 유한하고 제한된 실존을 갖는 사물로 이해한다. 그리고 여러 개체가 한 행위에서 협력하여 모든 개체가 동시에 한 결과의 원인이 될 경우, 바로 그런 한에서 나는 그 모든 개체를 하나의 개별 사물로 간주한다."

과 강진숙(2022)의 연구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를 통한 정동 체험(최현경과 강진숙, 2022: 78)”이 어떤 식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쁨 또는 슬픔을 야기하는지, 나아가 이들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실천이 기존의 통념과 상식(편견)에 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들의 연구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경험을 연구한다는 점 자체로도 충분한 시의성을 지닌다. 또한 이들의 경험은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들과 표현을 주고받는 점에서 정치적인 인데, 최현경과 강진숙(2022)의 연구는 이들의 사적이자 공적인 경험을 학문 공동체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연구에서 주제화되는 ‘정동’ 개념은 질 들뢰즈와 펠릭스 과타리, 그리고 브라이언 마수미 등이 해석한 스피노자 ‘변용’ 개념을 말한다. 들뢰즈, 과타리와 마수미의 논의는 국내 문학 및 사회학에서 최근 두드러지는 많은 정동 연구의 이론적인 뿌리로서 역할 하고 있다. 그러나 들뢰즈, 가타리, 마수미 등의 스피노자 해석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변용(정동)’ 논의를 직접 전개할 수 있으며, 스피노자의 변용 연구가 위의 ‘정동이론’으로 모두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11] 본 연구는 다른 해석자나 학파의 관점을 경유하기보다 스피노자가 『윤리학』에서 제시하는 ‘변용’과 변용을 통한 인식에 해당하는 ‘상상’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셋째로, 장정연(2018, 2021)의 연구는 스피노자의 정서와 이성 개념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변용을 검토하고 있다. “스피노자의 실천철학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장정연, 2021: 122)라는 질문을 연구의 바탕에 두고, 실제 국내의 한 센터에서 이루어진- “정신장애인들이 동물매개활동에 참여”(장정연, 2021: 123)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4년 동안의 활동- 사례를 스피노자의 논의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실제 경험사례를 스피노자 사유에서 전개되는 개념들의 지평에 위치 지우고자 하는 시도는 본 연구가 목표하는바-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경험적인 현상들을 스피노자의 논의에 적용하기-와 맞닿아 있다. 장정연(2021)의 연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들의 자기 기술을 스피노자의 『윤리학』 4부 정리들로 재구성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정서와 이성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로서 겪게 되는 욕망적 삶과 다르지 않”(장정연, 2021: 152)으며, 정신장애인은 “수동적인 정서와 능동적인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 자신의 삶과 대결”(장정연, 2021: 152)하면서, 스스로가 처한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

11) 스피노자의 ‘변용’ 개념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정동’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본 논의의 범위를 넘어설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를 본 논의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부족한 역량에서 비롯한 것이며, 국내의 ‘정동이론’ 수용과 스피노자 철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로 남겨놓고자 한다.

장정연(2021)의 연구는 감정과 이성이 정신장애인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특히 스피노자의 감정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변용을 연구의 중심 개념에 두었음에도 변용을 통해 얻은 인식에 해당하는 '상상'을 주로 다루지는 않았다. 우리의 연구가 스피노자 철학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경험이 개인의 행위 및 실존 역량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세계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서 대수롭지 않게 스며들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비장애중심주의적 시선은 장애 당사자들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외부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런 외부 원인들이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장정연(2021)의 연구가 정신장애인들의 삶에 관한 기술 자체로 확인하였다면, 비장애중심주의 공동체에서 마치 합의된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편견에 대한 재구성, 즉 재해석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 역시 스피노자 철학이 시도해야 하는 주제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장정연(2018)의 연구는 스피노자의 『윤리학』 3부의 진행에 따라 정신장애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재구성하고 있는데, 이때 언급하고 있는 정서 산출 원인의 특성은 '우연성, 유사성, 시간성, 타자 의존성, 정서모방'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정서가 '우연적인 인접성에 의한 연합'으로 산출"(장정연, 2018: 185)된다는 점은 우리의 연구의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경험을 통한 인식'의 우연성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장정연(2018)의 연구가 스피노자의 정서론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원인으로서의 유사성'- "어떤 실재가 보통 정신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변용하는 대상과 유사하다고 '우리가 상상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장정연, 2018: 188)-은 앞으로 진행할 우리의 연구에서 하나의 논점이 된다.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을 비롯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많은 편견은 그것이 사회에서 수용되어야 하는 어떤 내재적인 필연성도 가지지 않으며, 특정 경험 사례들이 많이 축적되고, 그 사례들이 단지 많다는 이유로 어떤 의심 없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불어난 눈덩이에 불과하다.

장정연(2018)은 "이러한 유사성에 대한 상상"(장정연, 2018: 189)을 통해 기쁨, 사랑, 애호 등의 감정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촉발된 사례들에 주목한다. 이는 감정을 통해 얻어지는 인식이 무차별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이 강렬한 실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인상이 갑자기 긍정적인 것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같은 논리를 근거로 비장애중심사회가 무심코 재생산하는 여타의 인상과 경험을 근거로 하는 인식들이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역량 변화의 계기로 이해하기보다는 인식의 차원에서, 개인의 자기 인식과 세계 이해와 추상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경로를 좇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에서는 변용과 변용을 통한 인식의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행연구는 최진(2022)의 것이다. 최진(2022)의 연구는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대한 정당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의 권한 행사를 지원하거나 독려하기 위한 제반 시설이나 제도가 미비한 탓에 결과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진(2022)의 연구는 『윤리학』의 개체 개념에서 상호의존성을 도출한다는 지점에서 우리의 연구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스피노자에게 "개체는 개인과 같이 분절되고 독립된 '실체'로서 이해되지 않"(최진, 2022: 176)기 때문에, 앞선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피노자에게 인간은 특정한 능력에 근거해 자격을 얻고 그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통해 존재를 이해하는 스피노자 연구의 특이성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가 변화해야만 하는 당위를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3. 스피노자의 철학적 태도와 본 연구의 한계

우리의 연구가 스피노자의 논의를 통해 비장애중심사회를 비난하고 당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스피노자의 철학적 태도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정치론』 서문에서 기존의 철학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특정한 양상을 결점으로 여기고 비웃거나 비난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인간의 감정은 결점이 아니라 본성이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연구도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스피노자의 철학적 태도를 따르고자 한다.

비난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전략이나 비장애중심주의가 얼마나 비장애인들에게 손해인지를 설명하면서 장애인에 관한 관심-심지어는 동정-을 호소하는 전략은 그 효과성에 한계가 명확하며, 또 다른 장애 개념을 재생산할 위험이 다분하다. 이미 비장애중심주의적 사회 속에 이미 항상 살아온 비장애인들은 이제까지 각자가 경험한 바에 따라 세계를 판단하며, 기존의 비장애중심적 사회에 구성된 장애 개념이 재생산되고 있다. 비장애인의 편향된 사유와 비장애중심적 사회의 한계는 비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이 장애를 재생산하고 지속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때의 이해란 정당화가 아니라 그 발생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의 재해석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의미하는 장애 개념이 어떻게 지속되고 재생산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한 사물의 지속과 재생산의 과정을 검토하는 작업은 바로 그것의 해체와 재해석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에 관한 연구는 장애 당사자, 장애인 가족과 돌봄 노동자 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불특정한 비장애인을 포함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 즉 인간 일반을 고려

하며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를 재생산하는 행위자이자 재해석 할 수 있는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과 행위를 근본적으로 구별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일단 서로에 대해 차별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구분은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실존하고 있음, 타인과 관계 맺고 있음,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함과 같은 상황 자체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공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개인들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말이다.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서로가 이미 그리고 항상 맺고 있는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서로를 무관한 존재처럼 여기고 서로에게 소외받기 쉽다. 여전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한 인식이 빚어내는 오해와 거짓된 관념들의 재생산 구조이며, 이런 인식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작동 기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경험과 경험을 통한 인식이 보이는 특성 말이다.

다른 한편, 이런 논의에서 본 연구가 경계해야 하는 점은 회의주의적 태도이다. 우리 사회의 비장애중심주의와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편견이 우리 경험의 역사가 빚어낸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실현한단 말인가? 혹자는 허무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가 변화 가능성, 다시 말해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을 확보하는 근거 역시 결과적으로는 경험과 경험을 통한 인식이다. 결국 우리를 자극하고 변화하게 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경험이다. 비장애중심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특정한 장애 개념을 재생산하는 것이 경험에 의해 이루어졌듯이, 비장애중심적인 사회에 균열을 가하고 장애를 재해석하는 것 역시 경험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 운동이 비장애인의 좋은 경험을 위해 톤폴리싱-좋은 말로, 친절하게 말하기를 요구하는 백래시,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편견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기 위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하라거나 비장애인의 편의를 배려해서 권리주장을 펼치고, 비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게 친절하게 설명하라는 등-을 권한다고 오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모든 경험이 항상 장애의 재해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과 경험을 통한 인식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상상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과 주장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지지할 테고 혐오할 것이다. 본 연구가 백전백승의 장애운동을 위한 묘책과 비장애중심주의 혁파를 위한 정답을 선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험이 인간의 일차적인 인상 및 인식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주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무자비한 민낯을 직시하고 다르게 살기를 상상하고 다르게 관계 맺기를 구상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피노자의 인식론-특히, 상상 개념-을 주제화하여 장애학을 전개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인식이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의 지속과 변화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역으로 사회-정치적 경험에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본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미 항상 존재하고 있는 개인들의 경험을 통한 인식의 특성들의 양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경험의 양면성 분석은 인간 인식의 근본 조건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마지막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본 논의의 범위는 스피노자의 인식론의 '부분'을 다룬다는 점이다. 스피노자에게 인식은 세 종류로 구분된다. (1) "무작위적 경험에 의한 인식"(E2P40S)과 기억, 회상을 통한 관념의 형성을 1종 인식인 상상, (2) "공통관념들과 사물들의 성질들에 대한 적합한 관념"들을 토대로 한 인식을 2종 인식인 이성, (3) "사물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인 3종 인식인 직관지. 이 가운데 본 연구는 1종 인식인 상상만을 주제로 한다.

2종, 3종 인식과는 달리 1종 인식인 상상은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신과 편견은 모두 상상에서 비롯한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적합한 인식을 통해 인간이 감정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고 말한다. 이때 스피노자는 1종 인식과 2, 3종 인식을 다소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제3종의 인식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정신의 최고의 만족이 생겨난다."(E5P27) "사물을 제3종의 인식으로 인식하려는 노력 혹은 욕망은 제1종인식이 아니라 확실히 제2종의 인식에서 생겨날 수 있다"(E5P28) "정신이 제2종과 제3종 인식으로 더 많은 사물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정신은 그만큼 덜 나쁜 감정들을 겪게 되고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E5P38)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 앞서 우리는 상상이 스피노자 인식론은 물론 철학 체계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상은 인간이 일차적으로 세계와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근거가 되며, 감정의 발생과 변화도 상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상상은 자신과 외부 사물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오류의 원인이 되지만 인간은 상상을 거치지 않고서는 세계의 실존에 대한 지각을 얻을 수 없다. 상상은 인간 정신이 자기 자신과 외부 사물의 실존을 지각하는 유일한 방법에 해당한다. "정신은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E2P23) "인간 정신은 오직 자기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을 통해서만 외부 물체를 실제로 실존하는 것으로 지각한다."(E2P26) 따라서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정신은 자기 자신, 외부 사물, 그리고 세계의 실존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상상은 일차적인 사유의 재료를 획득하는 유일한 경로가 된다. 그것이 부적합한 관념들을 양산한다고 해도 말이다. 상

VOICEYE voiceye.com

상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 조건이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부적합한 관념을 구성하는 사태의 기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의 재해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른 삶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재생산과 비장애중심적사회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연구는 상상에서 시작한다.

Ⅲ. 상상의 양면성

1. 이미지의 관성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사건의 관찰자-또는 방관자-로 자리하면서, 또는 타인의 주장을 타당하고 여기고 수용하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기준을 세운다. 또한 사회가 제시하는 법과 제도를 따르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통용되는 상식을 습득한다. 대부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통념들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외부 환경에서 받아들인 것들이다. 이렇게 한번 학습된 통념들에 동의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계속 그 견해를 고수하려 한다. 이렇듯 관념이나 우리의 관점은 마치 자연 사물처럼 관성을 가지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은연중에 학습된 장애에 대한 편견은 쉽게 제거되거나 교정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속되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앞선 우리의 문제의식에 따라 재서술하자면, 장애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유지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장애의 재생산 과정은 단순히 편견의 재생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사물들에 대한 인식 일반에 동일하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는 상상을 통한 이미지의 형성 과정과 그 이미지가 가지는 관성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의 관성은 장애가 재생산되는 과정뿐 아니라 장애가 재해석 되는 과정에도 관여한다.

스피노자에게 사물의 이미지는 “인간 신체의 변용”(E2P17CS)이다. 스피노자는 “그리고 정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신체를 사유할 때, 우리는 정신이 상상한다고”(같은 곳)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 신체는 외부사물에 의해 변용을 겪으며, 이 변용을 통해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에 대한 사유를 상상이라 부른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가 주목하는 경험에 대한 사유는 스피노자에게 상상으로 정의된다.[12] 그렇다면 본 절에서 우선 규명해야 할 개념

12) 스피노자는『윤리학』2부 정리 40 주석 2에서 다음과 같이 상상을 정의한다. “1. 지성에게는 단편적이

은 '변용'[13]에 해당할 것이다. 사물의 이미지는 바로 우리 신체가 외부사물에 의해 변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물체가 많은 방식으로 변용됨을 느낀다."(E2A4) 이 서술은 연장, 즉 물질의 차원에서 우리 신체의 작용을 말한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신체가 겪은 경험은 정신에도 동일하게 반영된다. 이는 스피노자의 철학이 사유와 연장 각각을 실체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속성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관념들의 질서 및 연관은 사물들의 질서 및 연관과 동일하다."(E2P7)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가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한 지배관계나 인과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 정신과 신체, 사유와 물질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철학자들마다의 주요한 과제였으며, 스피노자의 동시대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정신이 신체가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에게 관념은 그 특성상 항상 대상을 가지는 '무엇에 대한 관념'이며, 상상의 경우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이라고 말하지만, 관념의 원인은 다른 관념이고 신체의 원인은 다른 사물이라고 말한다.[14] 서로 다른 속성의 양태에 해당하는 정신과 신체는 서로 같은 것을 표현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신이 우리 신체에 대한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신을 이루는 관념들은 신체적 경험에 상응한다.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E2P13)이며,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들의 실존을 인식한다.[15] 이제까지 우리는 신체가 겪는 경험에 상응하는 것이 관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

고 혼동되며 무질서한 방식으로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재현되는 개별자들로부터 (2부의 정리 29 따름정리를 보라). 이러한 이유로 나는 그러한 지각을 무작위적 경험에 의한 인식으로 부르곤 했다. 2. 기호들로부터,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을 듣거나 읽으면서 사물들을 기억하고, 그 사물들에 대해 우리가 사물들을 상상할 때 갖는 관념들과 유사한 어떤 관념들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2부 정리 18의 주석을 보라). 사물들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이후에 나는 제1종의 인식. 억측 혹은 상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본 정의와 상상 개념과 둘러싼 『윤리학』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거나 변화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스피노자의 철학은 어떤 측면에서는 변용의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의는 변용이 인간의 경험과 사유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변용은 스피노자의 존재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피노자 철학 체계에서 실체-존재와 사유를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인 신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 초월적이거나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무한에서 유한한 것이 직접적으로 유출되지도 않는다. 스피노자가 이 사이에서 낸 제3의 길은 바로 변용이다. "개별사물들은 신의 속성들의 변용들, 달리 말해 신의 속성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들"(E1P25C)이다. 스피노자에게 인간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양태로 정의된다. 양태는 존재하거나 사유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물을 원인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때 다른 사물이란 다른 존재하는 양태를 말한다. 유한한 사물의 실존과 사유의 작동에 있어서 신은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변용된 것'으로 관여한다.

14) "…사물들이 사유 양태로서 고려되는 한에서 우리는 자연 전체의 질서 혹은 원인들의 연관을 오직 사유 속성에 의해서 설명해야만 하며, 사물들이 연장의 양태로 고려되는 한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연 전체의 질서를 오직 연장 속성에 의해 설명해야 한다."(E2P7S)

15) "인간 정신은 신체가 겪는 변용들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면 인간 신체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VOICEYE
voiceye.com

하는 스피노자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신체의 변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미지의 지속 및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스피노자에게 신체의 작동은 모든 물체와 동일한 운동법칙을 따른다. 모든 물체는 운동하고 있거나, 정지해있다. 운동하고 있거나 정지해 있는 이 상태는 다른 사물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16] 한 물체의 운동상태는 어떤 물체가 가한 충격을 통해 결정된다. 또한 현재의 운동상태는 다른 물체에 의해 야기된 충격이 없는 한 지속된다. 인간의 신체는 자신의 지속을 위해 많은 다른 물체들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그 자체도 역시 많은 개체들로 구성된다.[17] 여기서 말하는 개체란 운동상태가 같거나 다른, 서로 다른 물체들이 하나의 관계를 구성하면서 서로의 운동을 전달하는 상태일 때, 이때 유지되는 관계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인간 신체를 포함한 모든 사물은-심지어는 인간 정신마저도-여러 사물이 부분으로 참여하면서 특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성체에 해당한다.

개체와 신체에 대한 논의를 인간 정신에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관념들이 특정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유지할 때, 인간 각각의 정신은 이런 관념들의 구성체에 해당한다. 인간 정신 역시 그 보존을 위해 다른 많은 관념들을 필요로 한다. 스피노자에게는 특히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역시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주체라거나 관념을 담고 있는 용기와 같은 의미의 정신 개념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신이라는 사물은 관념들의 특정한 연관에 해당한다.

단순한 물체에서 관성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계속 운동을 유지하는 것,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정지를 지속하는 것이라면, 여러 물체들로 구성된 개체에 있어 관성 개념이란 무엇일까?[18] 부분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물체들이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관계-즉, 개체=가 유지되는 한, 그 개

실존한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E2P19) "정신은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E2P23) "정신은 오직 자기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을 통해서만 외부 물체를 실제로 실존하는 것으로 지각한다,"(E2P26)

16)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결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다른 물체 또한 또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하거 정지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후자도 다시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무한히 계속된다."(E2P13L3)

17) "보존되기 위해서 인간 신체는 이를테면 자신을 계속 재생해 주는 아주 많은 다른 물체를 필요로 한다."(E2P13Po5) "인간 신체는 구성도가 높은 (상이한 본성의) 아주 많은 개체들로 구성된다"(E2P13Po1)

18) 본 절에서 지금까지 인용하고 있는 논의는『윤리학』2부 정리 13과 14 사이에 제시되는 공리, 정의, 보조정리, 공준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부분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명「자연학 소론」이라고 불리는 대목이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가장 단순한 물체, 즉 서로 다른 본성의 여러 물체들로 구성되지 않은 가상적인 물체-실존하는 모든 물체는 구성된 것이므로, 이는 가상적이다-의 경우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해당 특성을 구성된 물체인 개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체는 계속 그 본성을 유지하게 된다. 부분으로 참여하는 물체들이 교체되거나 그 수가 변하거나, 운동의 방향이 변하더라도 여전히 부분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자신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해당한다.[19]

관성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성향일 때, 이미지의 관성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신체의 변용을 통해 구성된 이미지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 나아가 변화할만한 상황에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장애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때, 다시 말해 한 인간이 경험-신체의 변용-을 통해, 비장애중심적인 관점의 장애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때[20], 이 이미지 자체가 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비장애중심적인 장애라는 이미지가 개인들 각자에게 한번 학습되고 나서,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지속될 때, 나아가 그것이 더욱 확고해지고 다른 부정적 관념이나 감정들과 연관을 맺을 때, 장애는 재생산된다.

이미지의 관성은 특히 상상에서 강화될 수 있는데, 변용을 통해 형성된 외부 사물에 대한 이미지와 그에 대한 관념은 그 사물의 실제 존재 상태와 무관하게 지속된다. 그 사물의 실존을 배제하는 다른 변용을 겪을 때까지 해당 이미지는 지속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 현존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일이"(E2P17S) 일어나는 것이다. 신체의 변용을 통해 어떤 외부 물체에 대한 특정한 개념을 이미 획득했을 때, 우리는 그 개념이 기각되는 또 다른 변용을 겪기 전까지 그 개념이 실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상상이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상상이 모두 오류를 양산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오류를 범하는 것은 상상 자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현존하는 것처럼 상상되는 사물의 실존을 배제하는 관념이 정신 안에 부재"(E2P17S)할 때에만 그렇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태의 전체적인 이해, 어떤 개념의 기각가능성, 그때는 맞는 것일지라도 지금은 틀리다는 것을, 또는 그 역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만 상상은 오류를 범한다. 스피노자는 실존하지 않는 사물을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존한다고 여길 수 있는 상상은 "본성의 결함이 아니라 탁월함으로 간주"(같은 곳)한다.

자신이 실존한다고 여기는 어떤 경험에 대한 관념이, 따라서 옳다고 여기는 판단이 특정한 조

---

19) 자연학 소론에서 유추할 수 있는 관성 개념은 17세기 자연철학의 성과에 대한 단순한 수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운동상태를 보존하는 것을 본성에 대한 유지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면, 물체의 관성은 우리가 2장에서 선행연구를 소개하면서 언급했던 '코나투스'로 연결된다. 모든 물체가 자기 존재 안에 머무르려는 노력이자 외부사물에 대항해 또는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본성을 펼치려는 노력인 코나투스는 자신의 운동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확대된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 이어지는 3절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은 변용의 원인인 물체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포함한다.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들에 의해 변용을 겪는 방식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한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하게 되어 있다."(E2P16) 따라서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장애라는 이미지는 경험하는 신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신체가 겪은 사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VOICEYE voiceye.com

건에서 한정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조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분적 귀결에 해당하는 어떤 사태에 대한 개념은 부분적인 인식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은 거짓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개념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의 구성에 관여하는 사회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한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은 부분적이며 따라서 틀린 것이다. 또한 특정한 경험을 통해 장애란 무엇이다라고 인식할 때, 그런 이해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더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그런 이해의 실존을 배제하는 관념을 함께 가지지 못할 때, 이를 근거로 한 장애에 대한 인식은 오류에 해당한다. 물론 그것이 오류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그런 내용의 장애는 유지되고 재생산되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관념인 한에서나 물체인 한에서나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1) “원인이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경우”[21] (2) “필연적이라고 상상하는 사물”(E4P11) (3) “그 사물이 현재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경우”(E4P12C) 이 경우들에서 어떤 대상이 다른 사물의 참된 원인인지, 그리고 원인으로 여기는 사물이 실제로 실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필연적인지, 현재 우리에게 실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런 사태를 야기하는 근거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한다는 것이 그 변용과 그 변용에 대한 관념, 즉 그 감정을 강하게 작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감정, 신체의 변용, 그에 대한 관념 그리고 사물 일반에 대하여 다른 외부 원인에 의해 쉽게 파괴되거나 교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구성한 변용은 “더 강한 변용에 의해 그 신체를 변용시키는 (2부 정리 6에 의해) 물체적인 원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억제되거나 제거될 수 없다.”(E4P7dem) 어떤 관념이든 사물이든 외부사물로 구성된 환경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비장애중심적 사회에서 구성된 장애 개념의 원인을 확신하면서 그것이 실재한다고 여기고, 그러한 장애는 필연적이며, 우리의 삶에 이런 장애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긴다면, 이런 장애 개념은 재생산을 거듭할 뿐 재해석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절에서 우리가 관성을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만 한정해서 독해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해석이다. 한 사물의 운동상태와 한 신체의 변용은 고정불변한 것도, 본유적인 것도, 영원한

---

21) 이는 감정을 주제로 하는『윤리학』4부 정리9에 근거한 내용이다. “감정은, 우리가 그 원인이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경우, 그 원인이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지 않다고 상상하는 경우보다 더 강하다.” 또한 다른 조건들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정리 역시 4부의 감정을 다루는 서술에 해당한다. 감정은 감정을 겪는 존재의 역량을 변화시키는 신체의 변용들이자 그에 대한 관념들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관한 논의 역시 상상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정리에 따르면 원인의 현존을 상상하는 경우, 그 결과에 해당하는 변용에 대한 관념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그것은 외부사물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특정한 상태의 유지는 이를 대체하는 또는 부정하는 변용을 겪기 전까지만 유지된다. 관성이라는 개념은 물체의 지속을 설명하는 동시에 외부 원인에 의한 결정을 함의한다. 그 물체는 자의적인 의지나 초월적인 것의 개입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라도 외부 원인, 즉 동일한 지위의 다른 물체에 의해 파괴되거나 변화할 가능성을 보장한다.

또한 상상이 오류의 원인이 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우리 신체의 근본적인 조건을 바꾼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인간 신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은 외부 물체들에 의해 아주 많은 방식으로 변용을 겪으며, 그에 따라 인간 신체 자체도 아주 많은 방식으로 변용을 겪는다.”(E2P13Po3) 그리고 정신은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을 지각하므로 “아주 많은 것을 지각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은 그것의 신체가 보다 많은 방식으로 배치될수록 그만큼 더 커진다.”(E2P14)

따라서 장애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재생산되지만,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외부적 조건이 기존의 인식을 기각하지 않는 한, 또한 기존의 인식을 참으로 여기고 이를 부정하는 다른 인식을 습득하지 못하는 한, 사회적 배제로서의 장애 개념은 관성을 가지며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생산될 것이다. 장애라는 개념이 개인의 내부적 또는 본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학습된 것인 한에서, 신체를 다르게 변용시키는 또 다른 경험에 의해 장애는 재해석될 것이다. 장애에 대한 재생산과 재해석은 모두 경험에 의해, 일차적으로 우리 신체의 변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의 재생산이 재해석으로 가는 통과의례라고 말할 수 없으며, 장애의 재해석에 대한 가능성이 절멸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장애의 재생산과 재해석 사이의 긴장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본 절에서는 경험을 통한 인식이 발생을 중심으로 그 양면성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경험을 통한 인식에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이 연관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연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상상의 우연성에 대한 검토는 장애에 대한 흔한 편견들이 어떤 정합성도 갖추지 못함을 드러낼 것이다.

KCI VOICEYE voiceye.com

2. 상상의 우연성[22)]

상상, 즉 경험을 통한 인식은 우리가 관념을 획득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경험에서 배운 바에 따라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곤 한다. 그런데 이런 인식 내용은 사실상 두 가지 차원에서 우연히 형성된 것이다. (1) 경험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2) 경험을 통한 인식에서 발생하는 관념들 사이의 연관이 우연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험을 통한 인식이 참된 인식이라는 점이 보증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경험을 통한 인식은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 이해에 대한 근거로 작동하곤 하지만, 이런 인식들이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의 판단에 대해 스스로 행하는 검토와 반성은 장애의 재해석의 적극적인 실천이 될 것이다.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변용을 겪는 우리 신체와 정신에 연관된 과정이므로 각자의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이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경험의 무차별성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겪을지, 또는 겪지 않을지를 취사선택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논의가 전제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가 가지는 비장애중심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경험이 비장애중심적인 경향을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환경적 특성 또는 경향성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개인이 마주하는 경험 모두를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공동체의 편향성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일지라도, 그리고 개인들의 판단이 가지는 편향성이 경험을 통해 구성된 것일지라도, 인식의 질서-이 인식이 상상인 한에서-와 자연의 질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구별은 기억에 관한 규정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기억은 인간 신체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본성을 함축하는 관념들의 특정한 연쇄에 다름 아니며, 이 연쇄는 인간 신체의 변용들의 질서 및 연쇄에 따라 정신 속에서 형성된다.”(E2P18S) 이 연쇄는 -이어지는 3절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변용되는 신체의 구성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변용되는 인간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엄밀하게는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바와 변용에 근거해 인식한 사물에 관한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23)]

---

22) 논의에 앞서 스피노자 철학에서 우연에 대한 의미를 지적하는 것이 좋겠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1부 전체를 할애하면서 자신의 존재론을 증명하고 펼친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신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내재적 원인이며, 모든 자연 사물들은 신의 속성에 대한 특정한 표현으로서,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된다.”(E1P29) 따라서 스피노자의 세계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연은 “우리 인식의 결여”(E1P33S1)를 말할 뿐이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발생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는 우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절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식이 세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인식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따라서 왜곡된 인식이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3절에서는 상상에 대한 인식이 무엇에 대한 부분적 인식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물들의 질서와 원인들의 연관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실제적이기보다는 상상적이다."(E4P62S) 세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특히 경험을 근거로 할 경우, 부분적이고 혼동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고 해로운 것은 피하려는 노력,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 보존을 지속하려는 노력-코나투스-으로서 행위하고 판단한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해롭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나아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관한 판단에 근거한다. 이런 판단은 앞 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인식을 기초로 한다.[24]

그러나 경험을 경유한 우리의 인식이 세계에 대한 왜곡된 이해, 즉 편견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를 경험 자체에 물을 수는 없다. 우리가 편견에 의지해 이러저러한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험은 매일같이 반박"(E1App)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적합한 인식과 상충하는 경험에 우리는 이미 그리고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경험의 무차별성은 우리가 옳다거나 그르다고 여기는 통념들을 다시 검토하게 하는 계기로 나타난다. 물론 그런 경험들에 관해 우리가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또다시 곡해하는 식의 확증편향에 빠질 수도 있지만 말이다.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험 A에 대한 관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곡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떤 인간 정신이 구성하고 있는 관념들의 특정한 연관과 질서에 근거해 경험 A에 대한 관념이 기존에 관념을 기각하는 원인으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험 A에 대한 관념이 이 경험을 겪은 인간의 존재 보존 노력-코나투스-에 해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겨진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경험 A에 대한 관념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이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적합한 인식을 근거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은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을 때나 혼동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을 때나 무한정한 지속 속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자신의 코나투스를 의식한다."(E3P9)

이제 상상의 내용이 어떻게 우연적인지를 살펴보자. 스피노자에게 인식은 관념들이 서로 연관

---

23) 다만 이 논의는 1종 인식인 상상에 한정해서만 유효하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스피노자의 인식론에는 2종 인식인 이성과 3종 인식인 직관 역시 인간의 인식을 구성한다. 이성은 사물들을 "참되게, …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각한다."(E2P44C2dem) 이는 자연의 질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종 인식 역시 사물들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일상적인 인식의 재료인 경험에 대한 주목과 경험을 통한 인식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하기에, 스피노자의 인식론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는 셈이다.

24) "정신은 다른 원인에 의해 다른 것을 사유하도록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물에 대한 고려에 붙잡혀 있게 될 것이다." 해당 구절은 『윤리학』 3부 감정들에 대한 정리 4번인 경이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된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의 작용 역시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들의 연관관계에 편입되거나 기존의 어떤 관념을 대체하거나 연관되는 방식 자체를 바꾸거나 하는 일련의 상태를 우리는 상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절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상상의 우연성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은 상상을 통해 한 인간의 정신에 구성되는 관념들 사이의 연관이 바로 우연적이라는 것이다.

여러 물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과 다른 물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은 “인간 신체가 동시에 둘 혹은 여러 물체들에 의해 한번 변용을 겪은 경우”(E2P18)에 서로 연관된다. 여기서 어떤 둘 혹은 여러 관념들이 연관된 이유는 이들이 동시에 한 신체에 변용되었기 때문이다. 신체의 변용을 통해 연관된 관념들 사이의 연관은 어떤 인과성이나 필연적인 이유 없이도 생겨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작용인 상상에 기대고 있는 우리의 인식과 판단은 사실상 우연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각자의 경험, 우리 공동체가 역사로 수용하고 있는 이전 시대의 경험, 이것들이 그 자체로 특정 개념을 정의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는 공중누각에 불과하다.

또한 어떤 대상에 감정이 결합되는 과정에서도 우연성이 드러난다. “각 사물은 우연에 의해 기쁨, 슬픔 또는 욕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E3P15)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때, 그 사물이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사물을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으로 바라본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E3P15C) 특정 사물에 대한 관념이 기쁨이나 슬픔과 연관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모든 감정이 우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물에 대해 가지는 감정-또는 인상 등-은 우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다른 이유로 기쁘거나 슬플 때, 사물 A를 바라본다면, 이 사물 A가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했다고 여길 수 있다. 어떤 사물이 나의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나의 코나투스를 위한 유용성의 규칙에서 한편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 사물이 나에게 이롭다면 나는 이 사물을 더 취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 사물과 관계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사물이 나에게 해롭다면 나는 이 사물을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미워하고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일련의 행위와 판단의 전제는 관념과 감정의 우연한 결합에서 시작된다.

스피노자는 공감과 반감으로까지 이 논의를 적용한다.[25] 이 역시 모든 공감과 반감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공감과 반감은 우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한다.

---

25)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원인도 없이 단지 (사람들이 말하는) 공감이나 반감에 의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E3P15S)

이는 우리가 가지는 공감과 반감의 구조를 톺아보게 하는 계기로서 작동할 것이다. 단적으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가공된 장애인 캐릭터에게는 공감하면서 실존하는 이웃의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공감하지 못할 때, 심지어는 반감을 가질 때 이런 감정들의 발생은 사실상 우연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태도, 우리 공동체가 장애라는 주제와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과 그에 딸려 오는 식상한 감정에 대한 호소는 사실상 장애인 개인의 삶과 무관한 것일 수 있다는 것, 인과적인 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나 태도 감정이 우연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우연하게 어떤 것에나 공감할 수도 있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둘러싸인 외부사물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수한 사건들을 우리의 통제 아래 두고 조절하거나 선택할 수 없으며, 우리가 겪는 경험의 인과연쇄를 빈틈없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가 인과관계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우연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신념들 자유롭게 내린 것이라고 믿는 판단들은 우연적이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개념들과 내 것이라고 여기는 감정들과 판단들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예고 없이 덮쳐온 우연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촉발된 자유롭고 이성적이라는 인간의 감정과 판단은 사실상 각자에게 가깝고 친숙한 것과의 연결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우연성이 상상에 관해 가지는 이중성은 이제까지 우리의 공감이나 반감의 발생이 우연적일 수 있는 만큼, 이전의 우리의 행위와 판단과는 무관하게-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연하게- 전에 공감하지 못한 사건과 대상에 열렬히 지지를 보낼 수도, 전에 무관심했던 사건과 대상에 적극적으로 함께 분노하며 연대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3. 상상의 부분성

본 장의 1절에서 장애가 어떻게 재생산되며 또 어떻게 재해석 될 수 있는가를 이미지의 관성의 이중성을 근거로 살펴보았고, 2절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획득한 앎이 무차별적인 경험에 의해, 그리고 경험을 재료로 한 인식의 과정에서도 우연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전개하면서 우리는 상상이 부분적인 인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본 절에서는 상상이 왜 부분적인 인식인지, 그리고 무엇에 대한 부분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들에 의해 변용을 겪는 방식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한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하게 되어 있다.”(E2P16) 상상이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을 통한 인식일 때, 변용은 변용을 야기하는 외부 물체와 변용을 겪는 우리 신체의 만남이다. 정역학적 용어로 이 변용은 충돌과 흔적의 발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이 변용은 외부 사물과 우리 신체의 만남이자, 광의의 의미에서 관계맺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26]

VOICEYE KOR voiceye.com

그런데 변용에 대한 관념에서 포함하는 외부 물체의 본성은 '인간 신체에 특정한 방식으로 변용된 한에서의' 본성을 말한다. 동시에 변용에서 함축하는 인간 신체의 본성 역시 '인간 신체에 특정한 방식으로 변용된 한에서의' 본성이다. 따라서 상상은 외부 물체와 인간 신체의 본성에 대한 조건적인, 따라서 '부분적인 인식'이다. 변용의 원인이 되는 외부 물체의 본성과 변용을 겪는 인간 신체의 본성을 모두 부분적으로만 함축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공통 질서에 따라 사물을 지각할 때마다 인간 정신은 자기 자신, 자신의 신체, 외부 물체에 대해 적합한 인식이 아니라 단지 혼동되고 단편적인(부분적인) 인식만을 갖게 된다."(E2P29C, 괄호 안 표현은 필자가 첨가함) 신체의 변용을 통해 얻은 우리 신체에 대한 관념과 외부 물체에 대한 관념이 각각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각각을 부적합하게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변용을 통한 인식, 다시 말해 경험을 경유해 알게 된 바가 사태의 일면에 불과하며 절대 사태 자체, 또는 사태의 본질을 전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얻은 세계에 대한 인식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이미 놓치고 있는 다른 무수한 면들을 염두에 두면서 세계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구성하는 다른 원인들에 대한 상상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용을 통해 얻은 인식으로서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신체에 특정한 방식으로 변용되는 한에서의' 외부 물체와 우리 신체의 본성은 우리 신체의 구성상태를 반영한다. "각자는 자신의 뇌의 구성에 따라 사물들을 판단해 왔다 …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상상의 변용들을 사물들로 간주해 왔다"(E1App) 다시 말해 "그들은 어떤 사물의 본성에 대해, 자신들이 그것에 의해 변용되는 방식에 따라 좋거나 나쁘고, 멀쩡하거나 썩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한다."(같은 곳) 자신에게 유용한지 해로운지에 따라 각각이 정의와 부정의로 여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유용함의 규칙은 인간 본성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겪고 느낀 바가 마치 세상의 진리의 전체인 것처럼 여기는 세계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다.

상상은 신체 구성상태를 반영한다는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개인들이 저마다 동일하게 상상한

---

26) 변용을 관계맺기로 표현하는 것이 스피노자적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스피노자가 여러 사물들이 구성하는 하나의 관계를 개별 사물 또는 개체로 정의하기 때문에, 관계맺기는 존재의 발생에 대한 유의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변용을 외부 물체와 우리 신체 사이의 관계맺기라고 일컬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용을 겪은 우리 신체에 남은 흔적을 근거로 변용의 원인이 되는 사물의 현존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을 기억하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계 이해에도 신체가 겪은 변용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런 변용에 의한 영향은 변용을 시킨 물체에 대해 특정한-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인- 방식이겠지만 말이다.

다고 말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편 관념이 과연 보편인가를 의심할 수 있다. “각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사물들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E2P40S1) 따라서 인간이라는 보편개념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경험을 자주 겪었는가, 자기 신체의 구성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인간이라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 범위, 자격 등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정의하는 근거로 ‘직립보행’ ‘이성 능력의 사용’ 등으로 설정한다면, 이는 그런 특성들이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고 동의한 사람들이 자주 경험한 바와 그들의 신체 구성상태가 그러함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이미지가 다른 변용에 의해 대체되듯이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신체 구성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전의 정의는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다.

여기서 신체의 구성상태란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신체가 다른 물체와 관계 맺는 방식, 즉 한 인간의 삶의 양식 또는 실존 조건을 말한다. “각자는, 자신의 습성에 의해 사물의 이미지들이 신체 속에 특정 질서로 연쇄됨에 따라 하나의 사유에서 다른 사유로 옮겨 갈 것이다”(E2P18S) 스피노자는 “모래 위에 남겨진 말의 흔적”(같은 곳)에 대한 농부의 사유와 군인의 사유가 다르다고 말한다. 농부는 말과 작물을 생산하는 행위로 관계하고 있으며 말을 밭을 가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군인은 말을 전쟁과 훈련을 수행하는 행위로 관계하고 말을 기사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는 각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물에 대해 다른 변용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A는 인간 B와는 다른 삶을 살고 같은 공동체, 같은 시공간에서도 다른 경험을 겪는다면, 그리고 서로의 경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심지어는 아예 모른다면- 동일한 사물과 사태에 대해 인간 A와 B는 서로 다른 인식을 얻고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다. 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지각할-듣고 볼- 수 없다면, 개인들의 변용이 개별화되고 그 변용에 근거한 인식이 파편화될 것이다. 나아가 서로를 상반된 존재로 여기고 서로를 각자의 존재에 해로운 것으로 여겨 피하거나 파괴하려들 것이다.

그럼에도 경험, 변용을 통한 인식에 주목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상이한 인간들이 하나의 동일한 대상에 상이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으며, 하나의 동일한 인간이 하나의 동일한 대상에 의해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다.”(E3P51) 1절에서 다루었듯이 변용이 외부 사물에 의한 일어나는 것으로서 다른 것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가지며, 2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변용의 내용이 구성되는데 있어 우연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변용은 외부 원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변용될 수 있다. 비장애중심적인 사회가 지난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은 변용을 우리가 이해한 바라면, 각자가 변용된 바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변용될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Ⅳ. 결론

비장애중심적인 사회가 손상이 있는 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이들을 장애인으로 규정할 때, 이런 사회에서도 장애는 재해석될 수 있는가? 또한 사회적 장애모델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장애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 연구는 이 두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위의 질문에 하나의 대답을 위해 우리는 스피노자의 상상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주목했다. 우선 상상은 신체의 변용, 즉 이미지에 대한 관념을 통해 구성되므로, 우리가 외부사물에 의한 변용을 통해 구성한 하나의 이미지 또는 관념은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경험을 겪기 전까지는 지속된다. 동시에 이런 이미지들이 본유적이거나 그 자체로 항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사물의 변용에 의해 다른 이미지로 수정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다른 충돌 없이는 기존의 운동이 지속되지만, 외부사물과의 만남에 의해서 사물의 운동상태가 결정된다는 점이 바로 이미지의 관성에 해당한다.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인식 역시 변용이자 이미지라고 할 때, 장애에 대한 우리의 변용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다른 경험을 하기 전까지 지속되거나 심지어는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험을 한다면 그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변할 것이다. 장애 개념에 대한 변화, 즉 장애의 재해석은 장애가 이미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장되어 있다.

둘째로 우리가 검토한 것은 경험과 상상이 각각 가지고 있는 우연적인 성격이었다. 경험은 우리의 세계 이해를 변하게 하거나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지를 통제하거나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점, 즉 우리는 무차별적인 경험을 겪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이 비장애중심주의적 사회라고 하더라도 장애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상을 통한 우리의 인식 과정이 우연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은 세계 이해나 감정 역시도 부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감정을 연결하는 과정이나, 사물들 사이의 연상 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단지 옆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우연히 동시에 작용했다는 이유로 등 우연적인 이유로 이연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우리 사회가 구성한 장애라는 개념에 적용해 볼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장애라는 개념의 내용과 이를 장애라는 개념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우연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상의 부분성에 주목하면서 경험을 통한, 신체의 변용에 대한 인식은 항상 부분적이며, 우리가 상상을 통해 얻은 외부사물에 대한 인식은 외부사물에 대한 참된 본성을 담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검토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장애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에 불과하며, 장애라는 개념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가 이러저러하게 이해하고 있는 장애라는 개념에는 장애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보다는 내가 어떤 조건에서 장애에 대해 경험하게 되었는가와 같은 나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개념에 대한 인식은 모두 다르며, 저마다의 인식은 각자의 삶의 형태와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다. 상상이 부분적이라는 점에 근거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라는 개념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일 때, 사회 구성원 각각은 장애를 경험한다. 각자의 인식은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다른 경험에 노출된다면 인식의 내용이 바뀔 수 있고, (2) 이전의 인식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어떤 경험을 겪고 내린 장애에 대한 특정한 이해들은 우연적으로 근거없이 연합되었을 수 있다.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는 개념들을 지지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어떤 개념이 역사성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참되기 때문이 아니라 대체되지 못하고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아무리 사회가 비장애중심적이고 개인의 이전의 경험에 의해 편견에 가득차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개인이 출현하는 사태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경험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달라서,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어느 누구도 신체 구성상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들 사이에도 장애인들 사이에도 장애에 대한 인식은 모두 다를 것이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각자의 경험을 통한 인식을 사태의 전체이자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신의 유용성의 규칙을 모두에게 통용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부분을 전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상 모두 공적인 문제이다.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사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질상 편견과 정념에 빠지기 쉬운 개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실수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각자의 상상에 매몰되고 쉬운대로 자신의 기질대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도록 사회는 다양한 경험을 겪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각자가 자신이 당연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시험받고 반박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우리가 만나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장애인이 완결된 소설 속의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그리고 비장애인을 또 비장애중심적인 사회를 변용시키는 원인으로 수없이 나타날 때, 장애는 우리가 여태 상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재해석될 것이다.

VOICEYE
KOR
voiceye.com

참고문헌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김은주. (2020). 스피노자와 여성: 여성 배제를 중심으로. 哲學硏究, 0(129), 1-30.

안희제. (2022. 08. 19). “우영우가 침묵한 것,”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18

장정연. (2018). 스피노자의 정서와 정신장애인의 정서. 철학·사상·문화, 0(26), 178-212.

장정연. (2021). 정신장애인의 변용과 스피노자의 정서와 이성. 철학·사상·문화, 0(36), 121-154.

전근배. (2021).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 장애인의 ‘독립’의 문제 : 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한국장애학, 6(2), 11-33.

최현경, 강진숙. (2022).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제작 활동과 정동 체험에 대한 사례 연구 : 들뢰즈와 과타리의 ‘정동’과 ‘양식-역설’의 사유를 중심으로. 韓國 言論學報, 66(1), 43-88.

최진. (2022).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을 통한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의 정당화 가능성 탐색. 교육철학연구, 44(2), 161-184.

Abrams, T. (2017). Braidotti, Spinoza and disability studies after the human.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30(5), 86-103.

Colin Barnes, Michael Oliver and Len Barton. (2002).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김도현 역). 서울: 그린비.

Priestley, M. (1998). Constructions and creations: Idealism, materialism and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 Society, 13(1), 75-94.

Shakespeare, T. (1996). Disability, identity and difference. Coline Barnes & Geof Mercer (ed), Exploring the divide, Leed: The Disability Press, 94-113.

Shakespeare, T. (2006).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2, 197-204.

Spinoza, B.(출간예정). 윤리학(박기순 역).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Abstract

Can Disability be Re-construed in an Ableist Society?: Reconsidering Disability through the Lens of Spinoza's Imagination.

Park Soul H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disability can be re-construed in an ableist society. According to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disability is not based on persons with impairments but rather it is constituted by society. When we stand on the side of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by criticizing society as ableist, then a problem confronts us. Is it possible to reframe the concept of disability on the basis of ableism? Further, when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imagines a society where disability disappears, what does it mean to re-construe disability?

Insofar as disability exists in our society, society at present is ableist. Ableist elements in our society stem from the past and influence members of our society. Because a society is phenomena of interactions within members of society, the concept of disability reflects how they understand and perceive disability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Hence, the meaning of disability can be socially re-construed by the same process: disability is created by a society insofar as perception relies on experience.

To prove this argument, this paper refers to Spinoza's concept of imagination. For Spinoza, imagination is "when the human Mind regards external bodies through the affections of its own body."(E2P26Cdem) Our experiences are the source of imagination,

*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Philosoph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CI VOICEYE voiceye.com

which is our primary cognitive path, rather than what Spinoza refers to as 'common notion'-rational thought- or intuitive knowledge. This paper focuses on 'bilaterality' of imagination and affection which can bring about a re-construing of disability. The points the research presents are as follows: (1) inertia of image, (2) contingency of imagination, and (3) unwholeness of imagination.

Rather than some researchers distinguishing between social and individual models of disability, each individual's experience cannot be separated from something public and political. In Spinoza's though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ciety is hardly distinguishable, as each is made up of the other. Moreover, scrutiny of imagination reveals how bias arises and that there are no rational and logical grounds of universal and abstract concepts about disability and human, etc. at least on the level of imagination.

Consequently, re-construing disability starts from encountering others as the mutual cause of affections of their own bodies.

Keywords : Re-Construing Disability, Social Model of Disability, Spinoza, Imagination, Affection, Ableism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35 - 70

보이지 않는 감각의 공동체: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급 내 감각의 사회화와 장애의 재구성

김성인*

본 연구는 국내 수도권에 위치한 한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급 내 선천적 시각장애 아동의 초기 학교사회화에 관한 민족지 연구를 통해 장애 개념을 재구성하기를 목적으로 삼는다. 교실교육 안에서 (시각)장애는 정보의 제약이나 참여의 배제를 야기하는 결손이 아닌 사회적 연결과 앎의 과정을 이루는 다른 특질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시각장애 아동은 독특한 감각을 기반으로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본 연구는 이를 시각 외 감각을 활용하는 감각의 사회화로 개념화했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 아동의 초기 학교사회화를 다루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시각장애 아동의 사회적 삶과 앎의 특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를 차이로서의 장애를 긍정하는 장애의 정치학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자긍심으로 확장하여 조명하길 시도한다. 본 연구는 부정되지 않는 차이로서의 장애와 그 정치적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고찰을 제공한다.

주제어 : 장애, 비장애중심주의, 시각장애 아동, 특수교육, 사회화, 감각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Ⅰ. 서론: 시각장애 특수교육 다시 보기
- 구조기능주의적 특수교육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오늘날은 바야흐로 눈(眼)의 주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시대이다(김은주, 2016). “보는 것이 곧 믿는 것(Seeing’s believing)”이라는 오래된 격언이 말해주듯이 인간의 앎의 방식을 형성해온 시각(Michalko, 2017: 78 참조)은 그야말로 인간을 ‘인간’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감각의 제왕’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시각중심주의(ocularcentrism)가 위력을 떨치는 세계 내 시각장애 아동의 경험에 집중한다. 제한적인 보기가 불가피한 시각장애 아동은 어떻게 자신을 그리고 사회를 알게 되는가? 비장애 중심의 사회는 제한적 시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앎에 무관심하며 그들의 경험을 너무나 쉽게 ‘불능’과 연관 짓는다.

애석하게도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내 장애인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수의 특수교육은 손상을 가진 신체 혹은 정신 능력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를 목표로 삼는다. 다수의 경우 통합을 위한 부담과 압박은 규범적 정상성의 모델에 맞추어 마땅히 교정 및 치료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가된다(Kim, 2022). 이처럼 정상성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어 실행되는 특수교육은 비장애 중심주의(ablelism)의 ‘정상’과 ‘비정상’의 이원화를 반복함은 물론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를 개인에게 내재된 문제로서 간주하여 그것의 해결에만 급급할 뿐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입장에 무관심하다(엄수정, 유애란, 2014).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진단-처방적교정’ 모형(김병하, 1998)으로 정형화된 특수교육은 장애의 개인모델 및 의료모델을 재적용하며 교정적 절차로서의 치료를 삶의 방식으로서의 교육과 등치시키기에 문제적이다.

비장애 담론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특수교육 경향에 반하여, 장애를 정체성 혹은 개성의 일부로 여기고 그를 존중하는 대안적 특수교육의 필요성과 자성성을 요구하는 비판(김병하, 2011; 신현기, 2011; 정은, 2009)을 공유하는 본 연구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실에서 나타나는 시각장애 아동의 배움의 과정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모처에 위치한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교의 만 5세(7세) 학급에서 수행된 민족지 연구(ethnographic research)를 통해 연구 참여지 내 특수교육의 특징을 선천적 시각장애 아동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감각의 사회화(the socialization of the senses)로 개념화한다. 연구 참여지의 교실 교육은 아이들[1]의 제한적인 시력을 개선·보

---

1)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은 제도적 절차를 밟아감에 따라 선천성 시각장애 아동(전문의에 의한 장애 판정 이후) 혹은 시각장애 유아특수교육 대상자(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록 이후)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구참여기관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이러한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특수교사 및 실무사

VOICEYE
voiceye.com

완하기보다는 시각의 부재를 받아들임으로써 특수한 몸 그리고 몸에 전해지는 감각을 강조한다. 아이들은 시각 외 감각을 통해 자신이 위치한 환경과 조응하는 과정을 통해 앎을 습득하는데, 이는 시각장애 아동의 느끼고 아는 자기 자신과 몸 그리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빚어낸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의 사회화는 선천적 시각장애 아동이 그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방법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재활 혹은 치료를 통한 개선을 목적으로 두는 특수교육과 차별화된다. 더불어 시각 외 감각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시각장애 특수학급은 감각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the senses)(Trnka et al., 2013; Vannini et al., 2012)로 불릴만한 연결성을 형성한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사회화를 체화하며 아이들은 보는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탐지하는 자기인식과 그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데, 이는 차이로서의 장애를 둘러싼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급 내에서 장애는 어떻게 의미화되며, 이와 같은 교실생활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둘째,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급 내 감각활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러한 감각활용이 의도하는 사회화의 성격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 아동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가.

셋째,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교 내 감각의 사회화에 대한 민족지 사례연구가 특수교육 및 장애학 전반에 제공하는 유의미한 함의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교 내 초기 학교 사회화를 다루는 본 연구는 교실 내 감각 경험과 사회화의 연관성 및 그를 통한 장애의 재구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장애학 내 장애의 재개념화, 시각장애인과 사회화, 감각과 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각각의 주제는 손상-장애-정상성의 연쇄를 둘러싼 장애학 및 인류학 내 비판적 논의, 시각장애인을 사회 안에 위치시키기 위한 사회화의 노력과 장애의 의미

는 학생들을 '아이들' 또는 '우리 아이들'로 지칭하곤 했다. 연구참여지 내 내부적 용어 사용을 따라 본 연구 역시 연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 아동을 '아이(들)'로 부르기로 정한다. 비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 아이들'또는 '보이는 아이들'로 서술될 것이다.

화, 감각연구가 이끌어내는 장애학적 함의에 집중한다.

1. 장애학 내 장애의 재개념화

장애학은 치료불가한 신체와 정신에 대한 의료적 판단과 그것이 전제하는 정상성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다른' 능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을 둘러싼 연쇄적 집합을 분리함으로써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장애인 및 그/녀의 특정한 몸과 정신에게 부여하는 무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제하기를 시도해왔다. 장애학은 정상의 몸에서 벗어난 신체·정신의 상태 및 기능을 일컫는 손상(impairment) 그리고 손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관념과 평가를 포함하는 장애(disability)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개념화한다(김도현, 2009: 110 참고). 장애학은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 개인 모델(individual model) 혹은 장애를 의학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결함으로 다루는 의료 모델(medical model)이 손상을 장애로 탈바꿈하는 사회적 차별을 비가시화해왔다고 지적한다(Shakespeare, 2013).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 모델(social model)이 등장했다. 사회 모델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손상과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불이익인 장애는 구분된다(대표적으로 Olive, 1990). 사회 모델은 손상과 장애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장애의 상태와 그에 부여되는 낙인을 분리하고 장애를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하는데 공헌했다. 하지만 사회 모델은 손상이 전사회적(pre-social)이거나 전문화적인(pre-cultural) 생물학적 실재로 간주 될 수 없음을 간과하였으며(Shakespeare, 2013: 68; Thomas, 1999: 124 재인용; Shuttleworth & Kasnitz, 2004), 손상을 가진 몸과 정신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 어려움을 등한시했다. 장애의 문화모델(cultural model)은 장애와 비장애라는 상반되는 사회적 개념의 관계와 차이 안에서 특수한 몸과 정신 및 그가 직면하는 경험에 관한 장애의 의미가 구체화됨을 주장한다. 이처럼 문화모델은 장애 및 비장애 개념과 발생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사회, 그리고 비장애인 성원 간의 경험적 다원성을 조명하는 동시에 경합과 재강화를 거듭하는 장애 담론의 가변성을 주지한다(Devlieger, 2005; Waldschumidt, 2018).

인간됨을 만드는 복수의 준거 및 자연-문화의 교차적 이원성의 작동을 탐구해온 인류학은 다양한 지역 및 문화권 내 정상성을 이루는 신체와 사회, 문화 간의 상호구성성 및 변이성을 밝혀왔으며,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정상성의 가장자리에서 비장애(정상)의 반대 항으로 간과될 수 없는 차이들을 내포하는 범주인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연구에 매진해왔다. 인권 다양성과 장애운동, 언어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 건강과 치료 및 교정의 압력, 가족과 친족, 재생산 기술, 의례와 종교 등의 광역적인 주제를 다루어 온 인류학 내 장애 연구는 인간됨의 문화적

VOICEYE
voiceye.com

가변성 및 그것을 구분하는 상이한 가치체계에 대하여 기술한다(Ingstad & Whyte, 2011). 이처럼 장애에 관한 인류학 연구는 장애 안에 신체와 사회가 물리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만나며 발생하는 복수의 세계들을 조망한다(Ginsburg & Rapp, 2013: 62 참조). 시각장애 아동의 초기 사회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본 연구는 일상적인 교실생활에서 드러나는 손상의 영향과 그를 통해 발생하는 특수한 감각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다양한 차이들이 구성하는 장애의 범주 및 그 정의를 재해석하기를 시도한다.

2. 시각장애인과 사회화

본 연구 내에서 정의되는 사회화는 인류학의 전통을 따라 특정 집단 안에서 적응하고 행위할 수 있는 문화적 개인의 조형, 개인됨과 인간됨을 견주는 연속적 상호영향 및 사회적·문화적 집단 내 개인의 귀속에 관한 총체적인 과정을 일컫는다. 인류학 연구가 사회화 과정 내 개인의 순응과 편입만큼 사회화 및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저항과 불화에 동등한 관심을 기울이는 바 본 연구 역시 선천적 시각장애 아동이 사회의 공통 성원이자 특수한 소수자로서 비장애 중심의 가치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타협을 비판적으로 주시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사회화는 정안인(正眼人)[2] 중심의 사회 안에서 불리하게 위치지어진 자신의 차이를 파악하고 자기자신을 재발견하고 수용해야하는 복합적인 과제로 여겨진다(Vygotsky, 1993; 신종호, 2001). 시각장애인의 사회화를 다룬 초기 연구는 시각장애인이 처한 사회화의 압력을 장애에 대한 교정주의를 중심으로 파악하는데 그친다. 시각장애인의 사회화에 관한 시론적인 연구는 미국 사회학자인 Scott에 의해 이루어졌다(Scott, 1969). 1960년대 미국 내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내 문서 검토 및 기관 관계자 및 시각장애인 당사자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한 연구에서 그는 제한적 시력이라는 물리적 조건이 아닌 제한적 시력이 열등성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사회적으로 학습하며 시각장애인으로 거듭난다고 주장하였다(Michalko, 2017). 이때 시각장애인의 사회화란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장애 인식과 역할의 내면화로 간주된다. 미국 내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사이자 시각장애 연구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Fraiberg의 논의 역시 시각능력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본조건으로 설정하며 시각장애 신생아의 장애를 결손과 연관시킨다(Fraiberg, 1977). 시각장애인의 사회화에 관한 초기 연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화를 손상있는 몸을 둘러싼 사회구성적인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길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시각장애를 병리화하는 비장애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시각장애를 시각장애의 문제(blindness

[2] 시력을 활용하는 비장애인을 일컫는 시각장애인 집단의 내부 용어.

problem)로 직결하였고 이로써 장애학의 논의가능성을 축소하였다는 약점을 지닌다. 또한 그의 연구는 Goffman의 낙인 이론(Goffman, 2009)에 대한 비판이 드러내는 바와 같이 사회 내 장애인의 주변화를 의심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장애를 병리화하는 비장애중심주의적 본질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3)]

시각장애 아동의 사회화에 관한 후속 연구로 Webster와 Roe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Webster & Roe, 1998). Webster와 Roe는 영국 브리스톨(Bristol)에 거주하는 3세에서 19세 사이의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관찰 및 당사자, 가족, 학교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자료로 삼아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 내 특질과 그를 위한 지원체계를 분석했다. 그들은 시각장애를 병리화하지 않으며 일종의 차이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Scott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동시에 그들은 시각장애 아동이 그들이 위치한 사회 안에서 개인(an individual)으로서 적응해나가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를 강조하며 그것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위하여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무엇보다도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일(learning how to learn)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학교 안에서 시각장애를 동반하는 학생들은 장애로 인한 무능력(incapability)보다 할 수 있다는 능동성을 체감하고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교는 시각장애 학생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탐구 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ibid.: 18-19). 이들의 주장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특수교육이 보다 ‘특수 교육적’이도록(김영일, 2015: 7)” 변모해야 한다고 논평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국내 특수교육 연구자의 주장과 공명한다. “시각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비장애학생과 다를 기회(ibid.)”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감각 교육은 Webster와 Roe가 강조한 시각장애 학생의 사회화에 요구되는 교육적 지원을 드러내는 동시에 차이로서의 장애를 수용하는 시각장애 아동의 자기긍지를 밝힌다.

3. 감각과 문화

인간의 문화와 사회 전반을 다루어 온 인류학 연구 내에서도 감각은 제한적으로 주목받아왔다. 인간의 사회적 삶과 문화적 실천 내 감각을 다루는 인류학 연구는 신체와의 밀접한 연관 하에서 보편적 경험으로 여겨져 온 감각의 문화적·정치적 구성성을 재고하며, 자연/문화, 이성/감

3)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자 장애학자인 Michalko는 시각장애 신생아의 볼 수 없는 눈을 무능과 무력으로 직결시키는 Fraiberg의 논의 이면에서 보는 눈과 시각작용을 주류화하는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Scott, 1969)가 작동함을 지적하며, 그에 따라 보지 않는 눈에 대한 부정적 의미화가 비가시화된다는 점을 비판한다(Michalko, 2017: 71 참조).

VOICEYE voiceye.com

정, 몸/정신(마음) 등의 오래된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한다. 감각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촉구해 온 역사학자 Classen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감각 연구의 주요 논의를 간추린다. 후각 또는 촉각이 앎의 근본적인 방식으로 간주될 때 어떠한 의식의 양식이 창조되는가? 문화 내 감각의 위계는 사회적 위계와 어떠한 연관을 지니는가? 감각에 대한 자연적 위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언어 안에서 감각 경험은 어떻게 표현되고 정해지는가? 세계를 감각하는 우리만의 방식에 대안이 있다면, 그는 무엇인가(Classen, 1993: 1)?

인류학자들은 감각 분류 및 감각 경험의 문화적 다양성을 밝히며 감각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지속해왔다(대표적으로 Howes & Classen, 2013). 감각에 관한 연구는 인간집단 내 말하기, 소리치기, 춤추기, 먹기, 꾸미기 등 다양한 인간적 행위가 소리, 열, 맛, 향, 눈요깃거리(spectacle) 등과 같은 감각적 생산물 없이 완수될 수 없음을 밝힌다.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는 세계를 감각하는 특정 방식과 긴밀한 연결되어 있는, 곧 감각을 통한 참여로 일컬어질 수 있는데(Sutton, 2010: 218; Chau, 2008: 490 참조) 감각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공통 경험 및 공통 지식이 형성하는 집단은 감각의 공동체(community of the senses)로 불린다(Trnka et al., 2013). 감각의 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감각 경험 및 감각 기술에 근거한 공동체 내 성원의 선별, 공동체 구성 및 재생산을 둘러싼 감각의 사회화(the socialization of the senses)에 관한 질문을 야기한다. 이는 단순사회 내 특수한 감각 경험과 성원됨의 관계(Geurts, 2002; Feld, 2012), 감각 지식과 전문가적 지식 사이의 연결(강윤희, 2015; Potter, 2008; Sutton, 2018; Rice, 2010) 등의 주제 내에서 검토되어 왔다.

시각장애인의 삶에서 시각 외 감각사용이 가지는 특수성과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시각장애 특수교육 내 감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감각 경험을 다룬 국내 연구로 시각장애 유아의 놀이와 배움 내 활발한 신체 및 감각활용의 유의미성을 밝힌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교 간의 비교 연구(윤소연, 2012)와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이료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시각 장애인의 이료 교육과 실행의 핵심인 느낌의 교육적 전달 및 수용을 분석한 생애사 연구(이정희, 2018)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맹학교 내 시각장애 청소년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각 외 감각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참여 양상과 그 특징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Avital & Streek, 2011) 및 이스라엘의 시각장애 학생들의 이료교육 내 감각 경험의 특성 및 감각 지식의 구체화를 다룬 의료인류학 연구(Hammer, 2017)가 존재한다.

근래 장애와 감각을 다룬 인류학·장애학 연구의 유의미한 움직임 중 하나는 장애를 동반하여 발생하는 감각적 특수성을 존재론(ontology)과 연관하여 검토함으로써 장애를 재의미화하길 시도한다는 점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 연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후기 근대 이후 신경발달 장애의 하위 범주로 발명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논의(Nadesan, 2005)와 더불어 몇몇 활동가 및 연구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인지적 특징을 병리적 비정상성이 아닌,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다른 방식인 다양성의 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olomon, 2010; Solomon & Bagatell, 2010). 이러한 논의 하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재단된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자신과 장애, 그리고 그/녀의 인지적 특징을 긍정하며, 자기 정체성의 핵심인 장애를 가리지 않는 사회적 통합을 요구한다(Arnold, 2017; Ortega & Choudhury, 2011). 이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내부자들은 장애를 둘러싼 신체적·정신적 차이 및 차이에서 비롯된 일상생활의 독특성을 자신만의 인지적·존재론적 삶의 방식으로 간주한다. 이는 손상-신체-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장애 개념의 정치적 논의를 고찰해온 장애학의 연구관심과 연계되며 장애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및 의미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Gibson, 2019). 보지 않는 방식으로 세계를 느끼고 탐색하는 방법을 익히는 시각장애 아동의 감각의 사회화를 다루는 본 연구 역시 장애라는 특수한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빚어내는 인지적·존재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장애 개념의 재해석 가능성을 모색한다(Hughes, 2007; Feely, 2016; Cluely et al., 2020).

Ⅲ.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소개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교 내 만 5세 학급에 대한 민족지 연구로서 인류학의 연구방법을 따라서 수행되었다. 인류학적 전통 하에서 인류학자는 연구 참여지 내에서 장기간 거주·체류하며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관찰하고 함께 경험하여 그를 연구 분석을 위한 원 자료로 삼아왔다. 연구 참여지 내 문화와 사회적 삶의 양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이러한 연구방법은 흔히 현장연구(fieldwork)로 불린다. 현장연구방법은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으로 나뉜다. 참여관찰은 공동체 내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찰은 물론 연구 참여자들 구술 및 무형 문화에 대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포괄한다. 참여관찰의 진전 이후 인류학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며 연구 내용에 관하여 검토한다. 현장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의 계량적 수치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에 집중하는 동시에 복합적이며 입체적인 실제 삶으로부터 학술적 논의를 반추하길 시도하는 순수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간주된다.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 삶에 기반을 둔 자료는 인류학자의 주제 분류 및 분석을 거

VOICEYE
voiceye.com

쳐 민족지(ethnography)[4]로 제시된다. 민족지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충실한 기술·분석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 참여자의 내부자적 관점(emic perspective)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민족지 연구는 연구 현장에서 동떨어진 연구자의 관망을 통해 객관적 수치를 추출하기보다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공동적 연계와 상호작용을 통한 학술적 성찰성을 지향함으로써 정량적 연구 방법으로 밝히기 어려운, 삶 그 자체로부터 생성되는 살아있는 지식을 조명하기를 의도한다(이용숙 외, 2012 참조). 시각장애 아동을 연구 참여자로 삼는 본 연구는 특수학교 교실에서 수행된 장기간의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시각장애 아동 및 그들을 지원하는 특수교사의 삶에서 드러나는 장애의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한국사회 내 사회적 소수자 집단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에 이루어졌다. 2019년 하반기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교에서 예비조사를 수행한 연구자는 2021년 1년간 최고연령반인 만 5세(7세) 학급에서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5] 연구자는 특수교육 실무사 역할을 맡은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의 정규 수업시간은 물론 수업 이후의 돌봄 교실 및 교외 학습, 교육과정 설명회 등 다양한 교내 행사를 참관했다. 연구자는 교실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일지를 작성하였고, 필요에 따라 교실 상황을 녹화·녹음하거나 사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참여관찰이 진전되며 연구자는 담임교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며 교사가 의도하는 교육 실행 이면의 가치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관찰일지 형식으로 수집된 자료는 정리 후 연구자의 검토에 따라 주제어가 추출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코딩 파일로 재정리한 후 주제어의 패턴구조를 파악한 후 해석적 재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분석 이후의 의문점은 보충 심층면담의 수행을 거쳐 자료로 통합되었다. 수집된 교실의 자연발화 중 감각의 사회화의 특질을 보여주는 자료는 연구 분석과 함께 병렬적으로 제시되었다.[6]

---

4) 비서구 단순사회를 연구 참여지로 삼아온 인류학에서 ethnography는 민족지로 불려왔는데, 현장연구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된 오늘날, 이에 관한 다양한 번역어가 등장했다. 예를 들어 사회학, 교육학, 미디어학, 지리학 등의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계열에서 ethnography는 민속지 혹은 문화기술지 등의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5)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연구 윤리 심의를 거쳐 수행되었다(연구윤리번호 IRB No. 2106/001-020). 연구자는 언급되는 기관명 및 인물명을 모두 가명처리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6) 연구사례의 전사(transcription)는 발화자의 휴지를 기준으로 구분되었으며, 담화분석(discourse

3. 연구 참여자 소개

연구 참여기관은 국내 수도권에 위치한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교육기관인 작은 보석학교(가명)다. 1990년 대 중반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유치부로 설립된 작은 보석학교는 2010년대 후반 유아학교로 독립 개교하여 초등학교 취학전 영아 및 유아를 대상으로 시각장애 아동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작은 보석학교는 학생 전원에 대하여 개별화교육(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을 실행하여 시각장애 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시적 개입을 강조한다. 동시에 국가수준 공통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따라 교실교육을 기획한다. 작은 보석학교에는 시각장애는 물론 지체장애, 청각 장애, 발달장애 등 중복 장애를 지닌 학생도 재학 중이었다.

2021년 만 5세 학급(이하 무지개반)은 2015년생 여아 5명, 남아 4명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연구 비동의 1명 포함). 아이들을 제외한 가족구성은 전원 정안인·비장애인이었고, 아이들의 보는 정도는 전맹부터 저시력까지 다양했다. 무지개반의 경우, 과반수가 시각장애 외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는데 언어적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이 극도로 제한적인 아이들도 소수 존재했다. 한 학급의 정원을 최대 4명으로 제한하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무지개반은 2인의 공동 담임 하에 4명, 5명으로 나눠진 분반의 형태를 띠었지만 반 구성은 아이들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와 무관했다. 교실 수업 및 활동 역시 대부분의 경우 9명이 모여서 진행되었다.

2021년 만 5세 무지개반의 담임교사는 정지영 교사(50대 여성)와 안초롱 교사(40대 여성)가 맡았다. 정지영 교사는 비장애 유아동교육,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시각장애 특수교육에, 안초롱 교사는 시각장애 및 발달장애 특수교육에 몸담아 왔다. 시각장애 유아동교육 내에서만 대략 20년,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두 교사는 기관 내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교사로 여겨졌다. 두 교사는 특수교육 실무사와 아이의 1대1 배치가 가능한 교실환경을 구성하여 교실 내 아이들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2021년 무지개반은 9명의 아이들 외에 특수교사인 담임교사 2명과 보조 특수교사 1명 외에 6명의 특수교육 실무사로 꾸려졌다.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두 교사는 특수아동교육 내 사회화 교육의 중요성에 공통적으로 공감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장애를 문제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교실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

analysis)의 표기방법을 참조하여 적용되었다. 전사 기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진한글씨 음성적 강조
~ 장음화
(()) 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
문장 내 〔꺽쇠표시〕 대화내용 및 대화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자의 보충설명

VOICEYE voiceye.com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1. 특별하지 않은 (시각)장애를 위한 교실: 특수교사의 장애인식 및 교육신념을 중심으로

무지개반 참여관찰 개시 직전 연구자는 담임교사들과 짧은 면담을 진행하며 시각장애 특수아동교육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하여 물은 바 있다. 연구자는 장기간의 경력을 가진 담임교사들이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및 핸디캡(handicap)으로서의 시각장애를 보충하는 교육에 대해 열띤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상과 달리 정지영 교사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구분하는 연구자의 질문에 즉시 반발하였고, 최소한 그에게 시각장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일반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적 개입을 강조하는 특수학교의 기관 내부자로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간의 동질성을 주장하는 정 교사의 답변을 당시의 연구자는 도통 이해하지 못 했다.

무지개반 교실에서 참여관찰을 수행하며 연구자는 정 교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 특수교육 현장에서 머무르게 된 연구자에게도 무지개반의 교육은 일반교육과 그리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알록달록한 학교 전경과 장난감으로 가득찬 교실은 점자블록과 핸드레일(handrail)을 제외한다면 여느 비장애 유치원처럼 보였다. 놀이체육, 미술, 동요, 텃밭놀이, 이야기시간 등으로 채워진 무지개반의 주간계획 역시 놀이중심 아동교육을 따르는 비장애 유치원과 유사했는데, 점자 시간[7]만이 특수학교의 교과적 특징을 보여주는 듯 했다. 교실생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생생활 전반의 자기주도적 참여가 강조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무지개반 교사들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실무사와 짝이 되어 교실생활부터 식사를 포함한 일상생활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적 세팅을 조성했다. 담임교사들은 연령과 장애를 연유로 도움 받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 학교에서만큼은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러한 담임교사의 원칙은 중복장애 아이들에게도 고수되었는데, 교사들은 과제나 목표의 완화적 조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었다.

담임교사와 실무사들은 아이들의 장애를 제한이나 제약으로 문제시하지 않는 동시에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탐구하는 교실을 조성하기 위해 애썼다. 이러한 노력은 아이들을 대하는

---

7) 초등연계교육의 일환인 점자 문해 교육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작은 보석학교 만 5세 학급에서 아이들의 개별화교육은 대개의 경우 점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소수의 중복장애 아동의 경우 일상생활기술 중심의 적응행동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기도 했다.

교사의 방식, 아이들을 위한 수업 구성 및 참여, 아이들의 일상적인 놀이 등 교실 전반에서 드러났다. 주목해볼만한 지점은 교실 안에서 (시각)장애 혹은 보는 정도가 아이를 정의하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나 아이의 배움과 놀이를 제약하는 한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일 장애 내 집단 내부적 장애 유형의 정도가 광역적인 시각장애의 특성상 무지개반 아이들의 시력의 스펙트럼 역시 매우 넓었다. 빛을 감지하지 않는 전맹부터 특정한 조건 내에서만 색이나 형태를 부분적으로 감지하는 제한적인 시력 및 타인의 움직임과 표정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저시력까지 아이들의 보는 정도는 모두 달랐다.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잔존 시력이나 시력의 재활가능성에 따라 위계화되지 않았으며, 잔존 시력에 따라 아이들이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과제가 달라진다고 여겨지지도 않았다.[8]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내에서도 장애의 정도에 따른 차등화가 왕왕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는 매우 특수한 특수교육 현장이 아닐 수 없다.[9] 무지개반 안에서 아이들의 시각장애나 보는 정도가 교육의 전개를 제약하지 않기에 장애는 문제시 되지 않았다. 무지개반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평범한 학교생활에 참여했다.

시각장애 아이들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 무지개반의 특수교육은 역설적으로 매우 특별하다. 한국 내 조기 특수교육의 성격은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적 조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이는 장애를 해소하고 보완하는 능력을 성취함으로써 주류 비장애인 사회로의 통합 지향을 목표로 삼곤 한다(조원일, 2012: 131 참조).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장애로 말미암아 비장애인과 동일한 교육 과정 및 교육 방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비판적으로 보아야 할 지점은 특수교육이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서 더욱 나아가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학습을 가능케 하는 여러 정신상태에 대한 위계화를 스스로 내재화하며 교육에 대한 장애·비장애 간의 분리주의를 공고히 한다는 점이다(김병하, 2005). '정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비장애인이 경험의 내용 안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발달된 언어와 사고를 함께 배운다면 장애인은 분리된 자극에 대한 조건적 반응의 결과인 실험실의 동물처럼 배우며 그러한 교육과정이 장애인의 교육에 더욱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과 같다(이성은, 2005: 141 참조). 이러한 교육 하에서 특수교사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과 장애의 의미화에 대해 알려주기보다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을 개선시키는 '치료요원'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김병하, 2005). 장애를 문제시하여 개선에 집중하는 특수교육과 자신이 꾸리는 무지개반을 구분하며 정지영 교사는 학교는 "스틱(stick)으로 아이들의 혀를 눌러가며 반복하는 언어

8) 이에 따라 무지개반 교사들은 점자는 물론 묵자(글씨)와 그림, 만들기 등의 시각중심적인 활동 역시 교육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9) 일본의 일부 농교육에서 나타나는 청각장애의 소거 시도 및 그를 통한 비장애 중심적인 사회로의 편입에 대한 인류학자 Nakamura의 비판을 참고할 것(Nakamura, 2006).

VOICEYE voiceye.com

치료실"과 다른 공간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초롱 교사 역시 이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는 잔존시력 보존에 대한 학부모와의 의견차에서 드러난다. 잔존시력 보존에 대한 학교 차원의 추가적 지원을 요구한 학부모와 달리 교사는 교실 내에서 아이의 잔존시력을 강조할 경우 교육의 성격이 치료처럼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사례 1〉

안초롱 교사: 약~간 색깔 보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이와의 개별화 수업에서〕 "이게 무슨 색이니?" 계속 뭐 그런 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 유치원에 올 필요 있겠어요? 하하하 그거는 그냥 치료를 받는 거고 여기서는 일반 애들처럼... '얘는 애들 일반 애들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잔존시력... ((짧은 침묵 이후)) 맞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딱딱한 목소리톤으로 바꾸어서 말하며)) '잔존 시력을 활용해서 뭐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게 모든 특수 교육의 저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안초롱 교사는 신체적 손상의 잔존능력의 보완과 강화를 강조하는 특수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설정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따르기가 꺼려진다고 밝힌다. 안 교사의 망설임에서 그와 같은 특수교육이 내재화하는 비장애중심주의에 대한 경계를 엿볼 수 있다. 특수교육 내 구조기능주의적 입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행수준의 향상을 신체능력의 강화와 결부 짓는데, 이는 신체와 능력 간의 연관 모델을 주조하는 특정 신체상으로 이상화되는 비장애 신체에 대한 신화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난점을 지닌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 Campbell, 2008 참조). 비장애 신체로 정향된 신체 기능의 개선에 몰두하는 특수교육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신체적·감각적 능력의 위계를 그대로 부과하며 비장애중심주의의 내면화를 종용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두 담임교사들은 보는 힘에 집중하고 그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현행 수준 및 잠재적 발전가능성의 우열을 가리는 교육관점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장애로 인해 위축되지 않는 교실을 만들기 위하여 애썼다. 이를 통해 '일반 애들'이 유치원의 생활과 놀이에 참여하며 배우듯이 무지개반 아이들 역시 학교생활 안에서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기본적인 사회적 규칙을 알아가길 희망했다.

두 교사에게 이러한 교육의 실행은 장애의 경중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졌다. 우성에 대한 안초롱 교사의 설명이 그를 잘 보여준다. 우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및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언어적 대화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

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우성의 행동을 보며 교사들은 우성이 시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고, 그를 경계성 아이로 간주했다.[10] 비록 우성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요구될 지라도 안 교사는 우성에 대한 개입 역시 다른 시각장애 아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사례 2〉

안초롱 교사: 우성이가 문제행동이라면 문제행동이랄까? 이게 막 [자신의] 머리 때리거나 막 이런 거? 큰 소리?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아마 손을 잡고 ((안 교사는 아이의 손목을 수갑 채우듯이 엮어서 잡는 시늉을 했다.)) 이렇게. 힘은 안 줬겠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손을 놔줬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말로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우성아~" 그게 통했어요. "왜 그러니~?" 그러면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러면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귓속말하는 시늉을 하며)) "이제~ 대답할 때 친구들이 큰 소리 낼 거니까 우성이 준비하고 있어~?" 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조절하게...

이때 안 교사가 말하는 "옛날" 방식, 곧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에 대하여 물리적인 강제를 통해 자재시키고 숫자를 세면서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는 개입방식은 행동교정을 위한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을 연상시킨다. 안 교사는 아이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다른 아이에게 그러하듯이 "그냥 말로" 아이를 진정시키길 시도했고 "그게 통"했다고 회고한다. 그를 통해 교사는 아이가 흥분하는 요인을 추정할 수 있었고, 아이 역시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무지개반의 담임교사들은 아이와 놀고 배우는 시간 안에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한 후 그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아이의 행동에 개입을 시도하였고, 아이의 장애의 유형·경중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친화적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관계적 맥락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자신을 보여주며 교사와 아이 사이의 "통"하는 유대를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

10) 경계성 아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에 대한 학교 내 내부자적 지식에 근거한 분류범주로 의학적 진단과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의학적 진단, 아이의 특정 행동, 교실 내 아이의 생활양상이 상호적으로 구성하는 장애아동 범주의 한 예에 해당할 것이다(Grinker & Cho, 2013 참조). 무지개반의 교사들은 교육을 통한 경계성 아이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에 집중하며 장애를 빌미로 아이의 성장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VOICEYE
voiceye.com

인류학자 Bateson은 이차학습(deutro-learning) 개념을 통해 인간에 대한 학습의 수단에서 직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목적이 인간의 사고적·심리적 습관과 태도를 조형할 가능성에 대해 조명한다(Bateson, 1990: 270-274; 2006). 그는 교육의 장에서 이상적인 인간 양성을 위해 실행되는 행동 자체와 행동을 이루는 수단의 가치를 분리하기 어려우며 그를 구분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학습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이 불러일으킬 부산물인 습관(habit)의 양산, 그리고 습관이 학습자의 자기 및 사회인식에 불러일으킬 영향을 고려한다면 수단과 방법은 의도한 교육 이상의 심리적·정서적 파급력을 학습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Bateson은 학습의 수단과 방법의 효율성이 아닌 학습의 윤리성을 재고하고 낙관해야 할 필요성을 요청한다.

Bateson의 사유가 우리에게 주는 성찰을 통해 구조기능주의적 특수교육과 무지개반의 특수교육의 후속적 효과를 상기할 수 있다. 기능의 개선을 강조하는 특수교육이 기능적으로 완전할수록 이상적이라는 이차학습을 실행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집단 내부에서마저 특수한 기능에 따른 우열을 가리며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또 다른 학생들의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 마땅하다. 시력의 개선을 다루지 않는 무지개반의 교육은 개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손상에 따른 위계가 들어설 가능성을 경계한다. 구체적인 학습목표 설정 및 성취를 강조하는 구조기능주의적 특수교육과 비교한다면 무지개반의 교육적 성과는 미진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지개반 아이들이 암묵적으로 체화하는 사고는 인간됨에 대한 중요한 교육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교실 내 교사와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또는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며 아이들은 장애와 비장애간의 이원적 분할에 따라 비장애의 반대 항으로서 장애라는 거대한 범주 안에 속해있는 이들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배운다. 특수교육이 장애아동을 특수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담임교사들의 교육 신념에는 그와 같은 비직시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무지개반의 교육에 관한 연이은 심층면담에서 정지영 교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사례 3〉

정지영 교사: 우리가 못 보는 아이를 보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라면 인지, 촉감이라면 촉감, 손이라면 손, 발이라면 발...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보상해주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힘? 자기만의 어떤 그런 키를 찾게 해주는 거. 그런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가진 선천적인 시각장애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정지영 교사는 아이들에게 시각성 및 시각경험이 부재할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시각경험의 부재를 '불능'과 연결하지 않는다. 정 교사는 '인지', '촉감', '손' 그리고 '발'과 같은 몸의 일부를 통해 시각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험과 앎을 대체하며 그것으로 아이들이 세계를 알고 경험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낸다. 정지영 교사의 교육신념은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경험과 앎을 교육적 탐색에 활용하는 무지개반의 사회화의 핵심인 감각의 사회화를 신호한다.

2. 감각의 사회화: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급의 감각 모델과 사회성

시각장애인의 시각 경험의 부재를 불가능과 연결시키는 고정관념의 반대편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외 감각능력의 특수성을 기대하며 그 기원을 장애로 소급하는 낭만화가 존재한다. 고백하자면 연구자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원거리의 미세한 소리를 감지하거나 절대음감으로 음악을 따라들으며 악기를 연주하는 등 청각적 자극에 섬세하게 반응하는 무지개반 아이들은 연구자에게도 매우 신비롭게 여겨졌다. 예민한 청각을 시각장애 아동의 선천적 특징과 결부하여 질문하는 연구자에게 담임교사들은 시각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시각장애인의 시각 외 감각은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시각장애 아이들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무지개반 담임교사들은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의 활용을 조명하는 교실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듣고 만지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세계를 파악해나가길 의도했다.

연구자는 장애로 인해 시각성이 축소된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급 내 시각 외 감각경험의 특질을 살피고 이를 시각장애 아동의 자기인식과 연계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각성이 강조되지 않는 교실에서 드러나는 감각의 상호작용을 감각 모델(sensory model)을 따라 정리한다. 감각 모델은 한 집단의 언어, 믿음, 관습 등에 미치는 특정 감각의 중요성 및 영향력을 제시한다(Howes, 2003: 1; Classen, 1997 참조). 이로써 감각 모델은 특정 집단의 가치와 실천들을 드러내는 매개이자 문화적 표현의 가장 근원적인 감각 영역과 연계된 사회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연구 참여지인 유아특수학급 내 시각의 입지가 축소되며 정안인 사회에서는 부차적 감각으로 여겨져 온 청각과 촉각의 중요성이 교실 내에서 대두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교실 내 감각문화를 크게 청각 그리고 촉각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11] 비록 감각 모델이 두 가지의 특정 감각에 대한

11) 무지개 반의 시각 경험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무지개반 교사들이 시각경험을 강조하지 않을지언정 아이들의 시각경험이 전무하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소수의 저시력 아이들은 시각경험을 동반하여 교실생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시력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도는 실행되지 않았다. 정

VOICEYE
voiceye.com

분류를 조명하지만 실제 감각 경험은 단일 감각의 철저한 소외가 아닌 청각, 촉각, 운동 감각 등의 감각 연합 및 상호 영향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어야 마땅하다(Howes, 2003; 2007; 2014; 2019; Porcello et al., 2010).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급 내 감각 경험에 대한 논의는 정안인의 시각중심주의의 신화화를 재고하기를 요청한다. 정안인의 보기와 다른 무지개반의 감각기관 중심의 교육실천은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시각 외 다른 감각의 활용을 통한 앎과 상호작용의 방식을 알리는 감각의 사회화의 일면이자 다른 감각으로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1) 청각의 사회성: 친구를 위한 소리 내기와 소리 듣기

비시각장애인이 눈을 현혹하는 보여지는 시각의 세계에서 산다면 시각장애인은 세계를 채우는 동시에 그들의 귀를 매혹하는 풍성한 소리에 이끌리며 청각의 세계를 산다. 비시각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인지적 판단을 위해 시각능력의 활용을 강조한다면 청각은 촉각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에게 무엇보다 중시되는 감각으로 여겨진다. 보기에 집중하는 삶에 익숙한 정안인 연구자에게 청각 자극에 대한 무지개반 아이들의 관심과 파악은 매우 돋보였다. 무지개반의 아이들은 항상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소리가 다른 어떤 소리와 유사한지 비교하는 호기심을 보였다. 아이들은 소리를 추리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와 연관 짓거나 소리만으로 주변의 변화를 유추하였고 많은 경우 그에 성공했다. 아동교육 환경 내 공간의 배치가 수시로 바뀌는 가운데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질문의 연속은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아이들의 섬세한 청각적 반응을 보며 연구자는 감각을 연구한 인류학자 Feld의 청각인지론(acoustemology)을 떠올릴 수 있었다. 파푸아뉴기니 내 보사비(Bosavi) 부족의 청각중심 감각문화를 연구한 Feld는 소리에 대한 청각적 반응을 앎의 한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소리의 사회성(the sociality of sound)을 밝힌다. 청각인지론은 소리에 대한 공동체 내 반응과 해석을 통해 다수의 성원이 살아있는 앎을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한다(Feld, 2015; Feld & Brenneis, 2004). 무지개반 교실 내에서도 소리를 중심으로 사회적 반응이 이끌어지곤 했다. 담임교사는 교실활동 중 수시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불렀고, 다른 아이들이 타인의 반응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더불어 소리의 발생 자체가 사회적인 신호로, 곧 사회적인

안인의 시각문화의 몇몇 사안은 교실 내 생활 및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는 단정한 매무새, 적절한 몸짓언어, 바른 자세 등의 특정 사안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연출하는 시각성의 문화에 대해 가르쳐주었다.

호명으로 변환되기도 했다. 이는 아이들의 소리 내기와 소리 듣기를 사회적 의미의 수신·발신으로 의미화하는 청각의 사회성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사례는 무지개반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청각 경험과 그것에 매개되어 나타나는 사회성을 보여준다.

〈사례 4〉

애벌레 달리기 놀이를 위해 강당에 무지개반 전체가 모였다. 아이들은 한 줄로 앉아 있고, 아이 뒤에는 아이를 맡은 실무사 선생님들이 서 있다. 안초롱 교사는 아이들을 마주보고 서서 놀이 방법을 설명했다. 설명을 마친 안 교사는 먼저 줄 서고 싶은 아이가 있는지 물었고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며 “저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안 교사: 지민이! 선생님 있는 쪽으로 나와 보세요.
지민은 안 교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따라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안 교사는 지민의 발걸음을 보며 숫자로 구령을 맞춰고, 지민의 실무사 선생님은 지민을지켜보며 뒤에서 함께 따라 걸었다.
안 교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한테까지 다섯 발걸음이네요. 지민이는 **저~쪽에** 가서 서주세요.
지민은 짝꿍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가장자리로 이동했다.
안 교사: 그 다음 준비된 친구?
아이들이 자원했고 안 교사는 수현을 불렀다. 앞으로 나오는 수현의 발걸음을 보며 역시 숫자로 구령을 붙여줬다.
안 교사: 수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민이 옆에 서세요. 지민이가 불러주세요.
수현: **지민아**!
지민: 나 여깄어! **수현아**!

수현은 지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수현의 실무사 선생님은 수현이 부딪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며 수현이 소리를 찾아 걷는 모습을 지켜봤다. 수현은 진호의 소리를 따라가서 진호 옆자리에 섰다. 다른 아이들도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이웃 아이의 소리를 따라가는 식으로 자기 자리를 찾았다. 자리를 만든 아이들 앞에 선생님들은 발바닥 모양 고무판을 두어 자리를 표시한 후 본격적인 애벌레 달리기를 시작했다.

VOICEYE
voiceye.com

놀이체육에 관한 설명을 마친 안 교사는 놀이를 위한 대형을 만들기 위해 줄 서고 싶은 아이들의 자원을 받은 후 지민을 불렀다. 안 교사의 지시와 함께 지민은 교사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앞으로 나왔다. 안 교사는 지민의 발걸음에 맞추어 숫자를 불렀다. 발걸음을 세는 안 교사의 목소리를 따라서 지민은 실무사의 지원 없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다. 안 교사의 목소리는 상황을 기술하는 동시에 이동하는 지민은 물론 제 자리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이동 방향 및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표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두 번째 자원자인 수현이 앞으로 나올 때에도 안 교사는 발걸음을 세어 아이들이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공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다섯 걸음 앞으로 나와 자신과 마주본 수현에게 안 교사는 지민 옆에 가서 서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수현을 불러달라는 지민에 대한 부탁과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안 교사의 요청을 듣자마자 수현과 지민은 서로를 부르며 서로의 위치를 소리로 확인하기 위해 집중했다. 누구도 소리 내주지 않던 가장자리로 가기 위해 실무사와 손을 잡았던 지민과 달리 수현은 지민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서 지민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갔고 실무사는 수현의 안전을 눈으로 확인하는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했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소리 내기와 듣기는 아이가 위치한 환경 내 그를 둘러싼 여러 소리 중 유의미한 소리를 감별할 수 있게 하는 청지각 연습에서 한층 더 나아간다. 무지개반의 청각 경험은 소리의 수신뿐만 아니라 소리의 발신을 파악하며 이동성(mobility)을 이끌어 낸다. 아이들이 소리에 귀 기울여서 소리의 발생지를 찾고 그곳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청각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립심과 능동성을 기를 수 있다고 여겨졌다. 또한 소리를 발생시키는 발신자와 소리를 찾아 이동하는 수신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청각 경험은 시각장애 아동에게 유의미한 듣기인 경청하기는 물론 경청하고 답하기를 배우는 독특한 방식이었다.[12)]

무지개반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른 아이를 위해 소리를 내주곤 했다. 발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친구를 자신 옆 자리의 빈 곳으로 부르기 위해서 또는 다른 아이에게 특정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몸과 사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소리를 만들어냈고, 또 소리를 향해 이동함으로써 그에 응답했다. 교사나 실무사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인 아이와 함께 박수나 책상 두드림 등으로 소리를 만들며 소리의 근원지로 다른 아이를 초대했는데 이에 따라 언어적 능력과 무관하게 아이들이 서로 부르고 답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소리에 대한 반응을 친구와 연결하는 무지개반의 청각 경험은 '목소리에 의지하는(verbomotor)' 문화와 비교될 만 하다. '목소리에 의지하는'

12) 미국 내 시각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언어인류학 연구 역시 청각경험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를 제시한다(Avital & Streeck, 2011).

문화란 시각 지각보다 인간들 사이 말소리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구술성을 보여준다(Ong, 2003: 124). 교실 사례의 경우 적확한 발성이 어려운 중복장애 아이들 역시 두드리는 소리를 내는 상호작용에 참여함으로써 강력한 사회적 인력(引力)을 발휘하는 확장된 구술성을 드러낸다. 무지개 반의 소리 내기와 듣기는 제한적인 시각정보를 대체하여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감각기술로 소리의 수신 및 변별에 그치지 않는다. 소리 내기와 소리 듣기는 청각적 반응과 행동적 참여를 유도하며 소리의 발신자와 소리의 수신자를 공통의 끈으로 연결한다(Harris & Van drie, 2015).

2) 촉각의 사회성: 손과 손으로 함께 만지는 연결

정안인 사이에서 촉각이 육욕적이고, 외설적이며, 감정적인 열등한 감각으로 여겨지며 수난을 받아왔다면(Smith, 2010: 180) 시각장애인에게 촉각, 특히 손을 통한 촉각은 자신이 위치한 환경을 탐색하고 알게 하는 기본적인 감각이자 시각장애인의 문자체계인 점자 문해에 필수적인 감각으로 여겨진다. 무지개 반 안에서도 손의 촉각은 청각과 더불어 교육적 활용을 위해 중시되어 왔다. 교사는 아이들이 다양한 사물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촉각 경험을 장려한다.

교사는 아이들과 물리적 실체 사이에 끊임없이 다리를 놓으며 아이들의 앎을 구체화하기를 시도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매개는 손 그리고 촉각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여러 물건을 만져보길 독려했으며 만지면서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시각적인 지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촉각 중심의 수업을 기획하고, 다양한 촉각 자극을 제공하는 교구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사물들을 만져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만져보았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이게 뭘까요?” 수업의 주제는 그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사물과 함께 소개되곤 했는데, 교사는 주제를 단번에 밝히기보다는 아이들이 사물을 만져본 후 사물에 대한 아이들의 촉각경험을 물어보며 마치 스무고개와 같은 논리적 추론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이와 짧은 질문의 연쇄가 주문하는 바는 그저 단순하지 않다. 신체를 통한 직접적인 감각을 감지하고, 그 감각에 어떤 주관성을 부여하면서 소화하는 동시에 개인의 감각을 적절한 사회적 기호와 연결시킴으로써 사물을 정의하는 일련의 탐색과정은 직관적인 동시에 매우 복합적이다.

교실 내에서 촉각성(tactaility)은 물리적 대상물에 대한 추론을 통해 아이들에게 논리성과 인과성을 이끌어내는 인지 요소와 연결되어 강조되지만 촉각성의 필수적인 전제는 몸을 사용한 접촉, 곧 신체와 대상의 신체적 맞닿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촉각은 타자와의 강력한 연결을 통해 사회적 세계의 존재를 상기하는 동시에 인과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주관적이며 즉발적인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손을 주로 사용하는 시각장애 아이들일지언정 그들의

VOICEYE voiceye.com

촉각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눈을 가리고 손의 감각으로 물체를 유추하는 비밀 상자 속 물체 알아맞히기 놀이를 상상해보자. 안대를 써서 시각적 정보의 유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상자 속을 거침없이 손으로 헤집는 참여자가 극히 드문 것처럼 시각장애 아이들 역시 손을 통해 전해질 촉각이 불러일으킬 느낌의 미연적인 불쾌감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다. 학교 안에서 시각장애 아동의 이러한 경향은 촉각방어(tactile defensiveness)로 불렸다. 일반적으로 촉각방어란 촉각에 대한 방어적 형태로 만져지는 것 또는 촉각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며, 감각에 대하여 비일상적으로 저하되거나 과잉된 반응성을 일컫는 감각조절장애(sensory modulation disorder)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Ayres, 2006: 107 참조). 하지만 시각장애 특수학급의 교사들은 촉각에 대한 아이들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 심리에서 발현되는 촉각의 거부를 문제시하기보다는 제한적인 시력을 가진 아이들이 느끼는 생존본능으로 여겼다. 교사들은 시각장애 아동에게 촉각이 능동적인 인지를 만드는 필수불가결의 감각이라는 점을 주지하며 아이들이 만지는 느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부 사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왔다. 촉각성을 강조하는 교실 및 교외 학습에서 아이들은 조랑말, 개구리알과 올챙이, 도토리, 해바라기, 매미 허물 등의 자연물을 직접 만져보며 그 대상에 대해 배우곤 했는데, 낯선 사물,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를 겁 없이 만지는 아이들은 극히 소수였다. 다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때 교사는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손과 손을 겹치며 아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례 5〉

가을을 맞아 무지개반은 주변 공원으로 교외 학습을 갔다. 아이들을 안내하며 정원을 지나는 길에서 김혜순 실무사는 화단에 있는 잠자리와 방아깨비 등을 손으로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고 혼잣말을 했다. 정지영 교사는 곧 큰 방아깨비 한 마리를 잡아왔고 각각의 아이에게 다가가 방아깨비를 설명하며 아이가 만질 수 있게 했다.

정지영 교사: 선생님이 방아깨비라는 친구와 인사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지금 선생님 손에 있는데, 어? 방아깨비라는 친구를 세게 잡지 말아요. 오른손 주먹 쥐고 둘째손가락 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살 만져보세요. ((정 교사는 방아깨비를 요리조리 돌려서 아이가 두 번째 손가락으로 구석구석 만져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는 날개, 그리고 다리가 여섯 개 있고, 여기 배는 어때요? 부드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껴보세요. 방아깨비는 잘 붙어 있으려고 다리 끝에서 이렇게 꽉 잡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가요?

어른 손가락만한 방아깨비를 본 일부 실무사 선생님들은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에 반해 아이들은 덤덤하게 손가락으로 방아깨비를 탐색했다. 손대기를 무서워하는 아이의 경우 정지영 교사는 아이를 뒤에서 안고 손을 포개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만져볼 수 있도록 북돋았다. 단비의 경우 거리낌 없이 방아깨비를 쓰다듬으며 "귀엽다!"고 말하고 즐거워했다.

교외 학습에서 정 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사물을 만져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정 교사는 촉각방어를 보이는 아이의 경험을 포기하거나 촉각에 신경이 곤두선 아이를 홀로 두기보다는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정 교사는 언어적 상호작용은 물론 신체 접촉과 같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정 교사는 아이를 뒤에서 감싸 안아 아이의 불안감을 덜어주며 아이를 진정시켰다. 아이를 달랜 교사는 자신의 손을 편 후 자신의 손등 위에 아이의 손을 올려서 교사가 만지는 움직임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한 후 대상과 만지는 느낌에 대해 말해 주었다. 정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어느 정도 진정된 아이가 적응한 기색을 보이면 정 교사는 손들 간의 맞물림을 어긋나게 하여 아이의 손이 좀 더 밖으로 나가게 만든 후 아이의 손이 대상에 점점 더 많이 닿을 수 있게 조정했다. 그 후 아이가 손을 완전히 펴서 대상을 만질 수 있게 하거나 겹친 손을 유지하며 촉각을 통한 탐색을 계속했다.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고 공유하는 아이-교사의 두 손은 하나의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의 가정 및 교육환경 내 부모, 아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신체접촉에 관한 언어인류학자 Goodwin의 연구는 언어적 표현만이 주로 조명되는 상호작용 연구 내 신체 간의 연속적인 감각의 연대를 통해 나타나는 접촉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상기한다. 신체 간의 공통 경험의 호혜적 공유성을 강조한 메를로퐁티의 신체적 상호주관성(corporeal intersubjectivity)을 바탕으로 그는 미국 가정 및 학교교육 환경 내 가까운 관계에 속한 이들이 수행하는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신체접촉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한다. 그는 공통행위를 함께 수행하며 친밀한 감정을 주고받는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상호체현적 의사소통으로 간주하고 몸을 통해 발생하는 촉각의 사회성(haptic sociality)을 개념화한다. 촉각의 사회성은 지금까지 등한시되었던 상호작용 내 신체 및 촉각의 중요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촉각을 통해 발생하는 근원적인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강조한다(Goodwin, 2017; Goodwin & Cekaite, 2018).

촉각의 사회성은 만지기를 두려워하는 시각장애 아동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한다. 아이와 교사가 서로 손을 겹쳐서 사물을 탐색하는 행위는 공통 행위에 집중하는 두

주체의 감정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며, 손과 손 사이에서 나타나는 아이와 교사의 상호신체성은 만지고 아는 교실의 감각문화를 위한 협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손에 손을 올리는 촉각의 사회성은 교수법에 머무르지 않았다. 교사의 손과 함께 새로운 사물을 만져본 아이들은 이를 타인에게 다른 사물을 소개하는 매개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인 조개껍데기를 학교로 가져온 단비는 연구자의 손을 잡아 끌어왔다. 새로운 사물을 소개할 때 교사가 그러하듯이 연구자의 손끝에 조개껍데기를 대준 단비는 이렇게 만져야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장난감을 탐색하는 방식을 알려주었다.



〈그림 1〉 손을 통한 촉각의 사회성: 방아깨비를 소개해주는 교사-아이 그리고 장난감을 소개해주는 아이-연구자

이미지 설명: 두 개의 사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왼쪽의 사진은 방아깨비를 든 채 어린이의 손을 맞잡은 어른의 손과 방아깨비를 만지는 어린이의 손을 보여준다. 오른쪽의 사진은 어른의 손가락을 잡아서 조개껍데기 끝에 대는 어린이의 손과 어른의 손을 보여준다. 끝.

이처럼 손을 통한 촉각의 사회성은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타인 그리고 외부와 연결되어 자신의 앎을 확장하는 방식이자 다른 사람에게 앎을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주지되며 긴밀한 사회성을 구축한다. 감각 경험이 사회적 활동 안에서 구체화되는 동시에 감각 경험과 사회적 활동이 서로를 상호구성한다는 감각 연구 내 논의를 상기해본다면 무지개반은 특정 감각의 부재로 인하여 다른 감각을 통한 사회적 연결이 활성화되는 감각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senses)(Trnka et al., 2013)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교실 안에서 아이의 촉각을 통한 앎은 자기 밖의 사회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알

리는데 이 촉각적 앎은 교사와의 밀접한 신체적·심리적 밀착을 통해 발생한다. 교사들은 새로운 사물을 탐색하는 교사와 아이 간의 협력인 촉각의 사회성이 교사와 아이 간의 깊은 유대 및 신뢰를 바탕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교사들은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를 유추하고, 소리를 구별하는 청각보다 촉각이 인지영역에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여겼다. 가만히 앉아 있으며 수동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청각과 달리 대상에 손을 뻗어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손을 움직여서 대상의 실재, 그 부분과 전체를 파악하는 촉각은 시각장애 아동이 앎을 추구하는 능동성과 적극성을 함의한다고 여겨졌다.

3. 시각장애가 기르는 자긍심: 감각으로 만나는 세계와 느끼는 앎을 중심으로

무지개반의 교사들은 (시각)장애를 연유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체념하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의 앎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무지개반의 교육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를 소거하는 식으로 특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를 잘 보여준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잔존시력 계발 혹은 복원에 호소하지 않으며 시각 외 청각과 촉각의 활용에 집중하는 환경과 수업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무지개반의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선천적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시각적 정보에 대한 탐구를 아쉬워하기보다는 청각과 촉각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는 앎의 방식을 습득해나갔다. 타인의 반응을 눈으로 지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은 흔히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 불가능한 고립된 집단으로 정형화되어왔다(Fraiberg, 1977). 무지개반의 아이들이 교사 및 또래와 청각 또는 촉각으로 만들어내는 관계는 정안인의 시각중심주의가 간과해 온 다른 감각에 기반한 상호작용 양상 및 관계 가능성을 보여준다(Avital & Streek, 2011; Feld, 2015; Goodwin, 2017; Goodwin & Cekaite, 2018).

시각장애 특수교육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여온 정지영 교사는 시각 정보의 제약이 교육에 끼치는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지시와 보호, 교사와 아이들 간에 표정과 몸짓 등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새로운 정보에 대한 노출과 보고 따라 하기를 통한 학습에 이르기까지 아동교육 내 시각정보가 제공하는 이점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비장애 유치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정지영 교사는 시각장애 특수교육과 정안인 교육을 대조하여 시각장애 특수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사례 6〉

정지영 교사: 아이들은 시각정보가 제약이 있고 그것에 대해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많은

VOICEYE
voiceye.com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중간생략) 일반 아이들은 글자를 그냥 보고 친숙하게 되고, 아니 글자가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이고, 글자가 그림의 일환이자 캐릭터처럼 인식되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자 이건 **칸쵸**라는 거야." 설명해주고 ((말하는 동시에 정 교사는 과자 봉지를 열어서 아이의 손을 함께 잡아 봉지 안으로 넣고 과자를 꺼내보고 아이에게 쥐어주는 제스처를 만들었다.)) 봉지 뜯어서 만져보고, 먹어보고, "이게 **칸쵸**야, 이게 뭐라고? **칸쵸!**" 이러면 맛이 다 떨어지죠.

정안 아이들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정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친숙해진다면, 시각장애 아이들에 대한 정보 전달은 위 사례에서 '칸쵸'로 등장하는 구체물 그리고 아이에게 구체물을 쥐어주고 함께 만지는 식의 시각장애에 친화적인 지도와 설명, 환경, 인력 등 여러 요소의 기획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은 특수한 감각 요구성(special sensory demandingness)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Hammer, 2017). 특히 정 교사는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앎의 습득이 직접적인 촉각 경험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전 소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외부의 실재(사물)를 만질 수 있는 환경 구성 내 촉각적 사회성(Goodwin, 2017; Goodwin & Cekaite, 2018)을 통해서 아이와 교사가 함께 손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아이는 스스로 사물을 만져보게 되고, 이를 거쳐 사물에 대한 촉각과 객관적 지식을 통합한다. 시각정보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정안 아이들과 달리 사물의 탐구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 및 여러 조건이 요구되는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의 특징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쉽게 소진시킬 수 있다. "맛이 다 떨어진다"는 정 교사의 표현은 이러한 난점을 가리킬 것이다. 하지만 학교 바깥에서처럼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급 내에서도 시각이 전능한 감각으로만 여겨지는 것만은 아니었다.

〈사례 7〉

정지영 교사: 그런데 오감체험은 [정안] 아이들이 안 하죠. 눈으로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하고 휙 지나가 버리고... 우리 아이들처럼 만지고~ 듣고~ 흔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안 아이와 시각을 제외한 다양한 감각 경험이 필수적인 시각장애 아이의 앎의 방식은 상이하다. 정안인 아이들이 단시적 시각판단에 그친다면 '우리' 아이

들, 곧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해 감각 정보를 지각하며 알게 된다고 정 교사는 설명한다. 시각 외 감각과의 연계작용에 대해 논하며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 간의 경험, 그 굳건한 위계질서는 역전된다. 정 교사의 논평이 드러내는 감각경험의 다양성 및 시각 외 감각의 중요성이 드러내는 시각중심주의의 전복가능성은 구술성을 탐구해온 영문학자이자 매체학자 Ong의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 Ong은 시각과 청각의 특징을 구분하며 시각은 분리의 기능에, 청각은 합체의 기능에 근접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시각과 대비되는 청각은 듣는 사람을 세계 안에 위치시킨다. 듣는 사람을 에워싼 세계는 듣는 사람으로부터, 그의 감각과 존재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우리가 듣는 것, 즉 소리 속에 잠길 수는 있으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시각 속에 잠길 수는 없다(Ong, 2003: 130-131 참조)."

시각장애 아동의 감각 경험이 시각의 '결손'에 한정되지 않고 시각 외 다양한 감각의 유의미성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Ong의 논의는 유효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각장애 아동의 비시각 중심의 감각 경험과 그것을 느끼고 아는 신체와 앎의 방식이 장애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이끌어내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교실의 감각모델을 이루는 청각과 촉각에 주목해보자. Ong이 정리한 바와 같이 청각은 듣는 사람을 에워싸는데 이때 듣는 사람과 그가 듣고 있는 세계 간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느낌의 생성을 만드는 자극과의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촉각 역시 만지고 있는 대상과의 연결 안에서 특정 감각 경험 안으로의 몰입과 침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은 정 교사의 말처럼 "만지고 듣고 느끼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세계를 탐색하며 연결을 시도한다. 시각장애 아동의 감각경험에서 나타나는 외부세계에 대한 지향성 및 감각 탐구의 적극성은 보여지는 대상과 보는 주체를 가르는 시각성과 차별화된다(Hammer, 2017: 147-148). 시각 외 감각을 통한 시각장애 아동의 인지적 독특성이 자신과 자신을 감싸 안는 세계와의 분리불가능성에서 나타난다는 특질 역시 이를 잘 드러낸다.

시각 외 감각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아이들의 앎은 몸과 거리를 두지 않으며 몸의 느낌과도 분리될 수 없다. 시각 중심의 보는 사람이 시각이 강조하는 명확성과 명료성을 중심으로 대상과 관찰자를, 더 나아가 물리적 존재로 위치하며 지각하는 몸과 시각정보를 소화하는 정신을 나누기 위해 몰두했다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앎은 생태적·물리적·물질적 세계 안에 온 몸으로 존재하며 세계와 자신을 만든다(Ingold, 2011). 이는 세계를 느끼고 아는 자신의 몸과 세계와의 적극적으로 얽히며 이루어진다. 감각을 연구하는 인류학자 Howes는 이를 몸-정신-환경의 감각적 상호연관성(sensuous interrelationship of body-mind-environment)(Howes, 2007: 7)으로 정리한 바 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무지개반의 아이들이야말로 학교 그리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느끼는 앎에

KCI VOICEYE voiceye.com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앎의 과정을 시각능력의 누락이 아닌 감각의 다양화로 간주하며 앎을 가능케 하는 자신의 몸에 대하여 자부심과 자긍심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점자를 잘 하고 싶다고 말하는 연구자에게 수현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비결을 알려주었다. “보지 못하니까 듣고 외우고 놀고 찍어보고 온몸으로 느껴서 익혀요!” 수현의 답은 시각장애를 지닌 자신의 인지론적·존재론적 특질을 함축적으로 요약한다. 수현은 자신의 시각장애를 부정하지 않았다. 또한 수현은 시각장애와 점자 문해력 간의 연관성을 장애의 유무로 환원시키지도 않았다. 수현의 답은 자신에게 익숙한 앎의 방식을 간추린다. 곧, 시각 외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온몸으로 느끼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현의 답에서 연구자는 그가 속한 무지개반 내 감각 모델에 대한 적확한 파악뿐만 아니라 느끼는 앎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몸에 대한 긍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온몸으로 배운다고 답한 수현과 달리 자신의 앎의 과정을 특정 신체로 그리고 감각으로 국지화하는 아이들도 존재했다. “난 눈보다 손이 좋아.” 또는 “눈보다 귀가 좋아.”라는 아이들의 말은 시각장애 아동의 앎과 삶 내 청각과 촉각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무지개반 아이들의 자기인식, 즉 장애가 있는 몸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인지적·감각적 차이에 대한 긍정은 장애가 마주하는 오명(汚名)의 필연성을 반문한다.

V. 결론 및 제언:
장애 자긍심이 가리키는 장애와 존재의 정치학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한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급을 연구 참여지로 삼아 시각장애 아동의 초기 학교사회화에 관한 민족지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를 가리거나 잔존능력의 개진 및 장애에 대한 교정에 집중하는 기능주의적 특수교육 이면의 비장애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장애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특수교육 내 사회화의 특질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장애의 재의미화의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시도했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를 교육적 제약이나 한계로 여기지 않는 교사의 교육신념을 기술하였고, 이러한 교사의 믿음 하에 구성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장애를 위계화하지 않으며 자기 그리고 장애를 탐색해나갈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교사들은 선천성 시각장애 아동들이 시각 외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기와 타인, 그리고 집단이 위치한 외부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그를 중심으로 수업 및 교실환경을 구성했다. 시각장애 아

동의 시각 외 감각경험에 집중하는 교실 내 교육의 특징은 청각 및 촉각 중심의 감각의 사회화로 개념화되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내 시각을 강조하는 정안인과 달리 특수학급의 아이들은 청각 및 촉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탐색하고 타인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시각장애 특수학급은 시각 외 감각을 통해 생성되는 감각의 공동체(Trnka et al., 2013)로 여겨질 수 있다. 감각의 사회화는 제한적인 시각 혹은 시각의 부재에 낙담하기보다는 몸 그리고 감각으로 사물 혹은 외부적 실재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느끼며 앎을 습득하는 시각장애 아이들의 자긍심과 그를 통한 장애의 재의미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교육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하여 매우 소수에 한정되어 수행되어온 시각장애 유아교육 연구(이규옥, 한성희, 2009; 조현근, 이병인, 2009)의 지평을 확장하고 유의미한 학제적 성찰을 보태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하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인 당사자의 요구를 드러내며, 이는 시각장애 학생의 행정적·교육실무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가중되는 일방적인 교정 가능성의 압력으로부터 사회 통합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특수교육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사회적 삶의 적응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소외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특수교육 내 장애 인식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개진한다. 시각장애 특수교육 및 장애 아동의 생애 초기 사회화에 한정된 본 연구의 한계는 관련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손상을 부정하지 않고 다른 감각으로 앎과 사회적 연결을 시도하는 시각장애 아동의 사회화에 관한 본 연구는 차이로서의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장애 정체성과 정치성을 다시 고찰한다. 장애인은 비장애 신체로 표상되는 '특정 신체 혹은 정신의 이상적 규범 기준'으로부터의 이탈자이자 정상성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지 않는 주변인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들의 차이는 교정되어야 할 결손으로 의미화되었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가 다른 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적·존재론적 양식을 새로이 하는 차이로서 나타남을 보여준다(Hughes, 2007; Feely, 2016; Cluely et al., 2020). 시각장애 특수학급에서 나타나는 시각 외 감각 경험은 손상의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경험으로 그 독특성으로 말미암아 손상으로부터 무력감이나 패배감이 아닌 자긍심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본 연구 내 시각장애 아동이 보여주는 긍지가 몸의 손상된 기능을 대체하는 보상(compensation)의 성공 또는 '불완전'한 몸에 대한 보완가능성의 예시 안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는 본 연구의 원 의도로부터 빗겨나가는 독해일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특수한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지닌 장애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애극복의 신화를 주입하고 독촉하는 자기계발적 낙관주의로부터 거리를 둔다. 본 연구는 선천성 시각장애를 중

VOICEYE
voiceye.com

심으로 부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용되는 차이로서의 장애와 장애 자긍심이 불러들일 정치적 가능성을 전망한다. 부정되지 않는 차이로서의 장애는 장애라는 소수자성을 이루는 내부적 차이의 복잡하고 미세한 얽힘을 담지하며, 그들이 빚어내는 다양성과 모호성과 비균질성으로부터 정치적 역능을 발견할 것이다. 차이들로부터 역능을 취하는 장애 공동체는 포함과 배제의 판정을 위하여 몸의 손상을 둘러싸고 장애인과 사회가 벌이는 법적 연극에 침투하고 그를 부식시키길 의도할 것이다. 차이로 연결된 장애 자긍심의 공동체는 자기와 타자 사이의 접면에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상에서 비롯되어 요청되는 다른 감각이 주체와 타자 사이에 거리를 확보해야만 하는 보기와 달리 타자와 닿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바와 같이 말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성은 취약하지만 타자에게 열려있으며, 국지화할 수 없는 몸의 기억을 동반하여 기꺼이 불안정성을 받아들일 것이다(Clare, 2020).

장애인 당사자의 손상은 손상에 말미암은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위하여 차이의 기원과 의미를 향하는 탐험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하지만 손상 그 자체로 탐험의 완수를 보증하기는 어렵다. 지도는 장애와 장애 사이의 접촉에, 장애들의 틈에서 마주칠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놓여있다. 차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차이의 의미를 긍정하고, 차이를 심화함으로써 차이 간의 불안정한 연대를 시도하는 장애의 정치성이 무릅쓰는 전언(傳言)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윤리를 호출하는가? 차이를 긍정하는 소수자 정치는 어떻게 사회적 낙인의 명료성을 교란하는가?(McRuer, 2006; Kafer, 2013; Jenks, 2019)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를 둘러싼 불명예와 모독의 역사는 어떻게 다시 쓰일 것이며, 우리는 그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비정상(abnormal)’이 아닌 ‘보통이 아닌(extraordinary)’ 몸(Thomson, 2015)이 통과할 존재의 정치학은 논의의 한계와 지혜를 끌어들일 다단한 여정을 향해 펼쳐져있다.

참고문헌

강윤희. (2015). 커피 배우기. 비교문화연구, 21(2), 5-41.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읽기. 서울: 그린비.

김병하. (1998). 특수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정립과 그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33(1), 5-23.

_____. (2005).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특수교육(학)적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40(1), 1-22.

김은주. (2016). 시각 기술의 권력과 “신체 없는 기관”으로서의 신체 이미지. 한국여성철학, 25, 137-164.

신종호. (2001).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2(1), 37-54.

엄수정, 유애란. (2014). 누구를 위한 특수교육인가?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2014 논문집, 1-55.

윤소연. (2012).『시각장애 유아의 온몸으로 배우기: 세 맹학교 유치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규옥·한성희. (2009). 시각장애 유아교육의 국내 외 연구동향: 1980년~2008년의 연구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36, 59-83.

이소현. (2005). 장애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 고찰. 유아교육연구, 26(6), 277-305.

이성은. (2005). 아동을 위한 총체적 언어 교육: 실체와 매체로서의 언어적 관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용숙, 이수정, 정진웅, 한경구, 황익주. (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일조각.

이정희. (2018). 시각장애인 이료교육에서 “느낌”의 체득에 관한 생애사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1(1), 341-376.

정은. (2009). 지적 장애아동 발달에 대한 손상학(비고츠키)적 접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0(3), 35-53.

조원일. (2012). 장애학적 관점에서의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 재고- 능력주의에 의한 인간 서열화에의 위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4), 125-140. doi: 10.20971/kcpmd.2012.55.4.125

Arnold, L. (2017). A brief history of "Neurodiversity" as a concept and perhaps a movement. Autonomy, the Critic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Autism Studies, 1(5).

Avital, S., and Jürgen Streeck (2011). Terra incognita: Social interaction among blind children. In J. Streeck, Charles Goodwin, and Curtis LeBaron (ed.), Embodied interaction: Language and body in the material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Ayres, A. J. (2006). 감각통합과 아동(김경미 역). 서울: 군자.

Bateson, G. (1990). 정신과 자연(박지동 역). 서울: 까치.

_____. (2006). 마음의 생태학(박대식 역). 서울: 책세상.

Campbell, F. A. K. (2008). Exploring internalized ableism using critical race theory. Disability & Society, 23(2), 151-162. doi: 10.1080/09687590701841190

Chau, A. Y. (2008). The Sensorial Production of the Social: The Senses and the Social. Ethnos, 73(4), 485-504.

Clare, E. (2020). 망명과 자긍심: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전혜은, 제이 역). 서울: 현실문화.

Classen, C. (1993). Worlds of sense: exploring the senses in history and across cultures. Routledge.

_____. (1997). Foundations for an anthropology of the senses. International Social Sc ience Journal, 49(153), 401-412.

_____. (2005). The book of touch. Oxford: Berg.

Cluley, V., Fyson, R., & Pilnick, A. (2020). Theorising disability: a practical and representative ontology of learning disability. Disability & Society, 35(2), 235-257. doi: 10.1080/09687599.2019.1632692

Devlieger, P. J. (2005). Generating a cultural model of disability. Paper presented at the 19th Congress of the European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Teachers of the Deaf (FEAPDA).

Feely, M. (2016). Disability studies after the ontological turn: a return to the material world and material bodies without a return to essentialism. Disability &

Society, 31(7), 863-883. doi: 10.1080/09687599.2016.1208603

Feld, S. (2012). Sound and sentiment : birds, weeping, poetics, and song in Kaluli express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_____. (2015). acoustemology. In Keywords in sound. Duke University Press.

Feld, S., & Brenneis, D. (2004). Doing anthropology in sound. American ethnologist, 31(4), 461-474.

Fraiberg, S. (1977). Insights from the Blind: Studies of Blind and Sighted Infants: New York: Basic Books.

Garland-Thomson, R. (2015).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손홍일 역). 서울: 그린비.

Geurts, K. L. (2002). Culture and the senses: bodily ways of knowing in an African community. Univ. of California press.

Gibson, B. E. (2019). Worlding disability: Categorizations, labels, and the making of people. AJOB neuroscience, 10(2), 85-87. doi: 10.1080/21507740. 2019. 1618413

Ginsburg, F., & Rapp, R. (2013). Disability world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2, 53-68.

_____. (2020). Disability/Anthropology: Rethinking the Parameters of the Human: An Introduction to Supplement 21. Current Anthropology, 61(S21), S4-S15.

Goffman, E. (2009).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윤선길, 정기현 역).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Goodwin, M. H. (2017). Intercorporeality: Emerging socialities in interaction, 73-102.

Goodwin, M. H. & Cekaite, A. (2018). Embodied family choreography: practices of control, care, and mundane creativity. Routledge.

Grinker, R. R., & Cho, K. (2013). Border Children: Interpreting Autism Spectrum Disorder in South Korea: BORDER CHILDREN. Ethos (Berkeley, Calif.), 41(1), 46-74. doi: 10.1111/etho.12002

Hammer, G. (2018). “You Can Learn Merely by Listening to the Way a Patient Walks

through the Door": The Transmission of Sensory Medical Knowledge.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32(1), 138-154. doi: 10.1111/maq.12366.

Harris, A., & Van Drie, M. (2015). Sharing sound: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ing sonic skills. Sound studies (2015), 1(1), 98-117.

Howes, D. (2003). Sensual relation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_____. (2007). Empire of the senses: the sensual culture reader. London: Routledge.

_____. (2014). Ways of sensing: understanding the senses in society. New York: Routledge.

_____. (2019). Multisensory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8(1), 17-28. doi: 10.1146/annurev-anthro-102218-011324

Hughes, B. (2007). Being disabled: towards a critical social ontology for disability studies. Disability & Society, 22(7), 673-684. doi: 10.1080/09687590701659527

Ingold, T. (2011).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New York: Routledge.

Ingstad, B. & enedicte, Whyte, S. (2011).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김도현 역). 서울: 그린비.

Jenks, A. (2019). Crip theory and the disabled identity: why disability politics needs impairment. Disability & Society, 34(3), 449-469. doi: 10.1080/09687599.2018.1545116

Kafer, A. (2013). Feminist, queer, crip.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Kim, E. (2022).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젠더·성의 재활과 정치(강진경, 강진영 역). 서울: 후마니타스.

McNeil, N. M., & Uttal, D. H. (2009). Rethinking the Use of Concrete Materials in Learning: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 and Educatio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3(3), 137-139.

McRuer, R. (2006). Crip theory: Cultural signs of queerness and disability. NYU press.

Michalko, R. (2017). The Mystery of the Eye and the Shadow of Blindnes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Nadesan, M. H. (2005). Constructing Autism: Unravelling the 'Truth' and Understanding the Social. Routledge.

Nakamura, K. (2006). Deaf in Japan: Signing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Cornell University Press.

Oliver, M. (1990). Politics of disablement. Macmill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Ong, W. J. (2003).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언어를 다루는 기술(임명진 역). 서울: 문예출판사.

Ortega, F., & Choudhury, S. (2011). 'Wired up differently': Autism, adolescence and the politics of neurological identities. Critical psychology 4(3), 323-345.

Rice, T. (2010). Learning to listen: auscult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auditory knowledg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6(s1), S41-S61.

Scott, R. A. (1969). The making of blind men : a study of adult socialization. London: Routledge.

Shakespeare, T. (2013).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이지수 역). 서울: 학지사.

Shuttleworth, R. P. (2004). Stigma, community, ethnography: Joan Ablon's contribution to the anthropology of impairment-disability.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18(2), 139-161.

Smith, M. M. (2010). 감각의 역사(김상훈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Solomon, O. (2010). Sense and the Senses: Anthropology and the Study of Autism. A 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9(1), 241-259. doi: 10.1146/annurev.anthro.012809.105012

Solomon, O., & Bagatell, N. (2010). Introduction Autism: Rethinking the Possibilities. Ethos (Berkeley, Calif.), 38(1), 1-7.

Sutton, D. (2019). Cooking Skills, the Senses, and Memory: The Fate of Practical Knowledge. 88-109.

_____. (2010). Food and the Sens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9(1), 209-223.

Trnka, S., Dureau, C., & Park, J. (ed.) (2013). Senses and citizenships: embodying

political life. New York, NY: Routledge.

Vygotsky, L. S. (1993). The fundamentals of defectology. The collected works of L.S. Vygotsky, 2, 29-93.

Waldschmidt, A. (2018). Disability-Culture-Society: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 cultural model of dis/ability. Alter, 12(2), 65-78.

Webster, A. & Roe, J. (1998).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social interaction, language and learning. Routledge.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Abstract

The Community of Invisible Senses:
Socialization of Senses and Re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in the Special classroom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in South Korea

Kim Seong in*

Based on the ethnographic research focusing on socialization in the preschool for the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I attempt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disability. I highlight the classroom education's understanding in disabilities and conceptualization on sensory use excepted visuality which intrigues socialization of the senses. In the classroom where visual influence is not emphasized, visually impaired children explore themselves and acquire broad range of knowledge including self, others and the world they inhabit, by using auditory and tactile senses. In the classroom, visual impairment is not regarded as constraints or exclusion, but a unique characteristic which allows sensory experiences of learning. In this manner, visually impaired children appreciate their special use of senses and proudly identify themselves as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special senses. With ethnographic data within the special classroom for the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I shed a light on the articulation of the politics of differences inbetween disabilities and the disability pride. I reconceptualize my case study in the pursuit of the disability politics and disability's pride and potentials beyond the negative stigmatization.

Keywords : disability, ableism,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special education, socialization, sense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71 - 97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LSTM 기반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예측 연구

이정민*·박영빈**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실상이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콜택시 게시판 이용자들의 후기글을 워드클라우드 및 의미 연결망 분석 시각화한 결과,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및 배차 시스템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해가 지날수록 콜택시 대기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평균 30분을 기다려야 하며 최대 2시간 이상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은 실제 콜택시 운영 대수가 법정 대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의 불편함을 느끼는지, 서비스 운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LSTM 기반 모델을 이용해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였다. 에포크(epochs)를 4로 설정하였을 때, MSE가 0.9955로 가장 작은 값을 보여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콜택시, 텍스트 마이닝, 대기시간 예측, LSTM

* 경찰대학 범죄학과 석사과정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정보통계학과 학부

Ⅰ. 서론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그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이동권'임이 명백하다. 2018년 "장애인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집 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46.6%이며,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 시 36.8%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현재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별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해가 지날수록 장애인 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운행 차량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시간은 길고 배차 시스템에 대한 불편 사항이 존재한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 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이 가장 긴 시간대는 오후 4시(평균 58분), 오후 5시(평균 32분), 오후 9시(평균 48분)로 나타났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은 대기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는 점과 이로 인해 장애인 콜택시로 출퇴근이 어렵다는 점이 현 문제점이다. 또한 저녁 시간대에는 운행 차량이 크게 줄어들어 대기시간이 증가한다. 일부 지자체(서울)의 교통지원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는 평균 대기시간을 제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았다.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자료(22.03.21~22.03.25)에 의하면 하루 평균 접수 건수는 1,348건, 탑승 건수는 1,051건(탑승률: 78%)으로 집계되었다. 30분 이내 배차 완료는 830건(79%), 30분 이상 1시간 이내 배차 완료는 168건(16%),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배차 완료는 51건(4.9%)이었다. 접수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수가 취소된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들은 대기시간이 오래 걸려 접수를 취소하고, 다시 시도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배차를 받는 데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배차가 완료된 뒤, 장애인이 실제로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평균 19분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배차 신청한 후에 배차 신청이 완료되며, 실제로 탑승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수단을 타기 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황은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에 초점을 맞춰 콜택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겪는 문제점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자유로운 취업 및 여가활동을 도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VOICEYE
voiceye.com

Ⅱ. 선행연구 고찰

1. 특별 교통수단 불균형 개선 연구

이병화·양희택(2017)은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운영 자료와 경기도의 현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해 센터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후발 광역 이동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 빅데이터와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운행 및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발지역과 목적지역 등의 운행지역, 이용목적, 장애유형 등 이용자 특성, 탑승 소요시간과 배차지연 시간과 이유 등을 빈도 분석하였다. 관내 이동의 경우 저상버스 등을 개발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다양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목적을 확대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 휠체어 여부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콜택시 유형의 다변화, 지연시간의 단축 방안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석종수(2014)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의 전산 자료를 빈도 분석하여 이용자의 장애 유형을 파악하고, 행정동별 호출 건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용목적별 운행 비율과 시간대별 이용 건수,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의 분포를 시각화하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성광환·신유열·윤윤진(2022)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서울시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의 접근 형평성이 어떠한지 공간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장애인 남성 비율과 종사자 밀도 비율이 높을수록 콜택시의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단위 면적 당 버스 정류장이 많을수록, 기초수급대상자 비율이 높을수록 접근성이 좋은 편이었다. 또한 불균형을 제거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운영을 제안하였다. 정진형·박호성·여윤구·김학빈·강준혁(2018)은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이 가장 적은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의 대기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할당 대수를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AHP 분석[1]으로 장애인 콜택시 할당 우선도시를 선정하였고, Queueing Theory(대기이론)를 활용하여 도시 별 대기시간 산출 및 최적의 차량 대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비해 타 지역의 구체적인 DB 부족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DB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신용은·최혜미·송기욱·이희대(2014)는 경상남도 콜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 특성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기록되는 항목은 출발지, 도착지, 장애 종류, 휠체어 이용 여부, 배차 결과 및 실패 사유 등을 포함한 총 10개 항목이고, 이를 가공하여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휠체어 이용자는 42%이며 주 이용자는 신체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1) 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적 분석과정),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눈 후 일을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

나타났지만, 노인과 임산부의 비율은 낮았다. 주중 및 주말 이용 패턴은 일반인과 유사하지만 시간대별 첨두시간은 일반인의 비첨두시간에 집중됨을 확인하였다. Feeley, C., Spasovic, L. N., Dimitrijevic, B., & Lee, J.(2016)는 장애인 대중교통 승객을 위한 차량 도착 알림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Google Traffic API를 이용해 차량을 추적하며 3G 및 4G-LTE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승객 알림 외에도 Google Maps API를 통해 개발된 실시간 경로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기시간은 기존 20~40분에서 15~20분으로 줄어들었고, 거의 모든 경우에 차량이 예정 도착 시간보다 1분 일찍 도착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지역별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가 접근성 측면에서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지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특별 교통수단 배차 최적화 연구

홍두선·가은한·하성현·이청원(2018)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예측 LSTM 모델의 적정 하이퍼 파라미터 선정에 관한 연구 실시하였다. 하지만 더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야간 시간대 특성상 적은 탑승 건수로 야간 시간대의 정확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형수·김훈기·김영성(2017)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간 복잡도를 반영한 자동 배차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동 배차 기능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최선의 자동 배차 알고리즘 구현하였으나, 도/전국 단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효율적인 시간 복잡도를 갖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다. 손종훈·김도경(2021)은 생존분석을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대기시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호출 후 승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Cox 비례위험모형, 3가지 공변량(운전원 출퇴근 시간대, 장애인 콜택시 회원 규모, 차량 이용 가능도)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평일과 주말에 따라 대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과 요일별 특성이 같더라도 호출 시간대 및 지역 등의 시공간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가 경험하는 대기시간의 증감률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나 단지 3가지 공변량만 고려한 것에 한계점이 있다. 박진혁·장영재(2015)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고객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자동 배차 알고리즘 및 최적 차량 공급을 제안하였다. 콜 접수 내역(접수 시각, 희망 탑승 시각, 고객 유형, 등), 실시간 차량 데이터(위치, 상태, 등), 운전자 근무 배치표(운전자 출퇴근 시간,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대기시간 세분화 및 배차 알고리즘 요건 파악하였다. 그리고 배차 최적화 모델을 구현하여 실질적인 공급 차량 판단 기준 확립하여 공급 최적화 모델 구현하였다. 김건욱·윤대식·김종진(2020)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

VOICEYE
voicey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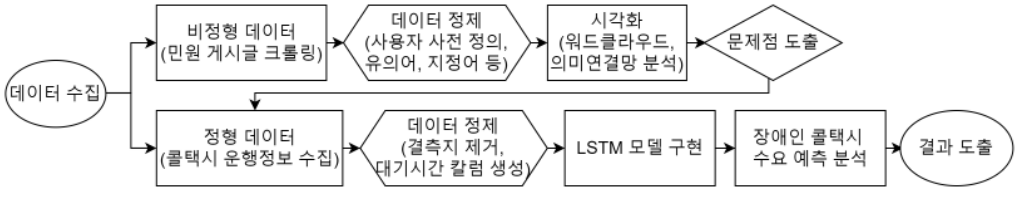
구광역시의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통행 수요를 분석하였다.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들의 실제 배차 이력 자료(특별 교통수단 이용자 수, 콜센터 직원 수, 운행 차량 대수, 등)와 기상자료(온도, 강우량, 미세먼지, 등)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통행 수요를 시점별 통행 특성(요일별, 시간대별, 통행 시간 및 대기시간, 등)과 공간적 통행 특성(승하차 지점, 승하차 지점별 대기시간,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기상 상황별(미세먼지, 적설 여부, 강우 여부, 온도)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 수를 분석하였으나 시간적 범위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확한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도엽·정수훈·천영재·김동일·유승일(2018)은 택시 수요 예측 모델인 TGNet을 개발하였다. TGNet은 카카오브레인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개발한 모델로 단순한 시계열 예측이 아닌 시공간 상의 수요 예측 모델이다. 이재길(2020)의 연구에 따르면 TGNet 모델은 여러 시간대의 과거 택시 수요를 여러 채널의 이미지로 간주하여 CNN만을 사용하였고, 시간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 시간 정보를 연속된 실수 값으로 표현하는 Embedding layer를 추가하였다. 또한 택시 하차와 같은 보조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 임베딩을 고려하였다. 과거 4시간의 8개 채널의 데이터, 시간 임베딩 결과, 추가 임베딩 결과를 결합하고 Fully-Connected 층을 통과시켜 다음 시간대의 택시 수요를 예측하게 된다. 교통량, 날씨와 같은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어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보인다. Garnier, c., Trepanier, M., Morency. C.(2020)는 대중교통 차량이 승객들을 탑승시키고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는 시간인 체류시간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차종, 정류장 위치, 날짜 및 시간, 휠체어 이용 여부와 같은 승객 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모형을 구현하였다. 이로 인해 경로가 최적화되었고, 운영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보였다.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 데이터의 한계로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과 같은 주요한 변수가 모델에 포함되지 못하여, 대기시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착시간(운행 완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가용 가능한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모델의 예측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시군구와 같은 공간적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추후 공간적 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 범위 및 절차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래 순서도와 같이 진행하였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후기를 알고자 서울시설공단 - 장애인 콜택시 페이지의 민원 게시글을 웹 크롤링(Web crawling) 기법으로 수집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는 글을 쓰는 사람의 표현 방법과 글을 작성하는 당시의 기분 상태에 따라 단어 선택 및 어휘 표현이 상이하므로 이를 통일하기 위한 정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 워드클라우드와 의미연결망 분석 기법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였다.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탐색하고자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 정보에 대한 Open API 데이터를 데이터프레임 형식으로 수집하였다. 2021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결측치를 제거하였고 모델링에 필요한 파생변수를 생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생성한 파생변수를 대상으로 LSTM 알고리즘을 이용해 장애인 콜택시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 순서도

2. 활용 데이터 소개

1)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우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장애인 콜택시]의 [시민의 소리] 게시글을 수집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였다. 2019.01.07 ~ 22.06.30 기간 동안 작성된 게시글의 작성일, 제목, 내용을 Jupyter Lab 환경에서 Python의 urllib, selenium 패키지를 이용해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이용 후기 게시글을 공개하는 창구는 서울시설공단이 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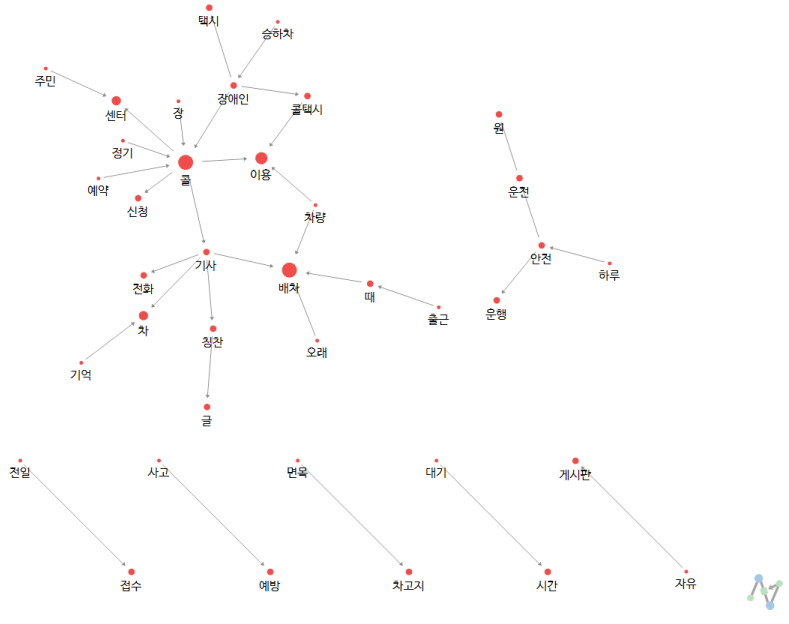
하였다. 제목과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여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를 처리한 후에 빈도수가 높은 상위 250개 단어를 대상으로 워드클라우드를 구현하였다.



〈그림 2〉 워드클라우드 상위 250개 단어

‘기사’, ‘장애인’, ‘시간’, ‘콜택시’, ‘이용’, ‘배차’, ‘시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콜택시 이용자들이 배차와 시간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 ‘안전’, ‘칭찬’을 통해 운행 기사를 칭찬하는 글을 쓰는 용도로 시민의 소리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을 통해 주로 병원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長)’콜은 원거리 이동을 뜻하는 은어로, 의미연결망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이지만 ‘문개사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 장애인들이 차량에 승·하차 할 때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단어 간 연관성과 문맥 파악을 위해 의미연결망 시각화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화살표에 따라 단어를 연결하여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큰 네트워크는 ‘콜’과 ‘배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長)’ → ‘콜’, ‘정기’ → ‘콜’, ‘예약’ → ‘콜’, ‘전일’ → ‘콜’ 등의 단어로 보아 이용자들이 보편적인 택시 이용과 같은 즉시콜 보다 사전 신청을 통한 택시 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하였다. ‘출근’ → ‘때’ → ‘배차’나 ‘오래’ → ’배차’, ‘대기’ → ’시간’를 통해, 주로 이용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에 배차의 어려움이 있거나, 배차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기사’ → ’칭찬’이나 ‘안전’ → ’운행’ 등 운전기사를 칭찬하는 내용도 존재한다. 기존 시민의 소리 게시판 이외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림 3〉 의미연결망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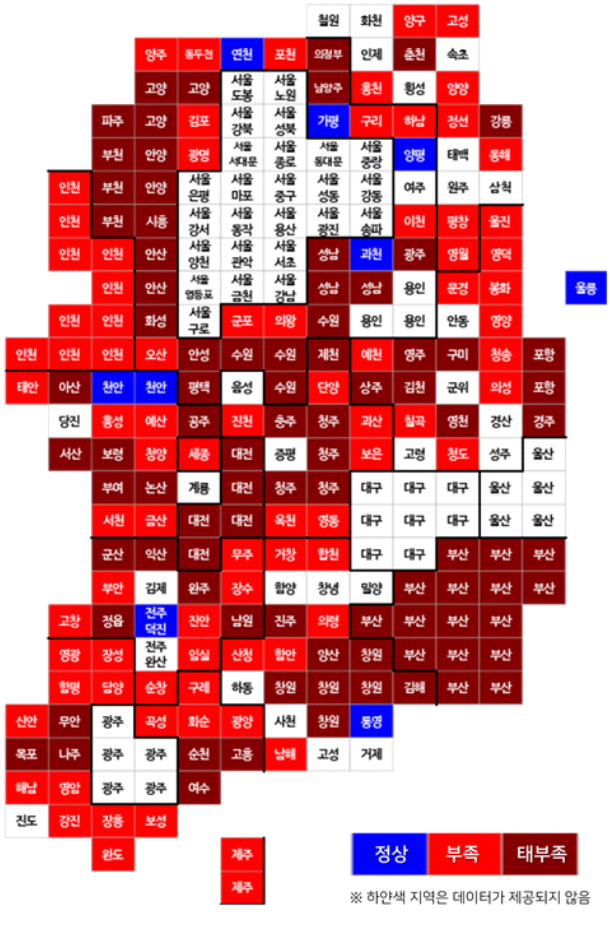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2]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되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실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수가 법정 대수를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보 표준 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의 “시군구별, 장애정도별, 성별 등록 장애인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법정 대수에서 운영 대수를 뺀 차이를 기준으로 차이가 양수이면 ‘정상’, 중앙값(median)보다 차이가 큰 지역은 ‘태부족’, 그 외에는 ‘부족’으로 표시하였을 때 지역별 심각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정의한 정상, 부족, 태부족을 지도 시각화하였으며, 색이 없는 흰 부분은 서울시와 일부 광역시 및 지역으로 실제 콜택시 운영 대수와 같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해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5.] [국토교통부령 제637호, 2019. 7. 5., 일부개정]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VOICEYE
voiceye.com

당 정보가 존재한다면 실제 운영 대수가 법정 대수를 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차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를 통해 지역별로 실제 운영대수가 법정 대수를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전국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수 지도 시각화

위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배차와 대기시간에 불편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콜택시 운영 현황과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어느 정도 대기시간이 소요되는지 파악하였다.

2) 정형 데이터 수집 및 E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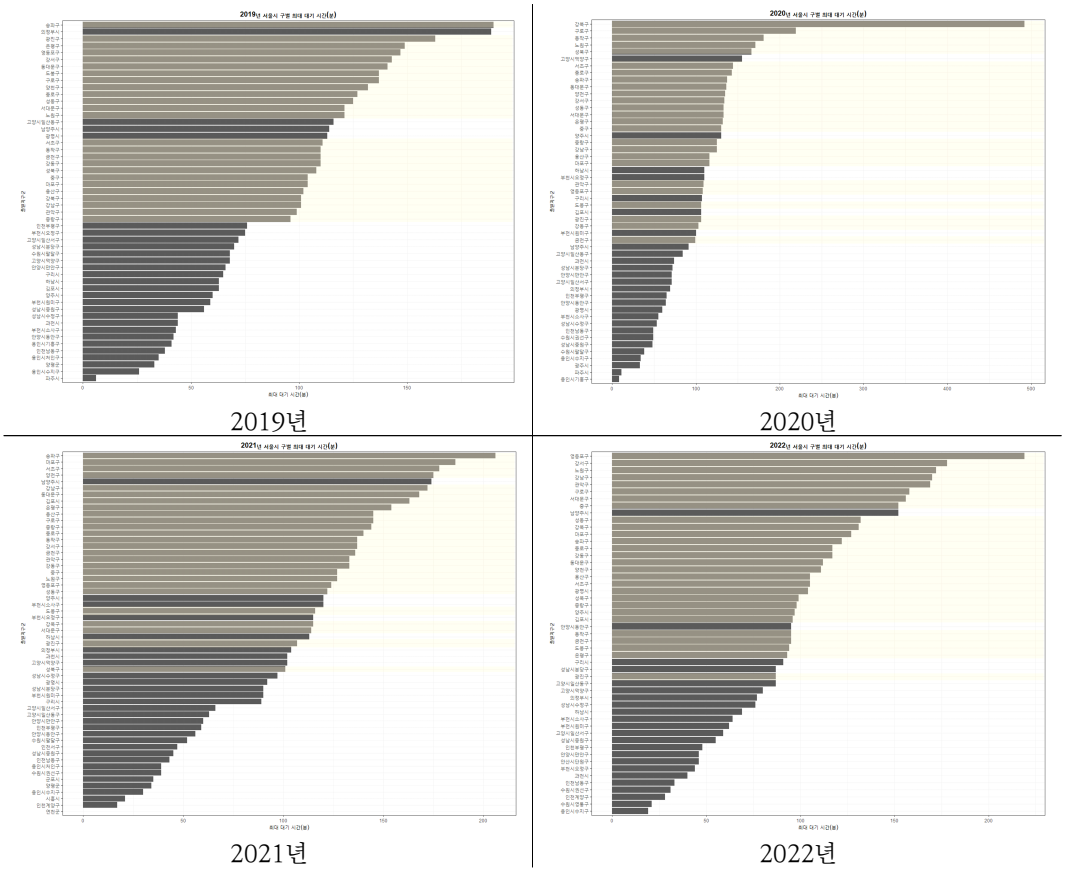
2019.01.01 ~ 2022.08.20 기간의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의 장애인콜시스템 Open API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데이터는 차량고유번호, 차량타입, 예정일시, 배차일시, 승차일시, 출발지, 목적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Python에서 urllib, BeautifulSoup, datetime 등의 패키지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XML 데이터를 파싱하고 데이터프레임으로 정리하였다. '예정일시'는 차량 승차 시점을 미리 설정한 시각, '배차일시'는 차량을 배차 받은 시각, '승차일시'는 실제로 차량에 탑승한 시각을 의미한다. 이후 데이터 정제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시간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 오전, 오후로 나누어진 시간을 0 ~ 23시간으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2000-01-01 오후 1:00:00'를 '2000-01-01 13:00:00'로 바꾸었다. 또한 예정일시, 배차일시, 승차일시는 문자형으로 수집되었기에 as.POSIXct(), strptime() 함수를 이용해 날짜 형으로 데이터 형 변환을 수행하였다. '대시기간' 칼럼은 (승차일시) - (배차일시), '분'단위로 계산하였으며, 이 중에서 배차일시가 승차일시보다 이른 시각이 있어서 음수 값이 나오거나 비어 있는 값이 있으면 제외하였다.

이후에 연도별 출발지구군을 기준으로 최대 대기시간이 몇 분인지 정리하여 막대그래프 구현하였고, 〈표 1〉과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적지가 서울권이면 인천과 경기도지역이 출발지에 포함되었다. 출발지구군이 서울 지역이면 형광색으로 표시하였다. 2019년의 최대 대기시간을 갖는 지역은 송파구(190분), 경기도 의정부시(189분), 서울시 광진구(163분), 서울시 은평구(149분), 서울시 영등포구(147분)로 나타났다. 2020년의 최대 대기시간을 갖는 지역은 서울시 강북구(492분), 구로구(219분), 동작구(181분), 노원구(171분), 성북구(166분)로 나타났다. 대기시간이 492분인 경우는 출발지가 강북구 수유 제3동이며, 목적지는 강북구 인수동이였다. 배차일시는 20.03.07 오전 7시 4분이었지만 승차일시는 같은 날 오후 3시 17분이었다. 2021년의 최대 대기시간을 갖는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206분), 마포구(186분), 서초구(178분), 양천구(175분), 경기도 남양주시(174분)로 나타났다. 2022년의 최대 대기시간을 갖는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219분), 강서구(178분), 노원구(172분), 강남구(170분), 관악구(169분)로 나타났다.

KOR VOICEYE voiceye.com

〈표 1〉 연도별 최대 대기시간(분) 상위 5개 지역

연도	지역	최대 대기시간(분)
2019	서울시 송파구	190
	경기도 의정부시	189
	서울시 광진구	163
	서울시 은평구	149
	서울시 영등포구	147
2020	서울시 강북구	492
	서울시 구로구	219
	서울시 동작구	181
	서울시 노원구	171
	서울시 성북구	166
2021	서울시 송파구	206
	서울시 마포구	186
	서울시 서초구	178
	서울시 양천구	175
	경기도 남양주시	174
2022	서울시 영등포구	219
	서울시 강서구	178
	서울시 노원구	172
	서울시 강남구	170
	서울시 관악구	169



〈그림 5〉 2019~2022년 수도권 시군구별 최대 대기시간

3) 파생 변수 생성

모델은 개발 환경의 한계로 인해 2021년 1년간의 데이터만을 학습하였다. 모델 구현에 투입할 변수는 TGNet 알고리즘 선행연구(이도엽 외, 2018)에서 사용한 변수를 차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차량타입은 '대형승용', '중형승합', '중형승용' 총 3가지 값이 존재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소지하고 탑승할 수 있는 보조기기 크기가 다르므로 배차될 수 있는 차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대기시간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가변수로 생성하였다. '승차일시'를 기준으로 요일(7), 공휴일 여부(1), 공휴일 다음날 여부(1) 변수를 생성하였다. 요일은 0~6의 값을 가지며, 월요일은 0, 일요일은 6으로 값을 지정하였다. 2021년의 공휴일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천문연구원이 제공하는 국경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조회할 수 있는 Open API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또한 '승차일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2021년의 공휴일은 총 18일이었으며, 새해(1/1),

KCI VOICEYE voiceye.com

설날(2/11~2/13), 삼일절(3/1), 어린이날(5/5), 부처님 오신 날(5/19), 현충일(6/6), 광복절(8/15), 대체공휴일(8/16), 추석(9/20~9/22), 개천절(10/3), 대체공휴일(10/4), 한글날(10/9), 대체공휴일(10/11), 크리스마스(12/25)가 있었다. Open API의 공휴일 정보를 활용해 '승차일시'에서 날짜 정보만 추출하여 특정 승차일시가 공휴일이면 1, 아니면 0으로 값을 부여하였다. 공휴일 다음 날에 대한 값은 공휴일 다음 날이면 1, 아니면 0 값을 부여하였다. 또한,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을 추산한 변수를 생성하였다. 출발지와 목적지의 행정동 단위까지만 제공되는 데이터의 한계로 행정동의 주민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차로 이동하는 거리와 이동 시간을 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맵(Kakao Map)을 웹 크롤링하여 자동차 길 찾기의 이동 거리와 이동시간을 추출하였다. 또한 동일한 행정동 내에서 콜택시를 이용한 경우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임의로 이동거리는 3km, 이동 시간은 5분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모델에 들어가는 변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모델 투입 변수 목록

번호	변수 목록	속성
1	차량타입	대형승용, 중형승합, 중형승용
2	승차일시	%Y-%m-%d hh:mm:ss
3	대기시간	초 단위(s)
4	요일	0(월요일) ~ 6(일요일)
5	공휴일	0(공휴일 아님), 1(공휴일)
6	공휴일 다음 날 여부	0(공휴일 다음 날 아님), 1(공휴일 다음 날)
7	이동시간	초 단위(s)
8	이동거리	미터 단위(m)

3. 모델링

1) LSTM 모델 구현

장단기 메모리(Long Short-Term Memory, LSTM) 모델은 시점(time step)이 길어질수록 앞의 정보가 뒤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RNN의 한계를 극복한 RNN의 변형 모델이다. LSTM은 은닉층의 메모리 셀에 입력 게이트, 망각 게이트, 출력 게이트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기억을 지우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한다. 따라서 LSTM은 RNN과 비교하여 긴 시퀀스의 입력을 처리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다양한 분야에서 lstm을 활용한 시계열 예측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LSTM은 전력 데이터 예측(이원규, 안소영, 임민섭, 천승태, 2016), 용존산소량 예측(한명수, 박성은, 최영진, 김영민, 황재동, 2020), 온실 내 온도 예측(이정규, 강동현, 이동훈, 2019), 자동차 AS 센터 수리 부품 수요 예측(정동균, 이종화, 이현규, 2022) 등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LSTM의 수식(이우창, 김양석, 김정민, 이충권, 2020)은 아래와 같다. 은닉층(Forget gate)에서는 유지할 정보를 결정하게 된다. 식 (1)에서는 은닉층에서 이전 셀 상태와 현재 입력 값을 확인하여 Sigmoid layer를 거쳐 어떤 정보를 취하고 버릴지 결정한다. σ는 활성 함수, W는 가중치, b는 바이어스를 의미한다.

$$f_t = \sigma(W_f[h_{t-1}, x_t] + b_t) \qquad (1)$$

입력층(Input gate)은 앞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 중 어떤 것을 cell state에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먼저 Sigmoid layer를 거쳐 어떤 값을 업데이트할 것인지 정한 후 tanh layer에서 새로운 후보 vector를 만든다. 식 (2), (3)은 입력층에서 새로운 입력 값을 만드는 수식이다. 수식 (4)는 이전 gate에서 버릴 정보들과 업데이트할 정보를 정했다면, Cell state update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i_t = \sigma(W_i[h_{t-1}, x_t] + b_t) \qquad (2)$$

$$\widetilde{C_t} = \tanh(W_C[h_{t-1}, x_t] + b_C) \qquad (3)$$

$$C_t = (f_t \times C_{t-1}) + (i_t \times \widetilde{C_t}) \qquad (4)$$

마지막으로 출력층(Output gate)에서는 어떤 정보를 output으로 내보낼지 결정한다. 식 (5), (6)은 먼저 Simoid layer에 input data를 넣어 output 정보를 정한 후 Cell state를 tanh layer에 넣어 Sigmoid layer의 output과 곱하여 output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뜻한다.

$$\sigma_t = \sigma(W_\sigma[h_{t-1}, x_t] + b_\sigma) \qquad (5)$$

$$h_t = \sigma_t \times \tanh(C_t) \qquad (6)$$

KCI VOICEYE voiceye.com

2) 정확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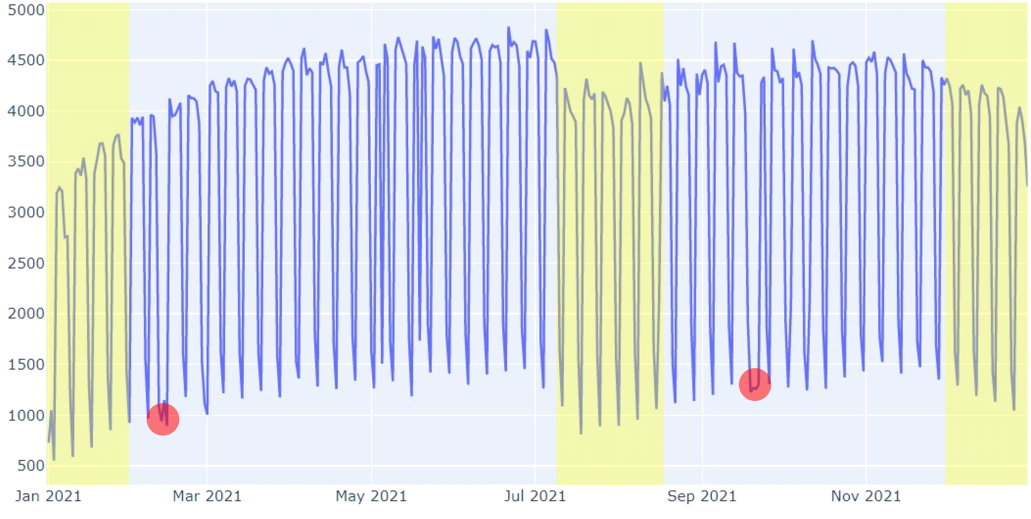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예측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예측 모델의 평가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MSE(Mean Square Error)와 MAE(Mean Absolute Error)를 사용하였다. MSE는 관측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오차의 제곱 값의 평균을 나타낸 지표이다. MAE는 오차의 절댓값의 평균을 뜻한다. 두 평가 지표 모두 낮을수록 예측력이 좋은 모델임을 증명한다. 수식은 (7), (8)과 같다.

$$MSE = \frac{\sum_{t=1}^{n}(A_t - F_t)^2}{n} \quad (7)$$

$$MAE = \frac{\sum_{t=1}^{n}|A_t - F_t|}{n} \quad (8)$$

Ⅳ. 연구 결과

2021년의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일별 배차량 그래프는 〈그림 6〉과 같다. 가장 먼저 계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8월)과 겨울(1, 12월)에는 다른 기간에 비해 배차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혹서기, 혹한기에 이동이 줄어드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평일임에도 낮은 배차량을 보여 상세히 확인한 결과, 명절 연휴인 구정과 추석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6〉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일별 배차량 연간 주기성

〈그림 7〉은 주간 주기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시로 2021년 12월의 그래프를 나열하였다. 5일(일), 12일(일), 19일(일), 26일(일)을 기점으로 1주일 간격으로 배차량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대체로 평일은 주말보다 배차량이 약 3배정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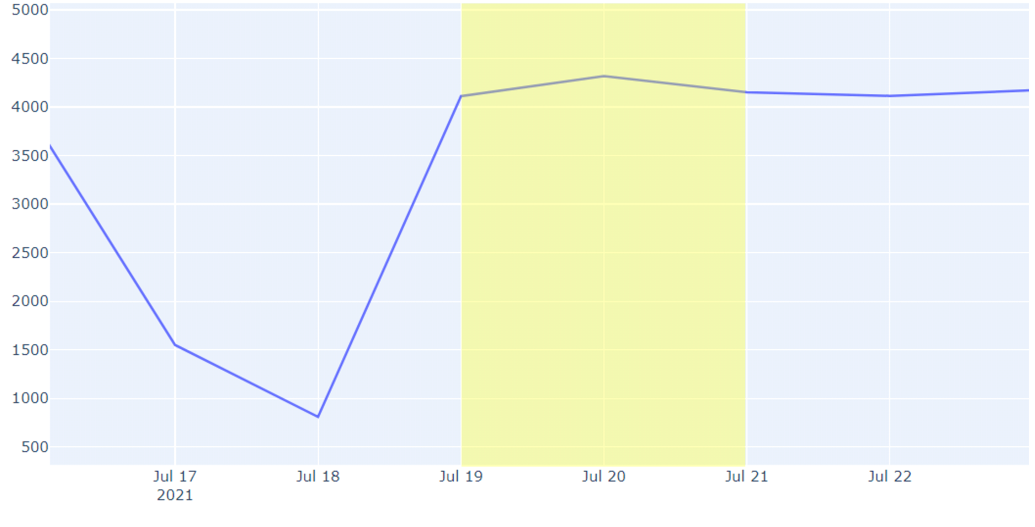


〈그림 7〉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일별 배차량 주간 주기성

〈그림 8〉, 〈그림 9〉는 요일별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2021년 12월 27일, 28일, 29일은 각각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로 해당 요일이 다른 요일보다 배차량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기간에도 동일하게 평일에 배차량이 많은 현상을 보였다.



〈그림 8〉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일별 배차량 일별 주기성(1)



〈그림 9〉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일별 배차량 일별 주기성(2)

〈그림 10〉, 〈그림 11〉은 설날과 추석의 배차량 그래프이며 명절 기간에는 주말처럼 배차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설날 배차량



〈그림 11〉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추석 배차량

〈그림 12〉, 〈그림 13〉은 하루 동안의 승차시간에 따른 배차량을 알 수 있는 그래프이다. 다음

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배차 수요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기간에도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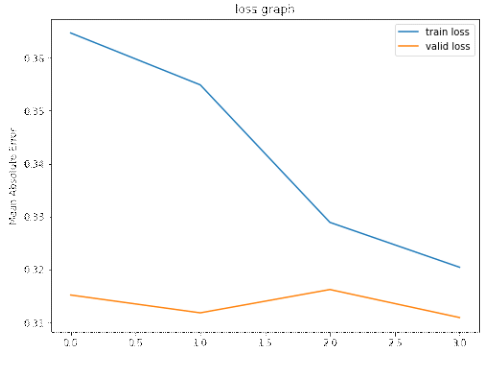
〈그림 12〉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시간별 배차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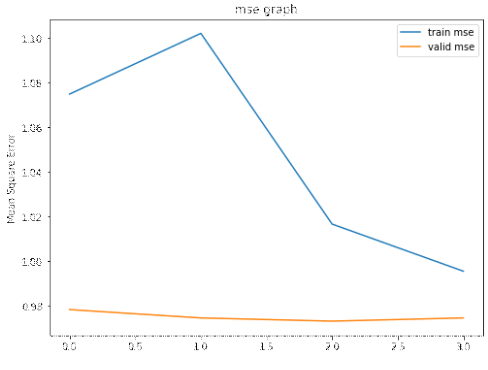
〈그림 13〉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시간별 배차량(2)

파악된 현황 특성을 바탕으로 모델 구현을 위해 각 변수를 스케일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차량타입, 승차일시, 공휴일 여부, 공휴일 다음 날 여부는 객체(object)로 변환했으며, Python pandas의 get_dummies() 함수를 이용해 더미변수로 치환하였다.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은 실수(float)로 변환하였다. 또한 전처리된 변수 값들을 모델에 넣기 위해 배열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체 데이터의 70%를 학습 데이터 셋, 30%를 검증 데이터 셋으로 선정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습 시 입력되는 데이터 윈도우가 길 경우, 이를 모두 학습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과적합(Overfitting)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위해 'step'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 특정 구간의 데이터만 학습하도록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ata_window를 180개, 예측 값을 18개로 설정하였다. data_window가 180개라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 윈도우에 180개의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tep을 6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180개 중 6개마다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어 총 30개의 데이터만 추출되게 된다. LSTM 셀의 hidden layer를 32로 설정하고 출력값은 1개이므로 Dense layer에 1을 설정하였다. 모델 컴파일의 최적화 함수는 RMSprop, 손실 함수는 MAE, 측정치는 MSE로 설정하였으며, 학습 프로세스가 모든 샘플에 대해 한 번 실행되는 것을 1 epoch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MSE(0.9955)을 보인 4로 에포크를 설정하였다. 〈그림 14〉과 〈그림 15〉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Train set과 Validation set의 MAE와 MSE가 에포크 4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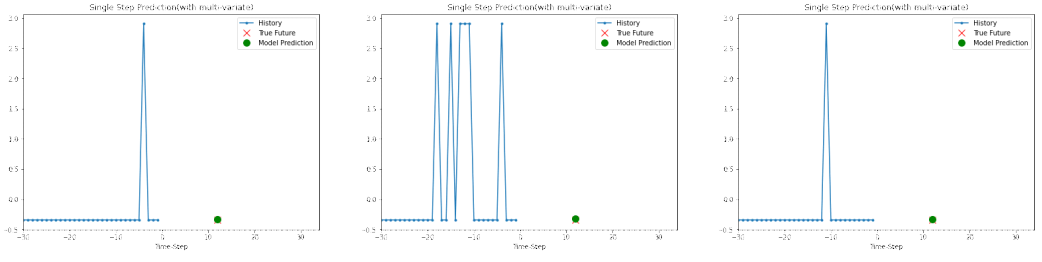
〈그림 14〉 Train set, Validation set의 MAE loss graph



〈그림 15〉 Train set, Validation set의 MSE graph

다음 〈그림 16〉은 2021년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 랜덤으로 3개의 날짜를 선택하여 해당 날짜의 실제 대기시간과 모델이 예측한 대기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파란 추세선은 학습

데이터로 이루어진 과거 대기시간을 나타낸 History 선이다. 빨간색 표시는 해당 날짜의 대기시간 실제 값, 초록색 점은 해날 날짜에서 모델이 예측한 대기시간 값이다. 두 표시가 가까울수록 정확히 예측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6〉 실제 대기시간과 예측 대기시간 비교

V. 논의

2021년의 장애인 콜택시 일별 배차량을 확인한 결과, 특정 요일에만 배차량 증가, 계절 및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배차량, 추석/설날 같은 명절 기간에는 배차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주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는 배차량이 가장 많았고, 월요일에서 수요일이 다른 요일보다 배차량이 높았다. 이를 통해 수요가 유동적인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유동적이지 않아서 배차에 문제가 생기고 대기시간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차량이 높은 시간대 및 기간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면, 차량이 부족한 문제나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 교대 스케줄을 재조정하여 차량의 운행시간이 골고루 분포되어 원활한 배차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운영 대수가 법정 대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태반이므로 지역별 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법정 대수를 채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정 대수에 준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갖춰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다. 또한 일반 택시 운전자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공급난을 해결할 수 있다. 택시 운전자는 운전 경력이 풍부하고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이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장애 및 장애인 서비스 관련 교육을 충분히 지원한다면 택시업과 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장비 작동 방법, 돌발 상황 시 대처법, 차량 안전 기준 등을 표준화 및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부수적으로 일반 택시 운전자들도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결코, 장애인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별, 혹은 장애 인구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차고지를 확대한다면 특정 지점에 차량이 치우치는 현상을 줄여 대기시간의 편차를 좁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의 타 지역에서도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 데이터가 공개되어 농어촌처럼 장애인 이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 단위 지역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된다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까지 이동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 전장연은 현재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2021년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비장애인과 비교조차 불가능하게 부족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일반 택시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배차 수요가 높은 시간, 요일, 월에 적절히 배치하여 불균형적인 수요에 대비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택시 운전자들이 최근 토로하는 승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어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01.07 ~ 22.06.30 기간 동안에 작성된 실제 장애인 콜택시 이용 후기글을 웹 크롤링 및 시각화를 하였고, 이들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배차와 대기시간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 Open API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 콜택시 데이터에 존재하는 변수 이외에 모델 구현과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Feature Engineering을 진행하였다. 승차시간과 배차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대기시간을 구하였고,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승차한 날의 요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다음 날 여부를 구하였다. 공휴일의 경우, Python에서 제공하는 모듈 및 패키지는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는 한계를 발견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의 한국천문연구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카카오 맵의 길 찾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이동거리와 이동시간 정보를 웹 크롤링으로 생성하였다. 동일한 행정동 내에서 콜택시를 이용한 경우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임의로 이동거리는 3km, 이동 시간은 5분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LSTM 모델의 강점을 활용하였다. 시점이 길어질수록 앞의 정보가 뒤까지 전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RNN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LSTM은 은닉층의 메모리 셀에 입력 게이트, 망각 게이트, 출력 게이트를 추가하여 기억해야 할 것만 정한다. 따라서 과거의 정보를 훨씬 잘 반영할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이동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기시간 예측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현재 어떠한 불편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Open API 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기시간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다.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델에 사용할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사용된 콜택시 데이터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 단위로 공개되었고,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가 변경된 지역명이나 통합된 지역 명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동별 주민 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장소로 특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확한 위·경도를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동 내에서는 이동거리를 측정하지 못하여 임의로 5분과 3km로 설정하였다. 이는 서울특별시 콜택시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각 지역의 교통량과 그에 따른 혼잡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교통량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는 대기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혼잡도를 고려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카카오 맵의 기능 중 '미래 운행 정보'를 이용하여 승차 시간대의 이동 시간과 이동 거리를 스크래핑 한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이동 시간과 이동 거리를 할당하여 진행하였다.

셋째, 개발 환경의 제한으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원활한 개발 환경을 마련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권을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며, 사회 전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논문이 그 목적에 다가설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건욱, 윤대식, 김종진. (2020).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통행수요 분석;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대구경북연구, 19(2), 43-61.

김유민. (2022.09.11.). 택시기사들 “통닭 배달도 5000원인데...사람은 3800원”.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00823?sid=102

공공데이터포털. 전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표준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28207/standard.do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천문연구원_특일 정보. https://www.data.go.kr/data/15012690/openapi.do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장애정도별,성별 등록장애인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9&conn_path=I2

딥 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입문. 장단기 메모리(Long Short-Term Memory, LSTM). https://wikidocs.net/22888

박성제. (22.03.31). “[팩트체크] 콜택시 타려고 2시간 기다리는 경우 많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31051400502

박진혁, 장영재. (2015).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고객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자동배차 알고리즘 및 최적 차량 공급 제안. 한국경영과학회, 2015(4), 825-847.

박형수, 김훈기, 김영성. (2017). 교통약자를 위한 시간 복잡도를 반영한 자동배차 알고리즘. 전자공학회, 154(6), 43-52.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장애인콜시스템.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558/A/1/datasetView.do

석종수. (2014).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특성 분석. 교통기술과정책, 11(3), 51-58.

성광환, 신유열, 윤윤진. (2022).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의 접근 형평성 분석.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96-1807.

손종훈, 김도경. (2021). 생존분석을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대기시간 영향요인 연구. 대한교통학회, 496-497.

신용은, 최혜미, 송기욱, 이희대. (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통행패턴 분석 - 경상남도 사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4(1), 213-221.

이민경. (2018).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3, 73-88.

이병화, 양희택. (2017). 서울과 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 빅데이터 분석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 925-934.

이우창, 김양석, 김정민, 이충권. (2020). 머신러닝을 이용한 철광석 가격 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5(2), 57-72.

이원규, 안소영, 임민섭, 천승태. (2016). LSTM을 이용한 전력 데이터 예측.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93-695.

이재길. (2020). 모딜리티 AI 동향. 한국과학기술원 정보과학회지, 38(8), 42-48.

정동균, 이종화, 이현규. (2022). LSTM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동차 AS 센터 수리 부품 수요 예측 모델. 한국경영정보학회 2022 경영정보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439-443.

정진형, 박호성, 여윤구, 김학빈, 강준혁. (2018). Queueing System을 이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증차 방안. 대한산업공학회, 2837-2851.

조태호. (2022). 모두의 딥러닝 개정 3판. 서울: 길벗 출판사, 140.

조현기. (2022.07.25). 전장연 “서울경찰청장 공식 사과해야 수사받겠다”.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38230?sid=102

한명수, 박성은, 최영진, 김영민, 황재동. (2020).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진동만의 용존산소량 예측.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6(4), 382-391.

한연준, 노은정, 조범래. (2022). 랜덤포레스트와 순환신경망 기반 수소 충전소 혼잡도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2022(6), 1051-1060.

홍두선, 가은한, 하성현, 이청원. (2018).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예측 LSTM 모델의 적정 하이퍼파라미터 선정. 대한교통학회, 78, 449-454.

人CoDOM. 2021. LSTM. http://www.incodom.kr/LSTM

Feeley, C., Spasovic, L. N., Dimitrijevic, B., & Lee, J. (2016). Develop and Pilot Test Smart Phone /Tablet App for Paratransit Demand-Response Passenger Pick-up Alerts to Assist Passengers with Disabilities and Reduce No-Shows and Dwell Times, Rutgers University. Center for Advanced Infrastructure &

Transportation, 1-14.

Garnier, C., Trepanier, M., & Morency, C. (2020). Adjusting dwell time for paratransit servic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674(9), 638-648.

Lee, D., Jung, S., Cheon, Y., Kim, D., & You, S. (2018). Forecasting taxi demands with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and temporal guided embedding.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VOICEYE
voiceye.com

Abstract

A Study for Estimating Waiting Time of Taxi Services for the Disabled People based on LSTM

Lee Jeong Min*·Park Yeong Bin**

Currently, the problem of the mobility rights of the disabled is still unresolved. First of all, we performed Word Cloud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SNA) of the reviews of call taxi users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showed there were inconveniences about the waiting time of the call taxi for the disabled and the traffic allocation system. As the years go by, the waiting time for a call taxi tends to decrease, but on average, it still takes about 30 minutes up to 2 hours or more to get the taxi. In addition, in most regions, the number of call taxis did not satisfy the number of legal taxi. In this stud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public data, we confirme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ervice operation fall short of expectations and call taxi users with disabilities felt the inconvenience. Therefore, we propose an approach to train Long-Short-Term Memory (LSTM) architecture in order to predict a sequence of next waiting time. The proposed LSTM model achieved performance in the testing data set indicated by the MSE(Mean Square Error) values of 1.0749, 1.1021, 1.0166 and 0.9955 at epoch 4 and we finally chose the last model. We come up with a plan to reduce the waiting time of call taxis for the disabled from the reusult. Furthermore, we look forwar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and ultimately guaranteeing the mobility rights of the disabled in our society.

Keywords : the mobility rights of the disabled, call taxi for the disabled, text mining, prediction of waiting time, LSTM

*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Deportment of Infornation Statistics, Gangneung-won National University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99 - 130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 연구: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 중심으로

채 민*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의 본질과 장애 정체감 형성의 의미를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로 논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음악창조 활동에 참여한 발달장애 청소년 2명을 표집으로 조사하고 심층 면접하였다.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에서의 연구결과는 첫째, 음악창조 활동 결과물인 '새벽 날개'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 장애 정체감 형성의 의미에서는 '함께하니 즐거워', '자기 의지와지지', '나도 연주자'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음악창조 활동 경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자기 결정과 상호소통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장애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장애 인식을 지원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과 음악창조 활동 경험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살피기에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기 위한 실천적 지원과 앞으로의 사회적 문화적 접근으로의 장애 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발달장애 청소년, 장애 정체감, 음악창조 활동, 사례연구

*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음악은 인간의 다양한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음악을 활용한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음악적 기능향상 이상의 인간영역 발달을 경험하게 한다(정현주, 2015). 이러한 음악적 경험은 인간의 발달단계마다 자기감정, 욕구, 정서를 표현하는 데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음악은 비언어적 특성이 있어 창의적인 표현을 끌어내고 발달시키는 것에 효과적이며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지원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채민, 2009). 장애인들에게 음악적 목표는 음악감상, 음악기술향상, 음악적 재표현, 즉흥연주 등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감정변화 경험과 신체의 움직임을 질서 있게 표현하는 것,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고 통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임은희, 1997).

발달장애 청소년 시기의 정서적 안정감은 각자의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내적인 능력이기도 하지만,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한다.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내 또래들과 정서적·사회적 경험을 하게 하는 연주 활동에서는 동질감과 소속감의 경험을 가진다. 또한, 연주 활동을 통해 신뢰, 인정, 수용, 경청, 존중과 같은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다(김숙희, 2010). 음악을 재표현하는 합주 활동에서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소속감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는 김현정(2019)의 연구처럼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등의 음악 활동이 청소년의 협동적 인간관계와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상규·김원중, 2007).

장애 당사자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음악창조 활동[1]은 장애 당사자와의 상호관계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황준성(2013)은 재활 음악치료의 역할이 개인, 관계 및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연주 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 당사자의 음악 활동과정과 결과 모두 당사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기술을 배우고 자기표현의 확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통합, 공동체 참여, 장애인들의 음악 활동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음악 활동이 개인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과 다양한 참여를 표현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창조 활동인 '음악 만들기'는 음악기획, 제작, 홍보, 공연의 경험, 음반제작이나 음악 관련 앱, 프로그램 제작 등 음악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이미경,

1) 음악창조 활동이란 '노래 만들기'의 한 형태로 개인의 심리적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 만들기'을 통칭하며 결과적으로 '음원 발매'까지의 과정을 가진다.

VOICEYE
voiceye.com

2017).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자기표현 뿐만 아니라 창조적 음악 활동과정 중에 경험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지원한다. 하지만 장애 당사자의 실제 자기표현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랫말과 멜로디를 결합하여 창조적인 음악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 장애인의 문제영역에 중재 역할로 음악 치료적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음악창조 활동은 장애 당사자의 자기표현을 만들 수 있고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하고 내면의 감정과 사실, 생각 등을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음악창조 활동과정은 기존의 재현적 음악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장애 정체감 형성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회적 참여, 자발적 활동, 자신의 창작물 소유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진수경, 2021; 원초롱, 2020; 장연희·박은경, 2018).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음악 활동 참여 욕구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발달장애인의 필요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 권세라(2019)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사가 제시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장애 당사자의 욕구를 충분히 지원하고 생애주기별에 맞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지속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음악창조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기부터 결핍된 독립기술능력, 공동체 통합참여,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 필요한 자기 결정, 상호소통의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장애 정체감을 변화시키는 환경에 노출된다. 질병, 상실, 결혼 등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장애 인권 활동, 장애인의 집단교류 경험 등에서 사회적 모델을 접하게 되는데 이는 장애인 개인에게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 될 수 있다(문영민, 2016). 이런 장애 정체감은 장애가 있는 집단과의 물리적인 통합 속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해석을 통한 개인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였다(문영민, 2016).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장애 정체감의 형성과정 중에 있는 중요한 시기로 지역사회 적응기술인 대인관계와 기대 고용 수준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에 통합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장세영, 2021).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대인관계 기술인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사회적 단서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기·갈등의 발생과 조정, 해결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성 기술을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배워가고 경험해가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Sitlington, Clark & Neubert, 2006). 이러한 사회성 기술을 가진 발달장애 청소년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통합된 환경에 긍정적으로 수용되며, 직장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유리·김진, 2018). 하지만 많은 발달장애 청소년이 제한된 사회성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Gerber, 2003; Leffert & Siperstein 2002; Walt

on & Ingersoll, 2013).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거나 주변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타인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참여를 지원하고 공동체 참여를 위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성 기술 개발을 위해 현재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김우리·고혜정, 2013; 우지연·이영철, 2010). 이수민과 이세형(2020)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은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한다고 하며 그 하위요인으로 희망·배려·의지, 지지체계, 자기개발 및 권리 보호 욕구, 소극성·무기력·무관심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음악창조 활동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한 개인의 인식 변화 과정에서 장애 정체감의 형성에 필요한 중재로 음악창조 활동 경험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음악창조 활동 경험이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보고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관적 경험을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그림카드, 활동 영상, 사진 등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면담하였다. 장애 정체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긍정적 장애 정체감이나 부정적 장애 정체감처럼 장애인들의 삶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할 수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 정체감의 범주를 장애 인식과 사회적·문화적 관점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은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창조 활동

음악창조 활동이란 '노래 만들기'의 한 형태로 개인의 심리적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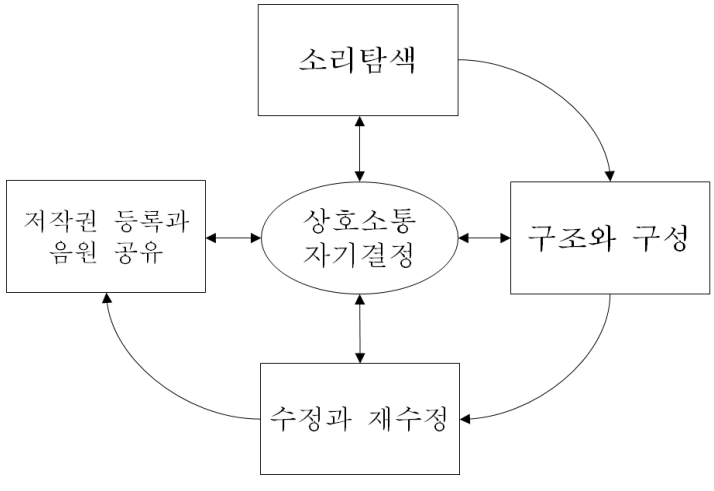
VOICEYE
voiceye.com

악 만들기'과정을 통칭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호소통의 기회를 지원하는 '음원 발매'까지의 과정을 가진다. 장애 당사자들의 이런 음악적 과정과 결과물의 직접적인 참여는 개인적인 행동과 심리적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음악 활동의 자립을 지원하게 한다. 이것은 재활 음악치료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황준성, 2013) 음악창조 활동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이다. 전통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음악 접근에는 교육적 측면과 치료적 측면이 강하였다. '음악치료 과정'에서 교육적 접근으로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지 향상이나 정서·행동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현존하는 음악을 지시와 모방으로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정희승, 2017). 또한, 사회성 향상과 사회공동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음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유아정·남현우, 2022; 조수진, 2016; 임수경, 2014) 치료실의 경계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사회성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음악적 창의성은 가치 있고 독창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의적 음악 사고과정을 말한다(김성준 외, 2010). 크라투스(Kratus, 1994)는 음악 창의성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수정 및 검증할 때 그 사고과정은 그들이 연주하는 동안 음악 안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히키(Hickey, 2001)도 음악 창의성을 일반창의성과 관련지으면서 '음악에서 창의적 사고는 인지적인 행위이며, 창의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음악적 창의성은 선천적 능력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히키는 창의성을 창작의 능숙성과 구별하는 것과 달리, 크라투수는 따로 구별하지 않고 창의성이 발산적 사고와 분명히 다르지만, 창의성과 창작능력을 함께 갖춘다고 하였다(김현실·김은주, 2015). 노래 만들기 활동은 이미 만들어진 곡의 가사 혹은 멜로디를 일부분 혹은 전체를 수정해서 새로운 곡으로 만드는 과정으로(김종인, 2008) 흔히 가사 채우기, 개사하기, 노래 변주하기, 즉흥 노래 만들기, 작사와 작곡 활동으로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정다은, 2016). 작사(作詞)는 '노래로 부르기 위한 말을 짓는 것'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이호섭, 2020). 학생들은 음악창작과정을 배우고 적용할 때 음악적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통찰을 표현하고 소통하게 된다. 음악적 창의성의 견해에서 웹스터(P.R. Webster)의 음악적 창의성 모형은 창작 의지, 사고과정, 창작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창작 의지는 작곡, 연주, 듣기, 즉흥연주로 구분되었고 듣기는 반복 듣기와 일 회 듣기로 세분되었다. 사고과정은 음악적 기술과 비 음악적 조건 간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역동적인 교류 과정에서 이 내용은 준비, 숙고, 작업, 확인이 양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순환적인 사고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음악을 창의적으로 상상하게 하고 악기로 표현할 수 있게 하

면서 창의적인 음악적 사고의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다(김태완, 2015).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음악 만들기를 '음악창조 활동'으로 명하고 미국의 국가 핵심음악 기준(National Core Music Standards)중 창작활동 과정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의미에 맞게 음악창조 활동모형을 재구성하였다. 기존에 창작활동과 차이는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을 만들어 생산하는 '저작권 등록과 음원 공유'에 있다. 음악창조 활동의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자기 결정과 상호소통을 기반하여 음악 과정을 경험하지만,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저작권 등록과 음원 공유'의 경험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 활동 자립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음악 활동의 자립을 구현하는 '재활 음악치료 프로그램'과 그 목적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음악창조 활동모형은 소리 탐색, 구조와 구성, 수정과 재수정, 그리고 저작권 등록과 음원 공유의 네 단계로 본 연구자에 의해 재구성되었으며 다음 〈그림 1〉은 음악창조 활동모형이다.



〈그림 1〉 음악창조 활동모형

미국의 국가 핵심음악 기준(National Core Music Standards) 창작활동 재구성

음악창조 활동의 첫 번째 과정은 소리 탐색(sounding and exploring) 단계이다. 이 과정은 소리 개념, 생각, 느낌과 같은 음악적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인지적 수준이 비장애인들의 사고과정과는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음악창조 활동에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창조적 아이디어'에 열린 수용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기표현이 유연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상호소통의 과정을 제공하고 지원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음악학습 정도에

VOICEYE
voiceye.com

따라 연구자의 지도를 받거나 혹은 스스로 다양하게 음악을 접촉하고, 음악 개념을 탐색하며, 주어진 음악 패턴(박자, 가락, 화음)과 표현을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연구자는 선행된 창작물의 목표를 제시하고 참여자들의 흥미를 끌어내 음악창조 활동의 과정에 참여도를 높인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영상, 그림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카드와 키보드 미디녹음 부분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소리표현들을 1~5번 트랙으로 저장하며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구조와 구성(building and making) 단계는 음악창조 활동의 핵심적인 단계로 참여자들은 음악적 재료를 가지고 생각한 바를 표현할 방법을 설계하고,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음악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창작물을 조직하고 구성하며 기록한다. 이때 작곡 프로그램 피날레 11버전으로 창작물을 쉽게 구성하고 기록함으로 지속해서 음악창조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 참여자들은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실험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멜로디와 박자변환, 악기 음색 선택, 음량 등을 선택하여 음악패턴을 더욱 구조화시킨다. 그리고 연구자는 적절한 질물을 통하여 참여자들에게 창작 의도를 설명하고 더 발전시켜 참여자들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명확하게 음악 형식에 맞춰 창작 계획을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한다(정진원 외, 2021).

자신들의 작품을 보완하는 수정과 재수정(revising and refining) 단계는 음악 창조물을 서로 평가하고 재표현하는 단계로 참여자들이 창의적 노력에 대한 자신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음원을 들어보며 피드백을 통하여 더 나은 표현에 대하여 수정의 과정을 거친다. 앞선 두 단계에서 얻어진 음악창조 활동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계속 음악을 들어보고 수정하면서 결과물을 더욱더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중에 수정되는 소리의 최상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자기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험을 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등록과 음원 공유(presenting and sharing) 단계는 직접 만들어진 음악창조물을 공인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창작곡을 등록하고 음원을 녹음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음원이 유통될 수 있게 한다. 이런 완성된 자기 소유를 공유하기 위해 음원 플랫폼을 활용한다.

음악창조 활동의 4단계 중 3단계인 수정과 재수정 단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치며 서로 상호소통의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을 지원하며 음악적 발전들 서로 도모한다. 하지만 마지막 4단계인 저작권 등록과 음원 공유에서는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로서 최종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음악창조 활동은 자기 결정과 상호소통의 과정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결과물'까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2. 발달장애인의 창조 활동

인간은 창조라는 미적 형식을 통해서 내면의 욕구와 자아가 소통하게 함으로 문제를 승화하고 안정된 감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양린, 2021). 특히 원활한 소통의 부분에서 공감은 소통의 기본이며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 역할이 교차 되었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반응한다(신민주·주용국, 2018). 발달장애 청소년은 성장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또래나 성인들과의 의사소통, 갈등 해결, 협력 등에서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중 가장 힘든 부분이 서로 간의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이다. 공감 능력은 청소년 시기에 또래들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하게 하며 또래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부적응에 대한 동조 현상을 억제함과 동시에 사회적 능력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강유선, 2013).

많은 예술 활동과 예술적 접근을 통한 소통의 확장은 발달장애인의 소통과 사회 관계성, 자기 표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무용은 인간의 의식을 신체를 통해 움직임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 중 창작무용은 자기 주도적 움직임이다(정희정, 2018). 이는 그 움직임이 작품의 주제, 표현 등에 의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일 때 창작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조윤정, 2010). 창작무용을 중재로 한 프로그램 중 강은주(2006)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작무용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리듬감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창작무용에 대한 교육 차수가 증가할수록 리듬감 향상되었다. 조윤정(2010)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작 무용교육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특수학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의 창작 무용교육 전, 후를 비교하였을 때, 창작 무용교육이 정서 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희정(2018)은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작무용 후 심리적, 이동성 측면에서 뇌성마비 장애인의 신체적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신체 만족도, 신체 존중감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연극 분야에서 박연희(2021)는 직접 연극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과 같이 토론, 과제수행 등 연극 창작활동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호관계성, 상호협력설, 쌍방향소통 측면에서 의미를 도출하였다. 창작 음악극에서는 진수경(2021)은 타인과의 만남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야기 형태로 창작 음악극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자아존중감, 사회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활동을 통한 미술 치유는 창작물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인간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억압된 갈등이나 분노, 스트레스를 정화하는 방법으로 창작활동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치유한다(양린, 2021). 여광응 외(2006)는 ADHD 아동이 주의 산만한 행동을 미술을 통해 공격성을 완화하고, 주의 산만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등 효과성을 입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법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정체감을 느끼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모습이 관찰되었다. 김유하(2016)는 리듬창작 합주 수업이 지적장애인의 리듬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총 11차시 동안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적장애 학생의 리듬감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합주라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초롱(2020)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즉흥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즉흥연주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즉흥연주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게 되었으며, 부정적인 행동은 감소하고, 긍정적인 행동이 증가하였다.

3.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형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숙과 자아정체성의 확립, 여러 또래 집단을 경험하는 시기로(송명자, 2006) 성인기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사회 참여의 경험은 현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될 기회이며, 사회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김은혜, 2018). 그러나 권미영(2016)에 따르면 자폐성장애 청소년들에 대하여 장애 수용도가 낮으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폐성장애 학생들에 대한 비장애 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고 교우 관계와 일상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였다(송민애·이승희, 2015). 전통적인 특수교육이나 치료의 현장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문제 활동의 개선방법에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장애 이해가 최근에는 장애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손상과 결함 중심의 장애 모델을 벗어나 장애 청소년들의 강점과 재능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과 성공적인 전환에 많은 관심이 있다(조인수, 2015). 이런 강점과 재능 혹은 활동의 참여를 더욱더 지원하는 영역이 다양해 지고 있는데 장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체육활동, 재활복지 서비스 등의 지원방안이 보고되고 있다(김종인 외, 2009). 발달장애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 독립생활을 시작하고 사회로 통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지역사회에 참여가 저조하고 여가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이 비장애 청소년들보다 더 어렵다고 보고하였다(이정기 외, 2002). 이렇듯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보이는 낮은 사회 참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사회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참여의 주체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장애 정체감은 심리적, 사회·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김효정·이관형, 2020). 그

첫 번째로 장애 인식의 측면을 다루는 심리적 차원은 개별적인 정체감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정체감을 다룬다. 이것은 사회에서 장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이익섭·신은경, 2006). 두 번째인 사회·정치적 차원은 장애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임파워먼트 과정이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집단적인 협력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장애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원에서의 장애 정체감은 장애 정체감 자체를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다. 집단적 소속감과 장애 부심을 바탕으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인데 특히, 장애인 자조 집단에서는 고유의 문화를 생산해 내는 기초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효정 ·이관형, 2020). 장애 정체감은 장애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태도이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받아들이는 정도이다(이익섭·김성연·최지선, 2007). 또한 Gill (1997)은 장애 정체감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 내적, 대인 관계적 및 사회적 역동 안에서 통합시켜나가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장애 정체감은 인간의 잠재성을 일깨워 예상하지 못한 강점을 보여주는 위치로 이끈다고 하였다(김재엽·이진석·오세헌, 2014). 장애 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1963년 고프만의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 적응(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에서 "장애인은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복잡한 방어체계와 선택적 인지체계를 동원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라고 기술하여 사회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시작되었다(조한진 외, 2013). 즉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장애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장애 정체감은 주로 청각장애인의 장애 정체감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비장애인들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갖는 소수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을 강조한다(김연경, 2019).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라는 다른 언어를 통해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포함하여 연대감을 느끼는 것을 청각장애인의 문화적 장애 정체감이라 한다(전지혜, 2011).

장애 정체감에는 장애의 실제가 반영되어야 하고(shur, 1998), 장애와 관련된 문제와 방해요소를 근절할 가능성, 정치적 해결에 대한 신념이라는 개념, 분리(separation)와 화합(unity)에 대한 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되며(Putman, 2001), 장애와 관련된 자부심, 개인적인 시민권, 장애인들의 신체적 상태와 저평가로 인한 차별신념의 중요성에 따라 구성한다(Hahn, 1997; Moore, 1998). 이렇게 척수손상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하는 과정의 심리를 연구했던 Shur(1998)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장애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는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회적 모델을 통해 사회적 측면의 장애 정체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익섭과 신은경(2005)의 연구에서는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을 순응(conformity), 부조화(dis

KCI VOICEYE voiceye.com

sonance), 몰입 및 저항(immersion and resistance), 자기반성(introspection)의 단계로 제시하였지만 주로 지체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위주로 치중되어 있다.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 정체감 형성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바탕이 된 장애 정체감 형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수현, 2018). 또한, 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장애 정체감은 당사자의 의지, 노력, 이타성, 가족의 지지 및 사회성 향상과 사회적 지지체계망 확대 등 사회 환경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연구에서는(이수민·이세형, 2020) 장애 정체감이 고정 ·불변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해서 변하는 것이기에 언제든지 억압적 장애 정체감도 발전적 장애 정체감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지혜(2011)의 연구에서도 장애 당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차별적 시선이나 동정, 배제 등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 장애로 인한 열등감을 벗어나 바른 장애 정체감을 확립하고 장애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장애 정체감은 개인의 심리적 장애인식의 범위가 아닌 사회적으로 당사자들의 사회적·정치적인 장애 인식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정체감의 범위를 당사자의 장애 인식 수용과 사회적 관점에서 독자적인 문화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제한하고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에 따라 장애 정체감 형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의 의미와 장애 정체감의 형성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을 알아보려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참여자들을 관찰하고 현상을 탐색하는 연구방법으로 음악창조 활동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고 그 과정과 경험에서 장애 정체감의 형성에 관한 연구의 주관적 변화에 관하여 연구하기에 적절하다.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사회적으로 독자적인 문화형성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과정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이 중요하며 한정적이며 제한적일 수 있는 의사 표현에 있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음악창조 활동의 일지기록을 참고하며 개방적인 심층 면접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2.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인 경우, 청소년이라 한다. (ㄴ) 음악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 (ㄷ) 음악 활동의 경험을 문자와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 (ㄹ) 연구 참여에 동의한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연구주제와 적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며 D 지역에서 재활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예술단 활동을 함께 하고 있고, 각각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으로 음악 활동 경험이 있다. 또한, 예술단 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연주 경험이 있기에 본 연구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 연구참여자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학교와 전공과에 재학 중이고 재활 음악치료, 음악교육의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2명이며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이름	나이	학력	음악 경험
A	23	대학생	10년
B	22	전공과	8년

연구참여자 A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지역의 대학생으로 12세부터 음악센터에서 재활 음악치료를 하며 주 2회 악기적응, 음악적응을 시작으로 13세 때 바이올린 악기를 탐색할 수 있게 되어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바이올린 음악교육을 받으며 꾸준히 자기 규칙 안에 음악 과제수행을 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 점차 바이올린 기능향상을 보였다. 질문에 단답형 대답을 할 수 있으며 생각한 것을 짧은 문장들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재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작곡이나 짧은 음악 만들기의 경험이 있어 이번 연구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재활전

VOICEYE
voiceye.com

문가에게 연구참여자 후보로 추천받았다.

연구참여자 B는 지적장애이고 현재는 전공과 학생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지 향상과 합창 활동을 주목적으로 재활 음악치료를 시작했으며 6개월 후 예술단에 소속하여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였다. 그 후 언어발화와 호흡, 소근육의 기민성을 위해 클라리넷 악기를 권하게 되었고 꾸준히 음악교육을 받으며 점차 클라리넷 기능향상을 보였다. 언어적 표현력이 풍부하며 일상의 대화에 능숙하게 답변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번 연구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재활전문가에게 연구참여자 후보로 추천받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3. 자료수집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들은 음악창조 활동 과정 중에서는 재활 음악 상담 일지와 관찰일지, 활동사진, 영상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음악창조 결과물인 '새벽 날개' 노래가 음원으로 등록된 후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음악창조 활동프로그램

음악창조 활동프로그램은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음악창조 표본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음악창조 활동은 2022년 5월부터 8월 초까지 주 1회 90분씩 연구참여자와의 음악창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활동에서 보이는 그들의 발화, 행동, 태도 등에 관하여 재활 음악 상담일지를 활용하고 작성 수집하였다. 재활 음악 상담일지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음악 활동에서 드러나는 주제에 관하여 대화한 것, 작업을 기록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표현에 대하여 기록했다. 〈표 2〉는 음악창조 활동 연구 순서이다.

〈표 2〉 음악창조 활동 연구 순서

구분	2월~5월	5월~7월	8월		8월		9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음악창조 표본								
참여자 모집								
음악창조 활동								
선행연구 정리								
인터뷰 시행								
인터뷰 분석								
연구결과 정리								

다음은 음악창조 활동의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활동 당시 대화, 행동, 태도 등에 관한 재활음악 상담 일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상담일지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적인 말투와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였으며 음악창조 활동의 단계별 범주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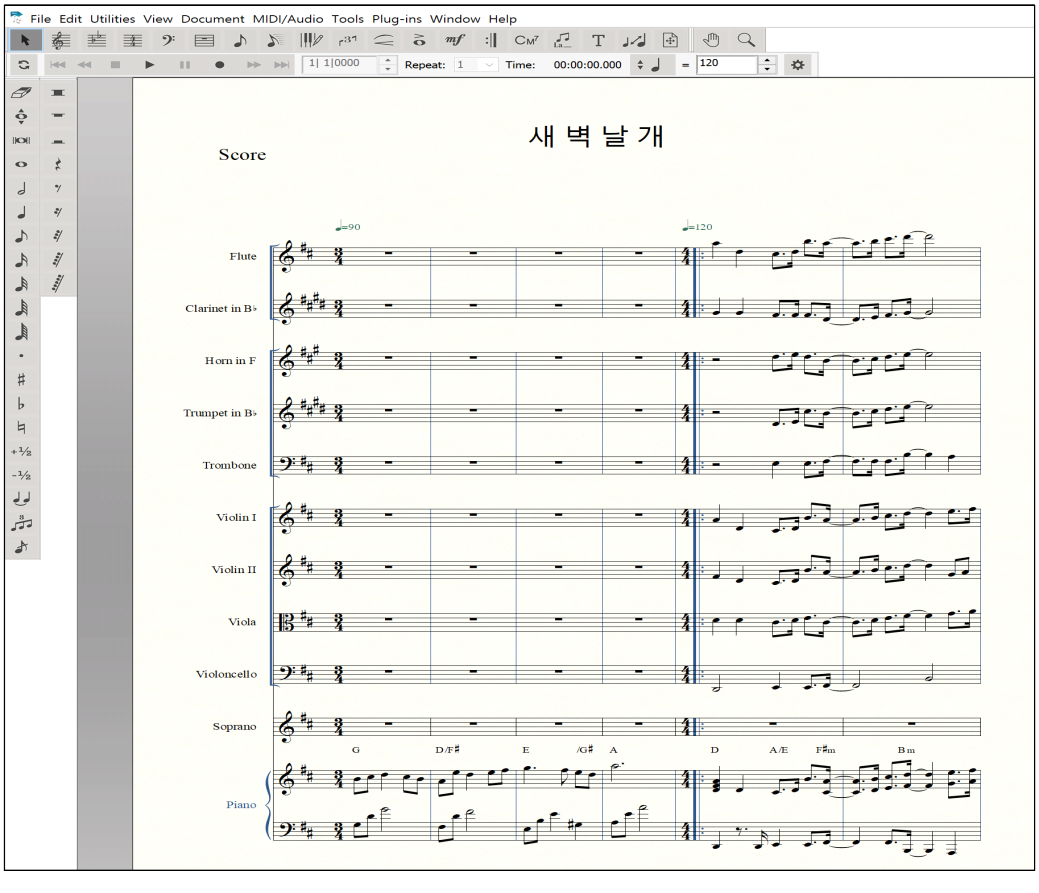
VOICEYE
KOR
voiceye.com

〈표 3〉 음악창조 활동 단계별 범주

단계	음악창조 활동 단계별 범주		
1단계	음악패턴 모방 주고받기, 준비 단계		
	1회차	인사 및 친밀감 형성	
	2회차	리듬 패턴 모방하기	기본 리듬, 변형 리듬 이해하기
	3회차	가사 패턴 모방하기	다른 노래들 참고하며 가사 모방하기
2단계	음악표현 조정단계		
	4회차	리듬 패턴 수정하기	주요 리듬 정하는 과정 소통하기
	5회차	가사표현 수정하기	주요 가사 정하는 과정 소통하기
	6회차	주요 멜로디 정하기	주요 멜로디 정하는 과정 소통하기
3단계	공동 음악 만들기		
	7회차	가사 만들기	피날레 11버전으로 작업하기
	8회차	멜로디 만들기	
	9회차	가사, 멜로디 수정작업	
4단계	음악제작과 정물 등록 및 음원 발매		
	10회차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해	한국저작권등록위원회 가입
	11회차	음원 만들기	큐베이스 10.5 버전으로 작업하기 음원 녹음과정
	12회차	음원 유통회사 연락 및 등록	음원 유통회사 연락 및 음원 등록

음악창조 활동 단계별 범주는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 재활 음악치료 프로그램(채민 외, 2018)을 재구성하여 만들었다. 1단계(1~3회차)인 음악패턴 모방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음악적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음악창조 활동의 기본인 리듬과 멜로디의 음악패턴을 알아가는 단계이다. 2단계(4~6회차)인 음악패턴을 반영한 음악표현 조정단계는 자기 결정과 상호소통이 활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의 단계가 거절 및 수용의 반복을 통하여 긍정적 거절이 좌절감이나 소외감이 아니라 더 나은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을 위한 과정임을 경험한다. 3단계(7~9회차)인 공동 음악 만들기 단계는 가사작업과 멜로디 작업의 상호작용 확장 단계이다. 공동의 결과물이 당사자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 확정을 반복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집중한다. 4단계(10~12회차)인 음악제작 결과물 등록, 음원 발매로 구성되어있다. 이 단계는 장애 문화 및 사회 참여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이 생산된 이후 당사자들의 음악창조 활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이 더 남아 있다. 음원의 등록과 음원 발매로 당사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사회활동의 참여 확장에 이바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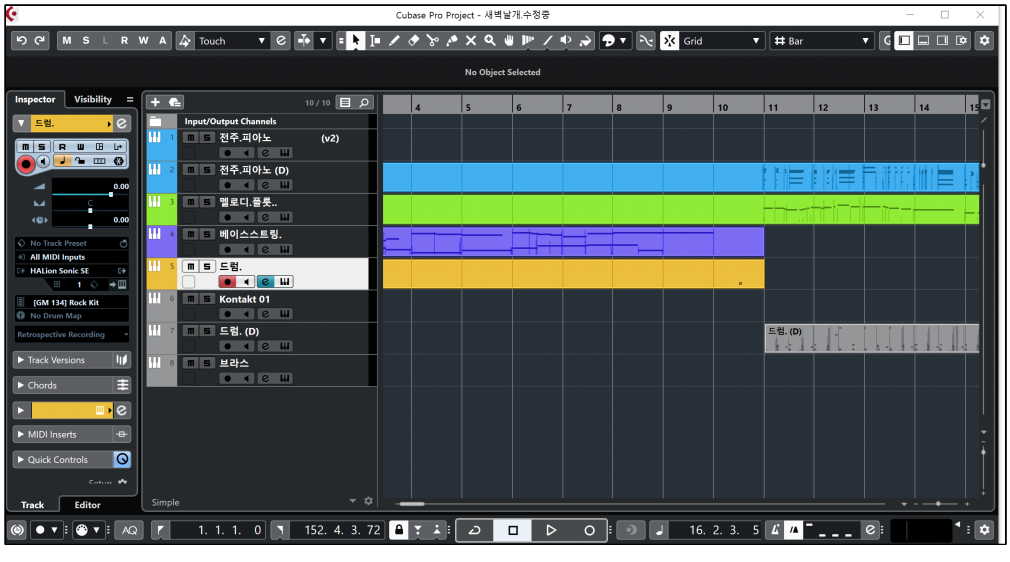
음악창조 활동프로그램에는 2개의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에 진행하였으며 그 첫 번째는 피날레 11버전 프로그램이다. 이는 Coda Music Technology에서 1990년에 만든 악보 사보용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 자체의 많은 발전으로 인해 현재 본연구에서는 11버전으로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며 한번 입력된 음들을 복사, 편집, 전조 등을 할 수 있고 완성된 것을 다시 들어볼 수도 있어서 자신이 창작한 부분의 수정도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했던 창작 수업보다 이론적 지식이 매우 약하더라도 창작활동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악보에 음표를 입력할 때마다 실음을 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함찬미·김지현, 2010). 피날레로 만들어진 악보는 다음 〈그림 2〉와 같은 형식이다.



〈그림 2〉 피날레 11버전의 음악창조 활동

VOICEYE
KOR
voiceye.com

음악 창작활동을 위해 두 번째 음원 프로그램인 큐베이스 10.5는 독일의 Steinberg[2]에서 개발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으로 1989년에 아타리(Atari)[3] 컴퓨터를 기반으로 출시되었다. 이런 음악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음악 창작활동의 접근은 신체적, 인지적 장애로 인해 기존의 악기나 도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참여만으로도 음악적 결과물을 산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박예슬, 2015).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악기를 지정하고 수정하면서 다양한 음색을 탐색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과정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큐베이스 미디 신호를 제어하는 음악 시퀀싱(sequencing), 디지털 오디오 편집, 믹싱(mixing) 등이 모두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큐베이스 10.5버전의 음악 창작활동

(2)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는 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2차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장소는 음악 활동을 하는 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1차 면담 소요시간은 46분이며 2차 면담 소요시간은 52분으로 평균 49분이었다. 1차 인

2) Steinberg는 독일의 가상 악기 및 시퀀서 개발 회사로 가상 악기의 표준을 만든 큐베이스 및 누엔 도(Nu endo)를 만든 회사이다.
3) 아타리는 미국의 놀런 부시넬이 1972년에 창업한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회사이다.

터뷰는 음악창조 활동 경험의 의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으며 2차는 그 경험의 방식과 경험의 의미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였고 답변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질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음악창조 활동과정에서 기록으로 남겨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결과물을 함께 제시하며 '음악창조 활동'의 행위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재구성이 될 수 있도록 반구조화 형식의 질문을 하였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면담에 있어서 본 연구의 주제를 쉬운 질문 형식으로 변경하여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에 부담감을 적게 하고,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 방법은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에서는 관찰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재활 음악 상담일지, 활동녹음, 영상 등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 심층 인터뷰의 내용은 사례연구의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장애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범주화하며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확인'의 과정으로 요약된다(유기웅 외, 2019).

첫 번째, 개방 코딩은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개방 코딩에서 파악된 특성을 어떤 범주로 분류하는지의 문제로 이 단계에서는 장애 정체감 중 사회적 문화형태를 만들어 가는 내용으로 범주를 분류하였다. 세 번째, 범주확인은 자료가 빠지거나 불필요한 범주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유기웅 외, 2019: 324). 질적 연구 방법론에 따른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연구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더 경험의 본질과 의미에 맞게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과정을 거쳐 1차 분석작업 후 2차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음악창조 활동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들의 보호자들에게도 연구의 목적과 절차, 참여자들에 관한 비밀보장 및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음악창조 활동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와 면담에서의 녹취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동의서'를 설명한 후 동의받았으며 참여자들의 보호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았고 참여자들의 의지에 따라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VOICEYE
voiceye.com

하여 동의를 받았다. 두 명 모두 같은 예술단 소속으로 매주 토요일 오케스트라 연습 후 센터 멀티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또한, 연구결과 발표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할 것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음악 지도 교수 1명, 재활상담 박사 2명을 통해 동료 검증(peer debriefing)하여 자료 분석 과정 중에 도출된 개념어의 의미가 적절하고, 범주를 묶는 과정에서 비슷한 의미들과 묶음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자는 2007년도부터 재활 음악전문가[4]로 다수의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예술단의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의 경험이 있다. 또한, 2021년 '마음소리 1'의 음반을 만든 경험이 있어 본 연구의 음악 창작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들과는 주 1~2회 개인 음악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친밀한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음악적 표현력을 잘 이해하며 연구참여자들의 음악 창작활동 역동성을 끌어내고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Ⅳ. 연구결과

1.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 의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을 의미한 결과로는 먼저 '새벽 날개'라는 창작곡이 만들어졌다. 음원 및 음반 등록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새벽 날개' 노래를 2022년 7월 25일에 등록하였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음원 녹음에 참여하였다. 2022년 8월 10일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음원 플랫폼을 통해 음반이 등록되었고 한국의 음원사이트 '멜론', '벅스', '네이버' 등 새벽 날개 곡이 공식적으로 업로드되었다. 창작곡 일부는 본 연구자가 형식을 만들고 그 후 악기 세션의 멜로디와 리듬의 형식을 참여자들과 함께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 의지, 창작 경험에 대한 기대감, 음악창조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경험되어진 사회적 접촉 등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

4) 2012년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한국 재활 음악치료학회의 자격증 이름으로 보건복지부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다음은 음악창조 활동 경험의 단계별 분석 결과이다.

1단계인 음악패턴 모방과 주고받기에서 먼저 연구참여자 A와 연구참여자 B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 좋아하는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함께 들으며 음악적 스타일을 알아갔다. 서로 4~5년을 같은 음악실에서 만나고 함께 예술단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룹 수업에서도 낯설어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음악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둘의 언어적 소통은 단어들의 나열식이나 짧은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였다.

계이름으로 화음을 쌓고 또는 불협화음이 되는 것을 찾는 것으로 음악패턴 주고받기를 하는 연구참여자 A와 연구참여자 B의 태도에서는 서로 맞는 계이름을 찾거나 지난 수업 시간 때 비슷하게 진행해봤던 패턴을 기억해 내면서 참여를 하였다. 서로 불협화음보다는 협화음을 찾거나 대입하려는 태도가 있으며 불협화음이 '실수하는 소리'로 느끼고 있어서 참여자들은 '실수'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자 : 다른 계이름은 어때?
B : 미레도 파파파? A : 파? 파?
연구자 : 파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 조금 다르게 바꾸는 건 어때? 리듬을 바꿔볼까?
A : 파, 파, 파미
연구자 : 어때? 여기 파미를 빠르게 리듬 바꾸면 어때?
B "파미, 파미 ~~~"

재활 음악 상담일지 1회차

피날레 11버전으로 음표와 박자 리듬 음색 등을 변환시키면서 음악창조 활동의 준비 단계로 피날레 조작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 두 명 모두 컴퓨터 조작 활동과 수정방법, 그리고 음악 보표 읽기가 가능하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나 다시 듣기 등의 버튼 조작은 새로 배우게 되었다.

2회차까지는 기존의 있는 곡들을 가지고 리듬 분석과 리듬 패턴을 모방하는 것을 진행하였다. 어떤 리듬들이 노래 속에 있는지 파악하고 리듬을 나열할 수 있게 훈련하며 서로 찾아낸 리듬을 가지고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좀 더 확장된 리듬 패턴을 유연하게 경험하였다. 각자의 악기로 정해지는 멜로디들을 음원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A는 바이올린으로 B는 클라리넷을 연주할 수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음계의 범위를 선택하였다. 그 속에서 다양하게 멜로디를 만들어 보며 화음과 노래 방향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노래 양식을 맞춰갔다.

VOICEYE voiceye.com

3회차에서는 리듬뿐만 아니라 기존의 곡들의 가사를 확인하고 리듬의 강조와 단어의 강조를 찾아보며 중요하게 생각되는 노랫말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했다.

연구자 : 자유롭게 나는 것은 어떤 거야?
B :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해요.

재활 음악 상담일지 3회차

4회차에서 6회차까지의 음악표현 조정단계에서는 각자의 악기로 멜로디를 만들었고 여러 번 결정과 수정의 단계를 거쳐 자기표현의 확신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신의 음역에 맞는 악기 세션의 구성을 배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연습 범위도 스스로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는 시간이었다.

B : 여기 연습해요? 연습할래요, 요기 더 연습…. 연습할게요.
A : 선생님 저 여기…. 여기 부분 지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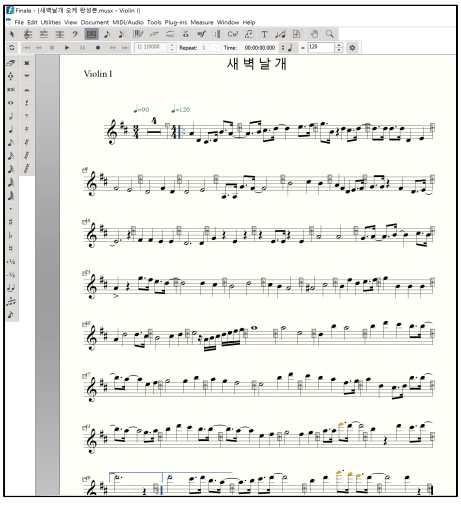
재활 음악 상담일지 5.6회차

7회차에서 9회차까지는 피날레 11버전으로 음악을 들어보고 수정하는 시간을 거치며 자기 결정에 대한 마지막 확인과정을 가졌다. 불협화음이나 각자가 맡은 악기의 구성에서 리듬이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며 최종적인 음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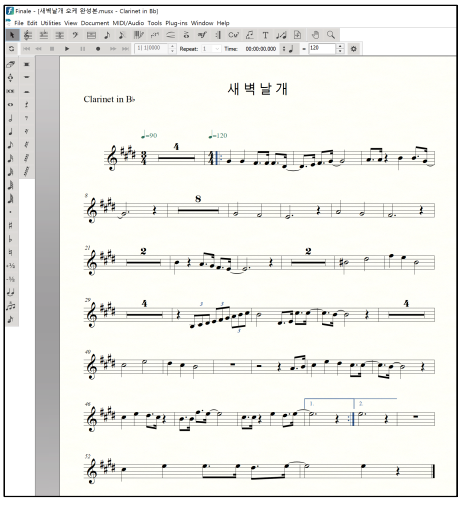
10회차에서 마지막 12회차까지는 완성된 '새벽 날개'의 악기 세션 부분을 음원 녹음을 위해 연습하고 맞추는 시간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노래 등록 및 음원 녹음 회사와 계약, 음반 만들기의 과정을 가졌다. 대표의 이름으로는 본 연구자의 이름으로 등록을 마쳤고 연구 참여를 한 A와 B와는 음원 유통으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봄으로써 창작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있어 필요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A : 우와 이제 우리 노래 나와요? 여기에 이름 적었어요.
B : 이거 할머니도 들을 수 있어요? 할머니 다운하라고 해야지.

재활 음악 상담일지 12회차



〈그림 4〉 바이올린 세션별 예시



〈그림 5〉 클라리넷 세션별 예시

2. 발달장애 청소년의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서의 의미

장애 정체감의 범위를 당사자의 장애 인식과 사회적·문화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함께하니 즐거워

A : 즐겁고 재밌어요. 이게 진짜 우리 노래에요?
B : 선생님, 나도 이거 눌러요 내가 네이버에 쳐볼게요 (중간생략) 좋아요.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들은 음악창조 활동과정이 즐거웠다고 하였다. 서로 격려하며 참여자들이 만든 음악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고 재생하며 음악창조 활동의 실제를 경험하는 과정이 즐겁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음악 자체를 좋아한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음악을 만들어 가는 참여의 의미로 더 애착감을 나타냈다. 평소에 개별 음악 활동이나 오케스트라 활동의 과제로 음악 수행력에서도 즐거움을 자주 표현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 과정에서 보이는 참여자들의 '함께하니 즐거워'는 좀 더 집중하고 자기가 표현한 대로 음악적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에 즐거움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의 작업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생각과 표현을 서로 상호소통하는 경험을 하였다.

VOICEYE
voiceye.com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소속에 대한 자발적 표현이다.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을 만드는 공동의 목적성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제고에 실천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

2) 자기 의지와 지지

A : 저 집에 가서도 계속 연습했어요. 메트로놈 틀고 매일 20번씩 했어요
B : 선생님, 저도 연습해요. 입술 아팠어요. 리드 물고 있으니까 입술 힘 들어가서 삑 거렸어요. 연습하니까 되던데요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들의 음악창조 활동을 책임감 있게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개인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기 의지에 있다. 처음부터 피날레 11 버전을 능숙하게 다루거나 정해진 멜로디를 악기로 표현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며 연습하는 과정과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힘들지만 끝까지 곡을 만들며 참여하였다. 악기별로 어려운 계이름이 있을 때는 개별연습실에서 연습을 더한다거나 자신이 맡은 소리를 책임 있게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이 점차 윤곽이 드러날 때는 연구참여자들은 더욱 좋은 소리를 찾으려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음색을 찾고 선택하며 실제의 소리를 구사하기 위해서 또한 연습에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정밀하게 음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들의 태도에서는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 되는 음이나 박자, 어울리지 않는 소리 선택 등이 초기활동에서 있었을 때는 불안하거나 ‘실수하면 안 돼’라는 태도로 연습하며 자기 소리에 책임을 지려는 자기 의지를 보였다. 자기 동기부여를 확인하며 연습의 결과로 좋지 않은 소리가 있을 때는 경직이 되기도 했지만, 참여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지지’ 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하며 지속해서 활동에 지지를 보이는 태도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긍정적 장애 인식 수용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그 경험을 통하여 그다음의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에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은 긍정적 장애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나도 연주자

A : 내 노래를 또 만들래요
B : 나는 연주 선생님 하고 싶어요

인터뷰 내용 중

‘나도 연주자’라는 의미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는 자신의 창작물이 만들어졌고 유튜브나 개인 SNS 계정에 자신의 노래를 올리면서 평소의 연주 활동과는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보호자들과 소통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경험’으로 이번 연구의 참여가 희망적이라고 하였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 활동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적 기능을 높이고 있으나 ‘연주가’가 되는 전문적인 위치에서 자립 생활을 가지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등의 태도는 연구참여자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 계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의 독자적인 문화형태의 구축을 단순히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하다. 하지만 지속해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새로운 창작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당사자들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하게 하는 장애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순환이 될 것이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의 의미와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을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 창조 활동을 경험해 보고,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장애 정체감 형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참여로 창작곡이 만들어진 것이 고무적이며 음악 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고 적용할 기회가 되었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활동으로 교육과 치료의 과정에

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로 음악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활동' 그 자체에 장애 당사자들의 자기역량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대체로 장애인들의 창작 수준을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두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표현의 부분을 무시하거나 '창의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두는 태도가 만연하다.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면 얼마든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표현을 비장애인들의 해석에 따라 소극적으로 일축하여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험이 소외되고 배제되어 진다(유동철 외, 2013). 소극적인 자기표현과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내면의 감정과 사실, 생각 등을 유연하게 표현하는 데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었다. 장애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과정에 있는 장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주장과 표현이 곧 장애 정체성의 한 부분이므로 더 많은 자기표현과 자기 소리를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들로 재현할 수 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 창작활동은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음악적 구조, 멜로디, 악기의 구성을 선택하는 자기 결정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에서는 모든 분야 모든 활동 전반에 걸쳐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배우며 창작활동에서의 문제해결 과정과 해결 후 창작물에 대한 완성도에 대하여 변화되는 피드백을 다양한 관점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과 음악 활동 접근은 그동안 수직적이고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음악전달법에서 더 나아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음악적 질서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이 장애 정체감 형성의 의미에서는 장애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공동의 작업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가지는 소속감은 장애 정체감 형성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음악창조 활동의 다양한 상호소통은 스스로 장애 정체감을 발달시켜 자신이 더 부끄럽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장애인으로서 사회적응과 사회 참여, 자립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현아, 2017: 문주영·손승현·이예다나, 2014: 최지선·손주영. 2010). 음악창조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인 '음악'이 장애 당사자들의 사회적 문화 형성의 시발점이 되어 당사자 스스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경험을 지원하는 것에 일조한다. 창조적 음악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참여, 자발적 활동, 자신의 창작물 소유 등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적 접근의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발전적인 장애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개인적 맥락에서 장애자부심이나 성취감, 내면적 안정감을 가지거나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 참여, 사회적 지지 등을 형성하는 것은(송정문, 2016) 당사자들의 음악창조 활동의 참여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음악창조 활동 경험만이 사회적 문화적 범위에서의 장애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 미흡하다. 다만 '음악창조 활동'은 발달장애인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관계적 지지기반에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이들의 사회 참여 경험이 더욱 확장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장애 당사자의 사회적 위치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위치와 문화적 요소가 한정적인 현재의 장애 문화에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은 그들의 주장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확장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단순히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유물'로 1인 창작물로 수준 있는 창작물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장애 복지, 예술정책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강령은 장애학적 연구에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장애 정체감 형성에는 본 연구로는 부족한 결과이지만 학제적 융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선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 소통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을 위해 연구참여자가 2명이었다. 한정된 기간 동안 한정된 참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결과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 사례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장애 정체감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로는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이 사회적 · 문화적 관점에서 장애 정체감의 구축을 위해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들의 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개발을 위해 사회적·교육적·문화적 접근 방안과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강유선 (2013). 청소년의 또래 관계 질에 미치는 공감과 정서 표현성의 영향에 대한 고찰.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3(1): 153-176

강은주. (2006). 창작무용 활동이 발달장애아의 리듬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48: 147-162.

권미영. (2016). 통합 환경에서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및 수용.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1): 269-291.

권세라. (2019).『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발달장애 성인의 프로그램형 음악 활동 참여 현황 및 욕구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현아. (2017).『시설퇴소 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및 대처 효능감이 자립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상호작용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성준, 김판수, 문대영, 박수자. (2010). 교과교육에서 창의성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김숙희. (2010).『해피스쿨 프로그램이 초등 청소년의 정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연경. (2019).『장애 대학생의 장애 정체감과 낙인 인식이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우리, 고혜정. (2013).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사회성 중재 연구 동향.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15(3): 25-55.

김유리, 김진. (2018).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회성 기술 중재: 연구 동향 및 증거기반 실제 평가. 특수아동교육연구, 20(3): 159-188.

김유하. (2016).『통합 음악 교수법에 의한 리듬창작 합주 수업이 지적장애 학생의 리듬감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혜. (2018).『잊기 힘든 뮤지컬 : 자폐성장애 청소년의 뮤지컬 공연 경험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재엽, 이진석, 오세헌. (2014). 장애인 취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의 긍정적 의사표현,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장애 정체감의 역할. 사회복지연구, 45(2), 147-172.

김종인. (2008).『아동음악치료방법론』, 파주 : 한국학술정보.

김종인, 김원경, 고정옥, 오이표 (2009).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Ⅰ: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태완. (2015).『피날레와 큐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작 음악 지도연구 :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현실, 김은주. (2015). 불안장애 대상자에게 적용한 비약물적 중재효과 메타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16(11): 7273-7284

김현정. (2019). 집단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의집중력 향상 및 학교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교육공학회, 0(40): 1-14.

김효정, 이관형. (2020). 정신장애인의 온라인 카페 활동이 장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학, 5(2): 87-107.

문영민. (2016). 장애 공연예술은 장애 정체성과 어떻게 공명하는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26: 84-87.

문주영, 손승현, 이예다나. (2014). 사회적 지지와 장애 대학생 학업 적응의 관계: 장애 정체감의 매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교육문제연구, 3(52): 53-75.

박연희. (2021).『발달장애인의 연극 공동창작에 대한 참여적 실행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예슬. (2015). 음악치료에서의 음악테크놀로지 활용.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12(2): 61-77.

송명자. (2006).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송민애, 이승희. (2015). 자폐성 장애 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통합학급 일반 학생의 인식.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31(1): 155-172.

송정문. (2016).『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신민주, 주용국. (2018). 발달장애 청소년의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혁신연구, 28(4): 413-440.

양 린. (2021). 텍스타일 기반 창작활동에 의한 치유.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6(1): 205-216.

여광은, 이점조, 이명화. (2006). 자기표현 미술 활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 아동의 주의산만, 공격성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7(1): 331-349.

원초롱. (2020).『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오상규, 김원중. (2007). 집단상담 : 음악 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사회성,

VOICEYE
KCI
voiceye.com

교우 관계 및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학회, 8(2): 513-532.

우지연, 이영철. (2010). 지적 장애아동의 사회성 중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12(2): 1-2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서, 김한별. (2019).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 스토리.

유동철, 김동기, 김경미, 신유리. (2016). 장애인의 지역사회 신뢰와 장애 정체감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337-347.

유아정, 남현우. (2022). 악기합주 음악치료가 신경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융합학회, 44(5): 593-622.

이미경. (2017). 융합적 시대의 음악창조와 창의성 연구의 변화. 미래음악교육연구, 2(2): 37-52.

이수민, 이세형. (2020).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장애학회, 5(2): 159-181.

이익섭, 신은경. (2006). 장애 정체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척수손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 111-141.

이익섭, 김성연, 최지선. (2007). 지체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재활복지, 11(3): 56-76.

이정기, 안성우, 백유순. (2002). 발달장애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 및 사회적응 실태. 발달장애학회지, 6(2): 213-229.

이호섭. (2020). 대중가요 작사법 시론. 한국대중음악학회, 26: 9-42.

임수경. (2014).『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그룹 음악치료 프로그램』,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은희. (1997).『不安, 憂鬱症勢를 항소하는 클라이언트의 社會適應을 위한 音樂治療 效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세영. (2021). 발달장애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기술 특성 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발달장애학회, 25(2): 31-54.

장연희, 박은경. (2018).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효과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2), 29-51.

전지혜. (2011). 장애 정체감으로서의 장애 자부심, 그리고 장애 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한

국장애인복지학, (15): 57-76.

정다은. (2016)『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진원, 석문주, 오지향, 이수진, 최미영. (2021).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음악창작 교수·학습 방안. 미래음악교육연구, 6(3): 71-93.

정현주. (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개정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정희승. (2017). 청각 인식 훈련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감각처리 기능과 발달 프로파일에 미치는 효과. 한국신경인지재활치료학회지, 9(1): 35-49.

정희정. (2018).『창작무용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심리적 요소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수진. (2016). 상호적 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자폐범주성장애 성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13(1): 89-110.

조윤정. (2010).『창작 무용교육이 청각 장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인수. (2015). 전환: 교육·서비스. 대구: 명성사.

조한진, 강민희, 정은, 조원일, 곽정란, 전지혜, 정희경. (2013).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학지사

진수경. (2021).『창작 음악극을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 민. (2009).『상호작용중심 집단음악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기술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 민, 황준성, 김은혜, 김지혜, 김은영, 박소연. (2018). 재활 음악치료 임상 사례보고서 : 대구00초등학교 재활 음악치료의 대한 임상 사례보고서.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2(2): 15-35.

최지선, 손주영. (2010). 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제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 장애 정체감, 차별 경험과의 관계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12, 35-36.

함찬미, 김지현. (2010). 피날레 2010을 활용한 창작 수업 지도방안. 조선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31(1): 129-144.

황준성. (2013). 집단음악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1: 1-28.

Gerber, S. (2003).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Ianguag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children on the autistic spectrum,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23(2): 74-97.

Gill, C. J. (1997). Four Types of Integration in Disability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 39-46.

Hahn, H. D. (1997). an agenda for citizens with disability : pursuing identity and empowermen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9): 31-37.

Hickey, M.M. (2001). More or Less Creative? A Compariwon of the Composition Processes and Products of “Hily-creative” and “Less-creative” Children Composers. Second International Research in Music Edycation Conference.

Kratus, J. (1994).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Music aydiation and Their Compositional Processes and Produc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2): 115-130.

Leffert, J. S., & Siperstein, G. N., (2002). Social congition: a key to understanding adaptive behavior in individual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International Review fo Research in Mental Retardation, 25: 135-181.

Putman. M. M, (2001). Individual Disability Identity : A Veginning Explration into ITS Nature, Structure, and Relevance for Political Coalition Buildi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hur, L. (1998). Disability and the psychology of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ydies, 9(2): 3-31.

Sitlington, P. L., Clark, G. M., & Neubert, D.A, (2006).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 Students ith Disabilities, Boston, MA: Pearson.

Walton, K. M., & Ingersoll, B. R., (2013). Improving social skills in adolescents and adults with autism and severe to profound intellectual disability: A review fo the literature, Journal fo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 43(3): 594-615.2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Abstract

Study on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Formation of Disability Identity

Chae 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its argument about the essence of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meaning of disability identity formation, by using a case study, one of qualitative study methods. To this end, it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wo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engaged in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by conducting a sampling survey of the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awn Wing', the outcome from the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was created. Second, the meanings of the disability identity formation including 'It's pleasant to be together with others', 'one's will and support'and 'I'm also a player'. According to them, the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made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self-decision and interaction, in producing the outcome. It also helps support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recognize the disabilities, in forming the disability identity. It is not, however, sufficient to meaningfu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 of disability identity formation and the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producing various outcomes from the music creation activity and conduct a further study on the disability identity formation as a sociocultural approach.

Key words :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sability identity, music creation activity, case study

* Department of Disability Studies, Daegu University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131 - 162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관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검증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홍서준*·최아영**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매개로 온라인 사회참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일반 국민 7,000명과 장애인 2,200명 중 결측값 984명을 제거한 뒤 최종 8,216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은 온라인 사회참여에 직접효과가 나타났고,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은 이용성과를 매개로 온라인 사회참여에 간접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의 차이는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이용성과의 경로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에 있어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비장애인들에 비해 이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수준을 높이고 이용성과를 높여 온라인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온라인 사회참여,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매개효과, 다집단 분석

* 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성별·나이는 물론 장애여부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세상은 인터넷 공동체가 초창기 꿈꿨던 이상이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눈과 귀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겪으면서 삶의 많은 영역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온라인 활동 비율이 높아진 지금 정보기기 활용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 주목하며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8)에서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을 국가정보화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포용'이란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일상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즉, 모든 사람이 디지털기술에 접근하는데 있어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라면 동등하게 갖춰야 되는 능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미디어의 광범한 보급과 빠른 기술혁신은 이를 적극 수용해 능숙하게 활용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환경 변화에도 급격한 변화를 느끼는 장애인들은 비대면, 무인화 등이 일상화 되어 가는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정보격차는 사회적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현상 및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나정 외, 2020).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정과 경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비대면 사회로 이행되었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사회·경제적 차별을 심화를 시켰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기기 활용은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보급되어야 할 기술이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종합수준은 81.3%로 2019년(75.2%) 대비 6.1%p 상승하였고, 부문별로 보면 디지털정

보화 접근수준은 95.4%,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은 74.2%,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준은 81.4%로 2019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특히 인터넷 이용률은 85.2%로 2019년 대비 2.9%p 상승하였는데 이처럼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기기의 활용, 접근, 역량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25.8%). 디지털기기 활용이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로 자리 잡은 만큼 디지털기기 이용 능력은 사회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화 역량의 부족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정보화 투자효과와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이중섭, 2009).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사회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보화 역량은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필수요소로, 오프라인·대면 활동 시 장애인이 갖게 되는 제약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참여의 범위와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이향수 외, 2019). 이는 개인이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개인'(Holowchack, 2001)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역시 사회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김미옥 외, 2016), 장애인에게 사회참여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목적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작업과 일상생활활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능동적으로 삶을 살 때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그들이 속한 사회 내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사회활동과 참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며(신은경 외, 2008; 신유리 외, 2011; 임혜경 외, 2015),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WHO(2001)의 ICF의 분류체계에서 '활동과 참여' 영역의 이동,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 시민 생활을 근간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디지털 시대 이전부터 시민의 역량 중 사회참여는 중요한 역량이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일이다. 이는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역시 인터넷, 모바일의 등장으로 손쉽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사회참여는 비장애인들에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디지털 기기의 역량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온라인 사회참여에서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역량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이 낮은 문제는 결국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고(김경란 외, 2021), 온라인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하는 서비스가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정보의 획득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결국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 자체가 어렵고, 이러한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할 시 사회참여의 제한이 발생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 개개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장애인들의 온라인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기기 역량에 대한 연구는 정보격차에 대한 진단(김영대 외, 2017), 정보격차 해소(조주은, 2003; 최두진 외, 2004; 김태일 외, 2005; 김태균, 2006; 김태균 외, 2010; 김황용, 2013; 남형두, 2015;, 백세현, 2019; 장창기 외, 2020; 김지혜, 2021),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유나리 외, 2020), 삶의 만족도 측면(황주희, 2019)에서의 연구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온라인 상 에서의 사회참여가 필요하고, 당연한 권리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기기의 역량수준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의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구조적 관계를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와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특히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디지털 정보격차로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제한적이며,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에서도 제약을 훨씬 더 받기 때문에 이들의 온라인 사회참여에 있어서 디지털 이용기기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온라인 사회참여에 있어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비장애인들에 비해 이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동력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사회참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장애인이 사회의 부분이 되어 장애인이 속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익섭, 2012). 사회참여는 성공적인 재활의 중추적인 결과를 산출해 내는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사이의 상

VOICEYE
KOR
voiceye.com

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다(Levasseur et al, 2004). 그러나 사회참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취수준이 달라지는데 이는 사회참여가 개인의 생존과 자기실현의 근본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행의 정도에 따라 최적의 사회참여를 성취하거나 극단적인 장애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Desrosiers et al, 2002) 장애인에게 사회참여는 최적의 삶의 질 지표가 된다(Noreau et al, 2004). 즉,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생산적인 활동 및 여가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이용자 중심과 자기결정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WHO에서는 사회참여를 실질적인 생활상황과의 연계로 보고, 낮은 사회참여는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며 삶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과제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사회참여의 개념에는 일상생활 활동과 사회적 역할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생활행동(life-habit)으로 정의하였고, 이 중 사회적 역할(social role)은 공적, 사적 부분에 있어 책임성과 타인과의 상호관계, 교육, 생산적 활동, 여가활동 및 지역사회활동을 의미한다(문수경, 2007). 이처럼 사회적 역할(social role)은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Noreau et al, 2004). 따라서 사회참여는 장애인의 삶의 질의 한 지표이며(Bhogal et al, 2003)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유지, 사회적응, 사회통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삶의 질, 생활만족도와 관련해서 진행되었는데 한송이 외(2019)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여가 및 사회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보았으며, 고령 지체장애인 삶의 만족도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상·기능장애·사회참여 중에서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Dijikers, 1997). 이 밖에도 장애인들은 차별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요인으로 사회참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남기민 외, 2011). 또한 고령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며,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의해서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임, 2020).

이렇게 장애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참여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오프라인 사회참여에서 온라인 사회참여로 사회참여의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중요한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인터넷의 발달은 사회운동을 확장시켰고, 이에 따라 운동방식이나 조직형태도 급격히 변화되었다(이종

구 외, 2005). 최근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을 만나는 선거운동이 광장 등에서 이뤄지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정책제안, 의견개진 등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이는 온라인 사회참여에 있어 정보화 역량 수준이 과거에 비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사회참여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보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중·고령자가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김선재 외, 2009),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김수경 외, 2019)으로 나타났다. 노인 계층에 있어 온라인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서 온라인 사회참여는 사회 신뢰, 정체성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연구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공론장은 청소년의 이타적 사회참여와 대인 간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재 외, 2011). 청년층에 있어 온라인 사회참여는 디지털 미디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주요 참조 대상이자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주요 교류의 장(Palfrey & Gasser, 2008)으로 나타났으며, 18세~60세 대상자들의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관련 사회적 규범이 지식공유의 즐거움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관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이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구철모 외, 2012).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와 관련해서는 청·장년장애인과 비교하여 고령 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에 대해 독거가구가 아닌 경우, PC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경우, 모바일 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경우, 인터넷 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나(노승현, 2021), 디지털 기기이용 역량 수준과 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른 계층에 비해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온라인 사회참여는 노인, 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 계층별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회적 영역 공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사회참여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을 넘어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참여의 단계를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정의하였을 때(다른 계층에 비해 장애인들의 온라인 사회참여는 매우 소극적이고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계획과 접근이 지역사회통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시점에서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KCI VOICEYE voiceye.com

2. 장애인 디지털기기 역량수준

디지털정보 역량수준은 디지털 이해능력(Digital Literacy)이라는 개념과 함께 연구되어 왔는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터러시란, 정보 읽기(접하기), 쓰기(이용하기), 말하기(활용하기)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미디어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면서, 정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권성호 외, 2014). 이러한 디지털 역량은 컴퓨터를 단순히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넘어서 온라인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재구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보화 사회는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문화, 경제, 교육,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향수, 2019; 김영대, 2017; 오지안, 2018; 임주희, 2020).

특히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정보소외 계층인 중·고령층과 장애인의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보화 역량이 있는 노인들은 정보화 역량이 없는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으며(전대성, 2015),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김학실 외, 2020; 이복자 외, 2010; 장창기, 2021), 인지적 유연성과 성공적인 노화(박진숙, 외, 2021), 삶의 질(이서연, 2021; 임주희 외, 2020)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대상 연구에서도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향수, 2018), 장애인에게 있어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및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정보습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지원 외, 2021). 또한 디지털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지적 지적장애 성인의 경우 스마트 정보역량과 정보화 생활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인임을 밝혔다(임자예, 2020).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역량수준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역량수준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함승인 외, 2021), Poelmans, Truyen와 Stockman(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ICT 활용능력이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역량수준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인과관계와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는데, 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역량수준은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미 외, 202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장애인에게 있어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은 정서적 상태, 직업적 역량 및 삶의 질, 자기효능감 등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각 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박상미, 2022).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기기 역량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최근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74.2%, 그리고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81.4%에 불과한 수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특히 장애인에게 디지털기기 역량은 단순히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를 넘어 사회와 소통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문화생활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능적 자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정보에 뒤처지고 삶의 만족이나 적극성 등이 낮아지게 되면 이는 또 다른 심리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디지털 기기 역량 수준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3. 장애인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outcome of digital device use)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의미하는데, 특히 인터넷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Helsper, et al., 2015). 디지털 정보 격차는 단순히 기기 이용에서 이용능력, 성과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데(Helsper, et al., 2015), 디지털기기보유 및 인터넷 접속 환경 등 물리적인 격차를 1차 정보격차,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 및 방식 등과 같은 질적인 차원의 격차를 2차 정보격차에 이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용결과의 성과 및 혜택에 대한 격차를 3차 정보격차로 정의하고 있다(Ragnedda, 2017).

Van Dijk(2020)의 디지털기술 활용 과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경우 기술 이용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즉, 디지털기술 이용 기회가 많아지게 되면, 디지털기술 이용 빈도 및 이용량 또한 증가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기술 이용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이용자들이 더 자주, 더 많은 디지털기술을 이용하면서 디지털기술 활용 역량과 기술 활용에 따른 혜택들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Van Dijk, 2020). 요약하면, 디지털정보화에 대한 접근과, 역량수준, 활용수준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선행하고 따라서 디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의 수준에 따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김반야, 2022).

VOICEYE
KOR
voiceye.com

여기에서 말하는 이용성과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얻어진 성과를 의미한다(고삼석 외, 2011; Selwyn, 2004). 이와 관련하여 김균 외(2011)는 이용성과를 디지털기기를 이용하게 된 후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정의하였으며, 송종현(2004)은 이용성과를 효율적 일상관리, 사회적 자본 확장, 자원동원능력, 정체성 표현으로 구분하였다(강월석 외, 2013). 이러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기기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비대면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삶의 질,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김현숙 외, 2021).

디지털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이용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단순 기기보유가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지도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반야(2022)는 디지털정보화와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접하게 되며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막연하게 가정해 왔던 디지털정보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일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디지털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반야, 2020).

장애인과 같이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이뤄지고 있다. 김수경 외(2019)의 연구에서는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의 요인 간 관계를 검증한 결과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바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높이지는 않으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를 높이고,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서준(2021)은 고령층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보기기 활용 수준의 영향을 확인함에 있어 활용수준이 이용성과를 매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한 남녀 간 구조적 관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기기 활용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간접효과를 보였다. 강월석 외(2013)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활용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앞서 말한 2차 정보격차에서 높은 차원의 3차 정보격차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기기의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성과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용성과 관련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정보격차가 심각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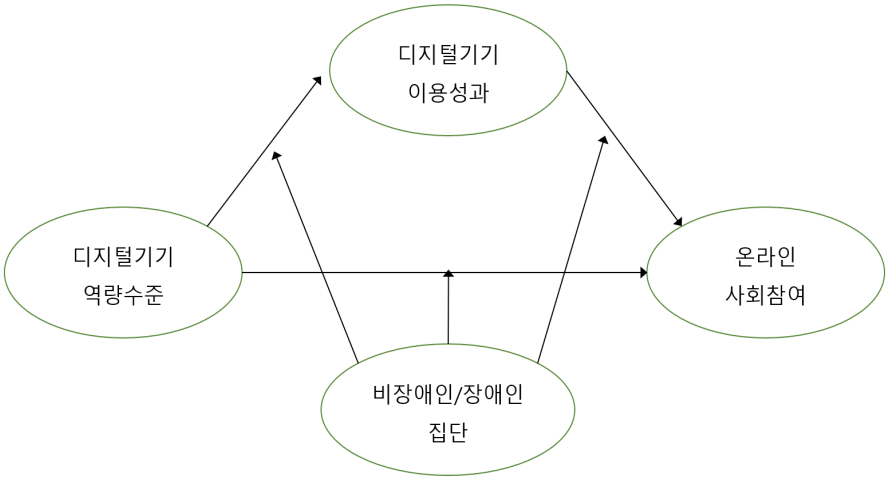
행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매개로 온라인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가설 1〉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사회참여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과 사회참여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매개할 것이다.

VOICEYE
voiceye.com

〈가설 2-1〉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을수록 온라인 사회참여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사회참여의 구조적 관계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20)는 시계열적 조사 분석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실시된 실태조사는 2020년 일반 국민 및 정보 취약계층별(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표본을 재설계하였다. 실태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다. 2022년 현재,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가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자료를 활용한 사유는 본 연구의 모형에 구축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문항이 조사되지 않아 측정의 제한이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어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변수 간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적합한 자료로 판단됐다.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집단비교를 위해 일반 국민 응답 데이터와 장애인 응답 데이터를 병합하여(data merge) 일반 국민 7,000명과 장애인 2,2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결측치와 가중치 등 측정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984명을 제거한 뒤 최종 8,216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온라인 사회참여

본 연구는 온라인 사회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온라인 사회참여 정도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PC, 모바일기기 각각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합산하여 2개의 관측변수(PC, 모바일기기)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문항의 내용으로는 PC와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 표명,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정책제안이나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기부(금전/재능)나 봉사 활동, 투표나 여론조사, 서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을 활용한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 사회참여의 문항 신뢰도는 각각 PC= .911, 모바일= .883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디지털기기 정보역량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PC, 모바일기기 각각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합산하여 2개의 관측변수(PC, 모바일기기)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문항의 내용은 PC 정보역량 문항 내용으로는 필요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컴퓨터에 설치/삭제/업데이트, 컴퓨터에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을 스스로 연결, 웹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설정, 컴퓨터에 다양한 외장기기(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스캐너, USB 외장하드 등)를 연결,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 컴퓨터의 악성코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를 검사/치료, 컴퓨터(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를 이용하여 문서나 자료를 작성 등으로 구성되었고, 모바일기기 정보역량 문항 내용으로는 디스플레이/소리/보안/알람/입력방법 등의 환경설정, 무선 네트워크(와이파이) 설정, 모바일기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기, 모바일기기에 있는 파일/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 필요한 앱을 모바일기기에 설치/삭제/업데이트, 모바일기기의 악성코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를 검사/치료, 문서나 자료(메모, 워드 등)를 작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의 문항 신뢰도는 각각 PC= .954, 모바일= .912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각 문항을 관측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문항의 내용은 여가(취미, 문화, 오락) 활동의 기회가 많아져 즐거워짐,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됨,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짐, 새로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짐, 원격근무나 모바일 학습 등으로 인해 업무나 학업의 효율성이 높아짐, 지인(가족, 친지, 친구 등)들과 일상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

KCI VOICEYE voiceye.com

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문항 신뢰도는 .780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5.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주요변수의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고,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통해 정규분포가 가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변수의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넷째,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단계적 접근법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여 검증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L)을 적용하였다. 다섯째, 구성된 잠재변수가 관측변수를 잘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판별타당도, 개념신뢰도, 집중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여섯째,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해를 실시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보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구조적 관계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이를 위해 등가제약모형 검증방법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54.9%, '여성' 45.1%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이하' 23.9%, '30대' 14.0%, '40대' 18.2%, '50대 이상' 44.0%로 50대 이상의 연령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 20.1%, '고졸' 48.4%, '대졸 이상' 31.5%로 고졸 학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 2.7%, '100~200만 원 미만' 7.5%, '200~300만 원 미만' 13.4%, '300~400만 원 미만' 25.7%, '400만 원 이상' 50.7%로 4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구분은 '장애인' 21.5%, '비장애인' 78.5%로 비장애인의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	목	빈도	%
성별	남성	4,507	54.9
	여성	3,709	45.1
연령	20대 이하	1,961	23.9
	30대	1,148	14.0
	40대	1,495	18.2
	50대 이상	3,612	44.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654	20.1
	고졸	3,976	48.4
	대졸 이상	2,586	31.5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223	2.7
	100~200만 원 미만	617	7.5
	200~300만 원 미만	1,100	13.4
	300~400만 원 미만	2,109	25.7
	400만 원 이상	4,167	50.7
장애 구분	장애인	1,767	21.5
	비장애인	6,449	78.5

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모든 관측변수와 잠재변수는 왜도와 첨도 값이 절대값 3 미만으로 정규분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측정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관측변수인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PC= 2.623,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모바일= 2.977,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1= 2.993,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2= 3.228,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3= 3.209,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4= 2.893,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5= 2.844,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6= 2.768,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7= 3.126, 온라인 사회참여 PC= 1.501, 온라인 사회참여 모바일= 1.800, 잠재변수인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2.800,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3.009, 온라인 사회참여 1.650로 확인됐다.

KCI VOICEYE voiceye.com

〈표 2〉 기술통계 분석

조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관측변수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PC	2.623	.890	-.467	-.825
		모바일	2.977	.707	-.668	-.022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이용성과1	2.993	.604	-.328	.823
		이용성과2	3.228	.678	-.510	-.007
		이용성과3	3.209	.698	-.491	-.207
		이용성과4	2.893	.737	-.272	-.200
		이용성과5	2.844	.756	-.265	-.243
		이용성과6	2.768	.848	-.402	-.365
		이용성과7	3.126	.680	-.585	.713
	온라인 사회참여	PC	1.501	.687	1.308	.763
		모바일	1.800	.769	.662	-.618
잠재변수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2.800	.759	-.471	-.617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3.009	.471	-.724	.602
	온라인 사회참여		1.650	.668	.983	.163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관측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관측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됐다. 변수 간 상관계수는 r=.079~.804(p〈.01)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킬 만한 0.9를 초과하는 상관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모든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계수를 토대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 간 구조적 관련성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법칙타당성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조	항	목	1-1	1-2	2-1	2-2	2-3	2-4	2-5	2-6	2-7	3-1	3-2
1	1	역량 수준_pc	1										
	2	역량 수준_모바일	.804**	1									
2	1	이용성과1	.292**	.312**	1								
	2	이용성과2	.236**	.285**	.341**	1							
	3	이용성과3	.280**	.325**	.266**	.428**	1						

조	항	목	1-1	1-2	2-1	2-2	2-3	2-4	2-5	2-6	2-7	3-1	3-2
	4	이용성과4	.277**	.304**	.369**	.259**	.367**	1					
	5	이용성과5	.308**	.313**	.377**	.296**	.289**	.473**	1				
	6	이용성과6	.393**	.368**	.338**	.272**	.282**	.358**	.453**	1			
	7	이용성과7	.277**	.314**	.267**	.312**	.357**	.316**	.323**	.358**	1		
3	1	사회참여_pc	.378**	.286**	.101**	.087**	.092**	.140**	.172**	.246**	.084**	1	
	2	사회참여_모바일	.263**	.233**	.101**	.090**	.090**	.136**	.162**	.216**	.079**	.681**	1

*p<.05, **p<.01, ***p<.001

4. 측정모형 분석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square=496.774, df=11, p=.000, CFI=.977, NFI=.977, TLI=.956, RMSEA=.073으로 적합도 지수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측변수의 표준화 계수는 모두 .60 이상, C.R 값은 모두 .70 이상, AVE 값은 모두 .40 이상으로 확인했고,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AVE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표 5>. 이에, 개념타당성과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우종필, 2012),

<표 4> 측정모형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z-값	집중타당성	
							C.R.	AVE
PC	←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1.000	.941	-	-	.894	.808
모바일	←		.722	.855	.011	68.375***		
성과4	←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1.000	.607	-	-	.739	.487
성과5	←		1.192	.706	.030	40.299***		
성과6	←		1.243	.656	.031	39.621***		
PC	←	온라인 사회참여	1.000	.949	-	-	.826	.708
모바일	←		.847	.718	.024	35.106***		

Chi-square=496.774, df=11, p=.000, CFI=.977, NFI=.977, TLI=.956, RMSEA=.073
*p<.05, **p<.01, ***p<.001

VOICEYE
voiceye.com

〈표 5〉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변수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온라인 사회참여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808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539(.291)	.487	
온라인 사회참여	.403(.162)	.305(.093)	.708

주) 굵은 글씨= 잠재변수의 AVE 값을 의미, (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의미

5. 구조모형 분석

1) 경로계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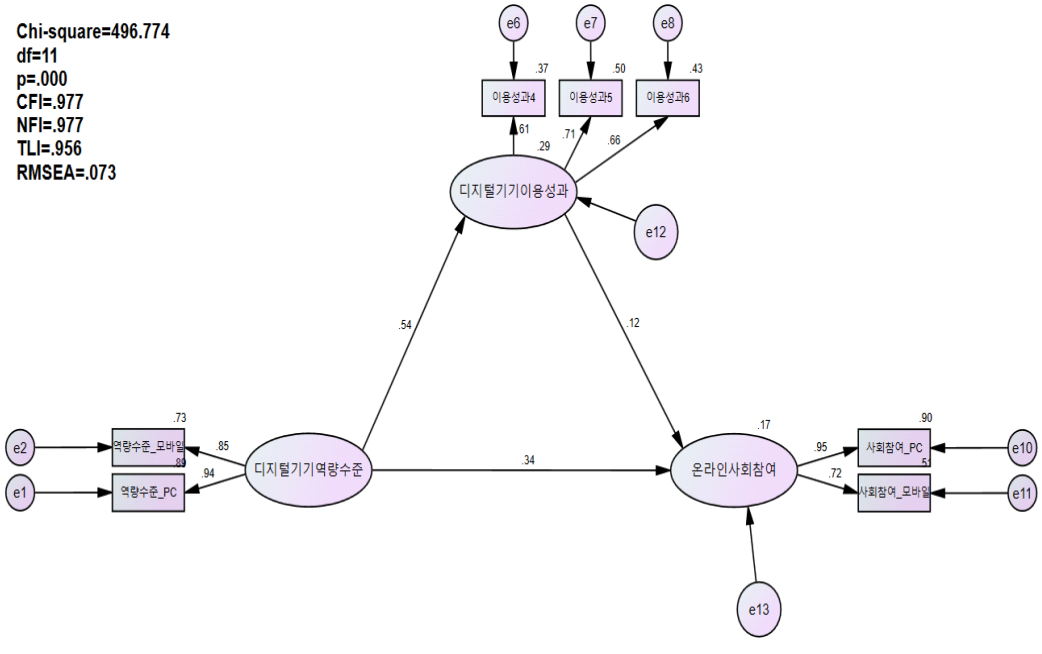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통상 기준치에 충족시켰고,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표 6〉, 〈그림 2〉.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square=496.774, df=11, p=.000, CFI=.977, NFI=.977, TLI=.956, RMSEA=.073으로 적합도 지수가 매우 양호하여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수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됐다(B= .288, β= .539, p〈.001).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와 온라인 사회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됐다(B= .180, β= .124, p〈.001).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됐다(B= .262, β= .336, 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1〉, 〈가설 2-1〉,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표 6〉 구조모형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z-값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288	.539	.009	33.347***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온라인 사회참여	.180	.124	.024	7.471***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온라인 사회참여	.262	.336	.012	22.175***

Chi-square=496,774, df=11, p=.000, CFI=.977, NFI=.977, TLI=.956, RMSEA=.073
*p〈.05, **p〈.01, ***p〈.001



〈그림 2〉 구조모형

2) 효과분해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변수 간 관계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고, 효과분해 검증을 통해 변수 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 신뢰수준으로 설정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1,000회 실시하였다. 효과분해 결과,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매개로 온라인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총효과 β=.403, p〈.01, 직접효과 β=.336, p〈.01, 간접효과 β=.067,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7〉 효과분해 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539*	.539*	-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온라인 사회참여	.124**	.124**	-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온라인 사회참여	.403**	.336**	.067**

*p〈.05, **p〈.01, ***p〈.001

6. 다집단 분석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검증된 측정변수 간 영향관계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타당성 검증과 대응별 모수비교 검증을 통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1) 교차타당성 검증

앞서 검증한 측정모형을 활용하여 교차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 1(비제약 모형)~모형 5(요인계수 공분산 오차분산 제약모형) 모두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매우 양호하며, 형태동질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차타당성이 확보되었다.

2) 대응별 모수 비교 검증

앞서 교차타당성 검증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측정을 검증하였고,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와 온라인 사회참여,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 경로에 경로계수 등가제약을 걸었다. 제약된 경로의 차이는 대응별 모수 비교 t-검증법을 활용하였다〈표 9〉.

분석결과, 경로 1(디지털기기 역량 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됐다. 경로 1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집단(B= .211, β= .340, p〈.001)과 비장애인 집단(B= .300, β= .585, p〈.001)의 경로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4.135, p〈.01).

반면, 경로 2(디지털기기 이용성과와 온라인 사회참여의 관계)에서의 장애인 집단(B= .227, β = .185, p〈.001)과 비장애인 집단(B= .188, β= .12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됐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817, p〉.05).

경로 3(디지털기기 역량 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관계)에서의 장애인 집단(B= .265, β= .348, p〈.001)과 비장애인 집단(B= .284, β= .36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됐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719, p〉.05).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든 경로에서 각 집단 별 변수 간 경로계수는 유의미하였지만, 경로 1(디

지털기기 역량 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의 경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영향관계가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됨을 알 수 있고,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20)에서 보고된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점수(장애인: 48.2점, 비장애인: 64.9점)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점수(장애인: 2.85점, 비장애인: 3.05점)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점수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증명한 결과이기도 하다.

〈표 8〉 교차타당성 검증 결과

모형	x^2	df	CFI	RMSEA	TLI	$\triangle x^2$
모형1	616.229	22	.972	.057	.947	28.010
모형2	630.334	26	.972	.053	.954	24.244
모형3	683.642	30	.969	.052	.957	22.788
모형4	834.269	32	.962	.055	.950	26.071
모형5	1112.332	39	.949	.058	.946	28.521

주) 모형1: 비제약 모형, 모형2: 요인계수 제약모형, 모형3: 공분산 제약모형, 모형4: 요인계수 공분산 제약모형, 모형5: 요인계수 공분산 오차분산 제약모형
*p<.05, **p<.01, ***p<.001

〈표 9〉 경로계수 추정 및 대응별 모수 비교 검증 결과

경로		장애인			비장애인			t
		β	B	S.E	β	B	S.E	
경로1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340***	.211	.019	.585***	.300	.010	4.135**
경로2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온라인 사회참여	.185***	.227	.037	.123***	.188	.031	-.817
경로3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 →온라인 사회참여	.348***	.265	.023	.363***	.284	.014	.719

*p<.05, **p<.01, ***p<.001

VOICEYE
voiceye.com

V.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관계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고,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확인됐고, 〈가설 2-1〉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김반야(2022)의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셋째,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을수록 온라인 사회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고,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가설 2-1〉, 〈가설 2-2〉와 더불어,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매개로 온라인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관계에서 중요한 중재역할을 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넷째,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구조적 관계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을 비교한 결과,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했다. 반면, 제시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와 온라인 사회참여,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관계에서는 영향력의 크기의 차이는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을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격차 실태 파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기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수준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디지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정보 취약계층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세부지침이나 법적인 근거도 현재는 미비하다. 일례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무인매장이 증가함에 따라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키오스크를 확인하고 작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매장에 들어오면 매장의 구조나 상품이 진열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셀프계산대도 혼자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은 300제

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음식점, 제과점 등과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에 적용되고 주출입구의 접근로, 높이 차이, 출입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는 '금융자동화 기기 접근성 지침'이 지정됐지만, 해당 지침이 적용된 무인화 기기들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에만 적용된 상태다. 미국의 경우, 키오스크의 접근성 디자인에 대한 표준인 장애인법(ADA)을 마련하여 키오스크 설치장소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별 세밀한 표준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들의 온라인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웹접근성이 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훈련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2018 웹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8개 표준사업분야 1,000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조사 결과 장애인 접근성이 우수한 웹사이트는 오직 5%에 불과했다. 이들 사업장의 74.3%에 달하는 웹사이트가 75점 이하로 미흡 수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이 또한 의무적용 대상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한정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권고에 불과하다. 특히 이러한 불편은 코로나 시대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이었던 제로페이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포함되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제로페이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거나 주변에서 도움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와 플랫폼 등을 개발할 때 설계 및 개발 단계부터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을 활용하여 혼자서 접속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온라인 접속을 지원하는 온라인 센터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 훈련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사회참여에 영향력이 있다고 밝혀진 역량수준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온라인 건강 증진, 온라인 사회참여와 같은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과정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교육 훈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들의 온라인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언택트 시대 장애인이 정보접근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역량수준을 높여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에 참여하여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키오스크와 제로페이, 웹사이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이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VOICEYE voiceye.com

이와 같은 시설에 접근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은 또다시 차별당했다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하여 인천전략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은 다른 입법과제와 정치적,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기본적인 접근성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새로운 기술을 설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정보접근성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은 곧 장애인 역량수준으로 이어져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넷째, 장애인들의 디지털 이용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옹호자를 양성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만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기술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디지털 기술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주변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민옹호인[1] 역할을 하는 인력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옹호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이 디지털 옹호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디지털기기 이용수준을 높이는 것을 돕고, 온라인 접속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훈련을 받은 지원인력은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별 기술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이용수준을 높이며 온라인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높여 장애인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원격 의사소통을 위한 디지털 매체 사용 기술과 같은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삶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사회참여 및 네트워크 활동 등에 참여하는 방안과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디지털기기 역량수준과 온라인 사회참여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영향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온라인 사회참여에 있어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디지털기기 역량수준 또한 온라인 사회참여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적절하게 장애인들의 온라인 사회참여에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여 장애인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

---

1) 시민옹호인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장애인이 다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돕는 시민을 의미한다. 시민옹호인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을 강조하는 장기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장애인의 이익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한다.

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온라인 사회참여를 포함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및 디지털기기의 이용 및 역량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활용한 자료를 통해 종단연구를 시도하지 못하여 시계열적 접근과 측정변수 간의 효과크기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유형과 연령에 따른 디지털기기 역량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대명, 2022),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아닌 비장애인을 포함시켜 분석한 연구로 장애유형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디지털기기 역량수준, 디지털 기기이용성과, 온라인 사회참여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을 일임한다. 셋째,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통상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여 문항의 설명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판명된 문항들이 제거되었고, 이에 나머지 문항들이 측정변수 구성함에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에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기에 보다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기 역량수준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매개로 온라인 사회참여의 미치는 영향과 비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을 비교하여 연구가 시도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KCI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강월석, 김명숙, 고재욱. (2013). 스마트폰 정보 활용과 이용성과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1), 199-214.

고삼석, 노창희, 성동규. (2011).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 =접근격차, 이용격차, 성과격차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3), 46-91.

구철모, 전유희, 정남호. (2012).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동기와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온라인정체성 표현욕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1(5), 1135-11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NIA VIII-RSE-C-190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권성호, 현승혜. (2014). 중· 장년층 직장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중심으로. 학습과학연구, 8(1), 120-140.

김경란, 조수현. (2021). COVID-19 위기에 따른 장애인 지원 현황에 대한 탐색 및 대응전략: WHO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3(3), 7-37.

김균, 김양은, 김건우, 김도희. (2011). 고령화 시대 노인층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나정, 유병희. (2020). 개인 영역의 소비가 소비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합적 소비전략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1(4), 1-30.

김대명. (2022).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PC/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4(1), 73-97.

김미옥, 박현정, 이은실. (2016).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부담과 장애자녀에 대한 긍정성 인식의 관계: 사회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2), 309-330.

김반야, 권종실. (2022). 디지털정보화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 효과 분석. 정보화정책, 29(2), 91-105.

김반야. (2022).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이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조절효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8(3), 129-136.

김수경, 신혜리, 김영선. (2019). 중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사회참여/네트워크 활동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7(12), 23-34.

김영대, 조윤희, 서영길. (2017). “장노년층 정보화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디지털 역량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1), 229-259.

김지혜. (2021).『신체장애인의 기술 접근성이 기술 수용 태도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균. (2006).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현황 및 요인 분석. 시각장애연구, 22, 183-206.

김태균, 조현숙. (2010).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요인에 대한 시계열 분석. 지체중복, 건강장애연구, 53(4), 191-210.

김태일, 도수관. (20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정보 활용능력 및 활용행태 차이 분석.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5, 161-188.

김태일, 도수관. (20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 분석. 사회복지정책, 21, 341-364.

김선재, 양윤석, 이인성, 김진우, 강정민. (2009). 온라인 환경에서 노인의 정보 공유 활동이 Quality of Life 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감성적 선택 이론에 기반하여. In KMIS International Conference, p.271-276.

김학실, 심준섭. (2020).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활동.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2), 153-180.

김현숙·황혜미. (2021). 코로나19 위기 온택트 경험을 통해 살펴본 정보격차 연구. 인권연구, 4(1), 1-45.

김황용. (2013).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 정책. 디지털융복합연구, 11(9), 181-188.

남기민, 박현주. (2010).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9. 405-427.

남기민, 정은경. (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2, 325-348.

남형두. (2015).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과제: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 입법과 정책, 7(2), 175-197.

노승현. (2021). 고령 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 연구: 청장년장애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8(2), 81-97.

문수경. (2007).『중풍노인의 서비스 중풍노인의 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른 사회참여 효과 사회참여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문영임. (2020).『고령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백세현. (2019).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숙. (2012). 간질장애인의 사회참여 경험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6(1), 41-79.

박진숙, 김남숙. (2021). 노인의 디지털리터러시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인지유연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4), 2407-2422.

박상미, 김한솔, 박해긍. (2022).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61(1), 223-243.

송종현. (2004). 이동전화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한국언론정보학보, 27, 183-212.

신유리, 김은경. (2011).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인식연구: Q 방법론의 활용. 여성학연구, 21(3), 101-140.

신은경, 이익섭, 이한나. (2008). 척수손상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자아 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25-643.

심선희, 문재영. (2012). 모바일 SNS 속성이 관계형성과 정보공유를 매개로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품질경영학회지, 40(1), 60-72.

오지안, 유재원. (2018).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319-344.

오지원, 여영훈. (2021). 근로 장애인의 대인관계 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411-1412.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이복자, 명승환. (2010). 노인의 정보활용 실태를 통해 본 지역정보화사업의 쟁점: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3), 239-259.

이서연. (2021).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2(6), 307-322.

이익섭. (2012). 장애와 사회참여. 서울: 학지사.

이종구, 조형제, 정준영, 김종철, 김해식, 백욱인, 류영달, 이창호, 이항우, 정건화, 정이환, 정현

민, 조주은, 한상진, 홍성태, 홍일표, 황정미. (2005).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 M&B.

이중섭. (2009).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75-102.

이향수, 이성훈. (2018).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정책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4), 23-28.

이향수, 이성훈. (2019). 장 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 모임, 공동체에의 참여활동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2), 1-7.

임자예. (2020).『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성인의 스마트 정보역량과 정보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주희, 김은경, 김문희. (2020).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평생학습사회, 16(2), 111-135.

임정재, 강정한, 김상돈. (2011).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12(2), 37-67.

임혜경, 박재국, 김은라, 장진순. (2015). ICF에 기반한 장애인의 환경요인과 사회참여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1), 87-110.

유나리, 김승완. (2020).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0(9), 111-122.

장창기, 성욱준. (2020). 중증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 격차의 영향 :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NIA 정보화 정책, 27(3), 56-81.

전대성. (2015). 노년층의 정보화 역량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389-409.

조주은. (2003).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장애 유형과 정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26(2), 147-173.

최두진, 김지희. (2004).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 방안.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송이, 이미숙. (2019). 지체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국내 학술지 연구 분석. 지체중복건강장

애연구, 62(2), 85-109.

함승인, 정소연. (2021).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자기효능감 및 직무적합성의 매개효과. 장애와 고용, 31(2), 93-117.

홍서준. (2021).『고령층의 모바일기기 활용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주희. (2019). 장애인의 정보 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6(3), 53-68.

Bhogal, S. K., Teasell, R. W., Foley, N. C., Speechley, M. R. (2003), Rehabilitation of aphasia: more is better. Topics in Stroke Rehabilitation, 10(2), 66-76.

Desrosiers, J., Noreau, L., Rochette, A., Bravo, G., Boutin, C. (2002), Predictors of handicap situations following post-stroke rehabilitati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4(15), 774-785.

Dijkers, M. (1997), Quality of life after spinal cord injury: a meta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ablement components. Spinal cord, 35(12), 829-840.

Helsper, E. J., Van Deursen, A. J., Eynon, R. (2015), Tangible outcomes of Internet use: from digital skills to tangible outcomes project report.

Holowchak, M. (2001). Ancient Science and Dreams: Oneirology in Greco-Roman Antiquity: Published by UPA.

Levasseur, M., Desrosiers, J., Noreau, L. (2004), Is social participation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of older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6(20), 1206-1213.

Noreau, L., Desrosiers, J., Robichaud, L., Fougeyrollas, P., Rochette, A., Viscogliosi, C. (2004), Measuring social participation: reliability of the LIFE-H in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6(6), 346-352.

Palfrey, J., & Gasser, U. (2008). Opening Universities in a Digital Era. New England Journal of Higher Education, 23(1), 22-24.

Poelmans, S., Truyen, F., Stockman, C. (2012), ICT skills and computer self-efficacy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In INTED 2012 Proceedings 6th International Technology, Education and Development Conference, 1123-113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echnology, Education and Development; Sl.

Ragnedda, M. (2017), The third digital divide: A Weberian approach to digital inequalities. Routledge.

Selwyn, N.(2004). Reconsidering political and popular understandings of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Society, 6(3), 341-363.

Sørensen, L. V., Waldorff, F. B., Waldemar, G. (2008), Social participation in home-living patients with mild Alzheimer's disease.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7(3), 291-301.

Van Dijk, J. (2020), The digital divide. John Wiley & Sons.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10.	게재확정 : 2022. 11. 30

VOICEYE
KOR
voiceye.com

Abstract

The Effect of Digital Device capability Level on Online Social Participation: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Digital Device Utilization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ulti-group analysis of non-disabled and disabled people

Hong Seo Joon*·Choi Ah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on-disabled and the disabled groups in the structural impact of digital device capability level on online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device utilization performance. To this end, data from the "2020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by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were used, and 984 missing values were removed from 7,000 ordinary citizens and 2,200 disabled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final 8,216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evel of digital device capability showed a direct effect on online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digital device capability was confirme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online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the utiliz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n-disabled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and the disabled group was only different in the path between digital device capability level and the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s, resulting in a partial moderating effect.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utilization performance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online society, and based on this,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to raise the level of digital capabilities of the disabled and promote the utilization performance.

Keywords : Online Social Participation, Digital Device Capability Level, Digital Device Utilization Performance, Mediating Effect, Multi-Group Analysis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163 - 187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의 차이 분석

이희라*·이재용**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차이에 대해 경제학에 기초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있다. 분석자료로써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의 2차 웨이브 6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임금에 대해서는 보통 최소자승법모형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통최소자승법모형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신체 외부 장애인에 비해 44.9%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타 장애 유형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더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에서, 하위 10%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 외부 장애인보다 160%정도의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상위 10%의 경우에는 무려 187%의 임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장애 유형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존재하며, 저임금과 고임금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장애 유형에 따른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장애 유형, 임금 격차, 저임금과 고임금, 보통 최소 자승법 모형,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학부

Ⅰ. 서론

노동 시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방위적 차별은 사회통합과 불평등의 쟁점으로서 꾸준히 지적되었다. 장애인은 노동 시장의 진입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노동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지위가 불안정하며, 적은 보수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한다. 2020년 기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188만 원으로 2017년 대비 상승하였지만(장애인실태조사, 2020),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약 268만 원에 비하면 이 역시 한참 적은 소득 수준이다(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2020). 게다가 세부 장애 유형별로 월평균 소득을 분석하였을 때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기준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약 203만 원으로 측정되었지만, 지적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92만 원이며, 정신적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약 96만 원으로 장애인 집단 내부에서도 확연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애인실태조사, 2020).

이에 장애인의 노동개선을 위해 직업 재활훈련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환경은 불안정하다(변민수, 조성혜, 202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노동자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과 같은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노동 시장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한 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다양한 정책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 시장 내의 위치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과 적절한 임금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경제적 구조 내의 위치 차이에 대해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강동욱, 2004; 유완식, 2011; 이수용 외, 2014). 또한, 최근 장애인 연구 동향은 장애인 집단 내 계층 및 성별에 따른 장애인 차별의 행태에 대해 세분화하여 논의가 전개되면서 장애인이 직면한 임금 문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정교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강동욱, 2005; 김정아 외, 2013; 임예직, 문영민, 2020). 하지만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 집단 내부의 임금 격차와 장애 유형별 임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집단 내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고찰하며 장애인의 노동 시장 실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장애인 집단 내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로 먼저, 이성규(2014)의 연구가 있는데 장애유형별로 일상적인 차별경험이 다르며 특히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경험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자영(2021)의 연구에서도 역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정도가 가장 심

VOICEYE
voiceye.com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경제와 근로영역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심하고 지속적임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장애인 집단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존재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내포한다. 이선영과 이홍직(2018)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임금 수준이 장애인 집단을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심지어 장애 정도가 같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됨을 분석한 최준혁(2022)의 연구도 있다. 장애인 집단 전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지만, 장애인 집단 내 특정 유형에 집중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장원석과 이홍직(2022)의 연구는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지체 장애인의 임금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체 장애인 근로자와 임금 수준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지체 장애인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써 성별, 연령, 결혼상태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 학력 수준과 전공이나 보유기술능력과 같은 인적자본 요인, 근로 형태나 근로환경과 업무 만족도 같은 근무조건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보유기술능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기술교육이 장애인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장애 유형이 고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이성규, 2014), 차별 경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침을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장애유형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임금 수준을 함께 반영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 유형이 장애인 집단 내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포함해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여 보통 최소 자승법 모형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인 임금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선호차별이론

본 연구의 가설인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이 어떻게 구조화 혹은 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 시장에 대한 여러 이론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호차별이론(Taste Discrimination Theory)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개인적 편견에 기초하여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본 이론은 3개의 하위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주에 의한 차

별(Employer Discrimination), 피고용자에 의한 차별(Employee Discrimination), 소비자에 의한 차별(Consumer Discrimination)이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과 비장애인에 비해 적은 임금 수준은 선호차별이론 중 고용주에 의한 차별로 설명될 수 있다. 노동 시장에서 고용주들이 고임금 일자리에 비장애인을 고용하려는 확실한 선호가 존재하고, 동일한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가진 장애인이 있을지라도 고용주들의 개인적 편견에 의해 장애인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을 과소평가하며, 장애인은 고임금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그렇게 평가된 생산성은 객관적 수치와 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닌 고용주 오롯이 개인의 편견에 의한 것으로 본 이론은 설명한다. 또한 이에 따르면 장애인의 업무 생산성이 과소평가 되고, 고임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은 그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구조적 차별을 겪게 된다. 더 나아가, 고용주가 특정 장애유형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근로능력을 검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호차별이론에서는 특히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편견에 기초한 선호를 극대화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과 동치되기 때문이다. 선호차별이론에서 역설하는 것은 결국 경쟁 시장에서, 고용주가 자신의 편견에 의해 장애인을 고용하기 꺼려한다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별하지 않는 기업은 차별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자산과 수익을 얻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기업은 자신들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선우와 오욱찬(202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근로 능력과 장애 등급제도의 상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노동력에 대해 근로 능력 및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보는 편견 하에 소득보장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용주가 이미 가지고 있기에 노동 시장에 진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Yeo, Moore, 2003)

유동철(200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노동 시장 진입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적용했음에도 오히려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임금 수준은 떨어졌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업무 능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더라도 고용주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2. 통계적차별이론

통계적차별이론이란 기업이 지원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속한 인구집단의 평균적 특성과 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 고용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지원자에 대한 직업 능력을 채용 전에 세세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지원자가 속한 인구 사회학적 집단의 평균적인 통계 특성에 기반하여 고용과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자신이 가진 장애의 정도, 장애 유형은 기업에서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초기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이론은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차별을 선호차별이론과 유사하게 접근하지만, 고용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요인을 다르게 분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호차별이론은 고용주의 선호와 취향으로 인해 차별이 야기된다고 설명하는데 반해, 통계적차별이론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생산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집단의 특성에 기반하여 장애인 개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이론에 기초한 국외의 선행연구로 Aigner와 Cain(197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각 노동자 개인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과 무관하며, 그 노동자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특성에 의해 발생함을 논의하였다. 즉, 장애인에 대한 차별 더 나아가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회가 비추고 있는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평균적인 이미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또한, Baldwin과 Johnson(1994)의 연구에서는 고용주의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더 작용하기 쉬운 장애일수록, 특히 겉으로 식별하기 쉬운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일수록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었으며, 그들의 임금 역시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을 논하였다.

또한 국내의 양정빈의 연구(2015)에서는 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여성 장애인의 노동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노동 시장 진입 이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중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장애 유형을 총 4가지로 분류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수준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내부 장애, 감각 장애, 신체 장애, 정신적 장애 순으로 임금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 겉으로 식별하기 쉬운 장애 유형을 가졌을수록, 그리고 사람의 편견이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가질 수록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Baldwin과 Johnson(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3. 이중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s theory)은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을 설명하는 쇄도가설(Crowding Hypothesis)을 변형한 이론으로써, 노동 시장이 1차 부문과 2차 부문으로 분절되어있고, 1차 노동 시장의 경우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갖춘 반면에, 2차 노동 시장의 경우 불안정적인 고용행태, 임금이 낮은 수준이고 노동조건 또한 열악하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나뉘는 노동 시장은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각 부문의 노동 시장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 이로 인해 사회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닌 2차 노동 시장에 머물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나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진행된 국내의 연구 중 하나인 유완식(2011)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구조의 차이는 개인의 인적 자원 특성(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등)과 기업의 시장특성(기업규모, 고용형태, 직종, 노동조합 및 지역 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부존자원의 차이인가 아니면 임금차별인가'가 그 질문이다. 연구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인적 자원의 특성에 기원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써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이중노동시장이론으로 설명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인은 주로 고용되는 노동시장이 노동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 시장이며 이로 인해 겪는 임금 불평등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동욱(2005)의 연구에서도 노동 시장이 분절적이고 노동 시장 내의 노동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변량함수판별분석(MDFA)과 로짓 분석을 사용하여 취업 여부, 임금 수준, 가구소득, 결혼 등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차별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취업 과정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33.4%의 차별을 겪고 있었으며, 임금 수급의 과정에서는 67.3%의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조적 임금 격차에 더하여 이민욱과 김성은(202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임금만을 측정해 임금 수급 과정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임금변화를 3가지로 유형화하는데 장애인 임금 수준을 저수준 유지, 고수준 유지, 중수준 증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농업에 종사 할수록,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수록 '저수준 유지' 임금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연령 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기혼일수록, 중증보다 경증장애인일수

VOICEYE voiceye.com

록, 신체 외부 장애인보다 신체 내부장애인일수록, 그리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 유형에 있어서 고수준 유지 및 중수준 증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거나 애초에 지원할 수 있는 직종과 직무가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차별에 대해 정교한 측정을 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 총 15개는 다시 4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신체 외부 장애, 신체 내부 장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가 그것이다. 신체 외부 장애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 등을 포함하고, 신체 내부 장애는 신장이나 심장, 간과 같은 신체 내부에 있는 기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감각 장애의 경우 시각, 청각장애를 포함한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장애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장애인 집단 내부의 임금 수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때 기존 연구를 고려했을 때, 성별과 학력, 장애의 정도, 이중장애 여부, 노조 가입여부, 사업체 규모, 혼인 유무, 급여 형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근무 및 거주지역이 종속변수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변수로 판단된다. 앞서 논의한 장애인과 임금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와 기존의 한계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 유형에 따라 사람의 편견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이는 편견의 정도가 아닌 편견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게 되었다.

가설 1 : 장애 유형에 따라 임금의 격차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 고임금 및 저임금에서의 장애 유형별 임금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Ⅲ. 자료 및 방법론

1. 분석자료

장애의 유형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2차 웨이브 6차 조사를 분석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국내 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장애인의 노동 참여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는 조사이다. 본 패널 조사는 2008년부터 패널을 추적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지만 패널 이탈의 문제,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 등 구조적인 한계를 맞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새로운 설계와 패널을 구축하여 2차 웨이브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p. 6). 이에 새로운 패널을 전국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만15세에서 만 64세로 구성하였으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TAPI)를 활용하여 인적 및 장애 특성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상태, 직업적 능력, 가구 사항 등 치밀하게 설계된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p. 9). 더불어 조사원의 펀칭오류 및 재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보완하고자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응답의 일관성과 패널 유지를 위해 사후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해당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기에, 패널의 주된 장애 유형과 임금 변수를 추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에 패널 중 결측값을 가진 사례들은 모두 제외하는 완전사례법(listwise deletion)을 사용하였으며, 총 1,343명의 장애인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더불어 해당 패널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R(i386 4.1.2)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2. 변수 및 측정

독립변수인 장애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패널 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종 장애에 대한 질문을 활용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범주화한 장애의 유형은 뇌, 시각, 청각, 자폐성(발들), 정신 등 총 15가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패널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가공 변수를 활용하여 총 4개의 유형(신체 외부 장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내부 장애)으로 측정하였다. 신체 외부장애는 0의 값을 주었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내부 장애 순으로 1, 2, 3의 값을 부여한 후 범주형 변수로 취급하였다. 종속변수

VOICEYE
voiceye.com

인 임금은 만원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연속 변수이자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임금 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월 평균 임금 값에 매우 작은 수(0.001)를 더해준 후, 임금에 로그를 취하였다(김현식, 2017).

더불어 예측 확률이 0과 1 사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선형확률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임금의 하위 10%와 상위 10%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결측치를 제외한 총 1,343명의 표본의 하위 10%의 로그를 취한 임금은 4.382(80만원), 상위 10%의 로그를 취한 임금은 5.991(400만원)으로 측정되었으며, 하위 혹은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으로 주어 이항 변수 취급하였다.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세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두 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혼동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Wooldridge, 2002). 이에 혼동변수를 통제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우선 장애인의 성별 격차에 따른 임금을 연구한 정한나(2010)와 간기현 외(2021)에 따르면, 장애인의 임금 격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라는 혼동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남성 장애인에게는 0의 값을, 여성에게는 1의 값을 주어 성별 변수를 통제하였다. 성별과 더불어 학력은 장애인의 임금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제 변수이다(이선영·이홍직, 2018; 김현식, 2021; 오지원, 2021). 또한 해당 패널에서 진행한 설문 중 하나인 “OOO님이 일자리(직장)에 취업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도움이 된 요소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라는 응답에 대해 153명(10개의 응답 중 5순위)이 최종 학력과 성적이라고 답변한 것을 미루어 보아, 장애인의 학력은 임금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학력에 대한 총 3개의 범주(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로 이루어진 학력 변수에서 중졸 이하를 기준 변수로 설정하여 해당 변수를 통제하였다. 또한 혼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의 값을 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임금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선영·이홍직, 2018; 조재환·이진혁, 2021). 하지만 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2020년도 2차 웨이브 자료부터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p. 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2,3급)에 0의 값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5,6급)에 1의 값을 주었다. 해당 변수에 대해서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패널들의 기존 등급에 의거해 응답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기록된 해당 응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판단되는 장애 중증 여부에 대한 응답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김현식의 연구(2021)에서는 무조합원(직장내 노동조합이 없는 장애인), 비조합원(직장 내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장애인), 조합원(직장 내 노동조합이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장애인)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추정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무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임금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에 가입된 장애인은 무조합원에 비해 10.2%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정규직에 한정하였을 때도 무조합원에 비해 조합원이 8.9% 높은 임금을 받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조합가입 여부가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OOO님의 일자리(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OOO님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무조합원에게는 0의 값을, 조합원에게는 1의 값을 할당하여 해당 변수를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수용 외, 2014; 유완식, 2011; 이영경, 임업, 2016). 먼저 사업체 규모의 경우, 2021년 2차 웨이브 6차 조사의 데이터에서는 일자리의 근로자 수를 10개로 범주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가공하여 10인 미만, 10~99인, 100인 이상의 범주형 변수로 처리하여, 9인 이하의 사업체 규모를 기준 변수로 설정하여 해당 변수를 통제하였다. 또한 임금을 받는 곳(현재 일하는 곳, 용역 및 파견업체)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여부를 통제변수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장애인의 임금에 관한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3. 분석 방법

1) 보통최소자승법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4개의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차이를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종속변수인 로그를 취한 임금은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함으로써 독립변수인 장애의 유형 및 혼동변수($X_{2\cdots k}$)와 종속변수(Y) 간의 관계를 다음의 회귀방정식에 기인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cdots + \beta_k X_k + \epsilon$$

해당 식에서 Y 는 로그 월 평균 임금을 의미하는 변수이며, X_1은 독립변수인 장애의 유형을

VOICEYE voiceye.com

의미한다. 또한 $X_{2\cdots k}$ 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혼동변수를 뜻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식을 구성하는 β_0은 절편을 뜻한다. β_1은 독립변수인 장애의 유형에 대한 계수를 의미하며 이는 본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추정값이다. 이 식을 구성하는 앞선 값들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의 [lm] 명령어를 사용하였다(Team, 2020).

2) 다중로지스틱회귀모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자료를 정밀히 분석하고자 소득 수준에서의 상위 및 하위 10% 장애인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앞선 선형회귀와 같이 독립 및 혼동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다.

$$(2) Logit[P(Y=1)]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cdots + \beta_k X_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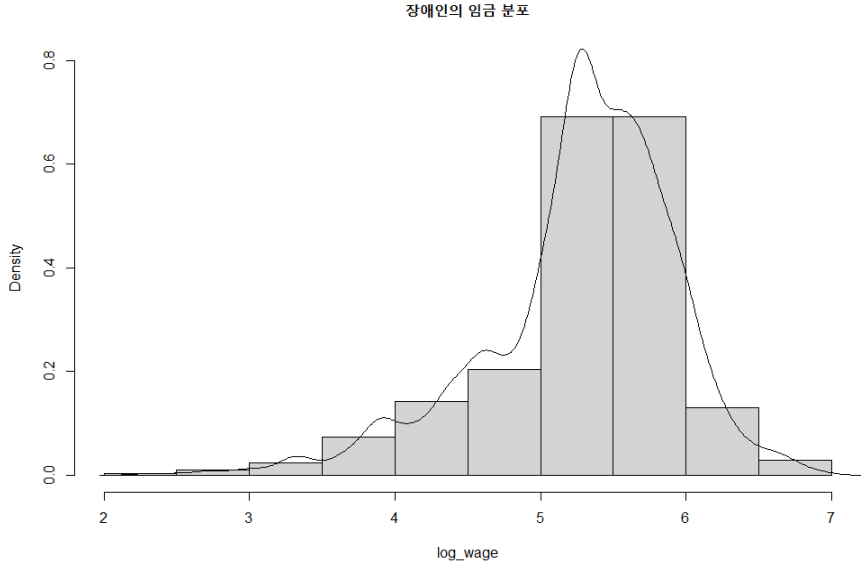
해당 식에서 범주형인 설명 변수를 포함 시키기 위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의 개념을 활용하여 X_1을 구성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상위 및 하위 10%의 임금을 받는 표본들에 대해서 해당하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줌으로써 해당 변수의 확률(Probability)에 대해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설명변수인 β_1은 X_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Y의 로그 승산이 β_1단위 증가함을 의미하며, β_1값은 확률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β_1의 절댓값이 클수록 독립변수인 X_1이 $P(Y=1)$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수와 그에 따른 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모델에서는 [glm] 명령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Team, 2020).

Ⅳ.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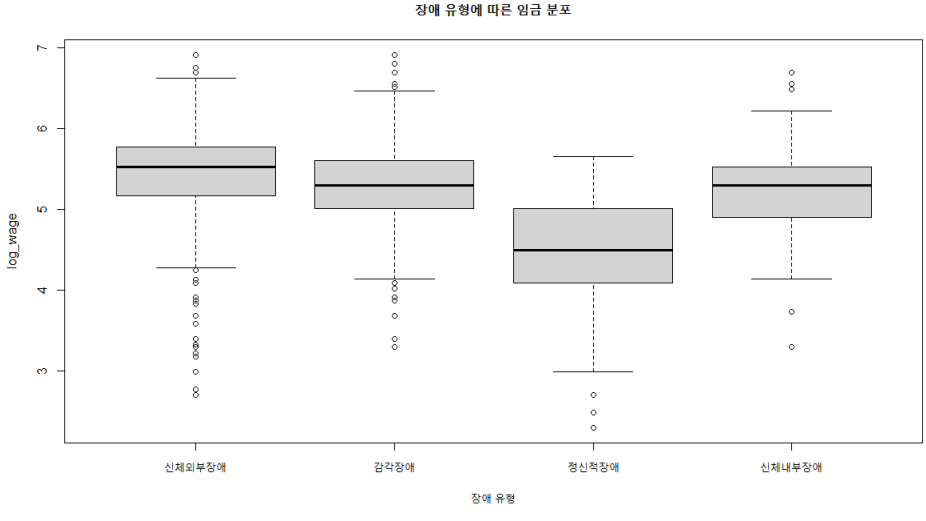
1. 기술 통계

먼저 아래에 제시한 〈그림 1〉은 결측치를 제외한 총 1,343명의 장애인의 임금 분포를 나타낸다. 오른쪽으로 치우친 임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로그 임금을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을 통해 임금의 분포가 여전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림 2〉는 장애 유형 별 로그 임금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체 외부 장애

인이 전체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감각 장애인과 신체 내부 장애인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임금을,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전체 장애인 로그 임금 분포



〈그림 2〉 장애 유형에 따른 로그 임금 분포

VOICEYE voiceye.com

또한 아래에 제시한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기술 통계를 보여준다.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데이터는 총 1,343명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속 변수 취급한 종속변수인 로그 임금 값은 평균으로 나타내주었다. 이를 제외한 혼동변수는 각각의 사례 값과 백분율로 나타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라 각 혼동변수와 종속변수의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표본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살피기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총 4개로 가공한 장애 유형의 비율을 보면, 신체 외부 장애인이 약 63%로 가장 높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내부 장애가 그 뒤를 잇는다. 이는 21년 보건복지부에서 등록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황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로그를 취한 월 평균 임금의 분포를 보면 전체 평균이 5.28이었으며, 이는 약 235만 원으로 측정된다.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신체 외부 장애인의 경우, 로그 임금 값의 평균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평균은 4.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로그를 제외하고 평균 임금을 측정해보면, 신체 외부 장애인은 월 평균 257만 원, 감각 장애인은 월 평균 223만 원, 정신적 장애인은 108만 원, 신체 내부 장애인은 월평균 220만 원으로 측정되었다.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신체 외부 장애인과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정신적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2배 이상 차이 났으며,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적 장애인의 표본 109명 모두가 장애의 정도와 중증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며 중증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임금 수준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와 중증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유무를 살펴보면, 혼인상태인 비율이 미혼인 상태의 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은 신체 외부 장애인과 감각 장애인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은 미혼인 상태가 약 6배 정도 많았다. 이는 장애 유형과 남녀차이에 따른 장애인의 결혼이행을 연구한 신유리 외(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했으며, 이들의 연구에서는 평생 미혼 상태로 남는 정신적 장애인의 비율 또한 상당히 높았다. 이는 장애인의 임금 결정에 관한 실증연구를 진행한 김성희와 정병오의 연구(2011)에서, 혼인상태가 임금 결정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친다는 2단계 임금 결정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 장애 유형별 기술 통계

구분	신체 외부 장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내부 장애
장애인 수(명)	849(63%)	318(24%)	109(8%)	67(5%)
반응변수				
로그 임금 (평균)	5.4	5.25	4.47	5.2
혼동변수				
이중장애여부				
있음	15(1%)	4(0%)	5(0%)	2(0%)
없음	834(62%)	314(23%)	104(8%)	65(5%)
장애의 정도				
심함	151(11%)	95(7%)	109(8%)	24(2%)
심하지 않음	698(52%)	223(17%)	0(0%)	43(3%)
장애의 심한 정도				
중증	77(6%)	66(5%)	109(9%)	23(2%)
경증	772(57%)	252(19%)	0(0%)	44(3%)
성별				
남자	669(50%)	216(16%)	81(6%)	45(3%)
여자	180(13%)	102(7%)	28(2%)	22(2%)
학력				
중졸 이하	119(8%)	63(5%)	14(1%)	7(0.5%)
건강보험				
가입	634(47%)	227(17%)	69(5%)	43(3%)
미가입	215(16%)	91(7%)	40(3%)	24(2%)
고용보험				
가입	620(46%)	224(17%)	71(5%)	43(3%)
미가입	229(17%)	94(7%)	38(3%)	24(2%)
산재보험				
가입	625(46%)	227(17%)	71(5%)	43(3%)
미가입	224(16%)	91(7%)	38(3%)	24(2%)
노조가입여부				
미가입	738(55%)	285(21%)	105(8%)	62(5%)
가입	111(8%)	33(2%)	4(0%)	5(0%)

KOR VOICEYE voiceye.com

2. 보통최소자승법모형 추정 결과

아래의 〈표 2〉에서는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장애 유형 별 로그 임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분석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감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신체 내부 장애인은 신체 외부 장애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 장애인은 신체 외부 장애인보다 약 44.9%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제변수를 제외한 축소모형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완전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p-value가 2.2e-16으로 유의미하게 나왔기에 완전모형을 택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을 밝힌다.

〈표 2〉 보통최소자승법모형 추정 결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장애 유형(vs. 신체 외부 장애)			
감각 장애	-0.026	(0.031)	
정신적 장애	-0.449	(0.062)	***
신체 내부 장애	-0.009	(0.062)	
노동조합가입 (vs. 무조합원)			
조합원	0.203	(0.042)	***
성별(vs. 남자)			
여자	-0.411	(0.030)	***
결혼(vs. 혼인)			
미혼	-0.191	(0.031)	***
학력(vs. 중졸 이하)			
고졸	0.213	(0.040)	***
대졸 이상	0.372	(0.042)	***
장애정도 (vs. 장애가 심하지 않음)			
장애가 심함	0.076	(0.049)	
장애의 중증 여부 (vs. 경증)			
중증	-0.169	(0.061)	**
이중장애 (vs. 이중장애 있음)			

구분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이중장애 없음	0.199	(0.095)	*
근무 지역 (vs. 비수도권)			
수도권	-0.032	(0.026)	
사업체 규모 (vs. 10인 이하)			
10인 ~ 99인	-0.067	(0.035)	
100인 이상	0.893	(0.072)	
고용형태 (vs. 현재 일하는 곳)			
용업(파견) 업체	-0.120	(0.067)	
건강보험(vs. 미가입)			
가입	0.404	(0.083)	***
고용보험(vs. 미가입)			
가입	0.256	(0.099)	*
산재보험(vs. 미가입)			
가입	0.359	(0.089)	***
노조(vs. 미가입)			
가입	0.203	(0.042)	***

유의도 : *〈0.05, **0.01, ***0.001.

3. 장애 유형별 고임금 및 저임금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차이를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에서 나타나는 장애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결측치를 제외한 총 1,343개의 표본에서 상위 10%는 4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하위 10%는 8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먼저 기술 통계를 통해 장애 유형 별 고임금의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신체 외부 장애인은 8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감각 장애인은 17명, 신체 내부 장애인은 5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정신적 장애인은 0명으로 나타났다. 즉, 단 한 명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상위 10%에 속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저임금에서 신체 외부 장애인은 58명, 감각 장애인은 37명, 신체 내부 장애인은 9명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인은 45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통계를 〈표 1〉에서 나타난 전체 표

VOICEYE
KOR
voiceye.com

본의 비율(신체 외부 장애인은 전체 표본 중 가장 많은 849명이었고, 감각 장애인은 318명, 신체 내부 장애인은 67명, 정신적 장애인은 109명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전체 표본 대비 저임금에 분포된 장애 유형 별 비율을 살펴보면, 정신적 장애인은 41.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저임금을 받았으며, 신체 외부 장애인은 6.8%, 감각 장애인은 11.6%, 신체 내부 장애인은 13.4%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고임금과 저임금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해 장애 유형에 따른 고임금 및 저임금에서의 임금 격차가 더욱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 추정 결과

아래의 〈표 3〉은 장애 유형에 따른 상위 10%의 고임금 및 하위 10% 저임금에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저임금에서의 정신적 장애인은 신체 외부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 내부 장애인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더불어 고임금에서는 신체 외부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의 임금 격차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감각 장애인과 신체 내부 장애인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았으나, 신체 외부 장애인에 비해 앞선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 추정 결과

구분	저임금 (wage 〈= 80)			고임금 (wage 〉= 400)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장애 유형(vs. 신체 외부 장애)						
감각 장애	-0.080	(0.225)		-0.316	(0.173)	
정신적 장애	-1.601	(0.345)	***	-1.871	(0.643)	**
신체 내부 장애	-0.496	(0.368)		-0.403	(0.348)	
노동조합가 (vs. 무조합원)						
조합원	1.237	(0.630)	*	0.868	(0.215)	***
성별(vs. 남자)						
여자	-1.470	(0.195)	***	-2.203	(0.220)	
결혼(vs. 혼인)						***
미혼	-0.572	(0.219)	**	-0.948	(0.164)	

구분	저임금 (wage 〈= 80)			고임금 (wage 〉= 400)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학력(vs. 중졸 이하)						
고졸	0.682	(0.233)	**	1.061	(0.265)	***
대졸 이상	1.191	(0.270)	***	1.772	(0.268)	***
장애 정도(vs. 장애가 심하지 않음)						
장애가 심함	0.238	(0.351)		0.298	(0.262)	
장애의 중증 여부(vs. 경증)						
중증	-0.906	(0.400)	*	-0.546	(0.338)	
이중장애(vs. 이중장애 있음)						
이중장애 없음	0.814	(0.519)		0.765	(0.664)	
근무 지역(vs. 비수도권)						
수도권	-0.122	(0.184)		0.058	(0.144)	
사업체 규모(vs. 10인 이하)						
10인 ~ 99인	-0.130	(0.245)		-0.079	(0.191)	
100인 이상	1.239	(0.874)		0.115	(0.376)	
고용형태(vs. 현재 일하는 곳)						
용업(파견) 업체	-0.515	(0.486)		-1.664	(0.505)	***
건강보험(vs. 미가입)						
가입	1.582	(0.582)	**	0.868	(0.457)	
고용보험(vs. 미가입)						
가입	-1.312	(0.831)		-0.694	(0.507)	
산재보험(vs. 미가입)						
가입	1.804	(0.677)	**	1.049	(0.465)	*
노조(vs. 미가입)						
가입	0.763	(0. 755)		1.068	(0.251)	***

유의도 : *〈0.05, **0.01, ***0.001.

VOICEYE
voiceye.com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최소자승법(OLS) 모형에서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감각 장애인은 신체 외부 장애인에 비해 15%, 정신적 장애인은 92.3% 신체 내부 장애인은 19.3%만큼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혼동변수를 모두 포함한 완전모형에서는 신체 외부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약 44.9%의 임금 차이가 있었다. 정신적 장애인이 타 장애인에 비해 임금이 유의미하게 낮은 이유로써, 정신적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인식 및 임금에서의 차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금진(2006)은 정신적 장애인의 임금차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로써 장애 특성으로 인한 임금 격차는 39.5%에 불구했지만,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는 60.5%로 나타났다. 즉, 정신적 장애인을 향한 고용주의 편견이 노동 시장 내의 임금 격차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변민수 외의 연구(2016)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 외부 장애인에 비해 임금 근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짧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모든 장애인, 특히 정신적 장애인에게 공평한 구조적·인식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임금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혼동변수를 제외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에서 80만 원 이하의 저임금에서는 신체 외부 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감각 장애인은 58.5%, 정신적 장애인은 226%의 임금 차이를 보였으며, 신체 내부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400만 원 이상으로 측정한 고임금에서는 신체 외부 장애인과 비교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에서는, 감각 장애인의 임금 차이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약 66,5%의 임금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혼동변수를 통제한 다중로지스틱모형에서는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상위 10%의 고임금과 하위 10%의 저임금에서의 결과에서 정신적 장애인이 매우 큰 임금 격차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전체 표본 1,343명 중 상위 및 하위 10%에서 측정된 결과의 계수가 더욱 크게 나왔다는 것인데, 그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노동 시장의 저임금의 상태 의존성에 관한 변민수 외(2016)에 의하면, 전기의 저임금상태가 현재의 저임금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 신체 외부 장애인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저임금을 받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상태 의존성의 차이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빈곤 탈출에 대한 구조적 기회가 장애 유형 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장애 유형별 근로 환경에 따른 근무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

형렬(2017)의 연구에서, 신체 외부장애인은 평균적으로 18시간 이상 근무하였지만, 정신적 장애인은 한참 적은 시간을 근무했으며,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빈곤 결정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임예직과 문영민의 연구(2020)에 의하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불안정성 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노동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직업적 능력과 노동 의지 등 임금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앞선 결과를 통해, 노동 시장 내에서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의 발생 시기가 타 장애보다 비교적 빠른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의 직업 교육을 더욱 다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신적 장애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체 장애는, 신체 외부 장애를 포함한 타 장애에 비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의 정신적 장애 또한 대부분 유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신체 외부장애와 같은 타 장애는 유아기 이후에 노동 중에 발생한 사고나 여타 다른 이유로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즉 장애 발생 시기가 비교적 이른 정신적 장애인은 노동 시장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비장애인 중심적 노동 시장에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노동 시장에서의 장애인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장애 유형과 발생 시기를 고려해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적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본인의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학계에서의 연구와 그에 따른 정책적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유형에 따른 노동 시장 내에서의 직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 시장 내에서의 장애 유형에 따른 직무 불일치 정도를 분석한 오욱찬과 김수완의 연구(2021)에서는 타 장애인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기술 일치 비율, 자신의 적성과는 맞지 않은 직업을 뜻하는 적성 일치 비율, 그리고 본인의 교육 혹은 기술 수준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인 하향취업(과잉) 수준이 타 장애 유형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노동에서의 만족도와 지속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하향취업과 반대되는 상향취업은 임금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어 장애 유형에 따른 직무 만족도 차이는 곧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정신적 장애인이 직무 불일치로 인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며 이러한 직무 만족도를 해결함으로써, 노동 시장 내에서 모든 장애인이 그들의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결과를 뒷받침하는 일부 선행연구와 함의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VOICEYE
voiceye.com

연구에는 몇몇의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해석에서의 주의를 요한다. 첫째, 완전사례제거법을 통해 분석한 사례 수는 총 1,343명에 불과하다. 특히 상위 10%의 장애 유형별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표본은 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계수와 유의도에 대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다중회귀분석에서 장애 유형의 기준 변수를 지정할 때, 평균 임금이 가장 높으나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타 장애 유형과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신체 외부 장애를 기준 변수로 삼았다. 이에 정신적 장애 외의 장애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임금 수준의 차이가 가장 심한 정신적 장애인을 기준 변수로 설정하였을 때는 결과에서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계층적 배경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월평균 소득이 해당 장애인이 가정을 책임지는 호주(戶主)의 역할을 하는지, 혹은 단순 직업적 혹은 사회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직업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세심히 들여다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자료는 21년도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시대적 맥락을 들여다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의 임금에 있어서 동태적 관점에 입각하여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위기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그 임금 특성의 변화 양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제학적 이론을 통해 장애인 노동 시장의 임금 격차에 대해 고찰하고, 여러 혼동변수를 통제하여 보통최소자승법모형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격차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 비록 신체 외부 장애인의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인구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면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234.9만 원에 불과하지만, 21년 기준 모든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27만 원으로 추정되었다(고용노동부, 2021). 또한 정신적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전체 장애인의 임금 수준, 특히 저임금과 고임금의 장애인 노동자 중에서도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는 데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을뿐더러 사회통합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추후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노동 시장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간기현, 김경희, 조상미 (2021).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능력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성별(gender) 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1(2), 149-173.

강동욱. (2004).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21-144.

강동욱. (2005).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의 분단성 연구. 사회복지정책, 21(0), 111-128.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s://www.moel.go.kr

김성희, 정병오. (2011). 장애인의 임금결정에 관한 실증연구. 장애와 고용, 21(3), 185-207.

김자영. (202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 중분류 장애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3(4), 27-48.

김정아, 나운환, 김지민. (2013).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321-338.

김현식. (2017). R을 활용한 기초 통계 분석.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김현식. (2021). 장애인의 노동조합 참여와 임금 차이. 장애와 고용, 31(4), 107-126.

변민수, 김재호, 최원석. (2016). 장애인 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 검증: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4), 57-53.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등록장애인 통계.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실태조사. http://www.mohw.go.kr

신유리, 김미선, 김정석. (2020). 장애인의 결혼이행: 장애유형 및 남녀차이. 통계연구, 25(2), 78-100.

양정빈. (2015).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5(2), 226-253.

오지원 (2021). 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348-349.

유동철. (2000).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2(), 290-313.

유완식. (20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분석. 기본과제보고서, (), 1-79.

이금진. (2006). 노동시장에서의 정신장애인 근로실태와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장애와 고용, 16(2), 101-117.

이민욱, 김성은. (2020). 임금근로 장애인의 임금변화 유형화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3), 477-490.

이선영, 이홍직. (2018). 장애인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3(2), 179-189.

이선우, 오욱찬. (2020). 장애등급제 폐지와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 사회보장연구, 36(4), 57-83.

이성규. (2014).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6(4), 281-306.

이수용, 나운환, 최선아. (2014). 근로장애인의 임금변화궤적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24(2), 87-106.

이영경, 임업 (2016).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여성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이중차별적 임금격차 분석. 지역연구, 32(2), 45-59.

이형렬. (2017). 장애유형 중분류별 기업체 취업근로자의 빈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외부, 감각, 신체내부, 정신적장애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9(1), 219-256.

임예직, 문영민. (2020).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1(3), 147-176.

장원석, 이홍직. (2022). 지체장애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7(2), 185-190.

정한나. (2010). 장애인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장애와 고용, 20(1), 229-250.

조재환, 이진혁. (2021).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임금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애와고용, 31(1), 217-243.

최준혁. (2022). 장애 중증도 수준에 따른 장애 유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재활치료과학, 11(2), 63-76.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kostat.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6차조사). https://edi.kead.or.kr

Aigner, D. J., & Cain, G. G. (1977). Statistical theories of discrimination in labor marke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s, 30(2), 175-187.

Baldwin, M., & Johnson, W. G. (1994).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4(1), 1-19.

Team, R. C. (2020).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Wooldridge, J. M. (200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MA: MIT Press.

Yeo, R., & Moore, K. (2003). Including disabled people in poverty reduction work: nothing about us, without us. World Development, 31(3), 571-590.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VOICEYE
voiceye.com

Abstract

A study on Wage difference by type of disability

Lee Hee Ra*·Lee Jae Yo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 theoretical discussion based on economics on the wage gap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y and to verify it empirically. As analysis data, 6th waves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in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EDI) was used, and wages including dependent variables were analyzed and using the least squares method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measured that in the OLS model, the mentally disabled received 44.9% less wages than the externally physically disabled, and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disability types. In addition, in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the bottom 10% of wages, the mentally disabled received 160% less than the externally disabled, and in the top 10% of wages, there was 187% difference in wag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wages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bility, and since there is a greater gap between low and high wages. I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polic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ability.

Keywords : Types of disability, wage gap, low and high wages, ordinary least squares mode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hee University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189 - 215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성인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채우정*·한용재**

디지털 미디어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생활 도구이다. 정보교류, 의사소통, 사회참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하지만, 가짜 뉴스,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 등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따른 대표적 부작용이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강조되는 이유가 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한, 교육 대상을 학생, 노년층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격차가 심화가 우려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을 파악하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환경에 일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성인 지체장애인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서 기기 활용의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의 주요 사용 목적은 정보 검색과 의사소통이며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파악되었다. 성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행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호주, 영국, 핀란드 등 해외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선진국은 전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선진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은 사회적 과제가 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색방안이 지속적으로 도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충남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 박사과정
** 대전 장애인역도연맹 사무국장

주제어 :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국내 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교육 환경, 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교육 방안 탐구, 해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VOICEYE
voiceye.com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는 생활 필수 도구이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로 약칭)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 의존도는 매우 높아졌다. 각종 회의, 행사 진행은 물론,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교육, 사회 복지 서비스에서 온라인 비대면과 무인기기 활용 사례가 늘어났다(최송식, 권혜민, 2021).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을 당연하게 느끼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1]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활용된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늘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리터러시(Literacy)'는 텍스트 즉,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한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리터러시'의 개념은 문자 언어, 영상 매체 언어, 디지털 메시지 언어로 확장되어왔다(김양은, 2009).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지식,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판단과 활용, 적절한 이용을 위한 조절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윤지원, 제남주, 박미라, 202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 요소가 된다.

디지털 미디어 전환이 가속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생활 속 불편함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할 경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사회활동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 집단 간의 차이도 매우 두드러진다(양길석, 서수현, 옥현진, 2020). 디지털 소외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74.2%로 낮게 나타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신체적 제약과 사용법 학습 여건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박상미, 김한솔, 박해긍, 2022). 신체 요건, 경제 수준, 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사용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활용의 어려움도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연은모, 최효식, 2019).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역량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박영주, 2021),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는 장애 학생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지정훈, 곽승철, 2019).

---

1) 2001년 미국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가 논문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이민자(Digital Natives, Digital Immigarnts)'에서 처으므 사용한 용어로, 1980년 이후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함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기회 증진을 위해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난 정보 플랫폼이나 아바타 수어 생성 시스템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2] 디지털 미디어는 장애 유무와 무관하게 이미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활과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 역량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차이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김아영, 김경미, 2022)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현황을 파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교육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2019년 국립재활원에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지체장애인이다. 성인 지체장애인은 장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 수용'의 과정이 필요하다. 장애 발생에 대한 충격과 부정, 절망감과 우울감, 깨달음 등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장애를 수용하고 새로운 생활에 도전하게 된다(진진주, 김미숙, 2019). 선천성 장애와 구분되는 큰 특징의 하나이다. 이 때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한 정보의 습득과 사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유튜브, Zoom 등)를 이용하기도 한다.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장애 수용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로 시청각 장애인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어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디지털 미디어는 지체장애인들의 정보 박탈을 줄이고 오락과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 된다(하종원, 박기성, 2020).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향상이 문화나 사회생활의 참여 제약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의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김계화, 2006). 성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결국 사회 복지 구현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장애 학생은 소속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통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3]. 하지만,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크지 않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을 파악한다. 현황 파악은 곧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수요 조사와 연결되는 기초 자료가 된다. 둘째,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와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이는 성인 지체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국내·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수집한

---

[2]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5개년 계획, '21.10월)〉의 2022년도 추진계획 참고

[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4년부터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다. 성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자료가 모여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미디어와 장애인

디지털 미디어는 현대 사회의 주요 소통 수단이다. 전통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이외에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은 현대 사회의 필수 역량으로 자리매김하였다(김학실, 심준섭, 2020).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은 4대 정보취약계층에 포함된다.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보유 여부, 인터넷 접속을 위한 접근 수준, PC 및 모바일 기기의 이용 능력과 활용 수준 등 다차원 각도에서 정보취약계층은 디지털 격차를 겪게 된다.

디지털과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의 경계와 의미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 TV 방송은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이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는 TV 시청에서도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IPTV[4] 등은 이전에 TV를 켜고 채널을 선택하는 단순한 활용 방식보다 훨씬 복잡해진 기기 조작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소비 비용 발생 역시 디지털 접근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 OTT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료 방송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지상파 직접 수신 비중이 더 높다(이민상, 성욱준, 2020). 공공차원의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기회는 늘어났지만(장창기, 성욱준, 2020),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미보유하며 디지털 미디어 격차를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봉쇄(lockdown) 상황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회를 놓쳤고,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사이트 이용이 여의치 않아 생필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Jesus et al.,2021). 장애인이 경험하는 디지털 미디어 격차는 일

4)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 실시간 방송과 VOD를 볼 수 있다.

상에까지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정보 격차는 정보 불평등,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소외로 이어지는 연쇄적 상호작용을 유발한다(최현주, 2012).

박정숙, 김용찬(2020)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격차는 존재한다고 파악하였다. 장애의 중증과 경증의 차이나 장애의 유형이 디지털 미디어 격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방법은 달라진다. 이소현(2021)의 연구에서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미디어 활용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불편 사항 역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점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치의 개선에 앞서 장애의 유형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서 이용 능력을 파악하고 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리터러시(Literacy)의 사전적 정의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개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 핵심과 본질을 이해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등장과 함께 리터러시의 개념은 새롭게 생성되고 진화하여 포괄적인 개념을 아우르게 되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서비스 이용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을 포함하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유의한 개념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핵심 개념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습득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즉,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미디어를 스스로 조절하고 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미디어를 무의식적이 아닌 올바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태도의 함양이 필요한 것이다(윤지원, 제남주, 박미라, 2021). 또한, 나라마다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도 반영된다(정현선, 장은주, 2022).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혹은 지역마다 나타나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은 다르다. 이용자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여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안정임, 2013).

국내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자 허위정보의 확산과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 현상

VOICEYE
voiceye.com

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20). 동 계획에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의 실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디지털 미디어를 기기 이용 및 활용이나 정보 검색의 도구로만 파악을 하고 디지털 미디어 수용자의 리터러시 함양에 대한 필요성은 아우르지 못한 것이다(정영주, 2022).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가 담고 있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수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리터러시 함양이 필요하다.

송원숙(2021)은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한 미디어 이용 경험은 사용자 스스로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선별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리터러시 역량이 강화되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타인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디지털 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 소통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주요 개념으로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세종 지역의 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된 장애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선출된 321명을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09월 02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수거된 321명의 응답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 28부를 제외한 총 29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 별	남	192	65.5
	여	101	34.5
장애유형	중증장애(1~3급)	25	8.5
	경증장애(4~6급)	273	91.5
장애등급	절단	43	14.7
	마비	18	6.1
	관절	84	28.7
	변형	106	36.2
	기타	42	14.3

2. 조사 도구

이 연구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파악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리터러시 역량의 자기진단 평가 도구를 기반으로 하되 인문학 박사 1명, 장애인단체 활동가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한다.

양길석, 서수현, 옥현진(2020)이 개발하고 안미애(2021)가 사용한 문항을 성인 지체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보완하여 4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절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 도구의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한 결과, 가치 .886, 자기효능감 .734, 정서 .920, 자기조절 .848, 참여 .863, 윤리 .786 보안 .854, 비판적 읽기 .789로 모두 .7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를 한 결과, 구성개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Nunally(1978) .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VOICEYE
KOR
voiceye.com

〈표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설문내용 및 신뢰도

설문내용		문항 수	Cronbach' α
인식	가치	5	.886
	자기효능감	5	.734
	정서	5	.920
행동	자기조절	5	.848
	참여	6	.863
	윤리	7	.786
	보안	6	.854
	비판적 읽기	6	.789
합계		45	.859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이용 양상 및 교육 수요 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W. James Potter(2016)과 김지선(2019)에서 사용한 문항 중 번안 및 수정 보완하여 성인지체장애인 이해하기 쉽도록 “디지털 미디어별 사용 시간과 선호도, 사용기기, 주요 사용 형태”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사용되는 도구는 “TV,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PC, 기타”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청각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라디오, 음악스트리밍 앱, 오디오채널, 기타”로 구분하였다. 전통적 시각 미디어에 대한 선호도는 “종이신문, 종이잡지, 종이책, 선호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선호도에 대한 질문은 주관식을 통해 응답자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조사도구의 검증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5.0 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면 질적 조사는 주관식 항목이므로 키워드 중심으로 응답한 내용을 묶어 분석하였다. 또한 각 요인을 구성하는 다 항목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과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이용 양상

1) 성인 지체장애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주요 이용 기기 및 사용 목적

성인 지체장애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은 〈표 3〉과 같다. 주로 사용하는 기기를 휴대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3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TV, 컴퓨터, 태블릿 PC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서 휴대성 보다는 사용의 편의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의 주요 사용 목적은 소통도구와 정보검색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올바른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기타 구성원과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 즉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주요 사용 목적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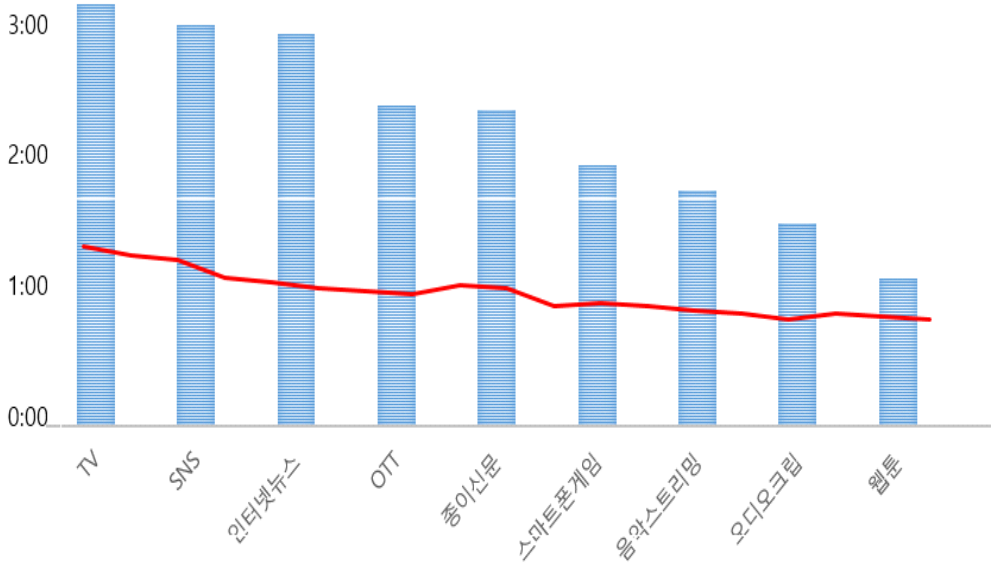
〈표 3〉 성인 지체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

이용형태		빈도	비율
주요 이용 기기	휴대폰	222	75.7
	태블릿 PC	11	3.8
	TV	45	15.3
	컴퓨터	15	5.2
주요 사용 목적	정보검색(검색, 웹서핑)	106	36.2
	여가선용(게임, 만화, 영화, 동영상시청)	63	21.5
	소통도구 (메신저, SNS, 커뮤니티)	93	31.7
	교육/학습(교육 콘텐츠)	31	10.6

2) 성인 지체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활용 양상 및 선호도

지체장애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양산은 〈그림 1〉과 같다. TV, SNS, 인터넷뉴스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약 3시간 정도로 나타나 〈표 3〉에서 파악한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

어 주요 이용 기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회적 소통에 활용되는 SNS와 정보 검색을 위한 TV시청, 인터넷 검색 등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필수 요소가 된다.



〈그림 1〉 디지털 미디어 일일 사용 행태

2.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 간(인식1(가치), 인식2(자기효능감), 인식3(정서), 행동1(자기조절), 행동2(참여), 행동3(윤리), 행동4(보안), 행동5(비판적 읽기))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각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모든 구성 개념 간 $p<.01$ 수준의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상관 계수가 .85 이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계수, 2007).

〈표 4〉 각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	가치	자기효능감	정서	자기 조절	참여	윤리	보안	비판적읽기
1	1							
2	.449**	1						
3	.378*	.302**	1					
4	.131**	.655*	.197*	1				
5	.178*	.165**	.197*	.540**	1			
6	.182*	.306**	.015*	.545**	.526*	1		
7	.297*	.134	.007*	.368**	.558**	.520**	1	
8	.158*	.378	.341**	.302**	.558*	.520**	.369*	1

**p<.05, **p<.01*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수준의 결과

성인 지체장애인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가치, 자기효능감, 정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 평균값, 표준 편차는 〈표 5〉와 같다.

〈표 5〉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의 수준

변인		평균값	표준 편차
인식1/ 가치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	3.61	0.935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준다.	4.13	0.96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책 읽기도 중요하다.	3.48	0.921
	디지털 미디어는 나의 자유 시간을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4.22	0.895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3.46	0.951
	합계 평균	3.78	
인식2/ 자기 효능감	나는 디지털 미디어에서 제공된 내용을 잘 읽을 수 있다.	2.12	0.735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01	0.923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 깊이 생각하며 쓸 수 있다.	2.35	0.821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찾은 정보가 쓸모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59	0.915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2.84	0.923
	합계 평균	2.58	

VOICEYE voiceye.com

변인		평균값	표준 편차
인식3/ 정서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즐겁다.	3.07	0.435
	내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작성한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3.21	0.623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글, 사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즐겁다.	2.97	0.711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2.84	0.415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즐겁다.	3.21	0.821
	합계 평균	3.06	

지체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인식에 대한 각 요인의 검증결과, 인식1/ 가치(평균 3.78점/ 5점만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인식3/정서(평균 3.06/ 5점만점), 인식2/ 자기효능감(평균 2.58/ 5점만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설문의 응답자들은 인식1/ 가치와 인식3/ 정서에 대해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나, 인식2/ 자기효능감에는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적인 쪽의 응답이 다소 나타났다.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행동 수준의 결과

성인 지체장애인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자기조절, 참여, 윤리, 보안, 비판적 읽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의 응답 평균값, 표준편차는 〈표 6〉와 같다.

〈표 6〉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행동의 수준

변인		평균값	표준 편차
행동1/ 자기 조절	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사용 시간을 스스로 정한다.	2.52	0.842
	나는 휴식을 취할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한다.	3.21	0.752
	나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검색한다.	2.28	0.622
	나는 원래 찾으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검색을 한다.	2.98	0.712
	나는 디지털 미디어에서 정보를 읽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읽는다	2.54	0.657
	합계 평균	2.71	
행동2/ 참여	나는 친구들이 올린 소식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확인한다.	2.53	0.642
	나는 경험이나 느낌을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친구들과 나눈다.	2.15	0.512
	나는 필요한 경우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댓글을 쓴다.	1.85	0.822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댓글을 쓸 때 읽을 사람의 기분을 생각한다.	2.08	0.832
	나는 좋은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	2.82	0.947
	나는 필요한 경우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내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한다.	2.32	0.826
	합계 평균	2.29	

변인		평균값	표준 편차
행동3/ 윤리	나는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4.58	0.821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는다.	4.68	0.723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보호한다.	3.95	0.952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55	0.632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58	0.752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서 동료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4.42	0.747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4.32	0.887
	합계 평균	4.01	
행동4/ 보안	나는 공용 디지털 미디어기 사용시 개인정보에 더 유의한다.	3.98	0.721
	나는 나의 디지털 미디어 활동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4.05	0.523
	나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그 사이트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판단한다.	4.13	0.612
	나는 이메일이나 문자에 첨부된 파일을 열기 전에 안전한 것인지 확인한다.	3.72	0.681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때 나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	3.87	0.721
	나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필수사항으로 입력할 것과 선택사항으로 입력할 것을 확인한다.	4.12	0.829
	합계 평균	4.32	
행동/ 비판적 읽기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접한 기사가 최신의 것인지 확인한다.	2.82	0.824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접한 기사가 게시된 웹 사이트의 주소를 확인한다.	2.39	0.713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접한 뉴스 기사의 작성자가 믿을 만한지 확인한다.	2.41	0.832
	나는 디지털 미디어에 나오는 뉴스 기사의 댓글을 참고하여 내 생각을 정리한다.	2.84	0.691
	나는 디지털 미디어에 나오는 뉴스 기사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2.26	0.922
	나는 디지털 미디어로 뉴스를 접할 때 내용에 의심이 갈 경우 다른 자료를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2.21	0.839
	합계 평균	2.49	

성인 지체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행동에 대한 각 요인의 검증 결과, 행동4/ 보안(평균 4.32점/ 5점만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행동3/윤리(평균 4.01/ 5점만점), 행동1/ 자기조절(평균 2.71/ 5점만점), 행동5/ 비판적 읽기(평균 2.49/ 5점만점), 행동2/ 참여(평균 2.24/ 5점만점)순으로 나타났다.

VOICEYE
voiceye.com

3. 국내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1) 국내 사례

국내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은 주로 학생이나 특정 세대 등 연령에 따라 대상을 구분한다. 현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법제화되기도 하였다.[5] 코로나19 이전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견고하여 학교 안에서조차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양질의 정보 습득이나 문화 향유의 기회는 다소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정현선, 2021).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실시되자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비판 능력,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즉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교 현장부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대표 기관은 10곳이 채 되지 않는다[6]. 아직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규 수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처, 산하기관, 관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교육의 중점 내용은 뉴스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 미디어 윤리의식,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양은, 2017). 교육 목표 역시 IT 기기 활용 중심 교육, 정보검색과 분석 중심 교육, 콘텐츠 제작 중심 교육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교육은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이해 교육임을 감안하면 교육 목표 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대상자를 학생으로 설정하고 학과목과 연계한 과목별 리터러시 교육 및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허수미(2021), 이정우(2021), 정현선, 장은주(2022)).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 특정 계층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최미연, 박성복, 이형석, 2021). 현재까지 국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 대상의 교육 과정 혹은 노년층 등 일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선행연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이며 성인 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아직 활발히 전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국내 장애인 미디

---

5) 2022년 3월 25일「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6) 미디어교육실시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

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사례 조사 진행에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할 수 있었다. 해외 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2) 해외 사례

호주, 영국, 핀란드 등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면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전 생애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유아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취약층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고, 온라인상의 위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강은진, 김아미, 이지운, 2022).

호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정립한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특히 2012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미디어 아트 교육에 참여하게 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디지털 미디어 교육의 자료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ACARA)[7]. 미디어 아트 교육의 주요 소재는 학생들이 접하는 미디어와 그 콘텐츠이며 이를 복합적 양식의 관점에서 다룬다(박유신, 2017). 미디어 아트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텍스트를 분석할 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의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8] 또한, 2013년 호주의 방송통신청(ACMA)에서 '디지털 시민 가이드(Digital Citizen Guide)'를 발표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시민권과 온라인 참여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ACMA는 단순한 디지털 미디어 규제 기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주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진흥을 위해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한국언론진행재단, 2017).

영국은 방송 통신 규제기구인 오프컴(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을 통해 영국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전반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에 커뮤니케이션 법을 제정하여 공영방송사인 BBC에 미디어 리터러시 진흥의 책무를 가지도록 하는 법 조항도 적용시켰다(Communication Act 2003, 제11조 1항).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 국민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프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국

---

7) ACARA(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호주국가교육과정홈페이지. www.acara.edu.au

8) "Media arts involves creating representations of the world and telling stories through communications technologies such as television, film, video, newspapers, radio, video games,"(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 2022.08.25. 검색

VOICEYE
voiceye.com

민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연도별 보고서, 유아부터 성인까지의 각 연령에 따른 미디어 이용 행태를 파악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9].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자료를 무료로 배포한다. 대표적으로 6~11세 초등학생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 스마트(Media Smar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광고 사례를 통해 광고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제작 의도, 내용에 담긴 의미, 광고에서 그려진 현실과 실제 현실의 차이, 광고의 목적 등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BC는 방송의 5대 목표 중 하나로 '전 연령대의 교육 지원'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대상자가 주로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BBC는 교육의 대상자를 시청자로 확장시켜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한다.

핀란드는 오래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장려한 국가이다. EU에서 선정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10]에서 핀란드가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핀란드는 1970년대부터 국가 기초 교육의 핵심 커리큘럼으로 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지정해왔다. 또한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Media Literacy week)"행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협력을 도모한다. 핀란드 미디어 교육 중심 기구인 핀란드국립시청각기구(KAVI)의 부소장인 사라 살로마(Saara Salomaa)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린이나 노년층 같은 잠재적 취약 그룹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지 못해온 경제활동 연령 인구를 표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도 강조하였다.(정현선외, 2020).

Ⅳ. 논의

이 연구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을 살펴보고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은 대전·세종 지역의 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진행하여 파악하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를 위해 국내외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

9) 오프컴 공식 홈페이지 www.ofcom.org.uk

10)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EVTI")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측정 기준을 개발하고, 유럽 전역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성인 지체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과 리터러시 역량

1) 성인 지체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

현대 사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모든 성인 지체장애인의 일일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며, 휴대폰이나 TV 등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에 디지털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 이용 도구는 휴대폰, TV, 컴퓨터, 태블릿 PC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도구의 종류는 성인 대학생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조사한 안미애(2021)의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사회 전반에 디지털 미디어가 널리 보급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 장벽이 낮아졌고, 특히 성인 휴대폰 보유률이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성인 지체장애인의 경우 휴대성보다는 시청의 편의성이 고려된 TV를 더욱 선호하는 것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서 휴대성보다는 활용의 편의성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동영상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각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음악 듣기, 오디오 콘텐츠, 라디오 등의 1일 이용 시간은 종이신문이나 종이잡지 이용 시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지원 정책은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프로그램이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과 더불어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콘텐츠 활용의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소현(2021)도 장애인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연구에서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서비스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셋째, 성인 지체장애인의 일일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TV, SNS, 인터넷 뉴스, OTT, 종이신문, 스마트폰 게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정보 습득이나 사회 참여 혹은 구성원과의 소통에 활용되는 도구이다. 즉, 성인 지체장애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주요 목적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을 통해 다른 구성원과 함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진작하고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기상 외(2008)의 선행연구에서도 사진 미디어를 도구로 한 사진 리터러시가 장애인의 문화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

VOICEYE
voiceye.com

다.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는 궁극적으로 성인 지체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생활 참여와 직결된다.

2) 성인 지체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현황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확인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크게 인식과 행동으로 나누어 인식은 가치, 자기효능감, 정서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행동은 자기조절, 참여, 윤리, 보안, 비판적 읽기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먼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의 측면을 살펴보면, 디지털 미디어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으로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성인 지체장애인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학습에 도움을 받거나 생활의 편의성 제고, 여가 선용, 의사 표현의 수단에 활용할 수 있음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소통의 수단으로 능숙하게 활용하는 등의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자기효능감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새로운 글이나 사진, 동영상 콘텐츠를 올려서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서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즉, 성인 지체장애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기기는 유의미하고 유익한 사회적 도구이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가치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행동의 측면을 살펴보면, 디지털 미디어 활용의 윤리적 요소나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광고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에티켓이나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해 제공된 교육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이나 적절한 정보 습득을 위한 자기조절 행동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 활동 참여,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비판적 읽기 행동에서는 다소 낮은 수치로 파악되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와 비판적 읽기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정보 분석과 사회 참여 도구로 활용임을 감안하면 현재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며, 성인 지체장애인 스스로도 이와 관련한 불편을 자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 분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바 다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 영국, 핀란드의 경우 교육 타겟층을 전 연령으로 한다. 또한, 사회 전체가 동참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자료는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대상이 학생이나 노약자층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성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의 논점을 중심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첫째, 장애인의 수요가 선행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다수가 소비하는 '히트 콘텐츠'를 개인 역시 따라서 소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각 개인이 수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트렌드 교체 주기도 짧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애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공공 차원에서 장애인의 수요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소현(2021)이 장애인과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디지털 미디어 개발자들의 다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젊은 비장애인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고령자 등의 소수자들의 필요나 흥미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역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임에도 소비자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제되고 소외당하는 것이다. 정영주(2022)도 소외계층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집단 내 현황의 면밀한 파악이 부족하며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서비스 접근이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여 본 연구를 일부 지지하였다.

둘째, 비판적 이해를 통한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 연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이창호(2022)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 미디어의 뉴스를 시청할 때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기반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도 성인 지체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주요 교육 소재로 삼아 정보를 분석하는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Hobbs, R(2010)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증진방안을 5단계로 나누어 마지막 목표를 실천(Act) 즉, 커뮤니티 문제해결에 동참이라고 말했

VOICEYE
voiceye.com

다. AR, VR, 홀로그램 등의 실감콘텐츠를 지체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바이스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고품질 실감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것과 같이 성인 지체장애인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때 동영상 콘텐츠를 더욱 선호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면 성인 지체장애인 교육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정보 전달에도 동영상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관련 기관에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권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을 파악하고,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을 보면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종류는 성인 비장애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로 이용하거나 선호하는 기기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분석하면 휴대성보다는 이용의 편의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또한, 청각 콘텐츠보다는 동영상이 활용된 콘텐츠를 더욱 선호하며, 여가 선용의 목적보다는 정보 습득이나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관련 기기 보급이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 제작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성인 지체장애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고,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기 사용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다. 또한, 성인 지체장애인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여가 선용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지원 등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교육에는 첫째, 장애인의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과정 중 인터뷰에 응한 다수의 응답자는 디지털 미디어의 보급과 이용 기회 확보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파악한 정보의 진위 여부 파악이나 의사 표현 수단을 위한 이용 방법 등을 배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각 개인의 처한 환경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수요 파악을 토대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은 주로 정보 습득과 사회 참여 수단으로의 활용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정보의 진위 여부 파악이나 의사 표현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방법 등이 포함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성인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부재의 대표적 부작용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 지체장애인이 디지털 미디어를 단순한 여가 시간 보내기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체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함께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도 디지털 미디어가 문화 선용의 도구로 활용되는 예가 많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연구대상을 대전·세종 지역의 성인 지체장애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 등의 대도시 혹은 기타 지역의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양상이나 리터러시 역량과는 다소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성인 지체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선행 연구나 관련 자료가 다소 부족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인 관심을 필요한 영역이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완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성인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원인변수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심이 모여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인 교육 사례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강은진, 김아미, 이지운 (2022). 핀란드, 캐나다, 호주 유아교육과정의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요소 탐색. 한국아동학회. 4(1). 77-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방송통신위원회 : https://kcc.go.kr/user

김계수 (2007). NEW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김계화 (2006). 후천성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련삶의 질 모형구축. 성인간호학회지. 18(2), 213-222.

김아영, 김경미 (2022). 장애인의 전자정부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56(1), 5-31.

김양은 (1998). 매체발달에 따른 리터러시 개념의 변화 : 미디어교육의 개념 확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중앙대학교 언론연구소, 3(1), 7-21.

김학실, 심준섭 (2020).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활동,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2), 153-180.

박상미, 김한솔, 박혜긍 (2022).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1), 223-243.

박영주 (2021). 신체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수준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유신 (2017). 호주 국가교육과정 예술과목 'Media Art' 에 나타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48(1), 271-310.

박정숙, 김용찬 (2020). 시각장애인의 페이스북 이용 : 심층인터뷰 연구. 한국언론학회, 64(6), 43-76.

송원숙 (202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SNS 이용행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2), 265-293.

안미애 (2021). 대학생의 디지털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와 행동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지와 미디어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11), 277-302.

안정임 (2013).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 학습과학연구. 7(1), 1-21.

양길석, 서수현, 옥현진 (2020).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자기진단 평가도구 개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7), 1-8.

연은모, 최효식 (2019).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636-644.

유기상, 김종근, 이원섭 (2008). 디지털 리터러시 환경에서의 사진미디어 고찰 - 장애인 문화지평을 위한 사진리터러시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0, 237-248.

윤지원, 제남주, 박미라 (2021). 대학생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8(1). 209-210.

이민상, 성욱준 (2020).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장애인 방송 접근 정책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635-643.

이소현 (2021). 장애인과 디지털 기술: 정보통신기술 광고의 장애인 재현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62, 49-70.

이정우 (202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중학교 '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교육연구. 82, 57-77.

이창호 (2022).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높이는 방안. 6(1). 서울 : 공공정책.

지정훈, 곽승철 (2019). 한 특수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 발달장애학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8(2). 431-461.

진진주, 김미숙 (2019). 근육장애인들이 경험한 인터넷 사용의 의미. 한국장애인복지학, 45(1). 31-55.

장창기, 성욱준 (2020). 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 27(3), 56-81.

정현선 (2021). '읽고 만들고 공유하다' —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어교육학회. 56(4), 373-412.

정영주 (2022).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 정책. 14(1), 131-159.

정현선, 심우민, 윤지원, 김광희, 최원석 (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영주 (2022).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 정책, 14(1), 131-159.

정현선, 장은주 (2022).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의 국어과 교육과정적 함의. 청람어문교육. 88, 7-39.

최미연, 박성복, 이형석 (2021). 베이비부머 세대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매체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 이론. 17(3), 258-305.

최송식, 권혜민 (2021).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대응과 실천과제. 사회목지정책과 실천, 7(1), 5-57.

최현주 (2012).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미디어관련 기관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1(1), 409-427.

하종원, 박기성 (2020). 장애인 방송접근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자막방송 품질 제고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110, 84-112.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해외 미디어교육 법체계 및 정책기구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허수미 (202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사회과 리터러시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뇌교육기반교육연구소.Brain,Digital&Learning, Vol.11, No.2, pp.165-181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methods (3th eds.). NY: Mc-Graw-Hill Book.

W. James Potter. (2016). - Media Literacy-SAGE Publications, Inc

Hobbs, R. (2010).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and Knight Foundation.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10.	게재확정 : 2022. 11. 30.

Abstract

A Study on the Digital Media Usage Pattern and Digital Media Literacy of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Adult Physically Handicapped

Chae Woo Jeong*·Han Yong Jae**

Digital media is an important living tool in modern society. It is used as a very convenient tool in various fields such as information acquisiti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owever, fake news and the occurrence of the digital underprivileged are representative side effects of digital media use, and are the reasons why digital media literacy capabilities are emphasized. In Korea,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is somewhat insufficient. In addition, education targets are often limited to specific classes such as students and the elderly. In particular,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do not have many educational opportunities unlike disabled students. As the use of digital media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increases,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is more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pare basic data for the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environment for adult retarded people by identifying the digital media usage patterns of adult retarded people and conducting research on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value the convenience of using devices in the use of digital media.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main purpose of use of digital media is information search and communication, and that the preference for video

* Department of Global Cultural Contents, Chungnam Natioanl University, Ph.D
** Daejeon Para Powerlifting Federation, Office Manager

VOICEYE
KOR
voiceye.com

content is high. This is a part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Developed countries in foreign digital media education, such as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Finland,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various and systematic curricula to foster digital media literacy for the entire nation. It is a social task to develop and operate customized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media use by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Korea while referring to advanced cases. With this study, we hope that social interest in cultivating digital media literacy capabilities of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can be increased and efficient education programs can be continuously sought.

Keywords : Digital media usage patterns of the disabled, Digital media literacy of the adult physically handicapped,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Digital media education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Exploration of digital media education plans for the disabled, Overseas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217 - 247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현황과 방안: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고찰하며

신지수*·김규리**

본 연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평생교육에 연계하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전생애적 전환교육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성인기 자립생활로의 전환 및 유지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이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연계와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 예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에서는 문헌연구에 기초한 주관식 질문으로 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같은 주제의 객관식 질문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고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로는 전환교육의 범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평생교육 연계의 필요성과 전환교육 범위에 대한 전문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한다.

주제어 : 전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 최중증 발달장애인

*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학부
**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학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제2조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서 2021년 6월 현재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9,497명이며 발달장애인 중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은 61,388명으로 비율은 29.3%로 70.7%로는 취업하여 일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이 48.3%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이 19.4%, '취업'이 13.7%로 상급학교 진학 이후의 계획이나 취업하지 못할 경우의 계획을 생각하는 비율은 낮다. 정은경(2017: 32)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상당수가 가정이나 주간보호센터로 돌아간다고 한다"라고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졸업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가 사회와 단절하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김미옥 등(2020)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인해 도전행동으로 인해 취업도 어렵고 돌봄 서비스조차 희박한 상황이며, 졸업 이후에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24시간 보낸다. 덧붙여 이들의 경우 (임예직, 김주옥, 2022)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37.19%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규 학교 교육에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나 이미 학업을 중단한, 혹은 정규 학교 교육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게는 평생교육이 좋은 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환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갑작스레 평생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규 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이 전환교육과 연계된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생활 기술이나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인수(2000: 2)는 "전환교육이란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의 총체적인 서비스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애학생은 직업선택의 제한, 직업기술 전이의 제한, 전직이나 직종의 제한, 높은 상호의존성 등의 특성 때문에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잘 안되므로 장애 특성 및 능력, 개개 학생의 요구와 결과 중심 과정으로 고완된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성인교육, 직업교육, 통합된 취업활동(취업지원 서비스를 포함한)과 계속적인 성인교육, 성인서비스, 독립생활 또는 사회참여를 포함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교육활동이다."라고 정의했다.

VOICEYE voiceye.com

하지만 현재 전환교육에 대해서 이현주 외(2021)은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생활로 이동하기 위해서 고용에만 치중해서 다양한 성인생활 영역에 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원호(2020: 3)은 “전환교육의 초점이 주로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맞춰져 있다 보니 전환교육을 교과 수업의 영역보다는 직업교육의 차원에서 교육하려는 교사들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한, 전환교육을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만을 강조하기에 (홍주희, 이숙향, 2016: 14)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 초등 및 중등학령기에 걸친 연속적인 전환계획이 수립이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에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Sitlington et al, 2010) 국내외 전환교육이 고등학교 이전 단계에서부터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연속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박광옥 외(2020: 19)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정 기준과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평생교육기관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제공기관의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요구와 불일치하는 등(국립특수교육원, 2018) 평생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물적 지원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의 현황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알아보고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1) 서비스 이용에 소외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평생교육에 연계할 수 있도록 고찰하고자 한다.
2) 전환의 목적이 고용으로 한정된 전환교육이 아닌 평생교육으로의 전환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전환교육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환교육’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환과 전환교육의 정의를 성인기로의 전환에 제한하지 않고, Sitlington, Clark, & Kolstoe의 개정된 종합적 전환 모델에 따른 전생애적 범위의 전환으로 규정한다.

2) 평생교육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성인기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발달과정 전 단계에 걸쳐서 참여하게 되는 교육과 학습의 총체로 보았다.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발달장애를 중증도에 따라 경증, 중증, 최중증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김미옥 외, 2020: 2)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에 도전 행동이 동반되는 경우, 도전 행동의 심각도와 양상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김미옥 외, 2018: 2019b).”라고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김주영(2020)은 2008년 기준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3조와 제34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령은 2016년 5월 29일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해당하기에 삭제했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학령기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 교육이 단절되는 것이 아닌 계속교육을 받는다는 대안이었다. 하지만 성인 장애인의 학력보완을 초점으로 장애인 야학이 활성화되어 대안의 목적과 달랐다. 그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요구는 높아져 2022년 기준 24개의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조례 제정과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장애인 야학에서 발전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었으나 한계 또한 존재한다. 학령기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교육으로 설립되었지만 30명 내외 제한된 인원과 5년이라는 기간동안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타 다른 장애인 기관과 비교하여 큰 특색을 보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제시되고 있다.

2. 발달장애인의 전환교육

전환은 인간의 삶에서 특정 조건으로부터 다른 조건으로 변화하는, 생애주기의 단계 이동과 함께하는 변화이다(이정은, 2008; 정혜영, 2005). 인간은 자신의 삶 안에서 여러 번의 다양한 전환을 겪는데, 이 중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은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다른 전환의 시기에 비해 강조된다. 특히 발달장애학생의 경우 직업선택과 직업기술 전이, 전직이나 직종의 제한 등이 있어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커(국립특수교육원, 1997) 성인기 전환에 있어 더 많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수직적 전환 역시 물리적,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동시에 겪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전환교육적 지원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공적인 전환 및 적응을 한다는 연구 결과 역시 나와 있는 바다(유영신, 이영선, 2018; 이경원 외, 2011; 나수현, 박승희, 2009). 김동일 외(2020)에 따르면 발달장애학생의 직업기술을 포괄한 생활기술 습득을 돕기 위한 생활중심 전환교육의 경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공과 이상의 순서로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는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생애적으로 종적인 연결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Brolin (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박지현 외(2021)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교 간 전환, 전학으로 인한 환경의 전환 등 수평적 전환에 대한 지원 역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현주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교육 및 서비스의 열악함, 전환계획 체제의 미구축 및 적은 지원, 가정 및 지역사회와 전환교육의 연계 부족 등도 지적됐다.

3. 최중증 발달장애인

(김미옥 외, 2020)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으로 인해 제도권 내 서비스 이용의 제약을 받고 주 양육자가 24시간 내내 돌봐야하는 구조이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예산 부족으로 2020년 기준으로 4,000명의 발달장애인만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1급 중증발달장애인의 비율은 60,975명으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성

기존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의 평생교육은 조명받지 못한 상태이다(김영준 외, 2021). 법적으로 명시된 특수교육의 목적 중 하나인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융합 재구성을 통해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전 생애 주기별로 보장받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상하여 장애인평생교육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모델이기에 학교 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의 성격이 나타날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조사, 총 2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전환교육의 현황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전환교육 각각의 발전 방안과 연계 방안, 효과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주관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설문하였고,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1차 전문가 조사에서 수집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객관식 문항을 제작하여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2. 문헌연구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송건과 정진자 (2021)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중점으로, 미흡한 현황에서 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전환교육과의 연계를 제시한다. 우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방향 중 하나인 전환교육과의 연계성, 그리고 연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송건과 정진자 (2021)을 참고한 문헌연구법을 사용하였다.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와KISS(https://kiss.kstudy.com), DBpia(https://www.dbpia.co.kr), SCHOLAR(https://scholar.kyobobook.co.kr), KCI(https://www.kci.go.kr/kciportal/mai

VOICEYE
voiceye.com

n.kci)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환교육',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주요 검색어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KCI에 등재된 학술 논문 및 학위 논문을 검색하였다. 최근 5년치 논문을 수집하고자 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2년을 더 추가했다. 이후, '전환교육'을 주요 검색어로 검색된 논문들에 '발달장애'라는 키워드를, '장애인 평생교육'을 주요 검색어로 검색된 논문들에 '발달장애'와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해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들 중 의 가지 주제와 에 대한 논문들만 추려내 총 56개의 논문들을 선별하였다. 이 중 연구자들이 직접 검토하여 내용 면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9건을 제외해 박사 논문 5편, 석사 논문 8편, 학술저널 21편, 학술지 11편으로 총 45개의 논문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2) 자료 분석

선정된 논문들은 해당되는 분석기준들을 통해 2명의 연구자가 각각 비교하고 분석한 뒤 서로의 분석 결과를 대조하였다.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은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 논의한 뒤, 보다 분석기준에 적절한 의견을 채택하였다.

분석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문헌조사 분석 기준

분석영역	세부사항	하위범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설계
전환교육	인식	학교 구성원
		기타
	실태	-
	교육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모형	-
	기타	-
평생교육	인식	학교 구성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기타
	실태	-

분석영역	세부사항	하위범주
평생교육	교육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모형	-
전환교육 + 평생교육 (연계)	구조	-
	모형	-

3) 분석자 간 신뢰도

문헌 연구의 분석자 간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2명이 최종 선정된 43편의 논문을 분석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분석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분석자 간 신뢰도는 [(일치한 수/일치한 수 + 불일치한 수) x 100]의 공식을 통해 95.34%로 산출되었다. 분석자들 간에 불일치를 보인 내용은 논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3. 전문가 조사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는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수교육과 교수 4명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종사자 2명,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1명, 전공과 경험이 있는 중등 특수교사 2명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해 작성 협조를 요청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특수교육과 교수 3명과 중등 특수교사 2명이 답변하였으며,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작성 협조를 요청한 전원 답변하였다. 각 전문가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기초 배경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1차 전문가 조사 대상자

	소속	직위	종사기간
1	OO고등학교	특수교사	20년
2	OOO대학교	교수	25년
3	OOO대학교	겸임교수	30년
4	OO고등학교	특수교사	10년
5	OO대학교	연구교수	15년

KCI VOICEYE voiceye.com

〈표 3〉 2차 전문가 조사 대상자

	소속	직위	종사기간
1	OO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특수교사	3년
2	OOO대학교	교수	20년
3	OO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24년
4	OOO대학교	겸임교수	30년
5	OO대학교	연구교수	10년
6	OO고등학교	특수교사	10년
7	장애인 배움터 OOOO	활동가	3년
8	OOO대학교	교수	30년
9	OO고등학교	특수교사	30년

2) 타당도

전문가 조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오수학 외, 2022)를 참고하여 Lynn이 제시한 내용타당도 지수를 활용해 특수교육과 교수 3명에게 4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다. 자세한 점수별 척도는 〈표 5〉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해 3점 혹은 4점에 답한 전문가들의 비율을 I-CVI로 산출했다. I-CVI 결과는 1.0으로 타당성이 있다.

〈표 4〉 내용타당도 지수

1점	관련 없음
2점	수정을 하지 않는 한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3점	관련이 있으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함
4점	매우 관련 있음

3) 연구 절차

전문가 조사는 연구자들이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지의 구성 영역 및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전환교육 현황 등 관련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제작되었다. 1차 전문가 조사는 2022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9일, 2차 전문가 조사는 2022년 9월 12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 진행하였다. 자세한 문항 영역 및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5〉 전문가 조사 문항 영역 및 내용

구분	문항 영역	문항 내용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국가적 차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
	전문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	전환교육 범위	(성인기 생활과 자립 생활에)가장 효과적으로 예상되는 전환교육의 범위
	법적 차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전환교육의 법적 미비에 대한 해결방안
	연계 효과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효과
	연계 방안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방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	최중증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실질적 참여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가정연계	평생교육을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Ⅳ. 연구 결과

1.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구 현황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

〈표 6〉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헌

구분	하위범주	연구 편수 및 비율	
인식	주간활동서비스	1편	(50%)
	맞춤형 서비스 설계	1편	(50%)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구가 적어 문헌조사를 하기에는 부족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에 대한 문헌은 2편으로 최선경(2019)은 주간활동서비스에 20% 우선순위 확대를 적용해서 별도의 주간활동 프로그램 구성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임예직, 김주옥, 2022)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광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지원센터, 서울에서는 최중증 낮활동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지만 이용기간과 이용자 정원의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특수학교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 중심으로 교육하고

VOICEYE
voiceye.com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초졸 이하가 많다. 고용이 가능하지 않고 지역사회 참여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기반으로 타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2) 전환교육 현황

문헌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전환교육은 학교 구성원인 특수교사, 보호자에게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그리고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돕는 교육이라고 인식된다. 이는 뒤에 전문가 조사에서 중등 특수교사 2인 모두가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전환교육의 시작 범위로 '중등교육'을 꼽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전환교육 계획 및 ITP작성, 실행의 부분에서는 보통 수준, 혹은 부족한 수준으로 나왔다. 전환 사정의 경우 그 실행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올바른 학생 중심의 개별화된 전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강민채, 박현주, 2017). 그 원인은 전환교육에 대한 연수와 교육의 부족으로 보이는데, 박지현 외(2021)에 따르면 교사 인식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기술 영역 외의 전환교육 부분에서 중요도와 실행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환교육의 평가와 수정이 중요하다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실행을 위한 정확한 이해 부족, 전환교육에 대해 축소된 직업전환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의 이유로 실행하지 않는 교사들이 많다. 이는 황순영 외(2018)의 현재 대한민국 실정으로는 전환교육의 실천이 어렵다고 답한 교사가 대부분이며, 그 이유로는 전환교육에 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자료 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고, 가족 및 가정의 연계 부족, 지원체제의 미비 등이 뒤따르는 연구 결과를 잇는다.

전환교육의 범위는 대부분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교육에 관한 연구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였다. 전환교육의 영역은 직업준비 및 일상생활, 자립생활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중등교육에서 전환을 시작하려는 경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전생애적으로 전환교육이 필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일상생활 영역은 전생애적으로 봐야 할 영역이며, "미국장애아 분과협회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진로발달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다(황순영 외, 2018). 자립생활 영역은 일상생활 기능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는 박철(2016)의 발달장애학생 전환교육프로그램 담당자 인식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일상생활기능이며, 이는 발달장애학생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대목과 일치한다.

한편,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교육 및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도 보호자 인식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수준은 점점 중도중복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했을 때,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교육 및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중증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직업생활이 어려우며, 평생교육, 여가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 다른

성인생활 옵션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및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이현주 외, 2021).

〈표 7〉 전환교육 현황에 대한 문헌

구분	하위범주	연구 편수 및 비율	
인식	학교 구성원	5편	(29.41%)
	기타	1편	(5.88%)
실태	-	1편	(5.88%)
교육	교육 프로그램	7편	(41.17%)
	교육과정	0편	(0.00%)
모형	-	0편	(0.00%)
기타	-	3편	(17.64%)
합계		**17편**	**(100.00%)**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문헌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학교 졸업 후 성인기로의 전환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평생교육이라는 특색과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전문가들의 여러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평생교육이 개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에 대해 특수교사, 학부모,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자 등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은경(2017)은 특수교사, 학부모, 발달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한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 성인들은 학령기 이후에 교육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교육 유지와 지역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한 발달장애인 성인에게는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정에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현재 발달장애인 성인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평생교육이라고 강조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김주영(2016) 논문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기타법령(「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나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추세는 서울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각 자치구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VOICEYE voiceye.com

한다. 김주영(2020: 3)은 “학령기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돌봄)와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었으나, 제한된 인원(30명 내외)을 받아 5년간 종일반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존의 주간보호센터와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점,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라고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을 유지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나왔지만 평생교육의 의미와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홍성두, 김원호(2019)에 따르면 지금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6개의 영역이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생교육을 발달장애인에게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공통된 의견보다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달라 불명확하다.

〈표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문헌

구분	하위범주	연구 편수 및 비율	
인식	학교 구성원	3편	(13.04%)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4편	(17.39%)
	기타	3편	(13.04%)
실태	-	5편	(21.73%)
교육	교육 프로그램	4편	(17.39%)
	교육과정	2편	(8.69%)
모형	-	2편	(8.69%)
합계		**23편**	**(100.00%)**

4) 전환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 연구 현황

전환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의 경우, 아직 둘의 연계 자체가 생소하여 기존 연구들이 많지 않아 이론에 방점을 둔 모습을 보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의 전환교육과 교육과정을 성인기의 평생교육과 연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 전공과를 성인기 전환의 주요한 ‘매개’요소로 보며, “지역사회 내 학교 토대화를 실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김영준, 김화수, 2021). 김영준, 김화수(2021)은 개별화평생교육계획(ILEP)를 IEP, ITP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개별 맞춤형 장기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을 들었다.

〈표 9〉 전환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 연구에 대한 문헌

구분	연구 편수 및 비율	
구조	1편	(33.33%)
모형	2편	(66.66%)
합계	**3편**	**(100.00%)**

2.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방안

1)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보고자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문항 7개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34개가 도출되었다. (〈표 10〉 참조)

〈표 10〉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구분	문항	구체적인 방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국가적 차원	법 제도적 지원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행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평생교육기관의 확충
	전문성	기존 종사자 재교육
		자격요건 체계화
		특수교육전문가의 배치 및 참여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평생교육간의 체계적인 구조화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	전환교육의 범위 설정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법적차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
		전환교육 정의 구체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VOICEYE voiceye.com

구분	문항	구체적인 방안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	연계 효과	성인기 생활에 도움
		학령기 교육과 연계
		전환교육의 한 가지 선택 방안
		전환계획에 평생교육 포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	평생교육 연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구
		순회교육
		이동편의 제공
		간호서비스 제공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인력 확충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기본 자립재활훈련 프로그램
		유관기관 연계 및 공동운영
	가정과의 연계	프로그램 파트너로서 가족의 참여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충
		주기적인 상담 및 교육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① 국가적 차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물적 지원은 과거에 비해 늘었으나, 문헌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 법 제도적 지원, 행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평생교육기관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은 생애주기에 따른 전환교육, IEP, ITP와 연계하여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이 학생의 체계적인 교육 및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유하되, 각자의 전문 영역 및 역할에 맞춰 학생에게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은 높이면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고루 제공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많은 수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정 구성이나 문제행동 중재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평생교육이 단순케어, 돌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전문가 조사 결과, 종사자의 자격요건 체계화와 특수교육전문가의 배치 및 참여가 필요하며 기존 종사자의 재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평생교육 간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가전문자격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장애인평생교육 자격증을 만들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법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들은 국가를 통해 체계적인 재교육과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격요건을 채우고 종사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특수교육전문가의 배치는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 중 일부를 전근하는 전공과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1인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며, 참여는 종사자들에게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언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장애인 평생교육이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수교육, 즉 학교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복지시설에 IEP, ITP, ILEP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에게 맞는 복지를 부모 및 당사자에게 알리고 연계할 수 있도록 매핑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

① 전환교육의 범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환교육의 범위는 중등교육에 거의 한정되어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에 전환교육의 범위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3가지 범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아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환교육의 범위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유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초등교육은 초등부터 실시하여 종적 연계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중등교육은 중등교육에서 성인기 차원을 전환의 범위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② 법적 차원

전환교육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미비는 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전문가 조사 결과 크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 전환교육의 정의 구체화, 발달

VOICEYE voiceye.com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전환교육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전환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해두며, 제22조에서 개별화전환교육계획, 제 23조에서 전환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ITP 작성을 필수로 하며, 국가적인 전환교육의 범위별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환교육 범위에 대해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③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효과

전환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되는 4가지 전환 역량의 하나인 계속교육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외의 전환 역량에도 평생교육의 자립생활훈련, 직업훈련 등의 관련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은 서로 전반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보인다. 이 둘을 연계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전문가 조사 결과, 성인기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학령기 교육과 연계가 가능하며, 전환교육의 한 가지 선택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전환계획에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ILEP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효과도 예상하였다.

(3)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이동편의 제공, 간호서비스 제공,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외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구, 1:1 교육 및 활동이 가능한 인력 확충, 종사자 교육, 기본 자립재활훈련 프로그램, 유관기관 연계 및 공동 운영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직업생활이 어렵기에 이들을 위한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영역의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현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여러 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②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돌봄의 부담을 감당하기에 부담을 점차 경감하기 위해서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전문가 조사의 결과, 가족이 파트너로서 참여하거나 가정 연계/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주기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왔다.

보호자와 가족들이 감당하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않기에, 평생교육기관에서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심리 상담 및 부모(보호자, 가족)교육이 필요하며,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보호자(가족)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정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1차 전문가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재구성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범주화된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했다.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① 국가적 차원

〈표 11〉 2차 전문가 조사 국가적 차원 결과

국가적 차원	응답수	응답비율
법 제도적 지원	5	(55.6%)
체계적인 연구	1	(11.1%)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3	(33.3%)
행정 지원	1	(11.1%)
전문인력 양성	2	(22.2%)
평생교육기관의 확충	4	(44.4%)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5명(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생교육기관의 확충 4명(44.4%),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3명(33.3%), 전문인력 양성 2명(22.2%)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계적인 연구 필요와 행정 지원은 1명(11.1%)로 동일한 응답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 제도적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

〈표 12〉 2차 전문가 조사 전문성 결과

전문성	응답수	응답비율
기존 종사자 재교육	1	(11.1%)
자격요건 체계화	3	(33.3%)
특수교육전문가의 배치 및 참여	2	(22.2%)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2	(22.2%)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평생교육간의 체계적인 구조화	6	(66.7%)

전문성 영역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문항에 최대 2까지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 평생교육간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6명(6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격요건 체계화 3명(33.3%), 특수교육전문가의 배치 및 참여와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은 2명(22.2%)로 동일한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기존 종사자 재교육은 1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종사자의 자격과 전문가 양성 문제 이전에 현재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 평생교육간의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았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교육, 복지, 장애인 평생교육간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2)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

① 전환교육의 범위

〈표 13〉 2차 전문가 조사 전환교육의 범위 결과

전환교육의 범위	응답수	응답비율
유아교육	3	(33.3%)
초등교육	1	(11.1%)
중등교육	5	(55.6%)

전환교육의 범위로는 중등교육이 5명(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아교육이 3명(33.3%), 초등교육이 1명(11.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환을 성인기로의 전환에 한정지어 그와 가장 밀접한 시기인 중등교육으로 바라본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역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답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 상당히 분분하며,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② 법적 차원

〈표 14〉 2차 전문가 조사 법적 차원 결과

법적차원	응답수	응답비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	2	(22.2%)
전환교육 정의 구체화	1	(11.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6	(66.7%)

전환교육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법적 내용에 대한 문항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6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 2명(22.2%), 전환교육 정의 구체화 1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보완보다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와 교육과정, 전문인력 등의 법적 내용 제정이 우선과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효과 및 방안

〈표 15〉 2차 전문가 조사 연계 효과 결과

연계 효과	응답수	응답비율
성인기 생활에 도움	3	(33.3%)
학령기 교육과 연계	0	(0%)
개별화평생교육계획 수립 기반 마련	1	(11.1%)
성공적인 자립 및 직업생활에 기여	5	(55.6%)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효과에 대한 문항에는 성공적인 자립 및 직업생활에 기여가 5명(55.6%)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기 생활에 도움 3명(33.3%), 개별화평생교육계획 수립 기반 마련 1명(11.1%)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 교육과 연계는 응답이 없다.

〈표 16〉 2차 전문가 조사 연계 방안 결과

연계 방안	응답수	응답비율
자립 및 직업생활로 연계	4	(44.4%)
전환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3	(33.3%)
전환계획에 평생교육 포함	2	(22.2%)

연계방안에 대한 문항에는 자립 및 직업생활로 연계 4명(44.4%)로 가장 많았으며, 전환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3명(33.3%), 전환계획에 평생교육 포함 2명(22.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가 성공적인 자립과 직업생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립과 직업생활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

〈표 17〉 2차 전문가 조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결과

평생교육 연계	응답수	응답비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구	2	(22.2%)
순회교육	0	(0%)
이동편의 제공	3	(33,3%)
간호서비스 제공	0	(0%)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5	(55.6%)
인력 확충	3	(33.3%)
종사자 교육	0	(0%)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3	(33.3%)
기본 자립재활훈련 프로그램	3	(33.3%)
유관기관 연계 및 공동운영	2	(22.2%)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연계를 위한 방안에 대한 문항은 항목이 10개로 많기에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했다.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5명(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동편의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기본

자립재활훈련 프로그램이 3명(33.3%)로 동일한 응답 비율을 보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구, 유관기관 연계 및 공동운영에 대한 응답이 2명(22.2%)로 나타났다. 순회교육, 간호서비스 제공, 종사자 교육은 응답이 없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가정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가정에서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기본 자립재활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②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표 18〉 2차 전문가 조사 가정과 연계 결과

가정과의 연계	응답수	응답비율
프로그램 파트너로서 가족의 참여	2	(22.2%)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충	0	(0%)
주기적인 상담 및 교육	1	(11.1%)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6	(66.7%)

평생교육을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6명(66.7%)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파트너로서 가족의 참여가 2명(22.2%), 주기적인 상담 및 교육이 1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충은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자를 프로그램 파트너로 생각해서 프로그램 계획, 편성, 운영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주기적인 상담 및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고려한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현황과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전환교육과 평생교육, 전한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환교육의 경우 주로 중등교육에서 성공적인 자립, 직업생활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환교육 계획 및 ITP작성, 실행의 부분에서는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였고, 특히 전환사정은 전환교육

VOICEYE
voiceye.com

에 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실행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 평생교육의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교사 모두 평생교육이 교육유지, 지역사회 참여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적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이들의 전문성이 낮으며, 프로그램들 중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의 수준에 맞춰진 것이 아닌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진 것이었다. 전환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은 그 개념이 생소하여 연구가 거의 없으나, 기존 연구들은 학령기의 교육과정을 평생교육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주로 하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 제도적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뒤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수 및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인·물적 자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적절한 운영에 대한 감찰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장애인 평생교육간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간의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호자에게 세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기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재교육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법 제도적 지원과 맞물리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은 먼저, 전환교육의 범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환교육의 범위는 성인기로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보아 성인기에 가장 가까운 중등교육으로 한정되어 연구하고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환교육은 조기에 실시할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 사례가 있고 전문가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르기 때문에 유아교육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전환교육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연구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의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상술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 전환교육의 정의 구체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평생교육의 정의와 교육과정, 전문인력 등의 법적 내용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을 연계할 때 자립과 직업생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립 및 직업생활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함으로써 성공적인 자립 및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자립 및 직업생활로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여가생활의 교육, 또는 일환으로서 평생교육을 전환교육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다.

넷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가정에서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누구보다도 평생교육 참여가 절실하였으나, 현재 여러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실질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웠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영역의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교육이 필요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설립되었지만 그 수가 적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정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의 주기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발달장애인 학습자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 회수율이 낮아 2차 전문가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응답자 수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들은 표본 집단을 더 다양화하고 늘림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나 전환교육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조금 있으나 이 역시 부족한 상태이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본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려 했으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조차도 적은 관계로 문헌연구법에 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들은 문헌연구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보다는 질적연구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사람들을 심층면담하여 평생교육의 연계에 대한 욕구 및 필요성을 연구할 것을 권한다.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강민채, 박현주. (2017). 고등부 특수교사의 전환교육계획과 실행과정에 대한 인식. 발달장애연구(KADD), 21(1), 1-25.

강성하. (202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사의 역량 모델 연구: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동일, 이미지, 안제춘, 최서현, 임진형. (2020).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생활중심 전환교육의 효과 : 국내 집단설계연구의 메타분석. 지적장애연구, 22(1), 1-26.

김두영, 이경준. (2018).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53(1), 23-47.

김미아. (201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인 야학 학습자의 참여동기 및 교육 만족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김미옥, 김지혜, 김고은. (2020).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중중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의 돌봄경험 - 서울시 최중증 낮활동 시범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49(49), 119-146.

김은영. (2017). Q방법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 분석,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영준. (2015). 평생학습 측면에서 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학령기 증거기반 전환교육 실제의 활용방안 고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1): 137~166.

김영준, 김화수. (2021). 발달장애인 맞춤형 학령기 전환교육 연계 성인기 평생교육 중점 모델 형성: 기초 연구. 인문사회 21, 12(6), 137-148.

김영준, 권량희. (2021a).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정착 구조: 거점 대학 지정을 통한 장애인평생교육 학교 토대화 추진. 인문사회 21, 12(5), 1077-1092.

김영준, 김화수, 권량희. (2021b). 한국 장애학생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 모델 융합 재구성 :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타당성 관점. 문화기술의 융합, 7(4), 95-104.

김원호. (2020).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와 지원방안 탐색: 특수교사와 교과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22(3), 141-170.

김주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1),

65-92.

김주영.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6(2), 1-28.

김현숙. (2019).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욕구분석 연구 - 시흥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5(2), 25-53.

김현숙. (20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이용이 주 양육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장애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권미영. (2022). 발달장애인의 STEAM기반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의 인식조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2), 103-124.

나애노. (201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민기연. (2020). 장애청소년의 성인기 전환을 위한 대학기반 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157-167.

맹성은. (2021).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직업훈련과 장애인평생교육과의 연계성에 관한 훈련교사 인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박광옥, 이현주, 김경선, 박희찬. (2020). 델파이 분석을 통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과제 탐색.장애와 고용, 30(2), 93-116.

박사혁. (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국내 연구동향 분석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13-38.

박애선. (2018). 어머니의 관점에서 본 발달장애자녀의 성인기 전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4), 93-113.

박준영, 천정미. (2006). John Dewey 철학에서 평생교육이념의 고찰. 교육사상연구, 19, 1-14.

박지현, 이미지, 황지은. (2021). 교사인식에 바탕한 국내 발달장애학생 전환교육 연구 탐색: 중요도, 실행도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3(1), 149-174.

박철. (2016). 중등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담당자 인식 : 부산지역 교육기관과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유경, 박재국. (20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자들의 인식. 특수교육논집, 26(2), 51-74.

서효정, 박윤정. (2018).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과 고등교육 프로그램(TPSID) 분석 연구.특수교육학연구, 53(3), 287-319.

서효정, 박윤정, 신소은. (2021). 중등 발달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 준비 역량 체계 개발 및 활용. 특수교육학연구, 56(2), 45-65.

송건, 정진자. (2021).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단일대상연구 경향 분석. 장애와 고용, 31(1), 137-173.

심석순. (202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49(), 83-105.

오수학, 김영욱, 최지아, 권영문. (2022). 체육학 검사도구 문항의 삭제와 보완을 위한 내용타당도의 정량적 검증: CVR과 CVI를 활용한 통계적 내용타당도 평가.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AJPESS), 10(3), 25-34.

오은경, 임원균. (2021).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의 긍정적 인지정서상태 영향요인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7(1), 135-156.

이미현. (2017).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욕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재호. (202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학교 전공과 교사들의 인식. 인문사회 21, 13(2), 2489-2504.

이창호. (2013).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평택, 한국복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현주, 정평강. (2021a).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인식 및 요구. 평생학습사회, 17(2), 233-258.

이현주, 김경화, 정지희. (2021b).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관한 주요 당사자들의 다각적인 인식 및 요구 분석: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3(2), 43-72.

임우열. (2016). 거점학교를 이용한 직업훈련과 사회성 전환교육프로그램이 발달장애 학생의 직업준비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예직, 김주옥. (2022).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 유형화와 맞춤형 서비스 설계 방안 연구 :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7(57), 89-117.

조인수. (2000). 전환교육 계획수립과 과정. 특수교육연구, 23(1), 171-192.

조창빈, 김두영. (2020).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평생학습사회, 16(2),

233-259.

주영하, 박미진, 김기룡. (202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 유형과 만족도 관계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인식 비교. 특수아동교육연구, 23(4), 119-139.

진형식. (2021).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종사자의 근로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차재경, 박영근, 이재호. (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G 광역시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7(2), 201-232.

추연지. (2021).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심리지원 요구도 조사 : 부모의 요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최민식. (2020). 학부모 자조모임 참여실행연구를 통한 발달장애학생의 성인전환기 준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최선경. (2019).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방안 . 문화기술의 융합, 5(4), 105-114

한경근, 김원호, 주교영.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초점집단면담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5(1), 135-157.

황순영, 양혜림, 이후희. (2018).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19(4), 259-291.

황지은, 이미지, 박지현. (2021). 발달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교육에 대한 메타적 중요도-실행도(IPA) 분석 : 2000년 이후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3(3), 85-111.

홍성두, 김원호. (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쟁점과 제안.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61-78.

홍주희, 이숙향. (2016). 국내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요소 및 성과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8(1), 145-169. 강수정 (2017).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융복합 프로그램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홍주희, 이숙향. (2019). 학생과 가족을 위한 전환지원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9(2), 135-163.

홍주희, 이숙향. (2020). 전환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 고등학생 가족의 전환준비 및 가족역량강화 과정에서의 경험과 인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41-72.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Abstract

The Status and Plan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onnection with Transitional Education:

A Study on the Linkage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the Most Severely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in Ji Su*·Kim Gyu Ri**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nect the most severely disabled to lifelong education and to help them transition and maintain a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 self-reliance through the linkage of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conversion education. As for the research method, after examining literature research,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link between lifelong education of the most severely disabled and the direction, specific measures, and expected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and conversion education. In the first survey, each method was specifically investigated with a subjective question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multiple-choice questions on the same topic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survey. As a result of the study,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as a way

*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o develop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way to link lifelong education for the most severely disabled, support for home and community services should be provided smoothly.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hat even those with the most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ed to link lifelong education, and that experts need to agree on the scope of conversion education.

Keywords : transition education, disability's 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al disability, most severely developmental disabilities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249 - 282

2030세대의 대물림된 장애 혐오에 대한 Apologia: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에 대한 문학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정서빈*·유은빈·이의경*****

본 연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기해 폭발한 2030 세대의 혐오의 원인을 탐색하고 폭력의 양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자기 성찰을 곁들인 개인 의견에 대한 옹호'를 뜻하는 'Apologia'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자들은 2030 세대의 혐오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일상화된 부당한 차별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에 대한 옹호를 진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날 행해지는 폭력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보여줌으로써 자기 성찰을 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성찰의 결론으로 오늘날의 장애 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Apologia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 문학텍스트 분석이라는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세 문학텍스트『SCP 재단』,『어둠의 속도』,『아몬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문학텍스트를 통해 '옹호', '자기 성찰', '성찰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 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오늘날의 사회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구조의 문제를 일상화하였고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탈정체성의 폭력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일상적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탈장애적 시선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장애, 2030 세대, Apologia,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

* 숭실대학교 철학과 학부
** 숭실대학교 철학과 학부
*** 숭실대학교 철학과 학부

Ⅰ. 서론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현재까지 지속 중인 문제 중 하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라고 생각된다. 이는 여타의 인권 시위와 비교하면 미디어의 관심을 독차지한 듯한데, 그 관심의 주체는 대다수가 2030 세대인 것으로 여겨진다. 2030 세대는 시위 자체의 본의에 대해 숙고하기보다 그에 대한 혐오 감정만을 표출하여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2030 세대의 전장연을 향한 혐오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SNS를 통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 청년은 증거자료와 함께 뉴스에 보도되었고 (하민지, 2022) 인터넷상에 혐오 표현을 남발하는 이들의 수도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대학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전장연 시위 이후 장애인을 향한 공격적이고 무분별한 혐오표현의 글들이 상당수 올라왔다.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 중 일부는 에브리타임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혐오표현에 반발하며 전장연 연대 연서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고병찬, 2022). 즉, 이번 전장연 시위의 목적이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논의는 점점 잊히고, 그 여백을 혐오가 차지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문제를 중립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게 하며, 논의의 핵심을 가림으로써 정작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부차적인 부작용만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2030 세대의 혐오의 원인을 파악해 그들이 가하는 폭력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명시함으로써 혐오의 확산을 막는 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Apologia가 요구된다. Apologia는 자기 성찰을 곁들인 개인 의견에 대한 옹호를 뜻한다. 즉, 본고에서는 2030 세대에 대한 자기 성찰과 함께, 혐오를 행하고 있는 2030 세대에 대한 옹호, 혹은 변호를 시도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자들은 2030 세대의 혐오의 원인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성세대로부터 내려온 차별적 선입견과 구조의 고착화가 오늘날 2030 세대의 혐오의 주된 원인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물론 2030 세대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자들은 일상화된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기 어렵듯, 장애 혐오와 차별도 오랜 역사를 거치며 '일상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2030 세대는 그러한 관행을 세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2030 세대는 부당한 관행(일상화된 혐오)의 상속자로서, 그들의 행위에 문제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일상성[1]'에 잠식되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30 세대를 옹호, 혹은 변호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

1) 본 연구자들은 일상적인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사회가 구축한 '일상적 관행'이 그 관행 자체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 상황을 '일상성'이라고 표현하기로 정했다.

VOICEYE voiceye.com

충분하지 않다. 옹호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폭력의 양상을 성찰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의 원인을 단순히 현세대에게서만 찾는 연구 방식은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며, 이후 비슷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2030 세대에 대한 Apologia를 바탕으로 혐오와 차별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문제의 근원적 분석과 해결책 제시가 Apologia의 진정한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Apologia의 정의 속 '자기 성찰'에 해당한다. 본 연구자들은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장애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수정하려는 태도라고 보았고, 이를 '탈정체성'이라고 명명하였다[2]. 또한 이와 같은 성찰의 결론으로서, 혐오를 근절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탈장애[3]'적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세 가지의 주제는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이다. 세 주제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일상성은 그릇된 사회구성적 장애의 개념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이 구조적으로 일상화되어, 대중이 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탈정체성은 장애 상태를 비장애 상태로 수정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파괴하려 하는 사회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끝으로 탈장애란, 장애는 사회가 개인에게 씌운 '프레임'일 뿐이므로, 한 인간을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주장을 담은 개념어이다.

본 연구자들은 위의 세 주제를 문학텍스트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문학텍스트 속 나타난 '일상성'의 발생 양상, '탈정체성'이라는 폭력, '탈장애'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학텍스트 분석은 본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상술하였듯 오늘날 장애에 대한 배제나 선입견의 일부는 이미 너무나 일상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려 사람들이 그에 대해 쉽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학텍스트의 분석은 일상에 감추어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내는 역할, 즉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

2) 장애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일반화하는 행태는 '정체성으로부터의 탈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명명하였다.

3) '정상'과 '비정상', 나아가 '장애'와 '비장애'간의 구분이 불가능함을 밝히는 개념으로서, '장애'라는 규정으로부터 탈피한다는 의미로 명명하였다.

역할을 수행한다. Ghosh(2021)는 그의 저서 『대혼란의 시대』에서 문학이 가지는 특수한 힘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학은 특정한 상황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려낸다. 즉, 문학을 통해 현실을 타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학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현실 속에서 정당화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을 문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2030 세대가 가하는 폭력의 양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할 문학텍스트는 『SCP 재단』, 『어둠의 속도』, 『아몬드』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 세 문학텍스트가 각각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SCP 재단』은 인터넷 위키 사이트로, 초자연적인 물체, 현상, 생물 등을 뜻하는 SCP와, SCP들을 다루는 SCP 재단을 주제로 한 창작물을 다룬다. SCP 재단의 문서들 중 본고에서 다룰 'SCP - 001 WJS의 제안: 정상성'은 '사랑'을 명목으로 '변칙적인 것', 즉 비정상적인 것들을 격리하는 행태를 정당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상성'의 존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텍스트이다.

『어둠의 속도』는 미국 소설가 Elizabeth Moon의 장편 SF소설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근近미래를 바탕으로 한다. 소설은 천재적 자폐인 '루 애런데일'과 그를 배제하려 하는 사회적 억압, 그리고 강요된 '정상화 수술'의 대립 구도를 통해 장애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탈정체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어둠의 속도』에는 자폐인 주인공의 내면이 만연체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억압에 맞서는 장애인의 심리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즉 탈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을 억압하는지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들은 『어둠의 속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몬드』는 국내 소설가 손원평의 장편소설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여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주인공 '윤재'와 그에게 감정을 가르쳐 '정상'의 삶을 살게 하려는 그의 가족, 그리고 반대로 '정상적' 기반을 가졌지만 '비정상적' 삶을 살아가려는 '곤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해당 소설의 주인공 윤재와 곤이는 모두 '정상이면서 비정상인', 혹은 '정상이라고 규정할 수도, 비정상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즉, 『아몬드』는 '장애에 대한 규정 자체의 불가능성', 다시 말해 탈장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또한 『아몬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문학텍스트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탈장애를 이해·실천하는 데 있어 내용과 접근성 면에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세 문학텍스트를 분석할 때, 본 연구자들은 문학텍스트와 현실 상황의 유사점을 중심에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설의 '재현'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현실을 객

VOICEYE voiceye.com

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들을 추출하였고, 후술할 장애이론가들의 이론을 각각의 부분에 적용하여 문학텍스트를 통해 비가시적인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자들은 문학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그 속에서 사회가 장애를 대하는 모습, 장애인 주인공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장애에 대한 편견의 양상 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가들과 비평가들이 말하는 장애와 장애이론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이슈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 이론가는 사회적 장애모델을 제시한 Michael Oliver, 구성주의적인 몸의 사회학을 비판하며 실재적인 물질적 몸을 복권시키려는 Simon Williams와 Gillian Bendelow 등이 있다.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장애 담론이 시작되었는데, Thomson(2015)은『보통이 아닌 몸』에서 “문화적으로 구성된 ‘정상인’을 불안정하게 만들”고(P. 20), “장애의 재현들이 억압적인 동시에 해방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자아와 타자, ‘정상인’과 그로부터의 일탈 같은 단순한 이분법을 복잡화하려 한다”(P. 21). 그녀는 더 나아가 “‘정상인’이 하나의 장애가 다른 특성들을 말살시킨다고 생각해 복합적인 사람을 단 하나의 특성으로 축소시키는 일”을 비판한다(P. 28). 이를 통해 장애의 사회구성적 성격과 사회적 억압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leeson(2020)은『장애의 지리학』에서 “사회적, 공간적 과정이 어떻게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불가능하게 하도록 이용될 수 있는가(P. 13)”를 탐구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억압 양상을 드러낸다. 2000년 들어 영국의 사회과학자이자 장애 활동가인 Shaeksphere(2002)는『장애학의 쟁점』에서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 중 많은 것이 잘못되고 위험한 점”(P. 27)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구성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과 한계,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Devileger 등(2021)의『장애를 다시 생각한다』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같음 또는 다름으로 묘사하는 모든 포괄적인 견해를 다루고, 이런 관점에 기반하여 핵심 모델과 개념을 발전시킨다(P. 13). 국내의 장애학 연구자 김도현(2007)은『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를 통해 모든 대상과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의제를 매개로 여러 논점을 제시한다(P. 14). 또한『장애학 함께 읽기』(김도현, 2009)에서는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아야 할 만한 주제들”(P. 11) 을 보인다. Shah와 Priestley(2014)는『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서 오늘날 장애 청소년들의 삶이 이전의 장애 청소년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의 전기적 경험과 역사적 정책 분석을 서로 조합한다(P. 17).

최근의 연구들은 장애에 철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Kristiansen, Vehmas, Shakespeare

등(2020)이 편집한 『철학, 장애를 논하다』에서 저자들은 “형이상학이나 정치철학이나 윤리학의 견지에서 장애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P. 19). 마지막으로 Stiker(2021)는 『장애: 약체들과 사회들』에서 인류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공통의 것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에 대해 행해진 “사회적 방식들의 역사를 살피는” 작업을 수행한다(P. 40).

이상의 문헌들을 통해 장애에 관한 주된 쟁점들과 논의들을 살펴보았고, 장애가 사회의 규정에 의해 형성되는 방식, 장애인 정체성의 억압 등 구체적인 차별의 양상, 그리고 차별이 삶에 내재해 있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본고에서는 문학텍스트 분석의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기에, 분석의 방법론을 탐구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이 문학에 나타난 장애에 대해 집필한 논문들도 검토하였다. 장애주제연구는 2000년에 들어 그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최선희와 이승희(2008)는 그들의 논문 「한국소설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 - 1980년부터 2007년까지를 중심으로」에서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문학 속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 장애 원인, 직업, 교육 정도를 조사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차희정(2012)은 「장애인 소설에 나타난 ‘장애’인식의 양상 - 장애인 창작 소설을 중심으로」에서 “장애인 소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장애’ 인식 양상을 살펴”(P. 334)본다. 김세령(2015)은 「한국 장애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 - 김미선의 소설을 중심으로」에서 장애인 작가인 김미선의 소설 속에 나타난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작가로서 그것을 표현하는 경향을 탐구한다. 박성애(2018)는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윤리성과 전복의 상상력」에서 “2000년대의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 텍스트를 분석하여 아동과 장애아동을 비롯한 타자에 대한 성인 작가의 윤리와 전복의 상상력을 타자윤리적 관점에서 탐색”하고(P. 323), 박성애와 윤상용(2020)의 합동연구 「청소년 소설에 나타나는 타자성의 공간과 타자의 존재 방식」에서는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등의 청소년 소설에서 나타나는 타자성의 발현과 그 양상을 탐구한다. 이어 김민령(2021)은 「포스트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 - 아동청소년 SF 서사를 중심으로」에서 SF 작품 속의 포스트휴먼적 인물들이 어떻게 장애를 재현하고 재인식하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위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문학 속에 드러난 장애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규명하거나, 장애와 타 학문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려는 목적의 연구들은 여럿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이끌어내어, 그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 연구는 희소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문학텍스트의 분석을 통한 현실 문제의 해결’은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학텍스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혐오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VOICEYE
voiceye.com

Ⅱ. 연구 내용

1.『SCP 재단』과 일상성

1) SCP 재단에 드러난 정상성과 비정상성

정상이란 무엇인가? 비정상이란 무엇인가? 왜 누군가는 정상이고 다른 누군가는 비정상인가? 이 둘을 나누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 본고에서는 이 의문들에 하나의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되곤 한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혔듯 본 연구자들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 점을 SCP 재단의 문서 중 'SCP - 001 WJS의 제안: 정상성'(이하 'WJS의 제안')의 분석을 통해 드러내려 한다. 더불어 '일상성' 개념에 대한 분석 또한 진행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가하는 폭력이 '일상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져 왔음을 보여주어 2030 세대를 '옹호'할 것이다.

먼저 SCP 재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웹사이트는 초현실적인 대상을 확보, 격리, 보호하는 'SCP 재단'이라는 가상의 재단을 상정하고 재단이 다루는 초현실적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공동 창작 웹사이트이다. 작가들은 초현실적 대상을 'SCP'라고 지칭하고,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예컨대, '만병통치약'이라는 초현실적 주제에 관해 문서를 작성할 경우, 작가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주제에 일련번호를 붙인 뒤, 이를 SCP 재단에서 관리한다는 설정 아래에서 연구 보고서를 창작한다. 연구 보고서에는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 연구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와 주석, 기록 일지, 대상과의 대화 등이 포함된다. 만병통치약 이외에도 '마시면 늙지 않는 샘물',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등과 같이 상상 속의 연구 대상을 창작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보고서에 담는다.

SCP 재단의 문서 중 본고에서 다룰 것은 "SCP - 001 WJS의 제안 - 정상성"이다. SCP - 001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SCP-001은 합의 현실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즉 변칙적 현상이란 해당 문서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현상으로 정의된다. O5 평의회[4]의 결정에 따라, 해당 문서는 현실의 일부 특성을 본래부터 변칙적인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WJS 제안 - SCP 재단, 2021)

[4] SCP 재단에 대한 최종적 통제권을 가진 평의회. 총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의 현실’이란 O5 평의회가 어떤 물건, 생물, 현상을 SCP로 지정할지, 다시 말해 어떤 것이 변칙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합의해 놓은 것이다. 관행적으로 중력, 물리력, 기초화학의 보편법칙, 생물학, 사회학, 철학에 속한 것들이 ‘합의 현실’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비변칙[5]적인 것들이다. 새로운 과학 지식의 발견 등 기존의 합의 현실 내의 지식체계에 기반해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비변칙적인 것에 속한다. 재현이 불가능하며 주장하는 이의 의식에만 영향을 주는 현상들 또한 비변칙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상의 규정을 벗어나는 생물, 사물, 현상들은 모두 변칙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확보하고 격리할 대상으로 본다.

오늘날 사회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정상’이라는 개념을 합의 현실처럼 사용하며, 정상의 틀 밖에 있는, 비정상으로 분류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SCP 재단이 변칙개체들을 격리하듯이 장애인들을 인위적인 분류에 따라 ‘비정상’이라 규정하고 차별하게 된 것일까? 이유는 단순한데,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Stiker(2021)는 선천적 기형, 신체적 기형 등 장애를 가리키는 여러 부정적인 용어들은 우리의 어떤 공포감을 증폭시킨다고 말한다. 이 공포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에 더 이상 포함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불편함, 일종의 고통의 정도를 뜻한다. 더구나 이 최초의 공포는 우리가 그를 수용하는 즉시 뒤따르게 되는 변화들과 맞닥뜨렸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부각된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서든 주위에서든 ‘장애’의 출현은 구체적이고도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한다. 장애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본능적인 반응, 즉 두려움이 일어난다. 이 세상이 ‘정상’을 위해 조직되어 있을 뿐, 아직 장애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는 혼란일 뿐이다. 더욱이 우리가 장애인의 어려운 삶이나 혼돈 등과 같은 장애로 인한 결과들을 마주할수록 기존의 가치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세계관에 따라 이런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Devlieger et al., 2021). 다름의 존재는 대다수를 위해 견고하게 ‘구성된’ 현실에 동요를 일으키며, 사람들은 다른 존재, 즉 변칙개체의 등장에 당황하고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변칙개체들이 일상 속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실재성을 배제하기도 한다. 즉 변칙개체들은 단지 그들의 다름으로 인해 사회 전반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간혹, 이러한 배척과 반대로 손을 내미는(통합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내거는 관계도 결국 변칙개체를 삼키고, 그의 세계를 부수고, 그의 실재를 왜곡함으로써 맺어지는 것(SCP-001 (잠금 해제) - SCP 재단, 2021)이다. SCP 재단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대응 양상, 즉 실재성의 배제와 정상으로의 통합이라는 시도가 번갈아 나타나 왔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서구에서 정상과 비정상 개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

---

5) ‘비변칙’은 SCP 재단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개념어로, 일상어의 ‘정상’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2) 서구 역사 속 장애 인식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해 온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길다. 역사 속에서 장애는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다. Stiker(1991)의 장애의 역사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장애는 악마의 주술이라 여겨졌다. 간혹 장애인이 예언의 능력 등의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차별을 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장애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장애가 있는 유아를 버리는 일도 횡행했는데, 완전한 육체에 대한 이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경우 『국가』에서 장애 아동을 사회에서 은폐 내지 격리하는 것에 동조하기도 한다(이동희, 2014). 히브리 문화에서 장애는 불순함을 대표했고, 중세 시대 장애인들은 시혜의 대상으로 취급되곤 했으며 고전주의 시대에 장애는 비합리성을 나타냈다. 즉, 장애는 훼손되지 않고는 표준에 동화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17세기 이후부터는 계몽운동이 시작되면서 배제와 차별 일변도였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표준적인 잣대에서 '평균 이하'로 분류되거나 정신이상의 이유로 감금되었던 사람들은 노력과 적합한 방법에 의해 재활할 수 있는, '표준'에 부합하도록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즉 그들은 사회에 다시 통합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산업사회의 등장 이후 성장한 자본주의는 '장애'와 '비정상'의 동일시에 크게 기여했다.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노동이 획일화되기 시작하였고, 기계의 속도에 사람이 맞춰야 하는 식의 노동이 주류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손상을 가진 이들은 노동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김도현, 2007: 70). 즉 일을 할 수 있는 몸the able bodied과 일을 할 수 없는 몸the disable bodied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고, 이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장애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김도현, 2007: 72). 장애인들은 자본주의 체계 아래의 산업 노동 체제를 일그러뜨리고, 혼란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겨졌다.

20세기부터는 병자와 장애인을 사회에 재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이후에 경마와 관련하여 쓰이던 '핸디캡'이란 용어가 '장애물' 또는 '열등감'과 비슷한 비유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장애인은 핸디캡이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고, 특수교육, 재활, 치료 훈련 과정과 같은 굉장히 특화된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궁극적으로 경쟁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배치되었다(Stiker, 1991).

상술한 모든 시대를 통틀어, '표준'이나 '평균 이하'등의 개념은 항상 존재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였다. 하지만 '표준'과 '표준 아님'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기준은 매 시기마다 상이하였다. 예컨대 고대에는 '완전한 육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산업사회에서는 '일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해 왔다. 이로부터 장애라

는 규정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즉 장애는 사회구성적인 개념임이 명확해지며, 많은 이들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믿었던 정상/비정상의 구분이 사회의 산물이자 인위적인 폭력임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온 장애 차별은 그 자체로 일상성을 야기한다. 일종의 전통으로서 정당화되어 버린 것이다.

3) 사랑한다는 변명과 일상성의 형성

위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20세기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차별과 배제에서 수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방식만 변화했을 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한결같이 폭력적이었다. 고대·중세나 산업화 시대의 장애 인식은 그 자체로 그들의 사회적 행위성을 줄이는 차별의 양상을 띤다. 17세기나 20세기의 '통합적' 장애 인식은 다수가 소수에게 동화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의 성격을 내포한다.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통합'의 양상을 띤다. 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장애인들을 표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문제가 있는', 혹은 '사회에 맞게 변해야 하는'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폭력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진정한 문제는 통합, 혹은 복지와 같이 언뜻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리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폭력성을 감춘다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일상성'이 한층 강화된다.

SCP 재단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형성 가능성을 무마하고 일상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실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보호를 표방하며 결국 폭력을 일상성 뒤로 숨기고 있는 것이다. WJS의 제안의 하위 문서인 'O5 - 5[6]의 편지'에서는 일상성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O5 - 5는 이 편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한다. 사실 재단이 '변칙적인' 것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확보하고, 격리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 외부에서, 변칙개체는 그 특징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존재를 부정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변칙적 특성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지 변칙개체들의 특수성은 이해받지 못하고, 그들은 홀로 외로이 그것을 감내한다. O5 - 5는 SCP 재단이 이러한 대다수의 폭력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을 격리해 왔다고 주장한다. 즉, 변칙개체들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확보하고, 격리하고, 보호한다는 것이다(SCP-001 (잠금 해제) - SCP 재단, 2021).

---

[6] 앞서 언급한 O5 평의회의 5번째 의원이다.

VOICEYE
voiceye.com

> “우리로서는 그런 일[7]이 일어나게끔 놔둘 수 없어. (...) 기억해 줘. 너를 뒤쫓고, 세상으로부터 숨기고, 감옥에 가두면서도 우리는 네가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 해. 너에게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 네가 가진 그 모든 다름을 누릴 권리가.”
>
> “우리는 너를 확보하고. 너를 격리하고. 너를 보호해.” (SCP-001 (잠금 해제) - SCP 재단, 2021)

편지는 설령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재단이 변칙개체들을 사랑하기에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는 O5 - 5의 말로 끝난다. O5 - 5는 격리나 배제가 변칙개체를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재단은 변칙개체가 삼켜지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존재가 부정되지 않도록 그들을 확보하고, 격리하고, 지킨다는 것이다. 그렇게 변칙개체들의 존재할 권리를, 그들이 다름을 누릴 권리를 지켜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하지만 O5 - 5의 주장을 반박하는 인물도 존재했다. 예컨대 변칙개체로 분류되었던 초능력자 알베르토 마테오티는 WJS의 제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 ““네게도 존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던가? 유감스럽게도, 그게 자네들이 허락한 권리인 이상, 그러한 시혜는 결코 우리에게 달갑지 않다네.”(크리스크의 제안 - SCP 재단, 2021)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재단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변칙개체들을 ‘보호’하는 모습은 어쨌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차별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해 암묵적 폭력을 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재단이 변칙개체들을 사랑하기에 격리한다는 O5 - 5의 말과 유사하게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며, 그것을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하고, 사랑이란 이름을 붙인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매체는 장애 때문에 어려움과 비참함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시혜와 동정을 불러일으켜 시청자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김도현, 2007). 그렇게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으로, 객체적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들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변칙개체를

---

[7] 재단 외부에서 변칙개체들이 겪는 억압을 의미한다.

격리하는 이유는 재단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O5 - 5의 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SCP 재단』속 알베르토 마테오티가 지적하듯이, 누군가 허락하는 한에서 존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달가운 일일까? 누군가가 정한 한계선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부를 수 있을까?

> "그래, 우리 또한 적어도 널 고립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 않느냐고, 너를 불에 태워버리려 하는 학대자만큼이나 확실하게 너와 네 존재를 느리게 집어삼키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겠지. 우리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싶을 거고."(SCP-001 (잠금 해제) - SCP 재단, 2021)

위 인용문이 보여주듯, O5 - 5도 그에 대한 반론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재단이 변칙개체를 위해서 그들을 격리한다는 주장을 고수한다. 이처럼 '합의 현실'은 변칙개체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다. 철저히 그들을 확보하고, 격리하고, 보호하는 재단과 격리할 변칙개체를 규정하는 '합의 현실'을 만들어낸 O5 - 5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이 사이에서 변칙개체의 목소리는 배제된다. 그들은 재단, 그리고 O5 평의회와 동등한 '주체'로 여겨지지 않고 '객체'로서 분리되며, 발언의 기회가 없는, 확보하고 격리해야 할 '수동적 대상'으로 여겨진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실제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격리가, 즉 '만들어진' 구분에 따라 변칙개체를 격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우리는 변칙개체를 '변칙적'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일까?" 라는 질문은 제기되지 않는다. 이제는 폭력이 사랑과 도움이라는 탈을 쓰고 그들을 조여오기 때문이다. 현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대중들은 일상화된 장애 혐오를 '문제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므로, "어째서 우리는 다르게 태어나거나 혹은 그렇게 된 존재들에 온갖 이름을 붙여가며 지칭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들도 함께 망각한다. 이것이 '일상성'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분리하는 데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객체로,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고정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일상성'의 본질이다. 이러한 일상성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말살하고, 그들을 객체로 취급하며 그들에게 비가시적이고 암묵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말한다.

> "아직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라."(SCP-001 (잠금 해제) - SCP 재단, 2021)

VOICEYE
voiceye.com

4) 소결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항상 '다름'에 대한 공포심과 경계심, 다름이 일상을 파괴한다는 두려움과 혼란이 존재했고, 사회적 다수는 정상으로, 소수는 비정상으로 규정지음으로써 사회는 비정상으로 규정된 이들에 대한 차별을 행해 왔다. 이처럼 인위적인 기준에 의거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한 폭력이나, 역사의 반복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어느새 오랜 전통을 가진 '절대적'기준이 되어 버렸다. 합의된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구분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보호하려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사실상 장애인의 정체성을 강제로 박탈하는 폭력성을 내포함에도, 사회는 그들을 사랑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한다고 합리화한다. 이러한 합리화는 근본적인 질문, 즉 왜 우리가 '우리와 다른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냐는 질문을 제거한다. 아무도 합의된 현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국 질문의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된다. 곧이어 사회는 비정상으로 분류된 당사자의 목소리까지 배제함으로써 그들을 단지 객체로 환원해버린다.

이러한 폭력은 일상 안에 뿌리박혀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당화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을 통해 '일상성'이 형성된다. 'WJS의 제안'은 변칙개체를 격리하는 재단의 입장에서 문서를 서술하며 변칙개체의 목소리를 박탈한다. 본 연구자들은 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삶에 만연한 일상성을 드러내보였다. 이러한 일상성에 잠식되어 문제의식을 소실한 사회는 장애인의 삶에 압박을 가하고, 결국 그들이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

오늘날 2030 세대가 처한 상황도 이와 같다. 이미 사회 구조 전반이 일상성을 이용해 성찰의 가능성을 제거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혐오 표현을 남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만 정작 스스로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못한다. 본 연구자들은 『SCP 재단』의 분석을 통해'어째서 2030 세대가 장애인에 대해 혐오를 표현하는지'에 대해 대답하였고, 그 책임을 2030 세대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가 행하고 있는 폭력의 양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분석하여, 의식 없는 혐오를 행하고 있는 2030 세대의 자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 본고의 다음 장에서는 일상성 뒤에 숨어 있는 폭력이 정확히 어떤 양상을 띠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 문제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2. 『어둠의 속도』와 탈정체성

1) 폭력의 현실화 양상: 수정

지금까지 '정상'과 '비정상'이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구성적인 개념이었음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일상성'이 가리고 있다는 문제상황을 살펴보았다. 2030 세대는 바로 이러한 일상성에 잠식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혐오를 확산해 왔던 것이다. 이로써 그들에 대한 옹호가 제시되었으니, 다음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일상성 뒤에 숨어 있는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오랜 시간 사회가 견고하게 구축해 온 일상화된 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째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상성을 혁파하고 2030 세대의 자성을 이끄는 것이 혐오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다.

앞에서 간략히 서술하였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때의 '통합'은 장애인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을 '정상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회 속에서 순조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상'과 '비정상'의 인위적 구분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의 양상을 본고에서는 '탈정체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보다 자세히 말해, 본고에서는 '탈정체성'을 장애인의 개별적 정체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사회의 기준에 맞춰 '수정correction'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수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뉘앙스를 내포하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수정을 탈정체성을 현현하는 행위로 해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 수정이 뜻하는 바는 '기존의 정체성을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상반된 개념으로, '향상improvement'은 '기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더 나은 상태로 이행하는 것' 이라 정의하겠다.

2030 세대는 사회 속에 녹아든 탈정체성의 폭력, 수정적 폭력을 문제의식 없이 세습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이 전이되는 양상은 미국의 소설가 Elizabeth Moon의 소설 『어둠의 속도』에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소설의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장애인의 정체성을 대하는 방식, 정체성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회의 태도, 그리고 수정을 강제하기 위해 사회가 취하는 '경제적 억압'이라는 전략에 내재한 구조적 폭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비가시적으로 내재해 있는 사회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지적함으로써 Apologia의 자기성찰적 면모를 충실히 발휘하고자 한다.

VOICEYE
voiceye.com

2)『어둠의 속도』에 드러난 장애인의 정체성

"나 자신이 누구인가는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을 앓는 게 좋다고요?"의사의 목소리에 꾸중하는 듯한 어조가 섞인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나는 나 자신이기를 좋아합니다. 자폐증은 나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P. 394)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어둠의 속도』의 주인공 루는 자폐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그 자체로는 만족한다. 그는 자폐증이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천재적인 패턴 파악 능력과 뛰어난 감각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비장애인들에 비해 더 다채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걸까? 이래서 정상인들이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걸까? 내가 방법을 알고 잘하는 이 일과, 정상이 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할까? 나는 사무실을 둘러본다. 팔랑개비들이 갑자기 거슬린다. 그것들은 돌기만 할 뿐이다. 같은 패턴으로, 반복, 반복, 반복. 나는 송풍기를 끄려 손을 뻗는다. 이런 것이 정상이라면, 싫다."(P. 61)

그는 자신이 정상인이 되는 상상을 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인이 된다면 자폐인일 때 느낄 수 있는 수많은 다채로운 감각, 예컨대 팔랑개비들이 돌아가며 그리는 색채와 빛 반사의 패턴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같은 패턴으로 돌기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임을 깨닫자, 그러한 정상은 싫다고 생각한다. 즉,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그의 정체성을 싫어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다.

3) 일반화: 탈정체성의 초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 절 초두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의사처럼, 장애인이 장애인임에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루처럼 자신이 장애인임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장애인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는 장애인 개개인의 고유한 생각과 인격을 보지 못한다. 또한 개별 장애인들의 수많은 차이를 무시하고, 장애인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인정하지 않는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는 언제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구축된 '합의 현실'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것을 다루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규정한 뒤 배척해 두기 위해, 즉 절대다수를

위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화'라는 전략을 사용한다. 정희진(2005)의 표현은 본고에서 정의하는 '일반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인간이 지닌 다중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정체성을 장애인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차별주의이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단지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바로 일반화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장애가 가진 고유의 능력과 장애인 스스로의 장애에 대한 의견은 철저히 묵살된다. Smith(2001)는 "장애인의 정체성 - 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 이 지닌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며, "어떤 개인의 손상과도 별개로 발생하는, 장애인의 정체성이 지닌 여러 측면들이 경시되곤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장애를 당연히 부정적 상태로 보고,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써 각각의 장애인이 장애라는 일반화된 범주 하에 귀속된다. 또한 장애는 비정상과 동일시되어, '모든 장애인이 비정상'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형성된다. 장애라는 일면적인 정체성과 개인을 동일시함으로써 다면적인 정체성이 축소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루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일반화를 통해 '탈정체성'이 발현한다. 소설 속에서, 일반화된 인식을 가지고 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인물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 내가(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과시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저 생각하는 대로 말하라고 지적한다(P. 11).
>
> "하지만 그 - 굉장히 어려운 책 같은데요, 정말 이해가 돼요?" (P. 308).

위의 두 인용문은 모두 '장애인은 ~할 것이다'라는 일반화에 의한 선입견을 가진 채 루에 대해 판단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루는 실제로 어려운 단어들과 책의 내용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자폐인은 그럴 수 없다'는 일반화적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에게 있어 루의 행위는 단지 '과시적 언어의 사용'과 '읽는 척'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반응의 반복 속에서 루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여겼던 것과 달리, 사회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모습도 보인다. 정상이 아닌 이상, 사회는 그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배제하고 억압한다. 그는 분명 본질적으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랑하나, 사회의 억압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상인'이 되고 싶다는 일말의 희구를 가진다.

사회는 이처럼 암묵적으로 수정을 강요한다. 심지어는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행위, 평등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평등에 대한 사회적 약속은 모든 개

VOICEYE voiceye.com

인적 차이들이 평등해져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불리한 차이들만이 평등해져야 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Kristiansen et al., 2020).” 따라서, 사회는 수정이 아닌 ‘향상improvement’을 실천해야 한다. 즉,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과 평등한 지위와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어둠의 속도』 속 사회와 현실의 사회는 모두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수정’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려 하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동화시키는 ‘정체성의 말소’를 행하고 있다.

4) 수정의 강요: 한계화를 통한 억압

이러한 루의 갈등 속에서 그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루는 한 제약회사의 자폐인 부서인 ‘A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 부임한 상사 ‘크렌쇼’는 A 부서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정상화 수술’을 강요한다. 정상화 수술이란 자폐 역진 치료라고도 불리는 수술로, 자폐인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수술, 즉 자폐증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이는 자폐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정상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덧씌우는 행위라는 점에서 수정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자네들은 적응해야 해. 자네들을 정상으로 바꿀 치료법이 있는 이상, 영원히 특별대우를 받으리라고 기대해선 안 되지. 저 체육관, 개인 사무실, 온갖 음악과 우스꽝스러운 장난감 나부랭이들 - 정상이 되면 다 필요 없을 것들이지. 비경제적이야. 터무니없는 일이지.”(P. 127)

크렌쇼는 A 부서의 자폐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지원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이것이 회사의 손실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며, 그들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크렌쇼의 부하직원 ‘올드린’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지적은 크렌쇼가 놓친 핵심을 정확히 보여준다.

> “잘못 생각하시는군요. A 부서의 지원 설비를 철거하면 이익보다 회사의 생산성 손실이 더 클 겁니다. 우리는 부서원들의 특수한 능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A 부서 직원들이 개발한 검색 알고리즘과 패턴 분석 덕분에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상품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죠.”(P. 30)

지적의 핵심은, 크렌쇼가 문제 삼는 ‘지원 설비’ 덕분에 A 부서 직원들이 더 큰 생산성을 발휘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자폐인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설비가 필요하고, 그것은 그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즉,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걸맞은 업무환경을 부여하는 것, 그들의 업무환경을 '향상'하는 것이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1장 2절에서 다룬 산업화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크렌쇼에게는 오로지 표준화된 업무 방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그는 A 부서 직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업무환경을 '수정'하려 한다. 지원 설비를 제공하는 것, 즉 장애인 각각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생산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크렌쇼는 일반화를 전제하는 그의 확신을 더욱 신봉한다. 크렌쇼의 이러한 태도로부터, 일상성에 의해 당연시된 일반화의 세뇌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심지어 크렌쇼는 A 부서의 직원들이 정상화 수술을 받지 않을 시, 그들의 존재가 회사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고려할 명분이 생긴다고 여긴다. 즉, 그는 강자의 위치에서 경제적 억압을 통해 A 부서 직원들에게 정상화 수술을 강요하려 한다. 크렌쇼가 경제적 억압을 통한 강요라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당연히 그것이 실제적 삶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가진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억압은 정치적, 사회적 억압보다 장애인의 삶, 나아가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Harvey(1993)는 이와 같은 경제적 억압을 '한계화marginalisation', 즉 "잠재적으로 심각한 물질적 결핍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근절될 수도 있는, 사회생활에의 참여 배제"라고 정의내린다. 크렌쇼가 가하는 한계화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게 더 큰 강제성을 띤다. "신체적 결함은 개인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별개의 틀을 강요하는데, 이 중 많은 부분이 사회조직의 차별적 형식으로 인해 악화되기(Gleeson, 2020)" 때문이다. 즉, 장애인은 애초에 그들에게 부적합한 사회환경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다.

> (...) 나는 보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살 집과 입을 옷이 있다 (...) 운이 좋다 (P. 63).
>
> 타이어보다 회사 일이 더 걱정이다.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또 지각해서 직장을 잃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P. 158).
>
> "전 자폐인이에요. 그게 저죠. 뭔가 길이 있어야 해요. 만약 해고당하면, 제가 달리 무슨 일을 하겠어요?"(P. 226).

이 세 인용문은 루가 스스로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이 아닌 '운'에 의해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여기고, 당장 터진 타이어보다도 회사에 지각할 것을 걱정하며, 자폐인으로서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

VOICEYE
voiceye.com

다. 즉,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지속적 수입을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한계화의 폭력성은 배가된다. 장애인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희소하므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그 수입원을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크렌쇼는 바로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적 약점을 이용하여, 정상화 수술에 한계화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살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포기해야만 하도록' A 부서의 직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체성의 수정, 탈정체성은 경제적 억압을 통해 이루어진다.

5) 억압의 내면화: 을의 동의를 통한 '재일상화'

이후, A 부서 직원들을 돕고자 했던 올드린의 노력 덕분에 크렌쇼는 해고당하고, 그들에게 정상화 수술은 더 이상 강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강요가 사라진 뒤 오히려 루는 수술을 선택하고, 정상인으로 거듭난다. 이러한 선택의 기본적인 이유는 수정의 요구에 경제적 억압이 결합한 강요의 방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교통 법규를 지킨다. 규칙을 따른다. 아파트에 평범한 가구를 놓고, 내 별난 음악은 아주 조용히 틀거나 헤드폰으로 듣는다.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데도, 진짜 사람들은 내가 변화하기를, 그들과 같아지기를 바란다. (P. 63)
>
> 상담사들은 우리에게 법적 지원이나 살 집을 구해줄 줄 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이해할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언제나 정상인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라고 권한다. (P. 189)
>
> 책에는 자폐증은 뇌에 문제가 있다고 쓰여 있었다. 그 말은 나를 반품되거나 버려져야 하는, 결함이 있는 컴퓨터처럼 느끼게 했다. 모든 개입, 훈련은 못 쓰는 컴퓨터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에 불과했다. 못 쓰는 컴퓨터는 결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나도 마찬가지였다(P. 229).

이처럼 사회는 일반화를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장애를 비정상과 동일시하고, 장애인들에게 '정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세뇌한다. 즉, 정상으로의 강요(수정의 강요)는 루에게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었다.

이때, 기존의 강요들에는 현실성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다수가 루에게 정상처럼 살라고 요구했으나, 그들의 요구에 따라 루가 행동한다 한들 정상인을 흉내 내는 비정상인이 될 수 있을 뿐, '정상인'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루는 계속해서 본질적으로는 자폐인인

상태로서, 사람들의 강요에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크렌쇼에 의해 강요에 현실성이 더해졌다. 정상화 수술이라는, 완전한 정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됨으로써 그간 루가 가져왔던 정상에의 일말의 희구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정상화 수술에 결합한 '한계화'라는 억압까지 포함한 강요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한계화는 '살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을 조장함으로써 정체성을 수정하는 일에 명백한 당위성을 부과한다. 여기에 기존에 그가 가지고 있던 정상에의 희구가 결합하며 루는 '정체성을 수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로써 루 또한 일상성에 잠식된다. 장애가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 나는 내가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 때문이야." 내가 거듭 말한다. "나는 공항에 있을 때나 가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말문이 막혀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여기저기에 가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줄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싶어..."(P. 449)

이 인용문의 핵심은, 루가 "나 때문이야"라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자폐인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억압을 당하는 것이 루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여기저기에 가 볼 수 없고 배울 수 없었던 것의 원인이 루 자신에게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본 연구자들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오히려 본고에서 계속 견지해온 입장과 같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인위적인 개념 속에서 장애인들이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보장하지 않고, 그들을 '필요에 맞게' 수정하려 한 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모든 권력은 을이 동의함으로써 정당화된다. 결국 루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랑하던 본래의 자아를 잃고, 사회의 목소리에 현혹되어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부당한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일상성을 구축한다. 사회제도의 피해자가 자신을 억압하던 제도에 동조하게 됨으로써,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요한 행위자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결국 동일한 폭력적 관행을 '일상화'시킨다. 당사자가 사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현재의 사회가 별 문제 없다고 여기게 된다. 정리하자면, 사회는 경제적 억압이라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체성을 수정해야 하게 강제하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수정에 수락하게 됨으로써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2030 세대는 장애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혐오를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VOICEYE
voiceye.com

6) 소결

지금까지 Elizabeth Moon의 소설『어둠의 속도』를 통해, 일상성 뒤에 가려진 폭력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끼던 루는 일반화로 인한 사회의 부당한 편견에 의해 점점 고통을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이 회의는 한계화를 통한 크렌쇼의 정상화 수술 강요에 의해 극으로 치달았다. 루는 결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부정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수정을 받아들인다. 사회는 인위적으로 규정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에 맞춰 장애인을 분류하였고 이 분류에 의해 장애인을 일반화하였다. 또한, 일반화로부터 장애인의 정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수정하려는 시도만이 팽배해졌고, 크렌쇼는 이 부당한 사회구조를 이용해 경제적 억압을 가함으로써 수정을 강요하였다. 즉 사회는 장애인에게 끝없이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인과고리를 만들어 장애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2030 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2030 세대의 문제의식을 말소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 2030 세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사회의 구조가 이처럼 장애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고, 그 인과가 매우 탄탄히 유지되고 있다면, 과연 일개 시민의 행동이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다음 장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3.『아몬드』와 탈장애

1) 혐오에서 탈장애로의 이행

앞선 논의를 통해 정상이라는 개념의 규정이 인위의 산물이며, 그것이 탈정체성이라는 잠재적인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의 결론으로써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자기 성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Apologia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앞서 SCP 재단의 분석을 통해 보였듯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자체에서 폭력이 기인하고, 이 구분은 결코 본질적이지 않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자체를 파괴하는 탈장애적 사고'가 될 것이다.

정확히 말해, 탈장애란 사회가 규정한 정상과 비정상의 틀, 그리고 일반화된 장애의 정체성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즉 장애라는 정체성 하에서 일반화되고, 비정상으로 규정되어 버린 개인을 그 틀로부터 꺼내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탈장애란 탈정체성에 의해 장애라는 특징 하에 귀속되어 있던 장애인의 다면적인 정체성을 모두 해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개인을 어떤 특정한 정체성에 귀속시키지 않고 '사람' 그 자체로 보는 시선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이와 같은 탈장애적 사고의 원리와 효능을 보이기 위해, 손원평의 소설『아몬드』를 분석함으로써 그가 탈장애와 연대의 사고관을 보여주었던 방식을 따라가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아몬드』속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분석해야 한다. 앞서 다룬 두 문학텍스트와 마찬가지로,『아몬드』속 사회의 시선 또한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이분법을 내포한다.『아몬드』에는 그러한 사회의 이분법적 시선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인물 유형이 등장한다. 수정형, 포기형, 그리고 개혁형 인물이 그것인데, 본고에서는 소설 속에서 각각의 유형이 이분법적 시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중 탈장애적 태도를 보이는 개혁형 인물은 소설 속에서 인물간 연대를 가능케 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런 탈장애적 장치가 소설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그것이 상처를 주고받는 인물에게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살펴본 뒤 이를 현실 사회에 적용시킬 것을 최종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2) 정상화를 통한 폭력의 양상: 수정형 인물

『아몬드』에서도 사람들은 장애인을 '정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 소설 속 주인공 '윤재'는 '감정표현불능증'이라는 이름의 병, 즉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를 근거로 사회는 윤재를 비정상으로 규정짓는다.『아몬드』속 사회도 주인공 윤재의 수많은 존재적 특성을 오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고, 피해야 할 사람, 말 그대로 '보통'이 아닌 아이로 규정한다.

사회가 가하는 '비정상'이라는 규정은 비단 의학적 손상을 가진 윤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작품 중반에 등장하는 '곤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거듭하며 자라온 거친 소년이다. 소설 내에서 곤이는 윤재처럼 의학적인 손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비정상이라고 규정되는 인물이다. 이렇듯 소설 속에서 윤재와 곤이는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시선을 투여받는 인물로 설정된다.『아몬드』에서는 이러한 시선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드러난다. 첫째로, 이 절에서는 사회의 이분법적 시선을 수용하여 누군가를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정상으로 수정하려는 인물인 '수정형 인물'에 대해 분석하겠다.

엄마는 '희로애락애오욕 게임'까지 만들었다. 엄마가 상황을 제시하면 내가 감정을 맞혀야

VOICEYE voiceye.com

> 한다.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준다면 느껴야 할 감정은? 정답은 기쁨과 감사.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느껴야 할 것은? 정답은 분노. 이런 식이었다(P. 37).

윤재의 엄마는 수정형 인물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그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주입해 윤재를 최대한 정상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어떻게든 윤재가 정상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처럼 정상성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앞선 논의에서 다룬 바 있다. French(1994)가 '숨기기' 가 때로는 장애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가 된다고 주장했듯 수정형 인물 또한 일견 윤재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상 폭력을 가하고 있을 뿐이다.

작품에는 윤재의 엄마 외에도 수정형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그는 곤이의 아버지인 '윤교수'이다. 상술하였듯, 곤이는 사회의 낙인으로 인해 비정상으로 규정된 인물이다. 곤이는 유복하고 명망있는(즉, 정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윤교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실수로 실종된다. 그는 중국인 노부부 밑에서 자라다가 소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후 원래의 부모와 재회하지만 그런 상황을 거부하고 도망친다. 이렇게 성장한 곤이는 방황을 거듭하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린다. 이런 곤이를 친아버지인 윤교수는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겠다.

> "그 사람이 날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알아? 강남에 있는 학교에 날 처넣은 거야. 거기 가면 내가 모범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라도 갈 줄 알았나봐. 근데 첫날 가보니까 나 같은 놈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물인거야. 날 보는 눈빛 하나하나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 그래서 깽판을 좀 쳐 줬지. 거긴 얄짤 없더라. 며칠만에 쫓겨났어. (...) 난 아들이 아니야. 잘못 찾아온 잡동사니지."(P. 166)

윤교수가 보기에 곤이는 사회적으로 비정상인 아이였고, 따라서 그는 곤이를 최대한 정상화하려고 했다. 즉 윤교수 또한 수정형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아몬드』의 수정형 인물들은 비정상으로 규정된 인물의 정상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저자는 그것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곤이는 사회적 시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사회의 정상화 노력에 정면으로 맞닥치나, 그는 그러한 노력을 향상이 아닌 수정의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거부한다. 2장에서 보여주었듯 수정이 낳는 탈정체성은 비정상으로 규정된 이들에게 심각한 폭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에 대한 반발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윤재는 감정을 못 느낀다는 특징 때문에 사회적 시선을 인식하기 어려워 타인의 규정에 무감각하고, 따라서 그는 자발적 수정의 동기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아몬드』속 수정형 인물의 정상화 노력은 성사되기 어렵다.

3) 정체성의 포기: 포기형 인물

설령 수정형 인물의 노력이 성사되기 어렵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비정상으로 규정된 인물들에게 모종의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작중 곤이는 수정형 인물인 그의 아버지와 사회에 의해 가장 많은 폭력을 당한 인물이다.

곤이를 가장 잘 이해해줘야 할 그의 부모는 오히려 곤이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되어버린 그의 정체성은 사회에 의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성'의 대변자인 윤교수에 의해 그는 비정상으로 분류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소설 속에서는 곤이와 비정상의 동일시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 인용문은 곤이가 받는 차별적 시선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 "그렇구나. 그럴 거 같았어. 그래서 고집 안 피웠어. 한 번 말했거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근데 소용없더라고. 입 아플 거 같아서 가만있었는데, 아빠라는 작자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바로 갚아 버리데."(P. 215)

수학여행 중 현금다발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곤이를 의심한다.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가 '비정상'으로 규정된다는 사실뿐이었다. 이 역시 일반화에 의한 폭력이다. 물증보다도 확신에 의거해 판단하는 태도는 2장에서 크랜쇼가 보여주었던 일반화의 강력한 힘을 연상시킨다.

특히 곤이가 "차라리 말이야, 내가 더 나쁜 짓을 저질러 버릴까? 어쩌면 다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잖아?"(P. 205)라고 자조하는 장면은 사회의 압박에 대한 곤이의 내면의 상처가 정체성을 포기하려는 생각으로 발전됨을 보여준다. 사회가 지정한 자신에 대한 비정상과 정상의 틀을 인정해버리고 주체성을 잃어버린 아몬드의 곤이와 같은 인물을, 본 연구자들은 '포기형 인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VOICEYE voiceye.com

4) 정상과 비정상의 파괴: 개혁형 인물

윤재 또한 곤이와 같이 수정의 시도를 수없이 경험했기에 포기형 인물이 될 소지가 다분했으나, 그에게는 '감정표현불능증'이라는 특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윤재는 사회의 시선이나 수정의 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문제는 심각해졌다. 어느 날 하굣길에 내 앞을 걷던 여자애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걔가 엎어진 채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애가 일어나길 기다리며 여자애의 뒤통수에 매달린 미키마우스 머리 끈만 바라봤다. 하지만 넘어진 애는 자리에서 울기만 했다. 갑자기 그 애의 엄마가 나타나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곤 나를 흘기며 혀를 찼다. ―친구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물어볼 줄도 모르니? 소문은 들었지만. 애가 정말 보통이 아니네. (P. 20)
>
> "할멈, 사람들이 왜 나보고 이상하대?"(P. 21)

감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없다는 윤재의 특징이 소설의 진행에서 사회의 시선에 자극받지 않는 특성으로 참신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아몬드의 저자는 윤재에게 이러한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규정적 폭력에 대한 그의 고통을 무마한다. 윤재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정상이라고 여기더라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정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즉, 윤재는 사회의 시선이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몬드』와 『어둠의 속도』 모두 포기형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수정형 인물의 강압이 포기형 인물의 자기파괴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어둠의 속도』의 주인공은 자기파괴로 나아갔으나 『아몬드』의 곤이는 그러한 자기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몬드』의 저자는 사회의 규정과 수정에서 곤이를 구원해줄 수 있는 인물을 주인공 윤재로 설정했는데, 여기서 윤재의 특별한 능력이 서사의 장치로 활용된다. 정상과 비정상을 초월하여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윤재의 능력이 곤이를 방황에서 구출한다.

> "내가 그동안 널 왜 찾아간 줄 알아?"
>
> "아니"
>
>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하나는, 적어도 너는 다른 사람들 처럼 날 쉽게 판단하지 않더라고. 네 별난 머리 덕에"(P. 168)

인용문은 곤이가 윤재에게 그를 계속해서 찾아갔던 이유를 밝히는 장면이다. 곤이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윤재는 남을 함부로 재단하는 모습을 일절 보이지 않는다. 그의 감정표현불능증에 의해, 타인을 일종의 정서적 요인에 의해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편견에 의거하지 않고 오로지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윤재는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성이란 무엇인지까지 고민하고, 정상성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폰과 대화하기 어플'에서 인공지능에게 정상적인 게 어떤 것인지 질문하고 남들과 비슷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다 다른데 누구를 정상의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질문한다. 그가 정상적으로 살길 바랐던 엄마의 메시지를 윤재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그는 엄마에게 소설『B 사감과 러브레터』에서 B 사감의 1인 연극을 본 여학생들의 다양한 반응 중 어떤 여학생의 반응이 정상적인지 묻는다. 소설의 후반에 이르러서야 윤재의 이러한 고민의 해답이 드러난다.

>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
>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
>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P. 245).

위 인용문은 어떤 것이 정상적인지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윤재가 내린 해답이다. 윤재에게 있어 정상성은 학습된 것이다. 희로애락애오욕 놀이부터 시작해, 그는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상인들의 수많은 행동양식을 학습했다. 하지만, TV 속 난민 아이가 죽어갈 때는 멀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외면하는 사람들과, 광장에서 살인사건이 났을 때 무서워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사람들은 그가 배운 '정상적인'사람과는 반대되는 인물이었다. 어쩌면 그동안 배워 온 바와 달리, 이들이 비정상이었던 것은 아닌가? 윤재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비정상이라 규정하는 것에서 모순을 느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늘 그래왔듯이 그저 타인을 '그 자체로'바라보면 될 뿐, 일체의 규정에 매달릴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정상과 비정상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파괴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정상과 비정상의 틀을 부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인물형을 '개혁형 인물'로 정의하겠다.

VOICEYE
voiceye.com

5) 개혁형 인물의 탈장애적 연대

소설 속 개혁형 인물인 윤재는 다른 유형의 인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수정형 인물인 윤교수를 변화시키고, 포기형 인물인 곤이를 고통에서 해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곤이를 어떠한 규정 하에도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윤재의 모습을 보고, 윤교수는 곤이를 수정하기 위해 행했던 일들이 폭력적인 강압이었다는 것과, 진정한 사랑은 수정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과거를 후회한다. 그러한 윤교수와 대조되는 윤재는 곤이에게 폭력을 당하고도 곤이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윤교수의 반성을 유도한다.

포기형 인물인 곤이는 작품의 말미에, 자기 포기의 방법으로서 음지의 폭력배인 '철사'를 찾아가고, 윤재는 곤이의 본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구하러 간다. 끝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악의 축으로 떠난 곤이를 끝까지 믿은 윤재 덕분에, 결국 곤이는 자신을 구하려고 위험에 몸을 던지는 윤재를 위해 본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철사를 뿌리친다. 윤재를 통해 곤이는 스스로의 본질적 정체성을 되찾게 된다. 즉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이 아닌, 윤재의 표현처럼'감정이 풍부하고(P. 243)', '착하고 좋은(P. 223)'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정상과 비정상을 초월하여 상대방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윤재를 주인공으로 세워 독자에게 탈장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윤재가 보여주는 탈장애적 시각은 2장에서 다룬 탈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의 다면적 정체성은 탈정체성에 의해 '장애'라는 일면적 정체성 하에 모두 귀속된다. 하지만 장애라는 구분을 타파한다면 그 속에 갇혀 있던 모든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탈장애적 시각은 '연대'라는 구체적 행동과 연결된다. 규정은 배제와 분리를 함축하고, 이로부터 모든 혐오와 차별, 폭력이 파생된다.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주된 원인은 그들의 '다름'에서 오는 공포에 있다. 하지만 탈장애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개인 간의 다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대상의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차별에서 연대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모든 규정의 울타리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갈라져 있던 모든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장애'로 분류된 인물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때의 편입은 장애인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1장에서 다룬 '통합'과는 다르다. 이처럼 모든 규정을 파괴한다면 '경계 밖'에 있던 존재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자는 윤재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는 시선을 가진 인물을 몇몇 보여준다. 이들은 여타 인물과 다르게 타인과 연대할 수 있었던, 서로의 아픔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물들이었다. 윤재 엄마의 친구였던 심박사는 사회가 윤재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러한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윤재를 그 자체로 바라봐 주었고, 탈장애의 태도를 통해 윤재의 성장에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윤재와 같은 반 학생 '도라'는 윤재의 감정표현불능증을 알게 되었음에도 윤재를 '비정상'이 아닌 그 자체로 바라본다. 특히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를 수정하려던 사회의 노력에도 감정을 느낀 적 없었던 윤재에게 도라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했던 인물이다. 저자는 이러한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이분법적 시선에 대한 비판과 탈장애의 가치를 제시한다.

6) 소결

지금까지『아몬드』속 세 인물 유형의 구분과 분석을 통해, 비정상과 정상의 규정이 무의미함을, 그리고 개혁형 인물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연대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단지 사회의 규정만으로 개인을 비정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기준이 비본질적임을 밝혔고, 그들을 정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 또한 당사자에겐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수정형 인물과 같이 타인을 비정상으로 규정하여 정상화하는 노력은 성사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화의 당사자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의 당사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포기형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곤이는 포기형 인물에 속하는 인물로서, 수정에 의한 폭력으로 정체성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다. 그는 타인을 일말의 규정에도 귀속시키지 않고 그 자체로 바라보는 개혁형 인물인 윤재의 연대적 노력으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규정적 시선을 넘어 상대와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개혁형 인물을 오늘날의 장애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려 한다.

III. 결론 및 논의

1. 결론

연구자들은 2021년과 2022년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한 화두였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2030세대의 혐오 인식 증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문학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혐오에 대한 Apologia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Apologia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의 모습을

KCI VOICEYE voiceye.com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편의 문학텍스트『SCP 재단』,『어둠의 속도』,『아몬드』의 분석을 통해, 일상성과 그 뒤에 은폐된 탈정체성을 규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인 탈장애까지 제시하며 총체적인 분석을 행했다.

『SCP 재단』은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 등의 규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현실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이고 인위적인 것임을 드러내었다. 또한, 사회가 인위적 규정을 그럴듯한 명분 하에 정당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당화를 통해 일상성이 촉발되는 순간, 규정의 인위성 자체는 은폐되고 사람들은 이를 당연시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억압은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다. 즉, 2030 세대의 장애 혐오가 사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적 규정에 그 원인을 두고 있었음을 밝혔고, 혐오의 원인이 전적으로 2030 세대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어 그들에 대한 옹호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2030 세대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차별적 사회 구조의 모습과 폭력의 양상을『어둠의 속도』의 분석을 통해 보였다. 주인공 루 애런데일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은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일반화를 통해 장애인의 다면적인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과, 장애를 당연히 정상으로 이행해야 할 상태로 여기는 태도는 장애인의 정체성을 무시함으로써 '탈정체성'이라는 존재론적 위기를 야기한다. 이를 통해 일상성에 감추어져 있던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아몬드』의 분석을 통해서 '그렇다면 2030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였다. Apologia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폭력적 태도 대신 취해야 할 새로운 태도를 제시한 셈이다. 주인공 윤재와 곤이가 보여주는 정상과 비정상 개념의 무의미함을 바탕으로, 탈정체성을 해결하고 규정을 초월할 수 있는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혐오 문제 해결의 초석임을 밝혔다.

2. 논의

본고에서 보여준 Apologia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상성 뒤로 은폐된 탈정체성이라는 폭력을 가시화함으로써 2030 세대를 옹호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문제를 파악하여 단지 2030 세대에게서 혐오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 사회 구조 전체를 성찰하여 근본적 문제를 발견해내는 방법을 본고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가 이어져 오늘날 장애 혐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들은 2030 세대가 정상과 비정상의 사회적인 규정을 넘어서 장애인에 대해 탈장애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문학텍스트 '아몬드'를 통해 탈장애를 행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 윤재가 바로 탈장애적 시선을 보여주는 장본인이다. 이를 본고에서는 '개혁형 인물'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인물은 장애와 정상성을 비롯한 모든 규정을 파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계지어진 이들 간의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윤재와 같은 태도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연대는 오늘날 사회에 만연한 혐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태도이다. 1장을 통해 살펴보았듯, 혐오의 원인은 공포와 불편함이다. 장애에 대한 공포는 인위적인 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므로, 장애에 대한 규정은 곧 혐오를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일말의 규정조차 배제하고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만 바라보려는 연대의 태도는 존재자 간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는 공포를 저하시킴으로써 혐오의 약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더 많은 2030 세대가 탈장애적 연대를 습관화한다면, 혐오와 갈등이 보다 줄어든 사회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KCI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김도현. (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서울: 도서출판 메이데이.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 읽기. 서울: 그린비.

김민령. (2021). 포스트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 - 아동청소년 SF 서사를 중심으로. 아동청 소년문학연구, 29, 269-299.

김세령. (2015). 한국 장애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 현대소설연구, 52, 217-255.

박성애. (2018).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윤리성과 전복의 상상력. 아동청소년문학 연구, 22, 323-350.

박성애, 윤상용. (2020). 청소년소설에 나타나는 타자성의 공간과 타자의 존재 방식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84, 339-362.

비마이너 (2022).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혐오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애인활동가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2

손원평. (2017). 아몬드. 파주: 창비.

이동희. (2014).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과 담론의 극복.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7(4), 163-190.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서울: 교양인.

차희정. (2012). 장애인 소설에 나타난 '장애' 인식의 양상 - 장애인 창작 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62, 331-356.

최선희, 이승희. (2008). 한국소설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3.3, 101-120.

한겨레 (2022) 서울대 학생 545명 "전장연 향한 혐오 메아리 부끄럽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560.html

SCP 재단. (2021). 크리스크의 제안 - SCP 재단. 크리스크의 제안 - SCP 재단. http://scpko.wikidot.com/crssk-s-proposal

SCP 재단. (2022). SCP 재단에 대하여 - SCP 재단. SCP 재단에 대하여 - SCP 재단.http://ko.scp-wiki.net/about-the-scp-foundation

SCP 재단. (2021). SCP - 001 - SCP 재단. http://scpko.wikidot.com/scp-001

SCP 재단. (2021). SCP - 001 (잠금 해제). http://scpko.wikidot.com/wjs-proposal-1

SCP 재단. (2021). WJS의 제안 - SCP 재단. http://ko.scp-wiki.net/wjs-proposal

Devileger, P., & Rusch, F., & Pfeiffer, D. (2021).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이동석, 이하림, 이유림 옮김). 서울: 그린비.

French, S. (1994). *On equal system: working with disabled people.* Oxford: Butterworth-Heinemann.

Ghosh, A. (2021). 대혼란의 시대(김홍옥). 서울: 에코리브르.

Gleeson, B. (2020). 장애의 지리학(최병두, 임석희, 이영아 역). 서울: 그린비.

Harvey, D. (1993). *Class relations, social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Keith, M. & Pile, S. (eds), *Place and Politics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Kristiansen, K., & Vehmas, S., & Shakespeare, T. (2020). 철학, 장애를 논하다: 메를로-퐁티와 롤스에서 호네트와 아감벤까지(김도현 역). 서울: 그린비.

Moon, E. (2021). 어둠의 속도(정소연 역). 파주: 도서출판 푸른숲.

Shah, S., & Priestley, M. (2014).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변화하는 사회 속 장애청소년들의 이야기(이지수 역). 서울: 그린비.

Shakespeare, T. (2002). 장애학의 쟁점(이지수 역). 서울: 학지사.

Smith, S, R. (2001).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lent: A defence of justice as reciprocity, Journal of Politic Philosophy*, 9, 19-37.

Stiker, H. J. (1991). *De la métaphore au modele: l'anthropologie du handicap.* In Devlieger, P. J., Rusch, F. R., & Pfeiffer, D. (eds.). (2021).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이동석, 이하림, 이유림 역). 서울: 그린비.

Stiker, H. J. (2021). 장애: 약체들과 사회들(오영민 역). 서울: 그린비.

Thomson, R. G. (2015). 보통이 아닌 몸(손홍일 역). 서울: 그린비.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10.	게재확정 : 2022. 11. 30

VOICEYE
voiceye.com

Abstract

Apologia for the Inherited Hatred of 2030 Generation:

A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Literary Text about Dailyness, De-identity, De-disability

Jung Sir Vin*·Yu Eun Bin·Lee Ui G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ot causes of hatred in the generation of 2030 as well as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the violence that broke out during the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s rallies. Apologia, which is defined as "defending individual beliefs with self-reflection", can be used to accomplish this goal. The researchers will first defend the 2030 generation by arguing that hate is a result of unfair discrimination that has persisted for a very long time. Next, We'd like to engage in some self-reflection by objectively analyzing and showing the nature of violence committed nowadays. Finally, by offer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isability prejudice in today's society, we hope to realize the worth of Apologia.

In order to have a thorough discussion of this, three literary texts—SCP Foundation, The Speed of Dark, and Almond—were studied using a study methodology called 'literary text analysis'. We attempted to convey "support", "self-reflection", and "conclusion of reflection" through each literary work. To this end, talks concerning the notions of "dailyness," "de-identity," and "de-disability" were held. The study's findings revealed that

*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Philosophy, Soongsil University
**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Philosophy, Soongsil University
***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Philosophy, Soongsil University

today's society has normalized the issue of aggressive and discriminatory institutions, which is approaching the disabled as de-identification violence. As a solution to this constant aggression, it was suggested to adopt a de-disability gaze.

Keywords : Disability, 2030 generation, Apologia, Dailyness, De-identity, De-disability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283 - 308

어플리케이션 비대면 진료, 처방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치료명령제도 및 외래치료지원제도 모델 제안: 국내와 사례 및 피드백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수*·고여정**

현재 발달장애인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뀜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점차 강화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발달장애인도 강제로 외래치료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래치료지원의 순응도가 높지 않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 치료감호를 받을 경우 그 사후관리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외래치료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이나, 형기를 이미 마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교육학적으로 치료나 행동변화 교육적 목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진료와 발달장애인의 치료명령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기존의 원격진료 국내외 사례분석과 그에 대한 반응을 질적분석을 통해 모델을 제시한다.

기본적인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의 틀을 담되, 발달장애인의 진료에 맞게 비디오 통화 기능을 담고, 사회복지사, 교육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의 협력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한다.

이를 통해 통원진료가 어렵고 순응도가 낮았던 발달장애인의 외래치료지원 및 치료감호 사후지원을 실효화 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통원 보조 부담 역시 경감해 줄 수 있다.

주제어 : 원격진료, 발달장애인, 외래치료지원, 비대면진료, 어플리케이션

* 중앙대학교 법학과 석사
**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학부

Ⅰ. 서론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의 일탈행위나 이에 대한 심신미약 판결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비난과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치료감호의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1)]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지적장애인의 재범방지와 동시에 사회로의 연결, 사회와의 화해를 위한 대체방안으로 치료감호법상의 치료명령제도와 정신보건법상의 외래치료지원제도가 각각 도입되었다.

치료감호법상의 치료명령제도는 형법상의 유죄판결을 받고,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와 함께 정신적 치료에 대한 강제적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며[2)], 정신보건법상의 외래치료지원제도는, 타인을 해한 행위를 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의무자나 행정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3)] .

1.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은 치료대상자의 치료순응도와 치료의 현실이다.

현재 각각의 법규정에서, 치료명령의 경우 강제성은 있지만 외래치료지원의 경우 거부할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여 외래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입원 등을 강제하고, 대상자에게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줄 경우,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근거가 없으며,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필요치 않은 입원을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에 맞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치료명령제도는 강제성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매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하는 점이 더 밀도 있는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낮추며, 그마저도 치료시설의 인력난, 그 밖의 예산 부족 등 많은 논란이 있다.

따라서 치료명령, 외래치료지원을 받은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아날로그적 방식에

---

1) 뒷전으로 밀리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감호' - 정신질환자 범죄 크게 늘고 재범률도 65.4% 기록, 2022. 03. 07, 법률신문 뉴스, 임현경 기자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3) 정신보건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37조의2(외래치료지원)

VOICEYE
voiceye.com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발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치료, 처방,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등 디지털 관리의 방안을 활용하면 현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많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진료참여가 간편해진 만큼 환자의 순응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느 정도의 관리와 강제성은 이미 있는 법의 강제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플랫폼의 장점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각 분야별 협력 전문인력들이 함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을 통해 외래치료 명령과 치료감호 후 발달장애인의 일탈행위를 최대한 줄이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사회에 피해자들 역시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배경 / 기존의 연구문헌 고찰

1. 명령대상자의 규제에 초점이 되어있는 기존 연구와 여론

발달장애인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이나 치료감호 등의 제도에서 장애인의 치료순응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많은 언론이나 여론, 연구들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치료받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가 이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적은 현실이다. 그러한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기관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치료명령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연유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시국이 합쳐져 의료 어플리케이션, 비대면 재택진료가 각광 받고 있는 바, 이러한 문명을 발전이 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발달장애인에 대한 강제성 부여의 장단점

발달장애인이 외래치료지원을 받게 될 경우 환자의 순응도는 중요하고, 그에 따라 치료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옳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환자와 보호자의 이동은 쉽지 않으며, 진료를 매번 통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인지도 고려해야한다. 또한 환자가 진료를 괴롭고 강제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감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적 순응도 역시 중요하다.

강제력을 동원해서 환자를 치료명령 받게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발달장애인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중간단계와 메개채가 부족한 실정이다. 강제력은 또한 이미 법률로 정리되어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외래치료 명령 등)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자에 대하여 필요시 강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부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외래치료지원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 순응도나 환자 참여 등의 문제점은 계속 부각 되고 있다. 강제력은 능사가 될 수 없으며, 외적 동기(강제력)만을 앞세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행위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발달장애인 인권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되는 물리적 통원과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가족들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만큼, 비대면 진료, 복지 어플리케이션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다양한 의료, 사회복지, 행동변화 어플리케이션들을 분석하고, 이를 외래치료지원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는 질적연구의 모델로 수행될 것이다.

해외에는 이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기에, 이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외래치료지원, 치료감호 외적으로 사회재활 복지 측면에서까지 어플리케이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영감을 얻기 위해 국내외 사회복지, 행동변화, 비대면진료 어플리케이션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성과 등을 수치화 하여 틀은 질적 분석, 그 안에서 양적 분석의 요소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외래치료지원의 순응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의료, 교육(행동변화), 사회복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 본인 뿐만 아닌 그 가족들의 편의성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임을 가정한다.

Ⅳ.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그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 캐나다의 성공적인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국내의 원격진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분석대상이

KCI VOICEYE voiceye.com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의 반응, 피드백 역시 분석대상이 된다.

V. 자료 분석

1. 해외 자료

1) Stationmd 웹사이트 (미국)[4]

〈표 1〉 Stationmd 웹사이트 (미국)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본 원리	원격 진료(비디오 관찰 포함), 처방
주목할만한 기능	비디오를 통한 환자관찰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비디오를 통한 환자관찰을 통한 원격진료

(1) 웹사이트 원리

환자나 환자 가족이 station md 에 전화를 하면 의료진이 연락을 받아, 가정과 비디오 회의를 하게 되며, 비디오 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statio md 는 팀으로 이루어지며, 기술지원팀과 전문의료진이 협동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의료적인 부분을 완성한다.

(2) 기술의 발전에 따른 원격진료의 효과성

예전에는 환자의 행동관찰을 위한 충분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거의 실제와 같은 가상현실을 점차 구현해가고 있으며, 충분한 화질과 음질의 비디오 원격진료를 통해, 오히려 환자의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하고 반응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elemedicine(원격의료)를 통해 특히 초진이 지난 후 경과관찰 등에는 더욱더 효과적인 관리가 예상되며,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환자의 반감이나 가정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4) Sationmd (2022). https://stationmd.com

(3) 다양한 기관과 연계의 플랫폼이 될 수도

복약이나 원격진료로 커버되지 않는 케어나 복지사의 역할의 부분은 가정방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tatiomd는 개별 환자를 상대로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정부나 기관의 수주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외래치료지원, 치료감호 사후관리에의 시사점 - 우리나라 역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성공적인 외래치료지원의 순응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초진에도 자연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비디오 진료로 활용할 수 있고, 초진은 여기에 더해 방문진료를 하더라도 재진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환자의 순응도 올리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또한 원격진료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 시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어플리케이션이 하게 되어, 다양한 인력의 팀이 구성되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면 상황별로 유연하게 환자를 케어할 수 있을 것이다.

2) LiveHealth Online Mobile (미국)[5)]

〈표 2〉 LiveHealth Online Mobile (미국)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본 원리	원격 진료, 처방
주목할만한 기능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어 가능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시간이 여의치 않은 사람, 외국인 발달장애인 환자들에게 원격으로 적절한 상담, 진료 제공 가능성

LiveHealth Online Mobile은 미국의 또 다른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은 아니며, 일반적인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생각할 때, 전형적 성공모델을 잘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1) 어플리케이션 원리

환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플랫폼의 의료진들에게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비디오 진료, 처방, 약국 검색 역시 가능하다.

---

5) LiveHealth Online Mobile(2022).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mericanwell.android.member.wellpoint&hl=en&gl=US

(2) 주목할만한 기능

보험적용이 필요한 환자는 이 역시 직접 선택하여 환자 스스로가 원무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스페인어 등을 제공하여(미국에는 스페인어 사용 외국인들이 많다) 외국인 환자에게 접근성을 보장한다. 또한 의료진 뿐만 아닌 테라피스트 등 역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동하고 있어 협동 케어가 가능하다.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형에 적용할만한 점

이러한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들은 공통적으로 내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며, 진료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LiveHealth Online Mobile이 외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등 타국 언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감을 얻어본다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언어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이용시 플랫폼 차원으로 정형화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과 진료안내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플랫폼상에서 활동하며 손쉽게 발달장애인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험적용 등 환자 가정이 고민하게 되는 측면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이 커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LiveHealth Online Mobile 어플리케이션의 긍정적인 리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적용관련 문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리뷰가 있었다.

(4) 사용자들의 리뷰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뽑았다. 문서 작업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점에서 만족하는 리뷰도 있었다.

3) PlushCare: Medical Doctor Care[6)]

〈표 3〉 PlushCare: Medical Doctor Care (미국)

웹사이트, 어플이케이션 기본 원리	원격 진료, 처방, 보험청구 가능
주목할만한 기능	365일 이용 가능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삶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접근성 개선

6) Plushcare (2022). https://plushcare.com

(1) 어플리케이션 원리

환자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원하는 시간대를 정하고 의료진과 약속을 잡아 보험정보를 입력한다. 다음으로 처방을 받은 뒤 약국과 마찬가지로 시간대를 정하여 약속을 잡고 보험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비디오 진료를 원할 시 환자는 비디오진료 약속을 잡을 수 있다. 진료 중 의료진은 환자에게 병력과 증상, 치료계획 등을 질문할 수 있다.

(2) 주목할만한 기능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다양한 의료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환자는 365일 휴일이라도 어디선가 진료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과 원격진료를 볼 수 있다. 근처의 의료기관이 열지 않았을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응급진료의 경우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나 환자 가정의 스케줄 및 여러 가지 사정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간과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 역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긍정적인 리뷰는 상당 부분 다른 어플리케이션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버그, 렉이 적었다는 리뷰이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형에 적용할만한 점

발달장애인은 이동 시 가족이 같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게 설득하고 데려가야 하는 등 체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이동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진료를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시간을 내서 직장 휴가를 내고 쉬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원격진료 플랫폼을 통해 일부 휴일진료를 보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가정에게 큰 도움일 될 것이다.

또한 앞서 논의했듯이 발달장애인의 가정이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이고, 발달장애인 본인이 사용하게 될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어플리케이션 본연의 기능인 간편성, 편리성에도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복잡하고 입력할 것이 많고 메뉴가 찾기 어렵지 않도록 개발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사용자의 리뷰

이 어플리케이션 역시 사용하기 간편하고, 원격진료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특

VOICEYE
voiceye.com

히 주중 24시간 어디선가 자신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진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4) Doctor on demand 웹사이트[7)]

〈표 4〉 Doctor on demand (미국)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본 원리	원격 진료, 처방
주목할만한 기능	Navigator, Community, 테라피스트 제도 통합운영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내자와, 어플리케이션 안의 테라피스트, 환자들의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제도로 회복을 돕는 기능 적용

(1) 웹사이트 이용 원리

여타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하지만 매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케어를 위해 주목할만한 기능들이 많다. 기본적인 원리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시간약속을 잡고, 자신의 보험정보를 입력하고, 원격진료 및 처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Navigation -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하여 navigator가 환자에게 붙어 환자의 치료과정이나 각종 보험과정 등을 밀도 있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navigator가 활성화되어 있어 환자가 navigation 안내를 통해 치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Communities-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정의 경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를 복돋고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해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들, 환자의 환경과 속성 등을 고려해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Behavioral Health - 행동변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치료와 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의료진과 테라피스트가 함께 활동하며 풀케어를 통해 환자의 장기적인 생활관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ll-Included Care - 위의 기능들을 포함하여, 긴급한 상황에서의 진료, 만성질환, 행동변화 테라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케어, 인력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활동하며 navigator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웹사이트에서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자 목표이다.

---

7) Doctorondemand (2022). https://doctorondemand.com

(2) 적용관련 논의점과 문제점

일단 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도입이 되면 정말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navigator같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인력을 따로 고용해서 운영하기도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고 어려운 점은 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정형화된 장애의 경우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되, 그렇다고 환자의 가정에서 예단하게 되지 않도록 의료진과의 면밀한 상담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community같은 기능은 정말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며 정서적 교류를 장려할 수 있고, 생활에서 크고 작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 지혜를 나눌 수도 있고, 건강한 사회활동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정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community에 대한 지원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community메뉴를 개발하여 서로 모이거나 대화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외부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Behavioral Health나 All-Included Care역시 완벽실현은 힘들더라도 지향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다양한 직군의 사람을 한 군데에 모을 수 있으므로 외래치료지원이나 치료감호 후의 진료를 받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나가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의 손길이 갈 수 있다. 테라피스트, 사회복지사, 행동심리 전문가 등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의료진과 같이 활동하는 것은, 이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나라도 의료 navigator제도가 발달할 필요성이 있다.

5) I am sober[8)]

〈표 5〉 I am sober (미국)

웹사이트, 어플이케이션 기본 원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중독치료
주목할만한 기능	어플리케이션을 치료의 매개체로 활용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각 발달장애에 맞는 간단한 증상개선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에 도입될 수 있음

8) I am sober (2022). https://iamsober.com/

KCI VOICEYE voiceye.com

미국의 I am sober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알콜 중독자 등 중독과 관련하여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발달장애인 어플이거나,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치료의 과정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에 메뉴화 되어 담겨있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1) 어플리케이션 원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후, 사용자가 어떤 중독을 치료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이후 중독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자동으로 측정되며, 개개인별로 이정표 수립, 절약된 비용, 동기부여하는 자기 관리 등 다양한 심리학적 요소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알콜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트리거 분석' 메뉴에서는 어떤 트리거들이 자신을 알콜을 마시게 했는지 관리하게 해주는데, 이러한 메뉴 자체가 중독테라피의 한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리를 받고 테라피를 받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정표 추적기, 금주 계산기, 그만둔 이유기록 등등 알콜 치료에 대한 메뉴가 모두 따로 있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이 메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자체를 통해서 일상생활도 복귀하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설계되어 있다.

(2) 주목할만한 점과 발달장애인 치료 어플리케이션 반영사항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목할만한 기능은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이다.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중독자의 케어자로서 관여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AI시대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발전 방향성을 보여준다. 당장 발달장애인 치료명령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AI처럼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발달장애인이 힐링을 할 수 있고, 마음을 진정하고 작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기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여러 개의 질병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치료제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목표를 크게 잡는 것 역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어플리케이션이 디지털 치료제로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를 경우, I am sober 어플리케이션의 서약 부분이나 커뮤니티 부분에서 의료진이, 테라피스트가 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발달장애인이 치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훨씬 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용자의 리뷰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관리하며 치료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게 좋다는 리뷰가 있었으며, 행동강화와 수정, 교정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리뷰가 있었다.

6) NOCD[9)]

〈표 6〉 NOCD (미국)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본 원리	비디오 소통을 통한 즉석 상담, 피드백 제공
주목할만한 기능	비디오 소통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접근성 향상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각 발달장애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비디오 소통을 통해 가정에서 접하게 됨

(1) 어플리케이션의 원리

일단 이용자는 어플에서 제공한 영상을 시청한 이후, OCD치료사들과 상담을 하며,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자료와,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치료사들과의 즉석 상담으로 실시간의 소통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자 스스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한 영상도 보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공부하고 파악하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는 의의가 있다.

(2) 치료명령제도 및 치료감호 이후 관리에 활용 방안

이를 치료명령제도 등에 활용한다면 치료대상자가 여러 가지 교육영상을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거부감이나 나태함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의무성 부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내용이나 이용 자체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다.

또한 행동교정가나 테라피스트, 사회복지사와 정기적으로 실시간 영상통화, 비디오통화를 하며 경과도 관찰하고 그들과 발달장애인의 라포 역시 쉽게 쌓아갈 수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

9) NOCD (2022). https://www.treatmyocd.com

에서는 복지사들이 장애인 가정에 집집마다 방문하기도 하는데, 그 시간과 비용,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복지사의 입장이나 가정의 입장에서도 준비할 것도 많고 힘든 과정이다. 따라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봉사자를 많이 쓰는 실정인데, 이렇게 해서는 장애인과 복지사, 행동교정가와의 라포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비디오 통화 등을 사용하면 그 빈도도 늘릴 수 있고, 라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서로가 편한 환경과 정서적 상황, 그리고 빈도를 늘릴 수 있다는 여러 면에서 행동교정과 치유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3) 어플리케이션 리뷰

환자와 함께 치료해나가자는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을 줬다는 리뷰, 커뮤니티성이 강한 점에도 긍정적인 리뷰가 있었다.

7) Maple Telehealth(캐나다)[10)]

〈표 7〉 Maple Telehealth (캐나다)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본 원리	원격 진료, 처방
주목할만한 기능	보험사 등과 협약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손쉽게 보험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약을 맺는 경우

(1) 어플리케이션 원리

Maple Telehealth라는 캐나다의 어플리케이션 역시 원격진료를 표방하고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여타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하게, 자신의 증상을 기록하면 그에 맞는 의료진와 매칭이 되고, 처방과 약 배달까지 받아볼 수 있는 원리이다.

(2) 주목할만한 특징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보험사나 고용주와도 파트너를 맺을 수 있어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략적 파트너들과도

10) Maple Telehealth (2022). https://www.getmaple.ca

파트너를 맺어 기술협력 등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외래치료지원 등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어플리케이션어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치료명령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속해있는 집단이나 회사와 연계하여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고, 보험사, 기술자 등과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다.

8) Dialogue(캐나다)[11]

〈표 8〉 Dialogue (캐나다)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본 원리	원격 진료, 처방
주목할만한 기능	진료 의뢰, 처방, 배송등의 효율적 운용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어플의 사용 간편성과 배송업체와의 연계도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어플리케이션 Dialogue는 캐나다의 어플리케이션으로 virtual healthcare clinic(가상 건강 클리닉)을 표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던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과 매우 유사하다. 캐나다는 특히 인구가 상대적으로 희박하고 땅이 넓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을 잘 반영하여, 가상 진료, 배송, 진료 의뢰, 케어 계획 수립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치료명령이나 치료감호 이후 관리에도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발달장애인 가정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게 유용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은 아무래도 가상진료와 배송, 케어 계획을 원격으로 관리받는 것이다. 초진이나 중요한 진료의 경우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가상 클리닉, 가상 진료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과 배송, 그리고 필요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케어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국내의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활용 현황

1) 닥터나우[12]

〈표 9〉 닥터나우 (국내)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본 원리	원격 진료, 처방
주목할만한 기능	우리나라의 변화를 볼 수 있음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통원이 힘든 발달장애인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원격진료 도입 기대

11) Dialogue (2022). https://www.dialogue.co/en/
12) 닥터나우 (2022). https://doctornow.co.kr

VOICEYE
voiceye.com

(1) 어플리케이션 원리

환자가 가까운 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고, 예약 시간이 되면 원격진료를 받고, 처방 받을 받고 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소개하였던 타국의 어플리케이션들과 비슷하고 간단한 방식으로써 제약 처방, 상담 등이 필요한 환자, 통원 순응도가 낮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2) 주목할 점

기존까지 원격진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미 외국에서 비디오 진료, 가상 클리닉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격진료의 가능성마저 없었다면 정말 힘들뻔했으나 다행히 닥터나우와 같은 성공 모델이 있다. 발달장애인 환자와 가정이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단거리라도 통원치료를 힘들어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받고 있는 경증, 재진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진료와 처방이 원격으로 이루어진다면 순응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임이 예상된다.

2) 닥터콜[13)]

〈표 10〉 닥터콜 (국내)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본 원리	원격 진료, 처방
주목할만한 기능	나의건강기록 기능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환자가 자신의 처방, 진료 등 기록을 기록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

(1) 주목할만 한 기능

닥터콜은 최근 '나의건강기록' 연동을 어플리케이션 내에 연동하였다. 비대면진료를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나의건강기록을 어플리케이션에 세세히 남기고, 보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방접종, 진료, 처방 등에 대한 기록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3) 닥터콜 (2022). https://drcall.global

(2) 치료명령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방안

치료명령을 받은 발달장애인들은 많은 경우 한두 차례의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진료와 행동교정 테라피가 필요하다.

따라서 닥터콜의 '나의건강기록'처럼 자신의 진료기록이나 자신의 치유과정, 행동교정 과정, 노력 등이 기록된다면, 그것을 참고하여 발달장애인 본인이 스스로 보고 성취감을 느끼고, 치료과정을 계획 관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가정에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 아주대병원 어플리케이션[14]

〈표 11〉 아주대병원 어플리케이션 (국내)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본 원리	진료 관리, 영상교육물 제공
주목할만한 기능	영상교육물 제공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영상교육물을 언제나 궁금할 때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 향후 프로그램화된 치유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

(1) 어플리케이션의 원리

아주대병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기본적으로 환자들을 위한 간편 예약 및 보험청구, 진료비, 검사결과 조회 등 편의 기능들을 구비하고 있다.

(2) 주목할만한 기능

아주대병원에서 만든 다양한 영상 컨텐츠, 교육물을 환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비디오, 가상현실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원격,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상 의료진이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정보들이나 기본적인 준수사항 가이드라인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아주대병원 어플리케이션은 아주대병원 유튜브와 연동하여 주요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 관리방법 등은 영상물로 제작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14) 아주대병원 어플리케이션 (2022).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ajoumc&hl=ko&gl=US

(3) 치료명령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적용 방안

발달장애인 환자들과 가족들의 경우 충분한 상담시간과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정보나 기본적인 정보의 경우 영상 교육물을 제작하여 환자에게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영상물 필수시청의 중요성을 보호자에게 강조하고, 이수를 의무화하며, 이수 여부를 지역 감독관이 체크하는 방식으로 관리 노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반복 재생함에 따른 효과적 교육 가능성 - 치료명령의 내용이 이런 영상 교육자료나 이에서 나아가 어플리케이션 내 발전된 프로그램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환자와 가정이 언제든 반복 재생,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잊어버렸을 시 다시 볼 수도 있고 가정환경에서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기에 효과적인 높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 - 처음에는 영상물의 형식으로 이수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 차후에는 미션을 완수하는 어드벤쳐 형식 등으로 학습자가 내적 흥미를 가지고 이수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이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4)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15)]

〈표 12〉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국내)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본 원리	건강기록, 커뮤니티기능 제공
주목할만한 기능	건강기록 기능과 커뮤니티 기능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기록하며 관리하고, 커뮤니티에 속해 소통하고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함

(1) 어플리케이션 원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헬스 기록을 어플리케이션에 기록할 수 있고, 각자의 목표치를 세워 공유할 수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끼리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소개된 어플리케이션들과 크게 다르거나 특징적인 기능을 하양하건 아니지만, 보건소의 어플리케이션이란 점에서 많은 국민들, 시민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5)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2022).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khealthmhc&hl=ko&gl=US

(2) 치료명령 프로그램에 활용가능성

이 경우를 치료명령프로그램에 활용할 경우, 치료명령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이수 활용도, 무엇이 잘 안되고 잘 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지역별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치료명령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성취도를 파악하여 우수 이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참여할 경우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대규모 데이터 정보화, 복지예산 투입 등)

또한 시군별 보건소에서 관리될 시 치료명령 이수자들이 오프라인 커뮤니티 등을 형성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의 과정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결국 성취도에 따른 앱 내 보상제공 등 다양한 게임형식을 차용하여 훨씬 더 흥미성을 부가하여 치료순응도를 높일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5) 부산지방검찰청 PSRP(Personalized Support for Recidivism Prevention)[16]

〈표 13〉 부산지방검찰청 PSRP(Personalized Support for Recidivism Prevention) (국내)

기본 원리	형사사법 지원 및 재활 지원
주목할만한 기능	체계화된 제도 활용 방법, 재활 체계 지원
발달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용	재활을 하는 데에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음

부산지방검찰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형사사법 지원 실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지적장애인 피의자들에 대해 PSRP를 실시하였음을 밝혔다.

PSRP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사법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인데, 개개의 발달장애인 범죄자에게 집중되고 특화된 방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활동보조사가 협동하여 체계적으로 발달장애인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멘토링을 하는 시스템이다.

전담변호사 법률상담, 역할극이나 그림카드 활용 교육,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선정하여 이동 보조, 대학생 멘토링까지 연계가 되어 발달장애인 한 명의 재범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이 짜여져, 다양한 인력이 투입되었다.

(1)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적용

이러한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한다면 PSRP는 더욱 쉽게 활용될 수 있다. 어플리케이

16) 부산지방검찰청 (2021. 5. 25.).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형사사법 지원 실시 “수사 시작부터 종결 후 자립까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보도자료

션 내에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치료를 전담하는 관리자가 프로그램 스케줄을 함께 파악할 수 있고, 그 안에 투입되는 인력들 역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인력투입이 가능하여 원활히 PSRP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관리한다면 순응도를 손쉽게 체크하며 높일 수 있고, 치료 효과 역시 높일 수 있게 된다.

Ⅵ. 자료분석결과 및 어플리케이션 모델 구상

1. 자료분석 결과

국내외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와 다양한 치료를 돕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분석한 결과, 각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이동이 힘든 환자나 발달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리뷰를 받았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치유의 수단이 되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원격진료 및 처방, 배송 연계 기능을 기초로 하여 교육자료,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기능,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장기적으로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어플리케이션일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성공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들은 공통적으로 단순하고 이용하기 간편한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되, 메뉴화를 체계화 한다면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2. 기본적인 모델 구상

따라서 기본적인 모델은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존의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의 공통적인 틀을 유지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구상해보았다.

우선 발달장애인들이 치료명령 등을 받을 때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에 1. 예약 시스템 2. 원격진료 연결 시스템 3. 처방 및 약 배송 시스템 4. 보험 등 서류처리 시스템을 구비한다.

발달장애인의 진료 특성상 비디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영상 통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약 시스템과 원격진료 연결 시스템은 기존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매칭 시스템이 사용되거나, 초진을 본 병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비디오를 통한 진료와 처방 순서로 이루어진다.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기 전까지, 증상이 심하고 장애에 따라 대면으로 행하여야 하거나 자세한 초진이 필수인 경우는 제외되어야 하며, 접근성이 좋지 않고 잦은 통원으로 생활에 지장이 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틀과 비디오 기능을 갖춘다면, 많은 경우의 통원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치료명령제도 등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접근성,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그동안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동 거부 등 각종 이동의 어려움 등의 장벽이 있었지만, 어플리게이션은 집에서 비디오를 틀고, 원거리의 병원이나 기관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유연하게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준다.

3. 추가적인 발달장애인 치료명령을 위한 기능

1) 가상현실 교육자료 코너

앞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웹페이지에서의 성공사례에서 각 진단명에 따른 기본적인 교육자료, 생활상의 유의사항 등을 자료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영상자료, 음성자료, 가상현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차 도입하여, 발달장애인이 반복숙달할 필요 있는 주의사항 교육, 정서를 안저시킬 수 있는 치유 영상 등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나 치료지원 관리자, 복지사 등은 업무로딩을 줄이고 대면시에는 여유를 가지고 꼭 필요한 말들을 위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를 비대면 진료시에 체크할 수도 있다.

2) 비대면 비디오 행동교정 코너

또한 복지사나 행동교정가가 비대면 비디오진료를 통해 가정의 모습을 관찰하고 진료를 하며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원격진료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바로 행동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행동교정 학습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정가는 가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할 기회도 많아진다.

3) 커뮤니티 코너

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내에 커뮤니티 코너가 있으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에 임할 수 있다. 그 가족 구성원도 다른 발달장애

인 가정과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들의 만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하고 이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인터넷 카페같은 곳에서 자율적으로 만났다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이 들어가고 관리를 해주는 주체가 있으면 집단 교육이나 교류의 장이 더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친밀감과 라포가 서로 형성되면, 치료명령 이행 참여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플리케이션 내에 커뮤니티가 있으므로 재미있는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한번이라도 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내의 알람 등의 시스템을 통해 치료명령 이수를 놓치지 않게 된다. 또한 그 치료명령 이수도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4) 가정방문 의료진, 사회복지사, 외부 인력의 협력적 연계 가능성

위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았듯이, 외국의 성공적인 어플리키이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었고, 부산지방검찰청의 PSRP역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함께 유기적으로 일을 하여 케어를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인력이 쉽게 모이고 일정이 관리될 수 있는 곳이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치료명령을 전담하고 있는 의료진의과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가정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 방문 일정, 필요하다면 멘토링 인력을 구해 배치할 수 있고, 테라피스트, 행동교정가 등 다양한 인력의 도움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체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력은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할 수 있다.

5) 치료 이수 여부에 대한 인센티브, 환급, 징계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이 아닌 일반 범죄자에 대한 대부분의 교도소 운영, 교화 운영 등을 세금으로 하고 있으며 수감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의 치료명령 등에 치료 비용이나 행동교정 비용 등을 현재는 일부 발달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료명령의 비용 문제에 대한 제44조의9(비용부담) 제 1항에서,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며, 일반적인 경우 치료기간동안의 치료비용을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시

키고 있다.

이는 이미 현재도 낮은 치료명령제도의 순응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며, 향후 재범이 발생할시 사회적인 기회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치료명령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이수자의 경우 비용을 환급하는 형식으로 해야 하며, 치료명령 순응도가 낮은 경우, 소정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이 필요하다.

이미 심신미약자이고, 범죄자인 경우 설령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경제력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치료명령 순응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수한 이수자의 경우, 그리고 치료에 호전을 보이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치료비용 환급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각종 취업 프로그램 등에 알선해주는 등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성실 이수 환급비용 등은 장차 발달장애인 범죄를 줄여, 미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점으로 돌아올 것이다.

Ⅶ.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와 치료감호 후 관리가 힘든 실정의 대안이 강제력 말고는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더 효과적이면서 긍정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해보았다. 코로나 시국 이후 급부상한 원격진료에 영감을 얻어, 국내외 의료 어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들의 사례와 이용자들의 리뷰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치료명령제도 및 외래치료지원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환자의 순응도와 참여의 어려움, 다양한 참여 주체나 협력적 관리 문제를 개선하며 발달장애 재소자들의 높은 재범률을 해소하고자 한다.

의료 어플리케이션은 진료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 개입이 비교적 간편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소자들의 치료순응도를 높이고 그동안 힘들었던 적극적인 처치와 지속적인 관리의 문턱을 낮춰줄 것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모델은 1. 기본적인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의 틀(원격진료, 처방)에 더하여 2. 비디오를 활용한 진료 기능 추가, 3. 어플리케이션의 영상교육자료, 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 기능, 커뮤니티 기능 역시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치료명령제도에서 지적장애인들이 부담하는 치료비용을 환급제도로 바꾸어, 장애

VOICEYE
KOR
voiceye.com

인 범죄자와 비장애인 범죄자의 교화비용 차별을 완화하고, 치료명령제도의 인센티브 환급 제도를 더해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이러한 모델은 시설은 매번 직접 내방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비용과 서비스를 절감할 수 있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도 비대면 처방, 진료가 가능하며, 반복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정보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동영상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절감된 시간으로 적극적인 다른 진료나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커뮤니티, 전문가 연계 협업, 영상 교육 등을 통해 원스톱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달장애인 치료의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고, 치료비용환급을 통하여 지적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1차적으로 해소하지만, 복약과 치료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원격진료를 통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해외 어플리케이션에서 긍정적인 리뷰와 성공사례가 많고,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상 이들에게 주는 장점이 많기에, 치료명령,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들의 발걸음을 절감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매우 높여주어 치료순응도, 복약순응도와 치료지속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치료에 기여 할 것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닥터나우. (2022). https://doctornow.co.kr

닥터콜. (2022). https://drcall.global

임현경. (2022. 03. 07). 뒷전으로 밀리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감호' - 정신질환자 범죄 크게 늘고 재범률도 65.4% 기록. 법률신문 뉴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2022).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khealthmhc&hl=ko&gl=US

부산지방검찰청. (2021. 5. 25.).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형사사법 지원 실시 "수사 시작부터 종결 후 자립까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보도자료

아주대병원 어플리케이션. (2022).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ajoumc&hl=ko&gl=US

정신보건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37조의2(외래치료지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Dialogue. (2022). https://www.dialogue.co/en

Doctorondemand. (2022). https://doctorondemand.com

Maple Telehealth. (2022). https://www.getmaple.ca

NOCD. (2022). https://www.treatmyocd.com

I am sober. (2022). https://iamsober.com

LiveHealth Online Mobile. (2022).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mericanwell.android.member.wellpoint&hl=en&gl=US

Plushcare. (2022). https://plushcare.com

Sationmd. (2022). https://stationmd.com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KCI VOICEYE voiceye.com

Abstract

Proposal of treatment system and outpatient treatment order system model using application non-face-to-face treatment and prescription:

Focusing on domestic and case studies and feedback analysis

Kim Hyun Su*·Ko Yeo Jung**

As the public opinion on deviant behavior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changed negatively, the law on treatment and supervision has been gradually strengthened, and eve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have not committed crimes are forced to receive outpatient treatment orders. However,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these laws, compliance with outpatient treatment orders is not high in reality, and the follow-up management is also insufficient when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ctually commits a crime receives treatment and supervision.

In this paper, we present a model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remote medical treatment and responses to how to include various

* Master's course in Lowschool, Chung-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Daegu University

functions that can help treatment command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elemedicine in the application.

The framework of the basic telemedicine application is included, but the video call function is added to suit the treatment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Cooperation with social workers, educators, and healing programs through applications will be gradually increased.

Through this, outpatient treatment support and post-treatment suppo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has difficulty in moving and poor compliance,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e burden of outpatient support for caregiver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also be reduced.

Keywords : telemedicine, developmental disabilities, outpatient treatment order, non-face-to-face treatment, application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309 - 327

장애인의 코로나19 전후 우울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희*·이서윤·장은지*****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개인과 사회의 전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제한 및 봉쇄 정책은 전염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한 반면, 개인의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이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은 사회적 차별을 더욱 실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체감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중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우울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발병 이전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의 우울 궤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를 활용하였으며 우울 궤적을 추정하고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우울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점자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가구 연소득, 장애등급, 장애 유형이 우울의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이 여성이고, 가구소득이 낮으며 장애 정도가 심하고, 비지체장애의 경우 우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들이 우울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장애인, 우울, 코로나19, 잠재성장모형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수료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2020년 3월에 선언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는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팬데믹 감염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 제한과 폐쇄 정책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157개국의 코로나19 정부 대응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러한 봉쇄 및 폐쇄정책 대응은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지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Han & Park, 2021). 그러나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개인과 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겼으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Nasution, & Pradana, 2021).

장애인들은 질병 자체로 인한 위험의 증가,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재활에 대한 접근성의 감소, 전염 확산 완화를 위한 노력의 부정적 영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Shakespeare, Ndagire, & Seketi, 2021). 실제로 영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률을 검토한 결과 건강상의 장애로 인해 일상활동에 제한이 있는 이들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ondon. 2022),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인을 비교한 캐나다 연구에서도 이들의 코로나19 양성률과 사망률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unsky, et al., 2022). 이같은 보고들은 코로나19 전염병에 취약한 장애인의 현실이자 사회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Rotarou와 동료 연구진들(2021)은 이러한 불균형이 장애인의 내재된 취약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보통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나 공공기관/복지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코로나 대응 정책은 이들에게 복지서비스 공백을 발생시켰으며,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돌봄 문제를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이송희, 이병화, 2020; Kuper, Banks, Bright, Davey, & Shakespeare, 2020). 코로나19 이후 장애인들은 자립생활과 일상생활 지원의 위기, 사회적 관계 및 외부 활동 축소로 인한 사회적 고립,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과정에서의 어려움, 공공일자리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20). 즉 질병 감염 이외의 부차적인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Santomauro et al., 2021; Necho, Tsehay, Birkie, Biset, & Tadesse, 2021),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장애를 가진 성인들에게서 높은 우울 증상이 관찰된 바 있다(Wang, et al., 2022). 또한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슬프거나 우울한 느낌, 걱정 또

는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고(Kinne, Patrick, & Doyle, 2004), 이러한 장애인의 우울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위험요인(박현숙, 2018)이기에 장애인의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존 연구들은 질적연구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거나(박지영, 권태연, 2021; 전근배, 2020), 코로나19 이후의 시점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Necho et al., 2020, Wang, et al., 2022). 특히 국내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된 장애인 관련 조사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루어져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의 우울 수준을 보여주며 코로나19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국립재활원,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그러나 장애 집단과 비장애 집단을 구분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정신건강 변화를 개인별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살펴본 김이레, 남재현(2022)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장애 집단의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상반된 결과들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종단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우울 변화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장애 유형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Steptoe, & Gessa, 2021), 전반적인 장애인의 우울 수준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록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병 이후의 시점을 포함한 종단 연구를 통해 이들의 우울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기존에 선행된 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의 영향력을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함께 다루는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검토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활발히 보고되고 있지 않다(Wang et al, 2022). 성별의 경우 여성장애인이 남성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예순, 김선용, 김명, 2014; 박병선, 배성우, 2021).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우울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Bucciarelli et al., 2021), 성별에 따라 장애인의 우울 변화도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령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이 수준이 높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박병선, 배성우, 2021; Kinne, Patrick, & Doyle, 2004),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연구에서는 연령이 더 젊을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수준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Pettinicchio, Maroto, Chai & Lukk, 2021; Wang et al, 2022). 사회경제적지위가 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이계승, 2014)는 선행연구에 따라 가구 연소득과 학력 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사회적 고립의 영향력을 고려하여(Pettinicchio et al., 2021; Wang et al, 20

22) 거주지역과 독거 여부를 포함하였다. 또한 장애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장애등급이 높고 의존적일수록(김예순, 김선용, 김명, 2014) 우울수준이 높고,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장애가 복합적일수록 불안과 절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ettinicchio et al., 2021).

이를 구체적인 연구 질문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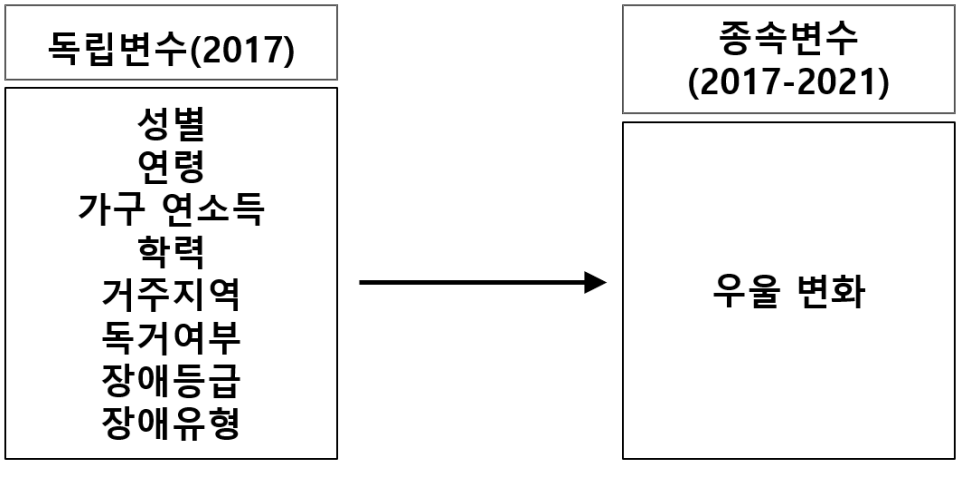
첫째, 코로나19 전후 시점에서 한국 성인 장애인의 우울 궤적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의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우울 궤적을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인의 코로나 19 전과 후의 우울 변화를 확인하고 우울 변화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VOICEYE
voiceye.com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12~16차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한국 복지에 대한 대표적인 패널 조사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12차)부터 2021년(16차)까지 우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793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하였다.

3. 주요변수

1)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남성=0, 여성=1), 연령(연속변수), 가구 연소득(연속변수), 학력(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대학교 이상=5), 거주지역(대도시=0, 중소도시=1), 독거 여부(비독거=0, 독거=1), 장애등급(경증=0, 중증=1), 장애 유형(지체장애=0. 비지체장애=1)로 구성하였다. 특히 가구 연소득은 균등화 가구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며, 정규분포를 위해 로그 변환하였다.

2) 종속변수: 우울

종속변수는 우울로써, Kohout et al.(1993)의 축약형 CES-D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CES-D는 비진단적 방법으로 우울 증상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도구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축약형 CES-D는 Radloff(1977)가 개발하고 Kohout et al.(1993)이 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1문항으로 축약한 척도이다. 우울은 4점 척도(1=극히 드물다, 2=가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2017년 .892, 2018년 .885, 2019년 .885, 2020년 .873, 2021년 .893 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7.0과 M-plu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전반적인 장애인의 우울 변화를 추정하고 우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진행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종단자료가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무조건적 모형(Analysis of Unconditional Model) 분석을 진행하고, 2단계에서는 종단자료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조건적 모형(Analysis of Conditional Model)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적합도 지수 대표성, 모형의 간명성 등을 고려하여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373명(47.0%)이고, 여성은 420명(53.0%)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 61.53세(SD=12.95), 가구 연소득은 1,830.24만원(SD=1,278.29)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은 무학이 113명(14.2%), 초등학교가 297명(37.5%), 중학교가 127명(16.0%), 고등학교가 183명(23.1%), 대학교 이상은 73명(9.2%)로 나타나 초등학교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319명(40.2%)로 중소도시 474명(59.8%)보다 적었다. 독거여부의 경우 비독거는 558명(70.4%)로 독거 235명(29.6%)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등급은 경증 장애 560명(70.6%), 중증 장애 233명(29.4%)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507명(63.9%), 비지체장애 286명(36.1%)로 확인되었다.

VOICEYE
KOR
voiceye.com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변수	명수	%
성별	남성	373	47.0
	여성	420	53.0
연령(M(SD))		61.53(12.95)	
가구 연소득(만원)(M(SD))		1,830.24(1,278.29)	
학력	무학	113	14.2
	초등학교	297	37.5
	중학교	127	16.0
	고등학교	183	23.1
	대학교 이상	73	9.2
거주지역	대도시	319	40.2
	중소도시	474	59.8
독거 여부	비독거	558	70.4
	독거	235	29.6
장애 등급	경증 장애	560	70.6
	중증 장애	233	29.4
장애 유형	지체장애	507	63.9
	비지체장애	286	36.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장애인의 우울 평균은 2017년 1.48점(SD=.50)에서 2021년 1.58점(SD=.55)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에 우울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Min)	최소값(Max)	평균(Mean)	표준편차(SD)
우울-2017yr	1.00	4.00	1.48	.50
우울-2018yr	1.00	3.55	1.48	.48
우울-2019yr	1.00	3.64	1.50	.52
우울-2020yr	1.00	3.48	1.53	.50
우울-2021yr	1.00	3.82	1.58	.55

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2단계에 걸쳐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무조건적 모형으로 장애인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조건적 모형 분석을 통해 1단계에서 구한 초기값과 변화율을 바탕으로 우울 변화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무조건적 모형 분석(Analysis of Unconditional Model)

조건적 모형 분석을 진행하기 전 우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조건적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조건적 모형을 통해 최적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변화모형, 선형 변화모형, 이차함수 변화모형을 각각 분석하였다. 우울에 대한 이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x2$= 8.923 (p〉.05), CFI = .997, TLI = .995, RMSEA = .025로, 이차함수 변화모형이 무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보다 우울의 변화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3〉 무조건적 모형

모형	x^2	df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86.089***	13	.891	.907	.094
선형 변화모형	33.545***	10	.948	.948	.064
이차함수 변화모형	8.923	6	.997	.995	.02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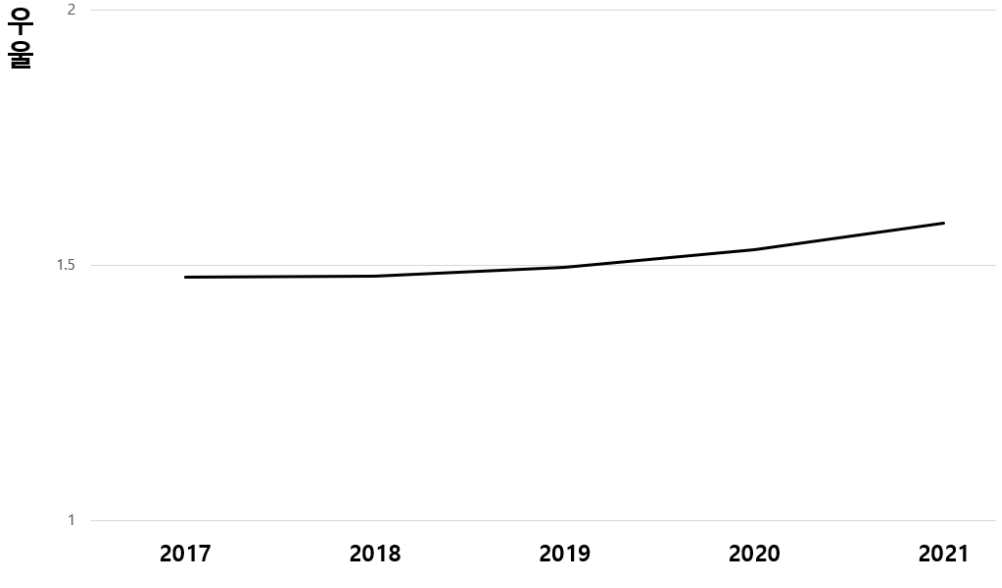
최종 선정된 무조건적 이차함수변화모형의 분석 결과를 〈표 4〉와 같이 확인해보면, 2017년의 우울을 의미하는 우울 초기값의 평균은 1.480(p〈.001)이였고, 우울의 선형 변화율은 .022(p〈.0

5), 이차함수 변화율은 .008(p<.05)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우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율이 높아져 우울 수준이 점차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은 초기값 .457(p<.001), 선형 변화율 .122(p<.001), 이차함수 변화율 .002(p<.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 간에 우울의 초기수준과 변화율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표 4〉 초기값 및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구분	평균		분산	
	Estimate	S.E.	Estimate	S.E.
초기값	1.480***	.032	.457***	.075
선형변화율	.022*	.022	.122***	.030
이차함수 변화율	.008*	.004	.002***	.001

*p<.05, **p<.01, ***p<.001



〈그림 2〉 장애인 우울의 이차함수 변화모형 추정치

2) 조건적 모형 분석(Analysis of Conditional Model)

조건적 모형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조건적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chi 2$= 22.389(p>.05), CFI = 1.000, TLI = .999, RMSEA = .005로 모형을 분석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Coef.=.190, p<.01), 가구 연소득(Coef.=-.184, p<.05), 장애등급(Coef.=.133, p<.05), 장애 유형(Coef.=.145, p<.05)이 우울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대비 여성인 경우, 가구 연소득이 낮을수록, 장애등급이 경증 대비 중증인 경우, 장애 유형이 지체장애 대비 비지체장애인 경우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학력, 거주지역, 독거 여부는 우울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변수는 선형 변화율과 이차함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건적 모형 분석

변수 간 경로			Coef.	S.E.
성별(ref.남성)	→	우울 초기값	.190**	.067
연령	→	우울 초기값	.001	.003
가구 연소득(log)	→	우울 초기값	-.184*	.061
학력	→	우울 초기값	-.022	.033
거주지역(ref.대도시)	→	우울 초기값	-.060	.064
독거여부(ref.비독거)	→	우울 초기값	.118	.074
장애등급(ref.경증)	→	우울 초기값	.133*	.072
장애유형(ref.지체장애)	→	우울 초기값	.145*	.067
성별(ref.남성)	→	우울 선형 변화율	-.067	.049
연령	→	우울 선형 변화율	.001	.002
가구 연소득(log)	→	우울 선형 변화율	.044	.044
학력	→	우울 선형 변화율	.019	.024
거주지역(ref.대도시)	→	우울 선형 변화율	.010	.046
독거 여부(ref.비독거)	→	우울 선형 변화율	-.007	.054
장애등급(ref.경증)	→	우울 선형 변화율	.020	.052
장애 유형(ref.지체장애)	→	우울 선형 변화율	-.058	.049

VOICEYE
voiceye.com

변수 간 경로			Coef.	S.E.
성별(ref.남성)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12	.008
연령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1	.001
가구 연소득(log)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9	.007
학력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4	.004
거주지역(ref.대도시)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2	.008
독거 여부(ref.비독거)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1	.009
장애등급(ref.경증)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2	.009
장애 유형(ref.지체장애)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9	.008

$^{***}p<.001$

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의 우울 수준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코로나19 범유행 전후의 우울 궤적을 파악하고,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장애인 79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우울 수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울 증가 속도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이후에는 우울 수준이 예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장애인의 우울 변화 유형은 무조건적 이차함수 변화모형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율이 점차 급격히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시점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이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조사된 선행연구와 상응하는 결과이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2%, 자살 사고율은 11.1%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평균(10.5%)에 비해서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다. 2021년 6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한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국립재활원, 2021),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장애인(79.5%)이 비장애인(75.1%)보다 4.4%p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울감을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장애인(13.1%)이 비장애인(6.6%)보다 6.5%p 높았으며, 불안을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장애인(27.2%)이 비장애

인(13.9%)보다 13.3%p 더 높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 시기 우울, 불안, 불면증을 경험하는 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Necho et al., 2020, Wang, et al., 2022).

둘째, 장애인의 우울 수준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가구 연소득, 장애등급, 장애 유형이었으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선행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장애인 우울 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난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일수록, 가구 연소득이 낮을수록, 장애등급이 중증일수록, 정신장애나 내부기관 장애 등과 같은 비지체장애를 가질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기존 연구의 흐름에 부합하는 결과이다(김예순 외, 2014; 박병선, 배성우, 2021). 그러나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우울 수준의 초기에만 영향을 주었으며, 장기적으로 우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장애 특성 등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유행 시기 장애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특징적으로 나타난 감염병 유행 시기 장애인의 우울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 선별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낮고, 코로나 이후 접근성 악화를 더 크게 경험하였으므로 이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악화된 비율은 장애인(14.7%)이 비장애인(9.9%)보다 높게 나타났다(국립재활원, 2021). 그러나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비율은 장애인(36.8%)이 비장애인(52.5%)보다 낮게 나타나 의료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염병 재난 시기 비장애인보다 더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장애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령, 장애 유형별 특수한 건강 필요를 잘 숙지하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함께 사회복지사 및 활동보조 인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함께 교통비 및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원격진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재활원에서는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의 생체신호와 생활 습관 데이터 모니터링, 맞춤형 운동관리·마음건강관리 방법 가이드, 전문가와의 비대면 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자가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국립재활원, 2021). 더불어 코로나19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 교육용 동영상 자료를 국립재활원 누리집 자료실(www.nrc.go.kr) 및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여, 장애인 누구나

VOICEYE voiceye.com

가정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국립재활원, 2021). 향후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우울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을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 초기에는 성별, 가구 연소득, 장애등급, 장애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대상군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장애 자체에 초점을 두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보건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차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소거되는 원인을 더 명확히 밝히고 장애인 개인적 요인 외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재난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처럼 코로나19 사망자와 치명률을 중심으로 관리 대책이 집중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가는 향후 장애인의 코로나 예방, 감염, 자가격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악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2차 데이터의 한계로 독립변수와 장애 유형 등을 다양화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나 내부장애를 비지체장애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아 장애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집단만 선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비장애인 인구집단과의 직접적인 비교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포함한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 이외에 장애인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을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얼마나 심화했으며, 그것이 우울 수준의 급격한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유행 시기에 단면적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코로나 전후 시기 변화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참고문헌

김예순, 김선용, 김명. (2014). 성인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과 우울 영향 요인-한국복지패널 장애인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대한보건연구 (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40(4), 51-62.

김이레, 남재현. (2022). 코로나 19 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2), 102-121.

박병선, 배성우. (202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 검증: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비교. 보건사회연구, 41(4), 167-186. doi: 10.15709/hswr.2021.41.4.167

박지영, 권태연. (2021). 코로나-19 그리고 고립, 묶임, 연대: 정신장애인 가족 목소리로부터의 성찰과 우리 역할 재고.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84-1095.

박현숙. (2018). 성인장애인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과의 영향관계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 627-635. doi: 10.21742/AJMAHS.2018.01.46

국립재활원. (2021).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서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이계승. (2014).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수준의 관계 - 우울과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장애와 고용, 24(1), 111- 138.

이송희, 이병화. (2020).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지원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과 복지, 22(3), 7-34. doi: 10.23948/kshw.2020.09.22.3.7

전근배. (2020). 국가의 거리: 코로나 19 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비판사회정책, (68), 173-207. doi: 10.47042/ACSW.2020.08.68.1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ucciarelli, V., Nasi, M., Bianco, F., Seferovic, J., Ivkovic, V., Gallina, S., & Mattioli, A. V. (2021). Depression pandemic and cardiovascular risk in the COVID-19 era and long COVID syndrome: gender makes a difference. Trends in Cardiovascular Medicine. doi: 10.1016/j.tcm.2021.09.009

Han, C., & Park, S. (2021). The Effect of the Containment and Closure Policies on the Spread of COVID-19.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30(3), 1-38. doi: 10.33900/KAPS.2021.30.3.1

Kinne, S., Patrick, D. L., & Doyle, D. L. (2004). Prevalence of secondary condition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3), 443-445. doi: 10.2105/AJPH.94.3.443

Kinne, S., Patrick, D. L., & Doyle, D. L. (2004). Prevalence of secondary condition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3), 443-445. doi: 10.2105/AJPH.94.3.443

Kuper, H., Banks, L. M., Bright, T., Davey, C., & Shakespeare, T. (2020). Disability-inclusive COVID-19 response: What it is, why it is important and what we can learn from the United Kingdom's response. Wellcome open research, 5, 79. doi: 10.12688/wellcomeopenres.15833.1

Lee, D. S. (2020). Care for the Disabled during the Infectious Disease Pandemic. 202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Colloquium.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of June 25, 2020)

Lunsky, Y., Durbin, A., Balogh, R., Lin, E., Palma, L., & Plumptre, L. (2022). COVID-19 positivity rates, hospitalizations and mortality of adults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ntario, Canada.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15(1), 101174. doi: 10.1016/j.dhjo.2021.101174

Nasution, L. A., & Pradana, A. A. (2021). Vulnerable populations' coping in facing challeng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ystematic review. Enfermeria Global, 20(3), 612-621. doi: 10.6018/eglobal.456301

Necho, M., Birkie, M., Gelaye, H., Beyene, A., Belete, A., & Tsehay, M. (2020). Depression, anxiety symptoms, Insomnia, and cop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iod among individuals living with disabilities in Ethiopia, 2020. PloS one, 15(12), e0244530. doi: 10.1371/journal.pone.0244530

Necho, M., Tsehay, M., Birkie, M., Biset, G., & Tadesse, E. (2021). Prevalence of anxiety,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7(7), 892-906. doi: 10.1177/0020764021100312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ondon (2021). Updated estimates of coronavirus

(COVID-19) related deaths by disability status, England: 24 January 2020 to 9 March 2022. https://https://www.ons.gov.uk

Pettinicchio, D., Maroto, M., Chai, L., & Lukk, M. (2021). Findings from an online survey on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COVID-19 on Canadians with disabilities and chronic health conditions.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14(3), 101085. doi: 10.1016/j.dhjo.2021.101085

Rotarou, E. S., Sakellariou, D., Kakoullis, E. J., & Warren, N. (2021). Disabled people in the time of COVID-19: identifying needs, promoting inclusivity. Journal of global health, 11, 03007. doi: 10.7189/jogh.11.03007

Santomauro, D. F., Herrera, A. M. M., Shadid, J., Zheng, P., Ashbaugh, C., Pigott, D. M., ... & Ferrari, A. J. (2021). Global prevalence and burden of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in 204 countries and territories in 2020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Lancet, 398(10312), 1700-1712. doi: 10.1016/S0140-6736(21)02143-7

Shakespeare, T., Ndagire, F., & Seketi, Q. E. (2021). Triple jeopardy: disabled people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Lancet, 397(10282), 1331-1333. doi: 10.1016/S0140-6736(21)00625-5

Steptoe, A., & Di Gessa, G. (2021). Mental health and social interactions of olde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Engl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ngitudinal cohort study. The Lancet Public Health, 6(6), e365-e373.

Wang, K., Manning, R. B. III, Bogart, K. R., Adler, J. M., Nario-Redmond, M. R., Ostrove, J. M., & Lowe, S. R. (2022). Predicting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habilitation Psychology, 67(2), 179-188. doi: 10.1037/rep0000434

Wang, K., Manning, R. B. III, Bogart, K. R., Adler, J. M., Nario-Redmond, M. R., Ostrove, J. M., & Lowe, S. R. (2022). Predicting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habilitation Psychology, 67(2), 179-188. doi: 10.1037/rep0000434

Wang, K., Manning, R. B. III, Bogart, K. R., Adler, J. M., Nario-Redmond, M. R.,

Ostrove, J. M., & Lowe, S. R. (2022). Predicting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habilitation Psychology, 67(2), 179-188. doi: 10.1037/rep0000434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Abstract

Analyzing Change Trajectory and Determinants of depression of disabled adults

Kim Sung Hee*·LeeSeo Yoon**·Chang Eun Jee***

The pandemic affects everyone, but it has had a particularly negative impact on the most vulnerable, including those who are disabled. In addition to the increased risks associated with the disability itself, reduced access to routine health care and rehabilitation, as well as the negative effects associated with efforts to mitigate the spread of COVID-19,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suffered from discrimination as a result of COVID-19.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depression over time among all registered disabled individuals, including the period since the onset of COVID-19.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12th-16th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which was conducted from 2017 to 2021. 793 individuals who were able to estimate the change in depression from 2017 (12th) to 2021 (16th)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depression among the disabled occurs over time, and the level of depression rose gradually. In examining the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s initial value and rate of change, it was found that gender, annual household income, disability severity, and disability typ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s initial value. In another word, individuals being women, the lower the household income, the more severe the disability, and not having a

* Ph.D. Student at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Ph.D. Candidate at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Ph.D. Student a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physical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higher depress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health car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be more disability-friendly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y, who are relatively more vulnerable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disaster, such as COVID-19

Keywords : disabled, COVID19, depression, Latent Growth Modeling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329 - 351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잘삶을 위한 평생교육 현황과 실천적 과제 고찰

김도경*·한태경**

인간은 가치 있는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진심으로 몰두하여 개인의 잘삶을 구성하는 가치 있는 활동을 모색하고 선택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특히 중장년 여성 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경력 단절 문제 해결,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평생교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중적 차별구조에 놓여있는 중장년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주체적 잘삶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평생교육 및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보고서와 존 화이트·섬너의 잘삶 이론 관련 학위 및 학술논문을 고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방문을 통해 평생교육팀 운영자와 여성 장애인 대상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관련 내러티브 내용을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잘삶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을 위해 실제 교육 운영 현장의 실천적 과제를 모색 및 제안하였다.

주제어 :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적 잘삶, 이중차별,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학부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학부

Ⅰ. 서론

학습함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헌법」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습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부분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리로써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에 비추어 보아「헌법」제31조 1항(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주목해보면 진정한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은 개별화된 효율성이 실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도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이라는 의미는 장애인에게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20) 평생교육 참여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에 대해 98.4%가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50.9%가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인간은 성과 나이, 장애 유무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삶의 전반에서 학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의 총체적 원형은 평생교육이다. 한준상(2003)은 평생교육을 모든 이를 위한 ‘앎’, 모든 이를 위한 ‘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를 위한 ‘놂’의 문화적인 토대이자 기능이라고 규정하였다. 우리는 평생교육 활동과 실천을 통해 자기 부족과 결핍을 메워가는 배움에서 나아가 개인의 배우고자 하는 본능과 자의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자기를 위한 삶,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현 및 인식 결과와 반대됨을 볼 수 있다. 장애인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평생교육의 예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조건의 평등화와 접근성이 고려된 지속적인 평생교육이 반드시 지원 및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제4조(장애인의 권리)에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성별,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동등한 참여의 기회와 권리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의 성과 장애는 사회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당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한계는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한을 불러오고 여성 장애인으로 하여금 외부와의 접촉과 관계망 형성을 좌절시킨다. 물리적 장애물, 사람들의 시선,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그리고 축소된 사회적 기회는 여성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참여로부터,

VOICEYE
voiceye.com

지지와 친밀감의 대상으로부터, 고용기회로부터, 건강증진 기회로부터 단절되게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주류로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Nosek & Hughes, 2003; 배화옥, 김유경, 2009). 본 연구는 특히 여성으로서의 차별(sexism)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disablism)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놓여있는 여성 장애인(오혜경, 2016)의 평생교육 운영에 주목하였다. 전혜숙(2007)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 여부가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양태에 영향을 미치기에, 개인 중에서도 장애인,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위와 같은 법률안에서 경제활동을 통한 인간 존엄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여성경제활동법」(법률 제18549호)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야하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 시책으로 제13조(직업교육훈련)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 등의 경력 단절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남성보다 현저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더 낮은 추이를 보인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또한 비슷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 시장에서의 유입 자체가 장애남성, 비장애남성,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오혜경, 2016). 또한,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 장애인보다 2배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0.7%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수적으로 남성 장애인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측면 등 상대적으로 정책적 측면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왔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접근만으로는 여성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해내기 어려우므로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놓여있는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에 주목한 것이다. 여성 장애인의 저학력 현상은 경제활동 참여를 막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참여 배제라는 현상을 낳는다(강민희, 2011). 이러한 여성 장애인의 저학력 및 사회참여 배제 현상은 여성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에게 생애에 걸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를 통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학습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권정숙, 정여주, 2015). 박원희(2002)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일반인의 평생학습과는 다른 차원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은 생의 수단이자 목표이며,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은 장애인 복지가 성취된 현실적 완성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여성 장애인들에게 있어 배움은 기존에 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그 자체가 주는 보람에서 느끼는 행복 추구가 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적 차별구조에 놓여있는 여성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은 기본적 인권이자 행복추구권이며 장애인 교육 및 복지의 완성 척도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이 보다 실용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지원이 더욱 다양화 및 심화되어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되었다. 이에 '모두를 위한 교육'을 표방하는 평생교육 정신에 입각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사회 및 지역 평생학습 사업 내 이루어지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및 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천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으로는 화이트와 섬너의 잘삶론,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이 제시된다. 장애인, 그리고 여성 장애인이 잘삶을 영위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써 화이트와 섬너의 잘삶론을 조사 및 적용해보고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였다.

1. 화이트와 섬너의 잘삶론

인간은 혼자서 잘삶을 도모할 수 없다. 잘삶은 가정, 이웃, 도시, 국가, 혹은 세계 공동체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잘삶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한기철(2015)에 의하면 "국가의 목적은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교

VOICEYE
voiceye.com

육의 원래 목적은 국가 구성원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교육은 이념적으로 모든 국가 구성원의 복리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여기서 국가 및 국가교육은 행복한 삶 혹은 복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사회'라는 용어에서 '민주주의'란 국가를 통해 발휘되는 정치적 권력에 대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유'란 이러한 민주주의 안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모든 국민이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수단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잘삶을 위해 수행해야하는 역할은 국민이 각자 잘삶의 이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중립적 틀'을 보장함으로써 기본 도덕이 준수되고 기본 복지가 제공되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국가가 국민의 잘삶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것을 요청한다(이지헌, 임현정, 2017).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덕 윤리학이나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잘삶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철학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그리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가 근본주제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잘삶이란 무엇인가? '잘삶' 개념의 경우 많은 연구자의 논문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주제가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잘삶을 위한 평생교육'인 만큼 화이트의 '잘삶을 위한 교육'과 섬너의 '삶의 주체에서의 잘삶'을 분석하고자 한다.

화이트(White, 2013: 541)는 잘삶을 두 개의 층을 나누어 밝혀냈다. 잘삶의 한 층은 '기본적 필요의 충족'이며, 또 다른 층은 '가치 있는 추구'를 가리킨다. 즉 기본적 필요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추구가 가능한 삶이 잘삶이다. 기본적 필요는 잘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 필요는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잘삶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 요건'으로 이해된다. 화이트는 기본적 필요에 속하는 것을 물질적/신체적 요건[1], 실천적 요건[2], 사회적 요건[3], 운명적 요건[4] 등으로 폭넓게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는 삶을 가리

---

1) 물질적/육체적 필요로는 음식, 물, 주거, 의복, 수입, 운동, 건강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습관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2) 실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는 실천적 지능과 판단력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단-목적 관계에 관한 유연한 사고 능력, 가치 갈등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그리고 정서 및 육체적 욕구에 관한 적절한 자제력 등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3) 사회적 필요에 속하는 것으로는 평화, 자유, 생태학적 위기극복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 관심이나 사회적 행동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4) 불의의 사고나 자연적 재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는 운명으로 돌릴 수밖에

켜 잘삶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화이트가 말했듯이, 기본적 필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추구가 가능한 삶을 잘삶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잘삶을 형성하는 또 다른 층인 '가치 있는 추구'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추구란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을 가리킨다. 잘삶의 핵심은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에 있으므로 화이트는 '활동', '가치', '성공', '전심'을 중심으로 잘삶을 상세하게 탐색한다. 첫째, '활동'이라는 요소는 잘삶을 활동적 삶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이트의 교육관에서 '가치 있는 활동'은 지적 혹은 학문적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더 폭넓은 활동[5]을 포함시킨다. 둘째, '가치'라는 요소는 잘삶을 구성하는 활동이 가치 있는 것임을 가리킨다. 여기서 가치 있는 활동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즉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6]을 가리킨다. 셋째, '성공'이란 [7]개인이 참여하는 활동 및 관계가 요구하는 기준들이 적절하게 충족됨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 성공적일수록 개인의 삶을 잘삶에 가까워진다. 성공은 실패와 병행한다. 따라서 성공은 늘 이기는 것, 언제나 승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성패의 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주관적 요소는 주관적 행복관, 즉 삶의 만족을 중시하는 행복관과 일치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전심'이란 온 마음으로 몰두함 즉,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이나 관계에서 요구되는 목표를 향해 자신의 행위를 이끌어가는 것, 자신을 바치는 것, 온 마음을 쏟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전심은 추구하려는 활동과 연관된 특별한 태도, 헌신, 순수한 동기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 잘삶을 위해 전심이 중요한 이유는 전심으로 몰두하는 활동이나 관계에서 즐거운 경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심으로 몰두함으로써 즐거운, 쾌락적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진심으로 몰두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 혹은 관계는 개인이 정말 좋아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일 것이다. 요컨대 아무리 가치 있는 활동이라도 피곤하게, 무심하게, 의무 때문에 건성으로 행한다면 잘삶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기를 원한다. 무의미하고, 헛되고, 초라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은 거의 없다. 타인의 도구가 되어 자신의 행복이 도외시당하는 것을 수용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이지헌, 임현정, 2017).

섬너는 좋은 삶과 잘삶을 서로 구별하며 현대적 의미의 잘삶 특성을 밝힌다. 섬너(Sumner, 1

없지만, 오늘날 지구적 차원에서 기본적 필요의 충족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5) 불교적 명상에 잠기는 것,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살아가는 것, 친구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 취미로 테니스를 치는 것, 학교가 잘 돌아가도록 애쓰는 것,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 등

6) 가족을 위해 힘쓰거나,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주말에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활동

7) 축구를 하면서 공을 제대로 차고, 팀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기는 것(시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시인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친구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과 사귀면서 우정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VOICEYE voiceye.com

996: 20-25)에 의하면 좋은 삶은 가치 있는 삶이며, 좋은 삶의 가치는 타산적 가치, 미적 가치[8], 완전성의 가치[9], 도덕적 가치[10]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섬너(Ibid., 20)에 따르면 '잘삶'은 좋은 삶의 타산적 가치를 가리킨다. 이것은 삶의 주체인 개인에게 그의 삶이 얼마나 잘 영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삶의 주체인 개인에게 좋거나 이로운 것이 되지 못할 때에는 그 개인의 잘삶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나의 삶이 '나에게' 혹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가 하는 차원을 가리켜서 주체-관련성(subject-relativity)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잘삶의 핵심은 삶의 주체인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 섬너(Ibid., 36)는 '개인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잘삶은 삶의 주체가 갖고 있는 '관심'에 의존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잘삶은 그가 갖고 있는 관심, 개인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각자의 삶의 조건(상태)에 대해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갖고 사는데, 이런 태도는 그런 삶의 조건이 그 삶의 주체에게 좋은가 혹은 나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주관적 관점에는 삶의 주체로서 개인이 갖는 관심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흥미, 경향, 감정 등이 반영될 것이다(이지헌, 임현정, 2017).

2.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잘삶을 위한 잘삶론 적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잘삶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실천 방향과 결과를 시사하여 주는 큰 개념이다. 특히 보호와 훈련 수준으로 만족하는 중도·중복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우리의 현실에 알맞게 연구·검토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 Halpern(1994)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체적·물질적 안녕, 다양한 성인 역할 수행 능력 및 개인적 충족감의 세 가지 영역으로 삶의 질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는 삶의 질을 개개인 자신의 관점에 따라 평가하는 주관적 차원과 본인이나 그 밖의 다른 사람의 견해에 준하여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삶의 질의 주관적 척도로는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을 포함하고, 객관적 척도로는 성숙과 숙

8) 인간의 삶은 미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간주하고 살 수 있다. 미적 감수성이 제대로 표현되는 멋있는 삶은 미적 가치를 갖는다.

9) 삶의 가치는 완전성의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고유한 특성(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이 탁월하게 발현되는 삶일수록 완전성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지적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며 살아온 사람들도, 그런 외길 인생보다는 차라리 여러 가지 관심을 폭넓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이었을 터인데 하며 아쉬워할 수 있다.

10) 삶의 가치는 도덕적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윤리적으로 칭송한다.

달, 건강, 경제적 안정성, 환경의 질을 포함하였다(박원희, 2002).

장애인 또한 평등한 국민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잘' 살아가야 함을 보장받아야 한다. 화이트의 잘삶론에 Halpern(1994)를 적용해보면, 1) 장애인은 잘삶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물질적/신체적 요건, 실천적 요건, 사회적 요건, 운명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2) '활동', '가치', '성공', '전심'을 중심으로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을 추구한다. 특히 개인의 잘삶을 구성하는 가치 있는 활동들을 위해 자신의 중요한 욕구를 충족하며 진심으로 몰두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겪는 여성 장애인은 섬너의 타산적 가치에 근거하여 잘삶에서의 '주체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 장애인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나를 위한' 흥미와 관심을 모색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3.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겪는 여성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앞서 말했듯,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보다 낮은 교육적 기회 및 취업 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의 사회·문화적 성숙의 기회와 역할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관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22)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거하여 등록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이중 약으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및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이 진행된다.

VOICEYE
voiceye.com

〈표 1〉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내용

구분	주요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 • 사례관리 종결평가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 사후관리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후 문제해결 등 지원 • 평가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역량강화 교육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구, 복지부 교육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하여 연중 개설·운영
자조모임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상담은 생애주기별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제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제반 문제의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출산·육아기 생활에 대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관리는 상담과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여성 중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개별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여성 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에 기반한 개별계획을 수립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을 실시한다. 이때 지역사회기관 연계 서비스는 여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기관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관련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연계망을 구축하여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역

사회 내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역량강화교육은 여성 장애인의 정서 안정, 사회성 향상,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 혹은 전문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아래의 표〈5〉와 같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예시)은 다음과 같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 가급적 자조 모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여 프로그램 참여 여성 장애인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정보를 나누며 서로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자조 모임 지원을 진행한다. 더불어 장애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 내면화, 교육과 노동 등 사회참여 기회 제한의 경우에는 멘토링을 통해 안내자, 역할 모델, 선생님, 스폰서가 되어 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

〈표 2〉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예시)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시
역량강화교육	기초교육중심형	검정고시반, 컴퓨터교육, 한글문예교육 등
	건강중심형	탁구교실, 건강교양강좌, 구강증진지원사업 등
	사회활동중심형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여성장애인리더십향상아카데미 등
	여가문화중심형	한지공예, 민요교실, 서예교실 등
	경제활동중심형	제과제빵 자격반, 바리스타 과정, 동료상담사 양성 등

앞서 화이트의 잘삶과 섬너의 좋은 삶의 가치를 기반으로,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존재하는 장애인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지역별로 장애인복지관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정보화 교육, 인권 교육, 직업 교육,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성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운영 현황 조사'라는 연구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고서를 통한 분석, 존 화이트와 섬너의 잘삶 이론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등을 고찰하는 방법과 현장 방문을 통해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과 관련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운영자와 여성 장애인과의

VOICEYE
voiceye.com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일차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 및 전화로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7개를 선정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 '자조 모임'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하여 여성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면담은 2022년 8, 9월 중으로 진행되었으며, 2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운영 총괄(팀장), 평생교육팀 내 여성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여성 장애인 총 8명과 대략 각 2시간 정도의 복지관 개별 심층 면접이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여성 장애인 대상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주제로 대상별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문항 영역별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언어 및 비언어적 메시지를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기 위해 현장 노트를 활용하였다. 내용 검토 및 추가 자료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2022년 9월 중 참여자 각자의 내러티브를 확인하며 전화와 메일을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3〉 반구조화 질문지 구성

대상	구분	하위영역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운영총괄/팀장	평생교육 운영 현황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구성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
		평생교육 관련 지역 연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지원 및 지정
		복지관 및 프로그램 모집 홍보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여성 장애인 대상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지원사업 비교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여성 장애인	교육과 차별구조	여성 장애인의 이중적 차별구조에 따른 교육 접근의 한계
	교육 수강 경험	(여성)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현장 방문 및 심층 면담을 통한 내러티브 중 분석의 주된 대상은 00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운영팀장과 장애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을 수강한 여성 장애인이다. 여성 장애인은 중년층(5

0대) 뇌병변장애 여성으로 장애 당사자로서 10년 이상의 평생교육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으로 학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이해교육강사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웰빙, 자립적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운영팀장과 함께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실제 운영 현황을 이해하고 경제활동 촉진,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한 심층적으로 인터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 관련 윤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 대상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인터뷰 과정에서 반복적 연구 동의를 받았다. 심층 면접 대상자에게 먼저 연구 계획 및 목적을 구두 상으로 설명하여 연구 동의를 구한 뒤,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동의서에는 인터뷰 참여의사 확인과 답변에 있어 예견되는 불편감, 위험이 있을 경우 중단에 대한 설명 등의 서약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서약을 염두에 두고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범주적 내용분석

심층 면접 원자료인 2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운영총괄/팀장, 평생교육팀 내 여성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여성 장애인 총 8명의 ‘여성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운영 현황에 관한 내러티브’를 중심 주제, 핵심 범주, 하위범주로 분류 및 그룹화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적 내용을 도출하였다.

중심주제	핵심범주	하위범주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교육 운영 현황	평생교육팀 교육 운영 목적 및 역할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평생교육 운영상의 한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운영 시스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섭외의 어려움

VOICEYE
KOR
voiceye.com

중심주제	핵심범주	하위범주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잘삶	여성 장애인의 교육 경험	장애인복지관에서 수강한 프로그램
		비장애인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장애인의 이중차별	사회·문화적 및 교육적 측면
	잘삶론과의 적용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과 평생교육의 관계

2. 범주적 내러티브의 내용과 해석

1)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교육 운영 현황

(1) 평생교육팀 교육 운영 목적 및 역할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의 역할로 '가'장애인종합복지관은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고, '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웰빙을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사업 운영을 복지관에 국한되어 운영하지 않고 지역사회 간 연계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증진, 사회 참여율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의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는 '가'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취미 및 전문자격취득 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꽃차소믈리에자격 과정, 미용, 바리스타, 토탈/라탄/한지 공예, 꽃자수, 원예 등의 프로그램과 자기 능력 및 자존감 향상 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 장애인 간 정서적 지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질문: 자존감 향상 수업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 맞는 화장법이라든지 머리 스타일링 방법, 자기한테 맞는 퍼스널 컬러 등을 찾아가지고 자기를 가꾸는 거를 배우는 거였거든요…(중략). 심리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참여자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 표현을 한다든지 만들기로 표현을 해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런 걸 이제 점차 회기가 넘어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바꾸고 나누면서 그런 걸 좀 해소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3) 평생교육 운영상의 한계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운영 시스템

평생교육팀 운영 목적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증진, 사회 참여율 향상 등을 위해 교육 담당자는 여러 프로그램 기획 및 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습 대상의 성장을 위한 커리큘럼을 계획하는 데 있어 복지관 운영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습 대상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

> 사실 이 스피치 교실 아까 기획 됐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참여를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건 있었습니다(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평생교육 운영 담당자는 여성 장애인 대상 스피치 교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겪는 여성 장애인이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성 장애인의 욕구가 없어 운영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여성 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욕구 조사를 통해 여성 장애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활동이나 건강 유리 및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학습 대상의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교육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나,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고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 및 아쉬움이 있다.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또한 평생교육팀 운영팀장은 평생교육사업 및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지정과 지정에 따른 교육 운영에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 저희 재원이 다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 안에 평생교육사업비라고 저희가 일부

VOICEYE voiceye.com

따로 측정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있고요.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중략). 수업은 보통 최소 7명이 되어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해드리고 싶지만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하려면 강사비부터 운영비까지 예산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 7명 이상은 있어야…(중략)평생교육팀 운영팀장).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섭외의 어려움

인터뷰에 따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대부분 프로그램 강사는 외부 강사 초청으로 운영된다. 학습 대상이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강사 섭외가 어려우면, 혹은 좋은 강사를 섭외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에 차질 및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평생교육의 경우 대부분 외부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만약 외부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진행되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줄어들게 되고 자부담 사업으로만 진행하게 되어 강사를 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강의는 대부분 외부에서 섭외를 하고 보조를 여기 복지관 직원분들이 하죠. 발달장애인분들 자립을 위해서 간단한 의류 정리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정도이고 전문적인 강사가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강사를 섭외할 때는 (복지관 평생교육팀이) 자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죠. 어느 강사가 잘하고 어느 강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싸움이고 어쨌든 그분들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 강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 조정하는 것도…(중략)(평생교육팀 운영 팀장).

매번 외부 강사 섭외를 해야 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황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경우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적은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장애인 교육 진행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면 평생교육팀 운영 담당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뇌병변 장애인이신데 뇌전증 발작을 한번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해 하셔서 수업을 진행할 때 강사님이 진행을 못하시고…(중략)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직원은 대처를 하면 된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너무 놀라셔서 수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평생교육팀 운영 팀장).

2)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잘삶

(1) 여성 장애인의 교육 경험

① 장애인복지관에서 수강한 프로그램

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수강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여성장애인 대상 스피치 교실'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기획 의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 운영되지 못했다.

(질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여러 개 들으면서 이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컴퓨터 배웠고요. 프로그래밍이랑 일러스트 같은 건 제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거를 배우면 제가 가르치는 데에는 부족하지만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비장애인 선생님한테 질문하기는 어려우니까 '언니가 이거 가르쳐 줄까'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중략) 여기 다니면서 배운 것도 많은데 전 여기 선생님들이 무엇을 저희한테 가르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것도 진짜 잘한 거죠. 선생님들이 무엇을 배워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됐죠(여성 장애인).

② 비장애인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터뷰한 여성 장애인은 자신이 학습한 능력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의 강사 활동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강자가 장애인인데 강사가 비장애인인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비장애인 강사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나타낸다.

비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와서 했으며 체감적으로 더 느끼고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건 많이 느껴요. 거의 보면 비장애 강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인 강사들이 와서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용기를 내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느끼고 저도 그렇게 복지관에서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11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딱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특히 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되도록 당사자가 수업해줬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 강사가 인권 교육을 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공감이 잘 안되었던 거예요.…(중략) 한번은 영어 시간이었는데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막 보이는 것처럼 질문하고, 고아인 학생에게 '가족이 몇 명이냐, 누가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여성 장애인).

(2) 여성 장애인의 이중차별

① 사회·문화적 및 교육적 측면

앞서 비장애인 강사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처럼, 대부분의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고 다르다'는 인식에서 연민 혹은 혐오의 상황이 나타난다.

부족했던 건 제가 뭔가를 못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막 해주는 거 그런 거요.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자기네가 대신 만들어주면 기분이 안 좋죠.…(중략) 제가 시장에 가면 지금도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지 왜 나오냐'고 해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중략) 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2층인 거예요. 계단이 엄청 많은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등록을 하고 한 달가량 다니고 못 다녔어요(여성 장애인).

(3) 잘삶론과의 적용

①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과 평생교육의 관계

여성 장애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와 섬너의 잘삶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를 시작할 때의 연구 목표는 '직업 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의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배움 욕구 해소'만으로도 충분히 잘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사회활동과 경제 활동 등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자신감 충족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질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경제적 혹은 생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신 게 있나요?) 엄청 됐죠. 일단 저는 현재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제가 그거 다 했어요. 전국 일주랑 스카이다이빙처럼 남들이 안 해본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뿌듯한 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 내가 수백 군데 학

교를 계속 다녔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아직도 저를 보면 '나 저 쌤한테 배워' 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중략) 전 여기(장애인복지관) 들어왔을 때가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부터 이용을 했고, 그때 왜 이용을 했냐면 애들 병원에 데려가는 게 힘들어서 지원받으려고 복지관에 왔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아복지학과하고 사회복지학과 두 개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려면 유아복지가 필수예요. 그 전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배워야 한다고 느꼈어요(여성 장애인).

또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현 사회 배경으로 지식경제 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과 노동시장이 고학력과 고숙련 기술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취업구조가 증대하다 보니 단기간 고용계약제, 변형 근로계약 증가 등 다양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지역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센터 수준의 직업훈련 교육, 경력개발 촉진,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은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특히 여성 장애인 자아실현의 기회를 충분히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평생교육 조직은 개방적, 자율적, 상호의존적인 협력체계를 지녀야 하며, 개인은 창의적, 전문적, 통합적 안목과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여성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 변화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일이며,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전공 영역의 다양화 및 전문 자격증 취득 제공 확대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장애인 직업교육은 직업능력개발뿐만 아니라 직업의식 함양 교육, 즉 두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센터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비교적 여성 장애인의 경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은 보다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사 자격, 지도사 양성 측면에서는 먼저 수업을 듣고 자격을 취득한 다음 강사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프로그램은 소믈리에 작용 과정이 있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다 배우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강사로 경제활동이나 경력개발 등 직업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뭔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워서, 내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취미반으로 운영할지 예산이나 계획 등 정확한 확신이 없어서 강사로 되시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취미반으로 운영하고 싶고, 거기에 이제 보조 봉사로 활동한다든지 이렇게 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중략) 그리고 여성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자격취득 과정이 있고 차별되게 구성하려 하는데, 자격 취득 과정의 취지 자체가

VOICEYE
voiceye.com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우드버닝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취득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강사로 활동해도 될 만큼의 역량을 가지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연계해 드리려 했는데 여러 지원 등의 문제로 취업 연계까지는 안 됐던 좀 아쉬운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V. 결론

여성 장애인은 주체적 잘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진심으로 몰두하여 개인의 잘삶을 구성하는 가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 장애인은 가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나를 위한' 흥미와 관심을 모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평생교육을 삶과 동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일련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법은 사회 전반에 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확산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많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접근 기회를 제고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복지와 재활의 개념이 크고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평생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성인 장애인이 대부분에 불과하다. 반복적으로 기존 교육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인간 존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기존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평생학습 사회 및 정책의 프로그램 일부는 개개인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인 2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운영총괄(팀장), 평생교육팀 내 여성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여성 장애인 총 8명으로부터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 이중적 차별구조에 놓여있는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잘삶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제 운영 현장 현황 관련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도출되었다. 우리 사회의 여성 장애인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차별 구조를 가진 사회에 속해 있다. 평생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삶 전체 영역에서 이루어짐을 볼 때,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육 분야에 한정되어 다루어지기보다 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겪는 여성 장애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의 '기본적 및 가치적' 충족과 섬너의 '주체성'을 지님으로써 잘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화이트가 강조한 '활

동', '가치', '성공', '전심'은 여성교육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테면, 여성 장애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하고, 그 결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전심'으로 몰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섬너가 말하는 '주체-관련성'과 관련하여 각자의 삶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흥미, 경향, 감정에 따라 자기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

여성 장애인이 '여성'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잘삶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과제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여성 장애인의 열악한 삶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기회 및 사회 진출에서 여성 장애인은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결혼·출산·육아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함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내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필요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함이 필요하다. 나아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전문자격 취득 및 경제 활동과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강민희. (201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 분석 -프로그램 및 사업의 개발방향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연구, 2(3), 59-8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https://www.law.go.kr/법령/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

권정숙, 정여주. (2015). 지역평생학습사업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지향점.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6), 305-315.

박원희. (2002). 重度·重複 障碍人 餘暇活動 프로그램의 方向.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배화옥, 김유경. (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29(2), 55-76.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http://www.mohw.go.kr.

오혜경. (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이지헌, 임현정. (2016). 윤리학과 교육철학에서 '잘삶'의 의미와 역할. 한국교육철학회, 38(4), 79-103.

이지헌, 임현정. (2017). 화이트의 '잘삶'의 의미와 특성. 교육철학연구, 39(1), 51-74.

임소연, 이진숙.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여성의 돌봄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7(2), 533-559.

전혜숙. (2009). 경제활동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 요인 분석.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2(1), 57-77.

정정희. (2022). 여성장애인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연구. 인문사회 21, 13(1), 2635-2649.

통계청. (2022).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교육개발원. (2003). 한국교육개발원 제18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 탐색.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3512.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 분석. https://koddi.or.kr/data/welfare_view.jsp?brdNum=2301085&brdTp=&searchParamUrl=brdType%3DWELFAR

E%26amp%3BselBrdProgSt%3D%26amp%3Bpage%3D1%26amp%3BsearchKeyword%3D%26amp%3BpageSize%3D20%26amp%3BsearchType%3DBRD_TITLE.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평생교육 참여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E075&vw_cd=MT_ZTITLE&list_id=D3_003_001_005&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25EB%25B3%25B5%25EC%25A7%2580%2520%253E%2520%25EC%259E%25A5%25EC%2595%25A0%25EC%259D%25B8%25EC%2582%25B6%25ED%258C%25A8%25EB%2584%2590%25EC%25A1%25B0%25EC%2582%25AC%2520%253E%2520%25ED%258C%25A8%25EB%2584%2590%2520%253E%2520%25EC%259E%2590%25EB%25A6%25BD%25ED%258F%2589%25EC%2583%259D%25EA%25B5%2590%25EC%259C%25A1%2520%25EC%25B0%25B8%25EC%2597%25AC%2520%25ED%2598%2584%25ED%2599%25A9.

Sumner. (1996). Welfare, Happiness and Ethics. Oxford: Clarendon Press.

Nosek, M. A., & Hughes, R. B. (2003). Psychosocial issues of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The continuing gender debate.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6(4), 224-223.

White J. (2013). Education and Well-being. The Oxford Handbook of Happiness, 540-550.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VOICEYE
KOR
voiceye.com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actical Task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Independent Well-being of Women with Disabilities

Kim Do Kyoung*·Han Tae Kyung**

Women with disabled have to highly involved in what they want and need to do activity that can give much happiness which is valuable component in one's well-being. Repeatedly, Women with disabled need to raise the ability which is finding the own interest and concern. By this process, going life-long education with a life is inevitable. This research is mainly focusing on life-long education i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current state of educational support program for the women with disabled to vitalize the life-long education, which can finally elevate the quality of life of the women who faced the double discrimination. Researching method is about reviewing the Report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roject to support women with disabilities and John White and Sumner's academic papers and degrees related to the theory of well-being and visiting the site to interview the manager and disable women. Finally, based on the lasting result of this study, suggesting the practical tasks of the genuine education operation site for life-long education experience aiming for independent well-being of the disabled women.

Keywords : Women with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Independent Well-being, Double Discrimination, Educational Support Project,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353 - 382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독립보행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도보편의시설 문제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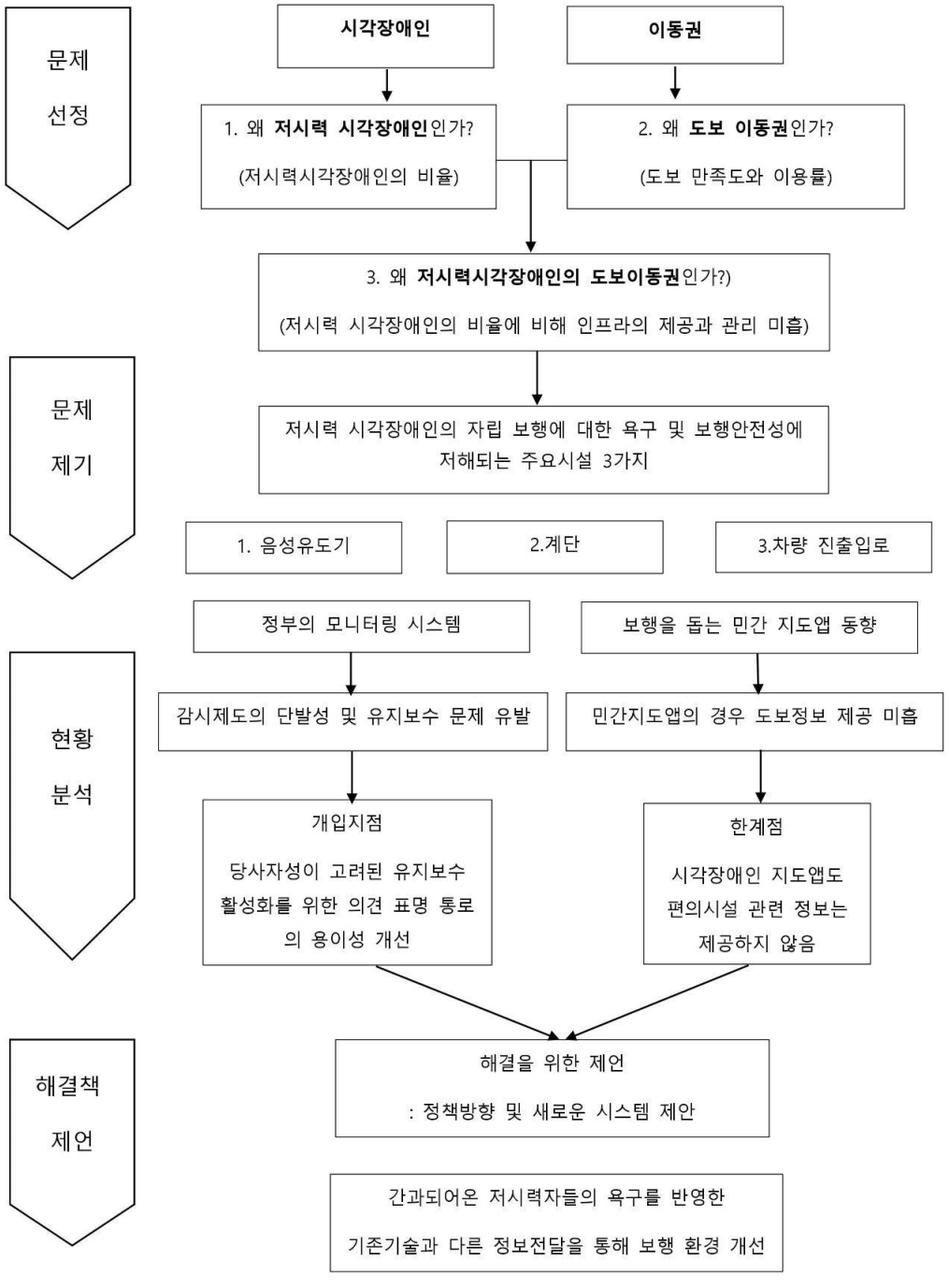
김민서*·최영은·김재연*****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권은 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누리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경우,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장애물 혹은 관리가 되지 않는 편의시설로 이동 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물이나 편의시설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에 시각장애인들이 도보 중 느끼는 불안감은 가중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시각장애인의 이동상의 불편함을 야기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보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하여 이동 편의시설, 정부 제도, 기존 민간 차원의 해결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생생한 의견을 접하고자 심층 면접을 통해 도보편의시설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도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언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 저시력 장애인, 독립보행, 이동 편의시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부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
***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광광학과 학부

〈로직트리〉


문제 선정
시각장애인
이동권
1. 왜 저시력 시각장애인인가?
(저시력시각장애인의 비율)
2. 왜 도보 이동권인가?
(도보 만족도와 이용률)
3. 왜 저시력시각장애인의 도보이동권인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비율에 비해 인프라의 제공과 관리 미흡)
문제 제기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자립 보행에 대한 욕구 및 보행안전성에 저해되는 주요시설 3가지
1. 음성유도기
2.계단
3.차량 진출입로
현황 분석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
보행을 돕는 민간 지도앱 동향
감시제도의 단발성 및 유지보수 문제 유발
민간지도앱의 경우 도보정보 제공 미흡
개입지점
당사자성이 고려된 유지보수 활성화를 위한 의견 표명 통로의 용이성 개선
한계점
시각장애인 지도앱도 편의시설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해결책 제언
해결을 위한 제언
: 정책방향 및 새로운 시스템 제안
간과되어온 저시력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기존기술과 다른 정보전달을 통해 보행 환경 개선

VOICEYE
KOR
voiceye.com

Ⅰ. 서론

1. 시각장애인이 겪는 이동상의 어려움

비장애인이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비교적 간단하다. 지도에 목적지를 검색하고 지도를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이러한 일은 학교나 회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이 특별히 어렵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떻게 다르게 다가올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검색,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목적지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배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 검색의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 계층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웹사이트'로만 지정해놓아서 앱이나 키오스크등 다른 경로에서 시각장애인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사회가 가져온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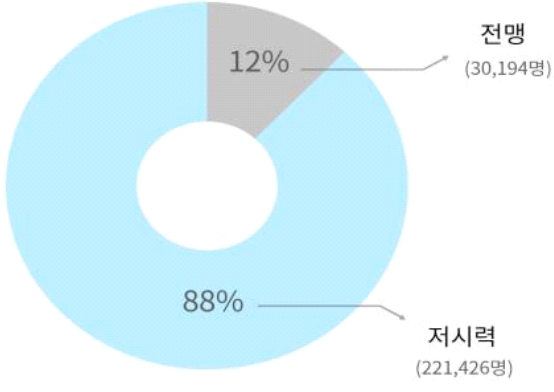
그다음으로, 길에서 흔히 마주치는 계단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계단의 끝부분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계단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앞으로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이다.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비장애인이라면 차가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시각장애인은 주변인이 "차가 없으니 건너도 된다."라고 말하기 전까진 불안함을 거두지 못한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오병철씨(51)는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활동지원사 없이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건널 때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이동의 모든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물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져 이동상의 제한 정도가 높고 이로 인해 사회활동이 제한된다. 이동이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하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에 큰 제약이 생긴다면 우리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2.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란?

1) 시각장애인의 종류와 인구비율

모든 시각장애인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희미한 시력이라도, 잔존해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시각장애는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시력이 완전히 소실된 전맹으로, 사람들이 주로 떠올리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의 유형이다. 전맹을 제외한 나머지 시각장애인은 희미하지만 시야[1]나 시력[2]이 확보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다.



〈그림 1〉 시력 정도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비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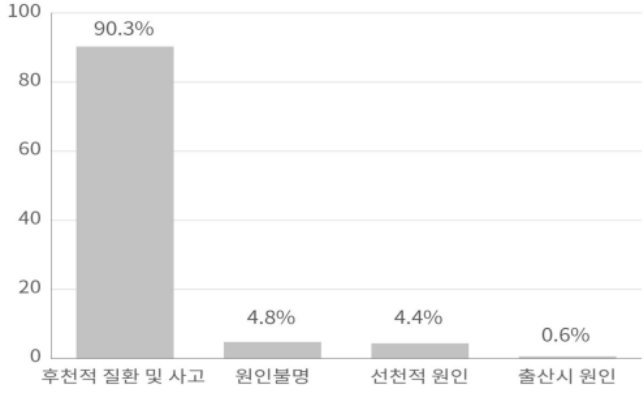
앞이 아예 보이지 않는 전맹은 시각장애인 중 12%의 비율에 불과하다. 나머지 88%는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흐려 보이는 등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다. 앞이 아예 보이지 않는 전맹이 저시력 시각장애인보다 보행 시 겪는 불편함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주로 조명된 전맹의 경험과 불편함을 바탕으로 조성되고 개선된 도보시설로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은 간과 당해왔다. 장애 정도가 더 약하다고 해서 전맹에 맞춤화된 시설이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 완전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각장애인의 90%를 차지하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적응과 참여기회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1) 한 점을 주시하였을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범위
2)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3) 장애인 실태조사 2020, 보건복지부

2) 보편적 질병으로서의 저시력

시각장애 발생원인 전체의 75.9%는 후천적 요인이다. 그 원인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병하는 안질환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주로 5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발병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연령은 50대 이상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노년기 이전의 삶을 정안인으로 살아온 후천적 저시력자들은 점자라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습득이 더 어려운 점을 비롯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시력 장애인'으로서 삶에 대한 대비가 미숙한 상태다. 게다가 시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남은 시력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큰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그림 2〉 시각장애 발생원인][4)]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발생하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비율과 그 고충을 보아 저시력 장애인의 고충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4) 장애인 실태조사 2020, 보건복지부

Ⅱ. 본론

1. 도보 이동권의 중요성

1) 이동권의 정의

저시력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과 같다. 남아있는 저시력 상태를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시각적 자극을 계속 주입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감각을 주체적으로 활용해야만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외부와의 소통 단절은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적 생존권의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저시력 장애인 최진석 씨(30,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는 이동의 상황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면, 자신의 감각이 하나씩 둔감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저시력 장애인에게 이동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생존 수단인 것이다.

2) 저시력 장애인의 보행 과정

시각장애인의 보행 과정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보행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이동을 수행하는 2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있다. 비장애인은 방향설정과 이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은 각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보행 과정에서 사람은 먼저 주어져 있는 환경 내에서 주변의 물체들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며 주변의 물체에 익숙해지려 노력한다. 비장애인은 어떠한 제약 없이, 눈 앞에 보이는 모든 정보들을 흡수하며 다음 움직일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동시에 가능하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보행에서 방향의 설정과 이동은 분리되어 있다. 자신이 지닌 청각적, 촉각적, 시각적 감각들을 끊임없이 활용해서 위치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 이상,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은 시야에서 확인함과 동시에 방향을 전환하여 피해갈 수 있다. 이에 반해 저시력 장애인은 최소한의 남아있는 시력을 활용하거나 촉각이나 청각 등 다른 감각기관으로 자신의 보행에 걸림돌이 되는 물체에 대한 정보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후에 해당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방향과 목적지까지의 보행 과정을 재정립하는 부차적인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도보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방향 설정과 이동에 제동이 걸리는 시각장애인에게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 되어준다.

3) 이동 편의시설

(1) 용어정리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에 따르면,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이다. 이는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을 매끄럽게 한다. 이동 편의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내·외부의 보행길 과정에서 보행의 편의를 돕는 장치들을 의미한다. 편의시설의 목적은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속 가능한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있다.

(2) 이동 편의시설 종류

시각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편의시설 종류[5)]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단차 등)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위생시설	화장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음성 출력 피난구유도등
비치용품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 확대경

안내시설 중 하나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알도록 하기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이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나뉘며, 거리의 모양마다 설치되는 블록의 형태가 상이하다. 음성안내장치는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건물의 입구와 같은 각종 목표지점이나 시설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목적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지판과 달리 작동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주기적인 검사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5) 전국 278개 도시군구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1

4) 도보 이동권의 필요성

저시력 장애인의 경우 아예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전맹과 달리, 일정 부분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걷거나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천천히 보행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외부활동을 하며 생활하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시각적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보행하는 데에는 늘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항상 공존한다.

기존의 인프라나 시설들은 전맹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저시력 장애인이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미영순 한국저시력인연합회 회장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은 모두 시력이 아예 없는 ‘전맹(全盲)’뿐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색이나 검은색 혹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점자블록은 저시력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점자블록은 빛이 반사될 뿐만 아니라 미끄러워 저시력 장애인들에게 위험하다. 따라서, 독립보행에 대한 의지가 높은 저시력 장애인들이 도보 시 편의시설 부족이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 도보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을 겪게 되고, 이는 결국 낯선 길을 꺼리게 되는 현상으로 귀결된다.

(1) 시각 장애인 집 밖 활동시 불편요인

〈표 2〉 시각장애인 외부활동 제한 이유[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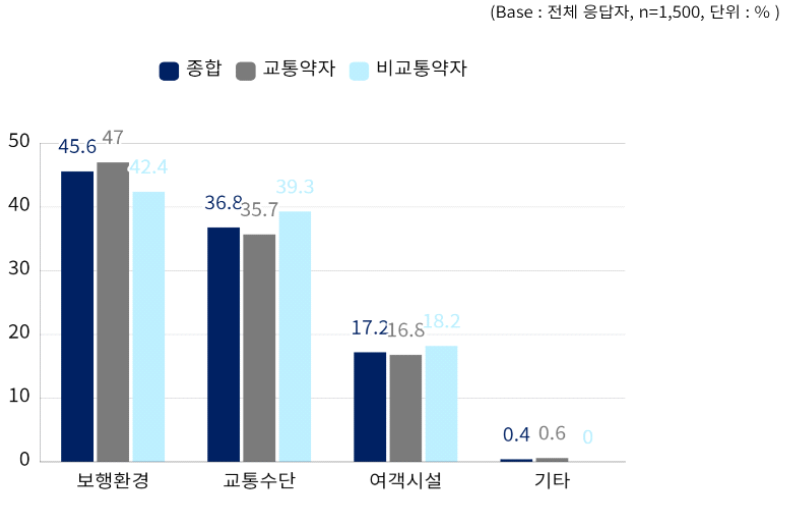
구분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장애 관련 편의시설 부족	**16.2%**	**35.6%**	**28.6%**
동반자 부재	34.7%	38.6%	28%
주위 사람들 시선	15%	6.9%	3.9%
의사소통의 어려움	29.2%	1%	28.7%
기타	4.9%	17.9%	10.8%
계	100	100	100
전국추정수	87,510	111,275	162,453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외출 시 불편하다고 느낀 가장 큰 원인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의 부족이었다. 2017년도의 편의시설 부족 응답률은 50%를 상회했다.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개선하면

6)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0

서 응답률 자체는 줄었지만, 보행 시 느끼는 불편함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여전히 편의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들의 보행 속에서 편의시설이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보행을 돕는 이동 편의시설이 정작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미치지 못한다면 보행자는 결국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2) 교통약자의 가장 개선이 시급한 이동편의 환경



〈그림 3〉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문제 심각성][7)]

2020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개선이 시급한 보행시설로 보도가 언급되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보도에서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마주칠 수 있다. 공사를 하는 지점에서 땅이 패여 있는 경우, 아스팔트 처리가 안 되어 있어 갈라지는 부분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한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사전에 시각으로 확인하고 피해가면 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시각장애인은 보행 중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 놀랐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앞을 바라봐도 흐릿한 형체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더불어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되어 오작동하는 출차주의 신호기, 혼란을 가중시키는 음성신호기, 높낮이가 다른 계단, 낮은 턱 등은 시각 장애인들의

7) 2020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안전한 보행을 어렵게 만들고, 때론 큰 상해를 입힌다.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들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단순히 설치에서 끝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도보 편의시설의 높은 설치율만으로는 시각 장애인들의 도보 이동 시 심리적 편안함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저시력자의 도보 이동권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현황 조사
: 저시력 장애인 인터뷰

1)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의 도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만 원하는 장소를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도보 이동권 보장에 저해되는 도보 인프라 문제들에서 저시력 장애인들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2022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흰 지팡이(케인)없이 독립보행을 할 수 있는 저시력 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동 편의시설이 저시력 장애인이 갖고 있는 독립보행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반 구조화된 면접지를 바탕으로 40분 동안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지 별첨)

2) 연구 참여자

해당 연구의 참여자는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여성시각장애인연합회,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직접 공문을 요청하여 각 기관에 소속된 저시력 장애인으로 모집을 진행했으며, 세부적인 참가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인터뷰 참여자 정보

	성별	연령	장애 정도	장애 원인	특이사항
인터뷰 참여자1	남	30대	시각 중증	원인불명	양 시력 차 큼
인터뷰 참여자2	남	30대	시각 중증	원인불명	주맹증, 적생맹
인터뷰 참여자3	여	50대	시각 중증	망막색소변성증	-
인터뷰 참여자4	남	40대	시각 중증	원인불명	중심부 손상
인터뷰 참여자5	여	50대	시각 중증	망막색소변성증	중심부 손상
인터뷰 참여자6	남	30대	시각 중증	원인불명	양 시력차 큼, 주맹증
인터뷰 참여자7	여	40대	시각 중증	원인불명	-

3) 연구 결과

연구결과, 참여자들이 도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부정적인 심리적 변화 즉 심리적 위축감을 겪었다는 증언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 이용상의 어려움이 심리적 위축감으로 확대된 경우 “처음 가는 곳은 항상 망설여진다. 도보는 항상 부담스럽다. 턱이나 계단 주변 시설이 괜찮은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보 시 유도블록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없애 달라는 민원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느낀다.”라는 증언이 있었다.

더 나아가, 심리적 위축감이 외출과 도보이용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존재했는데 “계단 앞에 서면 일단 매우 조심해야 하므로 긴장한다. 계단 색깔이 같아서 헛발질 하는 경우 많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단에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 도움을 주겠다며 다가오는 경우, 겉모습만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싫게 느껴진다. 그리고 장소 선택 전에 너무 헤맬 수 있는 장소는 피하는 편이다. 가고 싶은 곳 보다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을 고른다.”라는 증언이 그 예시이다. 턱이나 계단 주변 시설이 괜찮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도보는 부담스럽고 처음 가는 곳은 항상 망설여진다는 증언도 있었다.

인터뷰 전반에 걸쳐 참여자들은 계단, 횡단보도, 주차장입구 등과 같은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서 실제로 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직간접적인 사례를 많이 언급해주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불안함을 느낀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실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기인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인터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앞선 인터뷰에서 제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이동 편의시설은 저시력 장애인의 독립보행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나아가 보행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편의시설이라도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용 대상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리고 만약 그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저시력 장애인은 해당 편의시설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보행 과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동편의시설 중, 특히 신체적 상해를 입기 쉽고 사고로 직결되는 주요시설 3가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저시력자들이 심리적 위축을 겪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며,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위험성과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계단

계단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가장 꺼리는 시설물임과 동시에 장애물이다. 계단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편의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① 법조망을 피해가는 외부 계단

〈표 4〉 계단 설치기준에 따른 재질 및 마감 적용 내용[8)]

구분	재질과 마감
설치 기준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모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로서 계단의 설치기준은 〈표 3〉과 같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은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단과 계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계단코에 계단과는 다른 색상의 줄눈이나 미끄럼 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 계단 앞이면 일단 긴장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있더라도,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계단 색이 똑같아 보여서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계단 사이에 계단과 다른 색의 표시만 있어도 천천히 걷더라도, 심리적 부담감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

> 우리끼리는 미끄럼방지띠를 '저시력띠'라고 불러요. 그게 있는 곳과 없는 곳은 확연히 다르죠. 계단 내려 갈때 올라갈 때, 그게 있으면 비장애인처럼 갈 수 있어요. 없으면 설설 매죠,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계단 끝인지 모르니까... (인터뷰 참여자5)

하지만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단이 모든 시설물[9)]에 설치하는 일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8) 장애인 등 편의법 편의시설 적용 기준, 시행령 별표2

9)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등

아니다. 편의시설의 5가지 종류 중 계단은 내부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천장과 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혀있어야 한다는 실내 공간 정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외 계단은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게 된다.

> 사람들 운동하는 길, 하천 옆에 길 가기 위해서 돌계단 같은거 있잖아요? 돌 색도 똑같고, 크기도 뒤죽박죽이라 엄청 위험해요. 최근에 지인들이 청계천에 가자고 해서 들렸다가 조금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인터뷰 참여자 1)

② 실내 공간 내 부적정 설치율

하지만, 법적 강제력을 받는 실내 공간의 계단마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대부분의 시설물에서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종점에만 설치하는 점형블록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근감이나 색맹 정도가 심한 저시력 장애인의 경우, 미끄럼방지띠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점형블록이 없는 계단의 경우 처음 시작되는 계단 턱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다.

〈표 5〉 전국 소개 도·시·군·구청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세부 항목별 설치 현황[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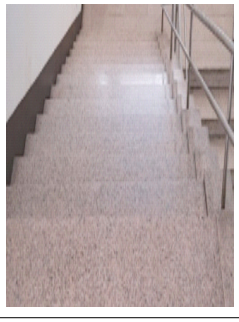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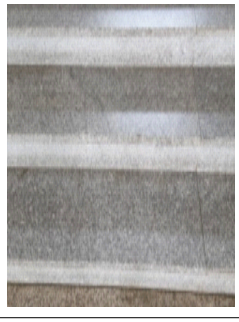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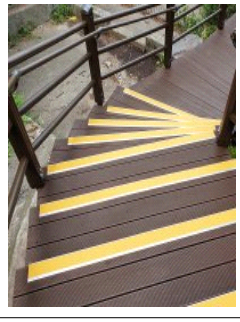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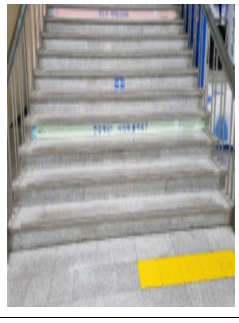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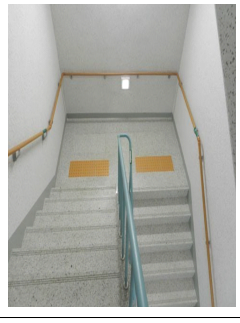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출입구	실내출입문 점자표지판	0.7%	48.9%	50.4%
계단	손잡이 점자 표지판	5.9%	77.0%	17.0%
	줄눈넣기, 미끄럼방지	96.0%	2.2%	1.8%
	시·종점 참 부분 점형블록	18.4%	62.8%	18.8%

> 다 예산이 드는 일이니까, 모든 계단에 저시력띠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면 첫번째 계단과 맨 마지막 계단에 점혈블록만 설치되어 있어도 괜찮거든요. 간격이 똑같다 보니까 첫번째 계단만 인지하면 그 다음 계단차는 감각으로 인지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인터뷰 참여자5)

실제로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결과, 계단의 시작점과 종점 참 부분에 점형 블록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20%,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적 설치율은 60%를 상회했다. 저시력자가 말하는 '저시력띠'에 해당하는 미끄럼방지띠의 적정

10)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2021, 보건복지부

설치율은 9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시작점을 알 수 있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은 색맹을 가진 저시력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 된다. 저시력 장애는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겪는 어려움도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시설이 개선되어야만 모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 설치 사례	부적정 설치 사례	적정 설치 사례
계단	줄눈넣기·미끄럼방지띠			
	시·종점 참 부분 점형블록			

〈그림 4〉 이동 편의시설 계단 설치 사례

또한 지하철처럼 이용 시간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계단의 경우 미끄럼방지띠를 통해 계단과 계단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존재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계단 통로가 조성된 것처럼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계단 통행로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저시력 장애인만을 위한 통행로에 대한 필요성은 저시력 장애인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의견 표명이 개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짐작으로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VOICEYE
voiceye.com

(2) 음향신호기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신호등의 정보를 음향과 음성으로 알려주는 장치로, 시각장애인들이 가는 길과 방향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횡단보도는 자칫 잘못하면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다. 따라서 음향신호기는 언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건너야 하고, 멈춰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줘야 한다. 신호등에 함께 올바르게 부착되어 있는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 중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괴리가 있다. 2021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최혜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약자대상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전국 11만 7484개의 횡단보도 중 3만 8811개에 불과했다. 저시력 장애인에게 도보 편의시설인 음향신호기가 일으키는 문제는 크게 3가지이다.

〈표 6〉 음향신호기의 문제

문제	내용
1	신호의 현황을 알 수 있는 푸시 버튼과 119 긴급 구조 버튼의 혼합
2	신호등에서 음향신호기 설치된 위치가 일정하지 않음 (오른쪽, 왼쪽 구별 어려움)
3	음향신호 리모컨의 불규칙한 오작동 발생
4	저시력자의 심리적 위축

① 음향신호기 버튼의 혼동

횡단보도 앞 비상벨 버튼 혼동 사례 (음향신호기 부재)





〈그림 5〉 음향신호기 버튼 혼동

신호안내음향은 리모콘 또는 버튼을 작동시켜 한 수신기에서 신호안내음향이 발생되면 한 조를 이루는 맞은편 신호기에서는 보행 시간(보행 녹색 및 점멸) 중에 바탕음이 발생하여 시각장애인이 맞은편으로 쉽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1]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옆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119로 신고되는 버튼, 비상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 장애인은 언제 초록불이 켜지고 자신이 얼마나 더 보행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있어서 도보 편의시설을 의존한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음향 신호기 버튼을 누르면 오히려 다른 곳에 연결되는 일이 발생한다.

11) 양방향 통신 지원 시각장애인용 BLE 기반 음향신호기, 한국정보통신학회

② 획일화되지 않은 음향신호기 설치 위치

횡단보도 왼편 설치	횡단보도 오른편 설치
	

〈그림 6〉 상이한 음향신호기 설치 위치

일정하지 않은 음향신호기의 설치 위치는 저시력 장애인의 보행에 혼란을 가중한다. 음향신호기의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버튼을 더듬어 찾아야 한다. 이럴 때 설치 위치가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존재한다면 편의시설의 도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음향신호기가 모두 제각각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 저시력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도움을 받기까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③ 리모컨 사용의 어려움

저시력 장애인은 음향신호기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까? 이는 저시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음성유도기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조금 더 형태가 뚜렷이 보이는 저시력자의 경우 직접 버튼을 찾아서 도보 편의시설을 이용한다. 음향신호기와 음성유도기는 모두 리모컨을 통해 작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시력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모컨의 사용이 오히려 보행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손에 핸드폰이나 지갑이 있거나 다른 무언가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리모컨을 사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매 외출 시마다 작은 기계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④ 저시력자의 심리적 위축

〈표 7〉 2021년 시도별 음향신호기 보수 현황[12)]

항목	현황	비고
음향신호기 관련 고장 및 오작동 건수	4,451건	-
음향신호기 점검, 수리 교체계획 수립	48%	전국 225개 지자체 중 109곳
음향신호기 관리감독 조례 설치	13%	전국 225개 지자체 중 29곳

음향신호기는 저시력 장애인들의 심리적 보행 안정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정○○씨(50대, 한국여성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는 음향신호기의 유무가 심리적 위축도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면서, 8차선처럼 넓을수록 음향신호기가 오작동될 경우 무서움과 불안함의 수치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좁은 길이면 횡단보도의 형태가 흐릿하게나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서 최대한 빠르게 건너는 것이 가능하지만 넓은 길이라면 초록불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에 대한 감지가 어려워져 저시력자들에게는 보행 중 큰 난관이 된다.

설치율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용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직접 이동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보행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오작동되는 음향신호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유지 보수는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하며 당사자들이 겪는 음향신호기의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필요하다.

(3) 출차신호

차량 진입로란 주차장, 주유소 등으로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 통과하는 도로(보도)를 말하며, 공공용지인 보도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해당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도로점용시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고, 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해 보도가 훼손될 시 건물주가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진입로와 차량진입로에 설치된 안전시설인 출입경보장치를 포함하여 이들이 저시력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 표의 사례는 차량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것이다. 비장애인도 차량진입로에서 빈번히 교통사고를 당하는 만큼 시야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더욱 그 타

12) 경찰청, 전국 지자체, 최혜영의원실 재편집

VOICEYE
voiceye.com

격이나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표 8〉 차량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

사례1	세차장에서 나오던 택시에 치여 50대 여성 사망 2020년 6월, 50대 여성이 세차장에서 나온 택시 진행 방향을 무시하고 인도 주행 중 치여 사망함.
사례2	주유소 진입 굴착기에 치여 초등생 사망 2020년 1월, 굴착기가 주유소에 진입하려다 인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함.

안전시설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62조 및 시행령 58조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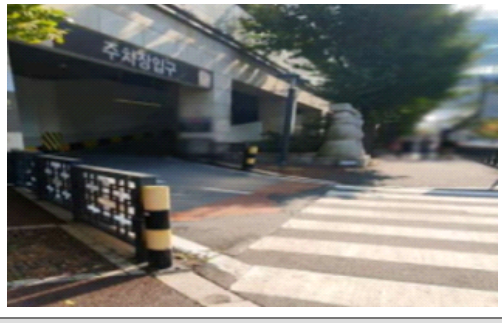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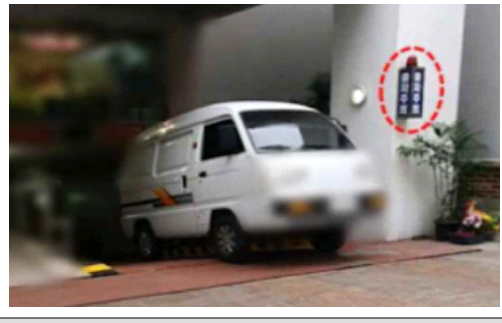
- 도로법 시행령 58조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책등)
  4. 다음 각 항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 도로법 제 117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하지만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경우 규격이나 설치위치등 세부적인 기준이 나와있지 않다.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소 중 차량 진·출입로에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된 곳은 63개소(63.0%)였으며, 이 중 16개소(25.4%)는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부저)가 울리지 않는 등 관리상태가 미흡했다고 한다. 게다가,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37개소(37.0%)는 차량 진출 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표 9〉 출입 경보장치 설치 여부 및 설치 적정성[13)]

구분	출입 경보장치 O		출입 경보장치 X	합계
	63개 (63.0%)		37 (37.0)	100 (100.0)
	작동 O	작동 X		
	47 (74.6)	16(25.4)		

출입 경보장치 미설치	출입 경보장치 미작동
	
출입 경보장치 설치	**출입 경보장치 정상작동**
	

〈그림 7〉 출입 경보장치 주요 문제점

현장을 살펴보면, 주차장입구에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저시력자의 경우 보행시 특히 차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한 상태이며,

13)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2020

KCR VOICEYE voiceye.com

인터뷰에 따르면 차와 함께 보행해야하는 이면도로 혹은 횡단보도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기도 하였다. 따라서 출입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차가 나올 때 인식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는 결국 큰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당사자와 인터뷰했을 때도 문제는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해결을 위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출차주의 경고등의 경우 설치와 수리하는 주체는 민간기업이나 업체지만 정작 설치를 의뢰해야 하는 주체는 건물주 혹은 건물관리담당자이기 때문에 문제제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건물의 경우 해당시설 관리부서가 존재하지만 수년째 고장난지 모르고 세월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점검을 통해 제대로 된 유지 및 보수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문제제기를 제대로 모아 책임 주체에게 전달할 매개가 없다 보니 유지와 보수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위의 계단, 음향신호기, 출차신호등의 편의시설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 다양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기준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Ⅲ. 결론

1. 이동성 강화를 위한 해결 지점

1)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이동 편의시설 부적합 설치율이 높고, 전반적인 설치율이 낮은 원인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사업 그리고 두 번째,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를 소수의 의견으로 취급하는 시청과 같은 지자체 등의 예산 집행기관이다.

편의시설 점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과 이용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모니터링 사업은 일시적으로 단원을 모집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단발성이 짙고 결과를 보고하기만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모니터링 사업에 적합한 빅데이터 및 통계 전문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장애 당사자의 모니터링 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모니터링 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표 10〉 모니터링 사업별 관할기관

모니터링 대상	사업명	관할기관
지하철 내 편의시설	장애인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도보환경 내 음향신호기	서울시 보행환경 모니터링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거주지 인근 편의시설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불편사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첫 번째로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중앙에서 감시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도보에 있는 편의시설은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과 같은 건물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서 관리한다. 하지만 모니터링 사업을 비롯한 보수유지 사업은 요청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장애인 인권위에서 꾸준히 진행해오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모니터링 사업만을 맡아서 주력하는 중앙기관이 없어서 모니터링 사업에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태다. 이는 모니터링 사업의 개선 기회가 부재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 지하철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세워져있던 킥보드를 못 보고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세게 넘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역사에 민원을 자기네 출구에 들어와서 사고가 나야 민원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킥보드나, 자전거를 관할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로 연결해보라고 근데 또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친 상황에서 경황도 없는데 거기다가 언제 또 연락을 할 수 있겠어요. (인터뷰 참여자5)

> 집 근처 음성신호기를 눌러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곳이 많아서 직접 시청 교통과에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었죠. 한 두 달 후였나, 까먹을 때 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나마 동네 관이 응답이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인터뷰 참여자 2)

이와 같이 편의시설 이용 중 겪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상 어떤 기관에 연락을 해야 가장 빠른 대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기관에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안내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된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모니터링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동시에 사업 자체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두 번째, 기존 모니터링 사업이 형식적인 이유는 '확인'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로 편의시설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갖는 힘이 매우 미약하다. '확인'뿐만 아니라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과정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모니터링 사업의 타당성을 갖고, 권위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현재 장애 당사자의 모니터링 사업 참여는 매우 부족한 실상이다.[14]

〈표 11〉 지역별 조치 현황[15]

조사대상	항목 갯수	조치		미조치	
		조치 항목 수	조치율	미조치 항목 수	미조치율
서울시 주민센터	1,757	351	20.0%	1,406	80.0%
수원시 주민센터	154	19	12.3%	135	87.7%

만약 모니터링 사업이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고, 전문인력의 증대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개선시키더라도 이를 소수의 의견으로 취급하는 시청과 같은 지자체 등의 예산 집행기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사업은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실제로 음성신호기와 관련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측에서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정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적 있다.

> 유도블록이 있는 쪽이 경사로여야 하는데 그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개선이 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여자5)

편의시설과 관련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일반인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가 많은 이들의 동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와 관련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의 참

14) 2021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모니터링 참여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지회, 유관단체에 재직 중이며,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제 1~5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교육을 이수한 8명의 조사원과 전문가 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고 전문가 교육 테스트에 합격한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되었다.

15)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021

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다면, 소수의 의견으로 여겨지던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다수의 의견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 모니터링 사업의 책임 분산 체계로 인해 생긴 '민원 제기의 용이성 및 접근성'이라는 문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감시체계의 형성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볼 수 있다.

2) 이동편의정보 제공

이동편의시설들은 저시력 장애인의 도보 보행을 용이하게 만든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차원의 편의시설 유지 및 보수 관리는 소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만약 목적지까지의 보행 중 저시력 장애인이 이동 편의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현재' 어떤 수단을 이용하며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있을까?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휴대폰/스마트폰 사용률은 92.4%에 달한다. 시각장애인 범주에는 전맹 뿐만 아니라 저시력 장애인도 존재한다. 이들은 최소한의 형태와 빛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사용이 전맹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스마트폰 자체의 기술 수준 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저시력 장애인들은 다양한 지도 앱 혹은 자체 음성인식 비서 기능을 활용하여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1) 현황

아래 표는 저시력 장애인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민간 지도 앱 3개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만들어진 지도 앱을 함께 비교했다. 민간 지도 앱을 분석하는 이유는 실제 저시력 장애인의 다수가 보행 중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표를 통해 비교하는 목표는 두 가지이다. 현재 저시력 장애인이 쓰고 있는 비장애인 대상 지도 앱이 가진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사자가 지닌 이동정보 확인 욕구를 유추한다. 또한, 저시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앱을 함께 소개하며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들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제언에 언급할 것이다.

〈표 12〉 저시력 시각장애인 사용 지도 앱

민간 지도 앱						시각장애인 지도 앱
이름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T-Map	G-EYE+
분류	도보	자동차	도보	자동차	자동차	도보
길찾기 기능	O		O		O	O
도보 사진 활용도	1점	-	3점	-	-	4점
음성 지원 여부	X	O	X	O	O	O
저시력자 현재 이용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도보
이동 편의시설 정보 제공	X					

* 도보 사진 활용도: 100% 배율에 맞는 지도 사진을 보기까지의 클릭 수 기준으로 분석한 점수 (6번 이하- 1점, 5번 이하- 2점, 4번 이하- 3점, 3번 이하- 4점)

저시력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은 “단순함”이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의 절차가 간결하지 않으면 이들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만 한다. 도보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는 두 지도 앱은 사용자가 음성인식을 통해 목적지를 설정하면, 글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방향을 제시한다. 지도 그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저시력 장애인이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분석한 결과 네이버 지도가 가장 간단한 과정을 지니며, 가장 큰 배율의 지도 사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저시력 장애인들이 현재 이용하는 기능은 도보가 아닌 자동차 길 찾기일까? 이에 대한 답은 음성지원이라는 기준에 있다. 저시력 장애인이 100% 배율을 차지하는 지도 사진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화살표 버튼을 찾아 지속적으로 클릭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 과정들까지 포함하면, 결국 도보 길 찾기 기능은 저시력 장애인의 보행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동차 길 찾기는 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정된 기능이기 때문에 음성지원이 이뤄진다. 스마트폰이 움직일 때마다 그 기준에 맞게 같이 지도의 방향도 이동하면서 때에 맞춰 적절하게 다음 방향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러한 편의성을 두고 저시력 장애인들은 민간 지도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다. 저시력 장애인이 최선의 대응으로 사용하는 음성지원 길 안내 기능은 말 그대로 차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골목길이나 인도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도보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동편의시설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점도 저시력 장애인의 이동시간이 길어지게 하며, 그들이 심리적 불안함을 가지고 외출해야 하는 원인이 된다.

G-EYE+는 LBS tech에서 만든 시각장애인 특화 지도 앱이다. 따라서 다른 민간 앱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성에 집중한 기능들로 이뤄져 있다. 도보 길 안내에 음성지원이 되고, 단순함이 부각 된다. 다만, 유료 앱이라는 측면에서 배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민간 앱과 마찬가지로 이동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사용자들이 알 방법이 없다.

(2) 시사점

이동편의정보(편의시설 정보, 보행 장애물 정보) 이 제공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정보를 통해 보행 중 겪는 어려움을 미리 인지하여 심리적 위축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저시력 장애인의 주체적 보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민간 지도앱은 이동편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동 편의정보는 보행 중 마주치는 계단에 부착된 설비, 보행 걸림돌이 되는 계단 차에 대한 정보, 신호등에 부착된 음향신호기의 유무 및 정상 작동 유무 등을 칭한다. 편의시설에 관한 기존 솔루션은 민간 차원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시각장애인 특화 길찾기 앱에도 한계는 존재했다.

민간 지도앱에서 도보 편의시설 관련 기존 솔루션이 없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전체 비중이 비장애인에 비해 적을 뿐더러 수익성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해당 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저에는 이러한 이유 들이 있다. 민간 차원의 자본주의적 동기가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며 불편함을 지닌 채 살아가야 하는 소수자들도 비장애인과 동등선상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V. 제언

저시력 장애인의 도보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기존 민원 대응의 책임 분산 문제에서 기인하는 민원 제기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동 편의시설의 정확한 설치와 보수유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편의시설 경험과 그로 인한 문제제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로 이동 편의시설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통공간의 조성은 필수적이다.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알았다면 이런 불편함

VOICEYE
voiceye.com

> 을 알리기라고 했을겁니다.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못했죠. 그리고 지금이 최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도 귀찮아 할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기는 싫어요 (인터뷰 참여자 5)

하지만 문제를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적절한 보수유지로 이어지는 만능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이 소수의 의견으로 취급되지 않고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비장애인의 의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편의시설 현황 정보에 대한 공개를 바탕으로 편의시설이 있는 도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선택지의 보장이 필요하다. 저시력 장애인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장소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계단의 턱 높이를 비롯한 미끄럼방지 띠의 설치 여부, 음향신호기의 부재 등 도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저시력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도 안내 서비스는 골목길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진정으로 저시력 장애인이 위축감 없이 도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도로의 장애물을 포함한 이동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이동정보는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서 저시력 장애인이 도보를 걸으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 포괄하도록 한다.

앞서 도보 이동권 보장 대안으로 언급한 편의시설 관련 의견 및 불만 표명 공간과 이동 정보 제공의 기대 효과와 한계는 서로 상호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민원 대응 의무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어 있었다. 결국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받기 보다는 책임을 미루는 답변을 받는 것이 부지기수 였는데, 만약 자동 분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기된 민원을 관할 기관으로 연결함과 동시에 이를 이동정보로 구분하여 현황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면 접근성 높은 민원 제기 방식을 바탕으로, 편의시설 현황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민원이 단순한 불편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동정보로 분류되어 저시력 장애인의 안전한 경로 선택지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장애인의 참여 역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민원의 영향력 증대라는 긍정적인 결과 역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표명한 의견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 여부에 의문 역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편의시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 개선 역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희, 이민경, 오욱찬, 오다은, 황주희 ,오미애, 김지민, 이연희, 강동욱, 권선진, 백은령, 윤상용 & 이선우. (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20, 보건복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동해엔지니어링(주), ㈜네오알앤에스. (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국토교통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019). 시각장애인의 이해. http://www.kbuwel.or.kr/Blind/What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020.09.14.). 수도권 소재 주민센터 잘못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방치, 개선 의지 미약. 보도자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021). 2021 전국 278개 도·시·군·구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김주완, 김정숙, 나동길 외 1명. (2017). 양방향 통신지원 시각장애인용 BLE 기반 음향신호기. 한국정보통신학회

경창철, 전국 지자체. (2021). 2021년 시도별 음향신호기 보수현황

LBS Tech, 시각장애인 보행 네비게이션: G-EYE LOW VISION, https://www.lbstech.net/service-g-eye-lowvision

보건복지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021). 2021 전국 278개 도·시·군·구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VOICEYE
KOR
voiceye.com

Abstract

A study on the right of mobility for visually-impaired people with low vision:

Focusing on problems of facilities that can not satisfy the desire for independent walking

Kim Min Seo, Choi Young Eun, Kim Jae Yeon

The right of mobility,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 to survive, is an important right to lead a human-like life. However, this right of mobility is not given equally to the entire people. This is because people with disabilities face many difficulties when moving due to various obstacles or unmanaged facilities scattered. The reality suggests that visually impaired people face more difficulties because it is hard for them to visually recognize obstacles or facilities. In particular, if convenience facilities are not equipped, it can lead to serious accidents, which increases the anxiety that visually impaired people feel while walking. In addition,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cause inconvenience in their movement of them,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fficult walking environment and closely examines the mobility facilities, government systems, and existing private-level solutions. In particular, the voices of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captu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o access their vivid opinions of them. In conclusion, it is intended to suggest how the walking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and contribute to an equal society in which non-disabled and disabled people live together in solidarity and cooperation.

Keywords : visually impaired people with low vision, independent walking, facilities for moving convenience

* Business School, Korea University
**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Ewha Womnans University
*** lecordon blue hospitality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별첨: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대상자 기본 정보

이름	성별	연령	장애정도	장애 발생 시기	장애 발생 원인

1. 대상자 이해
   1) 주로 외출하는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2)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이동수단을 비롯한 이동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3)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2. 도보편의시설 의존도
   1) 일주일 기준, 외출 빈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일주일 기준, 계단 / 음향신호기 / 출차주의 경고등을 비롯한 도보편의시설(이하 도보편의시설)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3) 도보편의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3. 도보편의시설 이용상의 어려움
   1) 도보편의시설 이용시 겪은 불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1-1) 도보편의시설(특히 음향신호기)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2) 도보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상해를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3) 도보편의시설의 어려움을 빈번히 겪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4. 도보편의시설 이용상의 어려움의 확대
   1) 도보편의시설로 인한 어려움이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습니까?
   2) 도보편의시설로 인한 어려움이 외출 선택 여부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습니까?
   3) 도보편의시설로 인한 어려움이 이동상의 어떠한 제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5. 도보편의시설 관련 요구
   1) 도보편의시설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특정 행동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2) 도보편의시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3) 도보편의시설의 현황을 목적지 선택 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4) 도보편의시설로 인한 어려움과 관련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383 - 407

중증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학적 고찰

화지원*

장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 앞에서 얼마나 주체적일 수 있는가? 법은 개인적 도덕관념이나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엄숙주의 등에 의해 성에 관한 담론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겨 접촉하거나 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꺼리곤 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법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가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내용으로, 타인으로부터 법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적극적 의미에서 이뤄진 소수의 연구도 그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관련된 일부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섹스로봇과 확장현실-기반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해결방안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적극적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섹스로봇과 확장현실-기반 메타버스의 활용이 현실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중증장애인, 성적 자기결정권, 법학적 고찰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부

Ⅰ. 문제의 제기

장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 앞에서 얼마나 주체적일 수 있는가? 법은 개인적 도덕관념이나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엄숙주의 등에 의해 성에 관한 담론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겨 접촉하거나 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꺼리곤 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교육권(오시진, 토마스백 2011; 김경열, 2017; 이예다나, 2018)과 이동권(윤상용, 2004) 등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동안 계속 연구되어 왔고, 특히 장애인 이동권에 관하여는 최근에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박창석, 2021; 양정빈, 최윤영, 2022).

그러나 장애인은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하여야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감하건대,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부터 형사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김재윤, 2009; 함현지, 2019), 장애인준강간죄에서의 '항거곤란'[1]에 대한 해석론(최은하, 2015),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성적 학대에 관한 판례 분석(윤기혁, 2020)에 관한 연구 등이 존재한다. 요컨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법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가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내용으로, 타인으로부터 법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연구하였다.

한편, 적극적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는데(이상도, 김대원, 2008; 장애여성공감, 2011; 류원섭, 2018),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여 (중증)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상도와 김대원(2008)의 연구는 장애인의 성문제를 실천적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개입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규범적 영역에서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인여성공감(2011)의 연구는 장애인도 당연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점에서 무성(無性)의 존재가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성(서비스) 정책에 관하여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외 입법 현황 및 동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제시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VOICEYE voiceye.com

하고 소개한 정책 중에서 일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범죄(불법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류원섭(2018)의 연구는 해결방안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바, 법학의 관점에서 여전히 명료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더 나아가 인격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해결방안을 살피건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중증)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탑재된 인간 모사 자위기구'와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기반 메타버스(metaverse)'의 활용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섹스로봇은 지나치게 잦은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을 대상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잘못된 성인지 형성에 관한 우려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실질적인 성교육과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확장현실-기반 메타버스(XR-based Metaverse)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확장현실과 메타버스의 결합은 초실감형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현실과 다를 바 없는 체험을 통해 타인과 일상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진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학의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장애인도 당연한 성적 주체임을 공고히 하고,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은 「헌법」상 기본권 주체인가?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즉 '국민'이다.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고, 제2장의 기본권 규정은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가진다고 한다(양건, 2020).[2)]

2) 기본권에 따라서 국민이 아닌 사람(외국 국적자, 무국적자, 복수 국적자)에게도 해석상 기본권의 주체로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기만 하면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천명하고 있는바, 차별금지의 영역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이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다. 이러한 규범들에 관하여 조경진(2014)의 연구에서 적절히 지적하듯이, 신체적·정신적 기타 장애를 가진 자도 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예외라고 할 수 없으며,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 중 제한된 곳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참여하고 이바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은 구별된다. 전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곧 기본권 보유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후자는 기본권 주체가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기본권 보유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기본권 행사능력까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태아나 사망한 자는 일정한 기본권 보유능력은 갖되, 기본권 행위능력은 없다고 본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기본권 보유능력은 인정되므로, 장애인은 당연히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국민이기만 하면 「헌법」상 모든 기본권 주체로 인정되는바, (중증)장애인도 당연히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도 된다. 헌법과 법률은 이러한 결론에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법질서 내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헌법」제10조를 근거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결정권에는 성적행동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며(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바360, 2012헌바5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그렇다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를 행복추구권(성낙인, 2010), 인간적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윤덕경, 2012;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2 결정)에서 찾는 등 다양한 근거가 제시된다. 생각건대, 성적 자기결정권 중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는「헌법」제17조에 해당하되, 성적 자기결정권 중「헌법」제17조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영역은「헌법」제10조에 보충적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만약「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에 따른 면밀한 근거 도출 없이「헌법」제10조에 따른 포괄적 기본권으로 해석한다면,「헌법」에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명시한 근거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권리임은 물론이고, 더불어「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률상 권리의 차원에서까지 이중적으로 보호 및 인정되고 재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3.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중적 성격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성격을 나눌 때 통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이분하여 논한다. 위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처럼(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성적 자기결정권이 기본적으로「헌법」제10조에 포괄적으로 포섭될 수 있음은 물론, '자기결정권'이라는 특성상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다는 판단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만약 장애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그 자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는 이를 도와줘야 하는지, 적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 한해서라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유권의 행사는 반드시 독립된 개인이 자력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사회권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자유권과 사회권의 개념

자유권과 사회권의 법적 성격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대비된다. 자유권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형식적 평등에 기초하고, 국가의 부작위를 요청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구체적인 권리다. 반면, 사회권은 공동체주의와 실질적 평등에 기초하고, 국가의 작위[3]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급부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제한된 의미에서 구체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종래의 법학에서는 이러한 자유권과 사회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구분하곤 했다.

2) 이중적 성격

일반적으로 사회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기본권 중에는 자유권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이 있는데,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일부 권리들(부모의 학교선택권, 교원의 수업의 자유 등), '근로자의 단결권' 등이 대표적 예다(양건, 2020). 생각건대, 우리 법체계가 통상 '자유권-사회권 이분론'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권리를 엄격하게 이분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유권 속의 사회권적 성격,' '사회권 속의 자유권적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계적인 이분론이 동등한 인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의 지위를 부정하거나, 권리성을 형식화하는 주장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주영, 2019). 즉, 경직된 이분법에 따른 구분은 오히려 기본적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뿐이므로, 이러한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가 온전한 기본적 인권의 구제 측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더욱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목적이자 근본적 가치는 바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존중이고, 법은 그러한 목적이자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 예컨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과 여건의 제공이라는 사실적인 급부 등이 해당한다.

VOICEYE voiceye.com

Ⅲ. 사례 검토

장애인이 성의 주체이자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성에 관한 기본적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질적 조사를 통해 일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안권수·이현숙 부부는 둘 모두 척수장애인이다. 이현숙 씨는 “성에 대한 욕구가 다치고 나서도 비슷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권수 씨는 “다친 후에는 정상적인 발기(erection)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막연했다”라고 토로했다. 의학적인 도움으로 발기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변실금’ 또는 ‘요실금’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안권수 씨는 “성관계를 한다는 거 자체는 서로 좋은 면만 보여줘서 좋아서 하게 되는 것인데, 실수를 하다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라고 전했다. 하반신에 운동신경이 손상되어 소변이나 대변을 비장애인처럼 볼 수 없는 척수장애인은 성관계 도중 ‘실금’을 우려해 성생활 자체를 회피하기도 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성관계 도중 경직이나 경련 때문에 다양한 체위를 취하거나 그 체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김동림·이미경 부부는 뇌병변장애 1급 중증장애인이다. 김동림 씨는 “두 사람 다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삽입성교)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라며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발달장애인은 언제까지나 아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모는 자녀에게 애초에 성에 관하여 알려주지도 않고, 사회로부터는 성적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당하기도 한다.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박옥순 씨는 자녀의 자위 현장을 목격하고 당황했다고 한다. 박옥순 씨는 “저희 아이는 성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라고 전했다. 그 이유로 “제가 옷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왔다 갔다 해도 관심이 없었고, 딸아이가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해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국발달장애가족연구소의 민일심 상담가는 비장애인과 달리 발달장애인에게는 자위행위 등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알려주면 충분히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으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태환 씨는 “성교육을 하면서 저에게 개선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좋아진 거 같다”라고 전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언제부턴가 “결혼도 할 수 없는데, 여자랑 한 번만 자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를 반복했고, 결국 아들의 자위행위를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해주기 시작했다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는 “그런데 아들이 점점 더 오랫동안,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배선이 씨의 손자는 자폐장애인이다. 배 씨의 손자는 사춘기가 시작된 열다섯 살 때쯤 성기를 드러내놓고 거실에 누워있거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장난을 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곤 했다고 전

한다. 손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면, 배 씨는 별다른 방법 없이 손자를 간지럽히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지적장애 1급인 딸을 키우는 한 엄마는 아이의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한다(허어영, 2010). “자신의 몸도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아이가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성교육도 해봤다”라며, “아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성생활과 양육의 기쁨도 누려야겠지만, 우리 딸의 미래에 엄마인 나 혼자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라면 성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라고 전했다. 이처럼,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이 원치 않는 임신, 성욕의 문제, 장애여성의 월경(menstruation, 月經)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거세, 나팔관 묶기, 난소 적출 등을 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제15대 국회에서 김홍신 의원이 밝힌 ‘정신지체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실태’에도 언급돼 있다. 당시에 확인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케이스가 있었던 10개 장애인 시설 중 8개 시설에서 75명(남자 48명, 여자 27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불임수술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가 불임수술을 강행한 2개 시설을 제외한 6개 시설에서는 시설 일방의 판단에 의해 강제 불임수술을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983년부터 1997년까지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정신지체 장애인은 총 66명(남성 40명, 여성 26명)이었다.

Ⅳ. 중증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논의

1. 성매매 합법화

(중증)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그 해결방법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제시되었던 것이 바로 성매매(prostitution)다. 다큐멘터리 ‘핑크 팰리스(Pink Palace)’에서도 장애인 최동수 씨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하였다(서동일, 2005). 류원섭(2018)의 연구를 살펴보아도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 견해는 성 구매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 판매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1) 법적 문제

일반적으로 성매매라고 하면, 성 매수자가 성 판매자를 찾아가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VOICEYE
voiceye.com

을 지급하는 '일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한편, 성매매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성 매수자가 성 판매자와 '일정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1년 동안 총 20회 성관계를 가진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4]를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적자치는 무제한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질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그 목적에 관하여 한계가 되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달리 말하여, 목적이 강행법규(그 가운데 효력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이에 위반된다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다.[5][6] 법률규정은 사법(private law)상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강행법규(강행규정)와 임의법규(임의규정)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없는 규정이고, 반면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규정이다. 강행법규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의법규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의미하고 있다(민법 제105·106조).[7]

성매매가 합법화(엄밀히 말하여 형사법상 비범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할 것인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 판례도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계약은 무효가 되겠지만(계약무효설), 반면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위 계약은 유효하다(계약유효설).[8]

---

4)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고 이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리다.

5)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6) 민법 제105조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8) '계약무효설'과 '계약유효설'은 각 입장을 취할 때 법리적으로 어떠한 전개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기 위해 만든 필자의 임의적 학설 명칭이다.

(1) 계약무효설 검토

위 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계약무효설을 취하면, 성 매수자가 성행위를 마친 후에 성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성 판매자는 해당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성 매수자가 성 판매자에게 성행위 전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성 판매자가 용역(성행위)을 제공하지 아니할 때 역시 성 매수자는 성 판매자에게 용역(성행위)를 요구하거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반환청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746조).[9)]

이때 불법원인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①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행법규의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곽윤직, 2003; 김주수, 1997),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나,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반환금지 또는 반환허용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견해(이은영, 2007),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인 강행법규 위반 및 사법관계에 관한 행정법상의 금지법규 중 효력규정 위반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김상용, 2011; 지원림 2013) 등으로 나뉜다(송덕수, 2021). 판례는 ①설과 같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 판결 등).

생각건대, ③설은 법률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하다는 것은 너무 난해하고, 나머지 두 학설은 지나치게 불법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문제가 있다.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례이고, 같은 법 제103조보다 불법의 인정범위를 좁혀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는 사회질서 중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것만이 불법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구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병합) 판결).

(2) 계약유효설 검토

한편, 위 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9)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OICEYE
voiceye.com

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성 판매자가 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성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성 판매자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해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그 성관계에 사용된 신체기관의 소유 주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성매매는 상대방이 원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민법」 제664조[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계약무효설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무효이므로(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상술한 것처럼 성매매가 합법화되었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타당한 지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그 모습은 판례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송덕수, 2018). 더 나아가,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된 약속이며, 성매매를 합법화 내지 처벌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이라고 볼 것인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민법」의 규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민법」은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다. 법체계를 살펴보건대, 「형법」은 개인의 생명·신체·자유 등 기본권을 국가형벌권으로 직접 침해한다는 점에서 보충성을 가진다. 즉, 다른 기타 법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최후수단적으로 비례원칙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를 고려하건대, 실질적 의미의 형법상 처벌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성매매를 합법화(비범죄화)하였다면, 국가는 성매매가 공공의 질서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고 이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위와 같은 "성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이므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고, 동시에 '법질서의 통일성 원칙'과 '체계정당성 원칙(Systemgerechtigkeit)'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인격적 문제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모두 인격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격체는 '인격을

10)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가진 주체'라는 의미로, 통상 법이 법적 주체로서 인정하는 자격 또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격은 ① 인격체 보호의 기능, ② 인격체와 법적 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능, ③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공고히 하는 기능이 있다(한국인공지능법학회, 2019).

특히 '인격체와 법적 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능'의 핵심은 인격체가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책임귀속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비범죄화된다면, 위에서 법적 문제를 살펴본 바와 같이, 성 매수자와 성 판매자 모두에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다.

3) 소결

결론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어떤 견해를 따르더라도 그 한계점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계약무효설은 성매매의 대금 지급 또는 용역(성행위)의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그 누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유효설은 성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매매 대금 지급 또는 용역(성행위)의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인격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성 봉사자 및 성 보조자

성매매 합법화가 아닌 성 봉사자 및 성 보조자(이하 '성 봉사자 등'이라 한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이 존재한다. 장애인을 무성의 존재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견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다음과 비판점이 있다. 첫째, 이러한 견해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역사회에 직접 함께하며, 일상 속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자연스럽게 친구와 연인, 또는 성적 파트너 및 프렌드 위드 베니핏(friends with benefits)[11]을 사귈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성적으로

11) '성적 파트너'와 '프렌드 위드 배니핏(friends with benefits)'은 어감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위한 관계인 반면, 후자는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감도 중시하는 연인이 아닌 관계를 뜻한다.

VOICEYE
voiceye.com

활발하고 무조건 성적 욕구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식의 주장은 근시안적이고 부적절한 해결방법이다.

둘째, 남성중심주의적 발상이다. 설령 성 보조자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서비스는 남성 장애인을 위한 것일 뿐, 여성 장애인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일본의 성 봉사단체인 '화이트 핸즈(White Hands)'[12]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 봉사자가 여성 장애인에게 성 봉사를 제공할 경우, 성 봉사 서비스를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남성 봉사자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남성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화이트 핸즈의 이러한 지적은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근래 5년간 발생한 성범죄[13] 중에서 남성 범죄자가 약 96.66%였다(통계청, 2021). 이러한 점에서 여성 장애인도 분명한 성적 욕구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받게 되더라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남는다.

셋째, 성매매와의 구별이 모호하다. 북유럽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교적 강력히 보장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북유럽의 장애인 성 서비스 기관을 살피건대, 사실상 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업적 기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장애여성공감, 2011). 즉,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봉사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되는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14] 그렇다면, 비록 '성 봉사자' 및 '성 보조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성 서비스는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양자 간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성 보조 서비스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

12) 화이트 핸즈(White Hands)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 간호(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다.

13) 여기서의 '성범죄'는 형법범에 한하며, 특별법범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성착취물, 음란물등)을 위반한 범죄는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뇌병변장애 1급인 김동림·이미경 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성생활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둘만의 성스럽고 고귀한 시간에 누가 옆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 서비스 이용을 불편해했다(안서연, 2013).

3. 섹스로봇과 확장현실-기반 메타버스의 활용(사견)

성적 욕구는 생명체의 기본적 욕구다. 생명체인 인간은 자신의 성적 취향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욕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15] 김태경(2019)의 연구에서 적절히 지적하듯이, 성적 교류 대상의 부재가 발생했을 때 인간은 ‘폭력 및 강압에 의한 성행위,’ ‘성매매(prostitution),’ 또는 다양한 방식의 ‘자위행위(masturba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게 된다. 이 중에서 ‘폭력 및 강압에 의한 성행위’와 ‘성매매’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행위다. 그러나 자위행위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질서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타인의 기본권과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성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위기구로서의 섹스로봇의 활용, 그리고 사회적 교류 및 성교육을 위한 확장현실-기반 메타버스(XR-based Metaverse)의 활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섹스로봇의 활용

(1) 자위기구로서의 섹스로봇

실제로 자위행위는 자신의 신체 또는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기의 모양을 모방한 기구나 물리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전동기구 등 자위행위만을 목적으로 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판매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을 모사한 자위기구인 ‘리얼돌(real doll)’의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리얼돌에 인공지능(AI)를 탑재한 이른바 ‘섹스로봇’이 등장하게 되었다. 엔지니어 세르히 산토스(Sergi Santos) 박사가 만든 섹스로봇 ‘사만다(Samantha)’가 대표적인 예다. 사만사의 특징 중 하나는 오르가슴(orgasm)을 느낀다는 것이다. 엉덩이, 어깨, 입술 등의 부위에 11개의 센서가 있어 사용자의 체온, 소리, 자극에 따라 교성과 말로 반응한다. 한편, 또 다른 특징인 ‘불감 모드’가 추가돼 이용자가 과도하게 잦은 요구를 할 때는 성행위를 거부한다. 네덜란드 트벤테 대학교(University of Twente)에 소재한 로봇공학재단(FR

15)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정서적 교류가 함께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VOICEYE voiceye.com

R)은 '로봇의 성적 미래(Our Sexual Future with Robots)' 보고서에서 "섹스용 로봇이나 인형은 부부의 성욕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인, 장애인 등 성소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Sharkey et al., 2017).

(2) 이익평등고려 원칙에 따른 정당성 검토

섹스로봇 활용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생각건대, 섹스로봇 활용에 관한 정당성은 '이익평등고려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익평등고려 원칙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이익들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고통의 회피, 능력의 개발,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다른 사람과의 우정 교환, 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을 것, 자신의 삶의 계획을 자유로이 추구할 것 등의 이익들을 일컫는다(김성동, 2018). 이익의 주체가 되거나 이익을 고려하려면, 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는 '인격체'여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술한 '성매매 합법화' 방안과 '성 봉사자 및 성 보조자'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성매매 집단은 노동 착취와 같은 다른 학대 집단보다 정신적으로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Tsutsumi et al., 2008), 흔히 우울, 불안, 인격 장애, 조현병(정신분열병), 스트레스 반응, 신체화, 우울, 피로, 무력감, 수면장애, 흡연, 알코올 문제 등이 보고되며(김소연, 2004; Rössler et al., 2010), 우울이나 불안의 경우 80-100%까지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었다(Tsutsumi et al., 2008). 더 나아가, MMPI 프로파일에서 정신증 척도의 상승(Exner, 1977; Schamphel eire, 1990)과 함께 건강염려, 우울, 공포, 정신병, 경조증, 사회부적응 척도 등 대부분의 내용척도의 상승,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F 척도의 상승이 보고된 바 있다(Schampheleire, 1990). 성매매 여성들의 PTSD 양상에 관심을 둔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약 60-80%가 PTSD로 진단되었다(Farley et al., 1998; 이지민, 홍창희, 2008).

한편,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일회적인 외상 사건에 의한 PTSD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민윤영, 2022), Herman(1992)은 일회적인 외상 사건으로 인한 PTSD를 '단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기술하고, 반복적이고 대인적 성격을 띠는 외상 사건을 통해 발생한 PTSD를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C-PTSD)'로 분리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PTSD는 단순 PTSD와 달리, ① 정서와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② 해리성 증상, ③ 신체화 증상, ④ 그

외 성격적 병리를 보이며, ⑤ 자기 인식의 변화, ⑥ 의미체계의 변화, ⑦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다(Herman, 1992; van der Kolk et al., 2005).

그렇다면 인격체가 수단으로 활용되고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심각한 '성매매 합법화'방안과 '성 봉사자 및 성 보조자'방안은 이익평등고려 원칙의 관점에서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섹스로봇은 '인격체'라고 할 근거가 없는바, 이익평등고려 원칙에 따라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견지에서 섹스로봇의 활용은 윤리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

2) 확장현실-기반 메타버스의 활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일상 속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단순히 사정(ejaculation)과 오르가슴(orgasm)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중증장애인은 물리적인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이슈가 되는 것처럼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건대, 상술한 섹스로봇과 더불어 확장현실 기반 메타버스(XR-based Metaverse)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결합한 의미로,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과 상호작용하며 사회, 경제, 문화 등이 결합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1). 이러한 메타버스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성교육의 장으로도,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확장현실(XR)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가상현실(Virtual Reailty: VR), 그리고 AR과 VR을 합친 혼합현실(Mix Reality: MR)의 교집합이자 이들을 모두 망라하는 초실감형 기술 및 그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확장현실을 활용하여 섹스로봇의 사용과 더불어 성교육에도 무게를 실으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초실감적인 사회적 소통과 교류도 가능하게 한다면 장애인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더 나아가 효과적인 성교육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사회적 교류와 성교육이 유의미할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숙과 강미경(2003)의 연구에서 가상체험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김성은과 김미진(2022)의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 교육 효과에 관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실습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김성덕과 이용국(2021)의 연구에서도 가상현실 체험교육의 효과

VOICEYE
voiceye.com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정지훈과 이영선(2022)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동기, 흥미,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한적인 소근육 능력[16]을 가진 지체장애자와 중도·중복장애자[17]의 경우에는 특수 교육과정에서의 가상현실(VR) 적용이 다소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임창환(2021)의 연구를 살피건대, 확장현실(XR)-기반 메타버스 몰입도 향상을 위한 '생체신호 기반 인터페이스(Human-Computer Interface Based on Bio-Signal: HCI Interface)'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바,[18] 정지훈과 이영선(2022)의 연구에서 지적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신용준과 최재원(2021)의 성교육 모델도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이용자의 자아정체성을 구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Mennecke et al., 2011),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교류를 위한 수단으로도 적합하다.

3) 법적 검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 제1항은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 법체계는 장애인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적극적 의미의 성적 자기결

---

16) '소근육 능력'은 손의 정교성, 눈-손의 협응하여 손기술을 정확히 구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소근육은 생후 1년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아기에 발달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운동신경이 발달하게 되어 운동량이 증가하고 신체적으로 자기 통제가 가능해지며, 후기로 갈수록 소근육의 발달로 정교한 신체 조절이 가능해져 단추 잠그기, 신발 끈 매기, 글씨 쓰기 등의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소근육 능력이 발달되었다"라고 함은 여러 가지 운동능력이 통합되고 중추신경계가 성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7) 중도·중복장애는 감각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인지적 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들 장애가 심각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말한다.

18) 무성 언어 인식(silent speech recognition), 사지마비 장애인의 메타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핸즈프리 VR 인터페이스, 안면부 근전도(facial electromyogram)를 이용한 표정 인식 등의 기술이 대표적인 예다.

정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 행사 어려움이 없도록 공간과 도구,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메타버스와 확장현실의 활용은 오히려 우리 법체계의 요구에 적절히 응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Ⅴ. 결론

1. 입법·정책적 제언

「장애인복지법」제65조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하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품목별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기법」에 근거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는 '성(性) 활동용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s for sexual activities)' 항목이 존재한다. 이 항목에는 성 활동을 훈련하고 보조하는 음경·질·전신 인체모형(팽창식 성 활동용 인형)(Dummies for sexual activities), 발기용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s for erection), 사정·오르가슴 등을 위한 성 활동용 진동기 및 마사지 장치(Vibrators and massage devices for sexual activity), 성욕 영역과 자신의 성취향의 자각을 위한 장치가 포함된 성교육 및 성재활(sexual rehabilitation)을 위한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s for sexual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중 '성(性) 활동용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s for sexual activities)'항목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성 활동용 인체모형(Dummies for sexual activities)'에 섹스로봇을 추가하고, '성교육 및 성재활을 위한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s for sexual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에 확장현실(XR)을 이용하기 위한 기기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VOICEYE
voiceye.com

2.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가 예상된다. 첫째,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타버스와 확장현실(XR)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은 성적 욕구가 없는 무성(無性)적 존재로 여겨지던 편견을 타파함으로써,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유교적 엄숙주의에 의해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다른 권리가 암묵적으로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하게 하는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인격'의 기능에 관한 고찰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인공지능(AI)과 ICT기술을 활용한 기본권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연구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따라 섹스로봇 활용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매매 합법화와 성 봉사자 및 성 보조자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속의 논의가 관련된 사안의 입법·정책을 구성하는 데에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함의가 예상된다. 첫째,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리얼돌'과 같은 인간모사 인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이 장착된 섹스로봇의 도입에 관한 법학적 논의에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입법을 통해 인공지능(AI)에게 '인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곽윤직. (2003). 채권각론. 서울: 박영사.

김경열. (2017). 판례 분석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교육권의 실천적 함의. 지적장애연구, 19(3), 123-143.

김미라, 강영신. (2021). 수용전념치료 집단프로그램이 성매매 경험 여성의 복합 PTSD, 경험회피 및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2), 171-194.

김상용. (2009). 민법총칙. 서울: 화산미디어.

김성덕, 이용국. (2021). 해양안전 가상현실 체험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3), 437-444.

김성동. (2018). 피터 싱어의 실천윤리학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김성은, 김미진. (2022). 학습자 중심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4), 705-713.

김소연. (2004).『성매매 현장에서의 경험이 탈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재윤. (2009).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독일형법 제179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조, 58(2), 253-278.

김주수. (1997). 채권각론. 서울: 삼영사.

김태경. (2019). 섹스로봇(Sex robot)의 상용화가 갖는 윤리적 문제와 윤리적 정당성 확보에 관하여. 철학논총, 95(1), 69-85.

김홍신 국회의원. (1999). *장애인 강제 불임시술 실태 폭로 1999*. A4-233. http://www.hrarchive.or.kr/down.php?filename=026fcc2f04c544bb911c25dff965baba.pdf&realname=1999_%EC%9E%A5%EC%95%A0%EC%9D%B8%EA%B0%95%EC%A0%9C%EB%B6%88%EC%9E%84%EC%88%98%EC%88%A0%EC%8B%A4%ED%83%9C%ED%8F%AD%EB%A1%9C.pdf.

류원섭. (2018).『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민윤영. (2022).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법과 사회, (70), 113-146.

박영숙, 강미경. (2003). 상호작용성 가상체험기법을 이용한 청소년 사이버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42-55.

박창석. (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38(4), 77-110.

서동일 (감독). (2005). 핑크 팰리스(Pink Palace) [다큐멘터리]. 핑크 팰리스.

성낙인. (2010). 헌법학. 파주: 법문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승환. (2021). 로그인(Log In) 메타버스 : 인간×공간×시간의 혁명. (IS-115).

송덕수. (2018).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송덕수. (2021). 채권법각론. 서울: 박영사.

신용준, 최재원. (2021).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활성화 연구: 지적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2(1), 215-255.

안서연. (2013. 2. 20). [장애인의 性 기획] 3부 “나에게서 ‘성적 매력’이 느껴지나요?”.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566.

양 건. (2020). 헌법강의. 파주: 법문사.

양정빈, 최윤영. (2022).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와 이동권 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논의. 한국사례관리학회, 13(1), 219-239.

오시진, 토마스백. (2011). 장애인 교육권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2010(1), 5-63.

윤기혁. (2020). 한국 장애인복지시설의 성적학대 판례 분석 연구. 인문사회21, 11(1), 291-306.

윤수정. (2012). 헌법에서 바라 본 장애인정책. 장애의 재해석, 2012(1), 5-40.

이상도, 김대원. (2008). 장애인 성문제와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 연구 - 장애인 성재활통합지원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2(3), 203-229.

이영준. (2007).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이예다나. (2018).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관련 법률 고찰 연구. 학습장애연구, 15(2), 139-164.

이은영. (2007). 채권각론. 서울: 박영사.

이주영. (2019). 사회권의 재판규범성 - 자유권·사회권 이분론을 넘어 -. 노동법연구, (46), 223-257.

이지민, 홍창희. (2008). 성매매 여성들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53-580.

이희훈. (2015).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관련 법제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논총, 26, 175-239.

임인택. (2010. 9. 29). 장애인도 하고 싶다, 살고 싶다.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8211.html

임창환. (2021). XR-기반 메타버스 몰입도 향상을 위한 생체신호 인터페이스 기술.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62-89.

장애여성공감. (2011). 장애와 성: 성욕의 서사를 넘어서. 여성이론, (24), 129-142.

조경진. (2015).『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지원림. (2013). 민법강의. 서울: 홍문사.

최은하. (2015).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형사정책연구, 103, 5-31.

통계청. (2021). 범죄자 성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6

한국인공지능법학회. (2019). 인공지능과 법. 서울: 박영사.

함현지. (2019).『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의 '장애' 개념의 형법적 재구성 :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허어영. (2010. 9. 29). 날마다 자식의 욕구와 싸우는 엄마들.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8210.html

Exner, J. E. Jr., Wylie, J., Leura, A., & Parrill, T. (1977). S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ostitu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5), 474-485.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Kwan, P., & Walker, A. (2004). Validating the competing values model as a representation of oranizational culture through inter-institutional

comparisons. *Organizational Analysis*, 12(1), 21-37.

Mcdonald, Paul., Grandz, Jeffrey. (1992). Getting value from shared values. *Organizational Dynamics*, 20(3), 64-77.

Mennecke, B. E., Triplett, J. L., Hassall, L. M., Conde, Z. J., & Heer, R. (2011). An examination of a theory of embodied social presence in virtual worlds. *Decision Sciences*, 42(2), 413-450.

Rössler, W., Koch, U., Lauber, C., Hass, A. K., Altwegg, M., Ajdacic-Gross, V., & Landolt, K. (2010). The mental health of female sex worke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22(2), 143-152.

Schampheleire, D. D. (1990). MMPI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Prostitutes: A Cross-Cultural Repl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1&2), 343-350.

Sharkey, N., Wynsberghe. A., Robbins. S., & Hancock. E. (2017). Our sexual future with robots. *FRR Report*.

https://responsiblerobotics.org/wp-content/uploads/2017/11/FRR-Consultation-Report-Our-Sexual-Future-with-robots-1-1.pdf

Tsutsumi, A., Izutsu, T., Poudyal, A. K., Kato, S., & Marui, E. (2008). Mental health of female survivors of human trafficking in Nepal.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1841-1847.

van der Kolk, B. A., Roth, S., Pelcovitz, D., Sunday, S., & Spinazzola, J. (2005).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i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tation to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389-399.

판례색인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병합)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 판결.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2 결정.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바360, 2012헌바5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VOICEYE
voiceye.com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Hwa Ji Won*

How independent can disabled people be in fron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lthough the law should be independent of personal moral ideas or religious beliefs, it was often prohibited or reluctant to contact or speak, considering that the discourse on sex itself was negated by Confucian solemnism. This trend can be seen not only in general society but also in academia. A number of studie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on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have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tent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Rechtsgut) of the crime of rape and indecent assault, that is, the passive meaning of not being infringed by others. There are also limitations in a small number of studies on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from the perspective of active meaning. In this study,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will be reviewed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some related cases will be introduced. In addition,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solution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nd finally, the legitimacy and legal basis of the new solutions using sex robots and extended reality-based metaverse according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reviewed. In conclusion, the use of sex robots and extended reality-based metaverse applying extended reality is a realistic, appropriate, and effective method to guarantee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n the active sense of the disabled.

Keywords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verely Disabled Persons, Sexual Self-determination, Legal Review

* Department of Law, Dankook University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2022 Vol. 3, No. 1, 409 - 425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임신·출산영역을 중심으로

정진이*·이재문**

여성장애인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차별적 구조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그 중 임신·출산과 관련한 모성권에서 비장애여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비장애인의 관점이 아닌 장애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회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단순히 출산이라는 생리적 기능의 권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모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모성권의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매우 소극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임신·출산영역에서 여성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 장애인지적, 여성장애인, 모성권, 임신, 출산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과 석사과정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Ⅰ. 서론

여성은 임신·출산에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여성만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은 단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의 증가는 결국 임신, 출산, 양육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할 것을 시사한다(이은주, 2016). 그러므로 일반여성과 달리 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모성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모성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문제로 귀결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온 여성장애인에게 모성권은 사회적 책임과 직결된다(김미옥, 2002).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더불어 정부는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여성의 모성권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저출산 문제에 거의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 여성장애인의 출산은 여러 가지 걱정과 편견으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 하지만 다행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각종 매스컴의 보도와 여성장애인단체의 '장애인 여성의 당당한 엄마되기', '여성장애인 모성권 강화 캠페인'등의 활동으로 인해 비장애인들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대한 인지와 관심 또한 증가 되면서 모성권에 관한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마련해 가고 있다.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 자신의 기본적 권리이고, 모든 여성에게는 모성이라는 본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어머니라는 새로운 모성적 역할의 경험으로 한 인간으로서 보다 성숙한 자아를 느낄 수 있으며 신체적 장애는 비장애인과의 모습의 차이일 뿐,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으로 긍정적 결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정우,이미옥, 2000). 하지만 여성장애인들을 완전한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 혹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무성적 존재로 인식됨으로써 아내, 혹은 어머니와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로부터 임신 포기의 권유로 이들은 성적, 재생산적 권리를 박탈된다는 의미에서는 성차별적 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대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게 있어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어머니가 되는 모성 경험이 비장애여성이 갖는 모성의 경험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에게는 모성권(maternity)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하여 여성성을 보호하는 것이며,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재생산적 권리와 모성 경험, 더 나아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여러 가지 사회시스템과 지원체계가 절실하다.

VOICEYE voiceye.com

하지만 여전히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에서 사회의 관심에서조차 배제되고, 혼자 힘으로 힘겨운 이러한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장애인은 생리를 시작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비장애여성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임신·출산 후 건강악화, 자녀양육부담, 가사 노동의 어려움 등 가정생활과 관련해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대하여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게 정부주도의 근본적인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양만 보아도 이제까지 축적된 것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실태조사 역사상 처음으로 2005년에 여성장애인 관련 문항을 포함시켜, 여성장애인을 중요한 범주로 포함시켰을 뿐 여성장애인의 결혼·임신·출산 등을 포함한 모성관련 특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장애인의 복지정책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여성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 및 출산 등과 관련한 모성권에 있어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개별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비장애 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되어온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장애인 모성권(최선경, 2018), 한국 여성장애인의 과제와 전망(서혜정, 2018), 여성장애인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연구(정정희, 2022)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장애인에 대한 모성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2019)에 의한 출산율이 0점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대적인 상황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대한 방안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지적 관점의 개념

장애인지적 관점은 다소 생소한 용어로 장애를 바라볼 때 새로운 사회적 관점에서의 시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논문집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장애인을 바라볼 때 비장애인의 입장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입하여 진정으로 장애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접근법이다. 최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버스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계단 대신 경사판을 설치한 저상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럼 앞서 언급한 것과 똑같은 손상을 지닌 사람이 이런 저상버스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버스를 탈 수가 있다. 동일한 손상을 지닌 사람이, '버스를 탄다'라는 동일한 행위를,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없다면 버스를 탈수 없음의 원인이 그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손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인은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손상은 변함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버스를 탈 수 있다면, 버스를 탈 수 없음의 원인은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버스에 있는 것이다.(김도현, 2019).

2. 여성장애인 모성권 개념 및 범주

여성장애인을 위한 관련정책은 '젠더'라는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부여되는 특성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여성장애인이 다중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서해정, 장명선, 2018). '여성'과 '장애'를 이론적 틀 안에서 설명하자면, 장애라는 생물학적 손상 및 장애인이 불리한 사회구조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인종, 사회, 재산, 종교, 국가 등 여러요인과 함께 작용하면서 복잡한 형태의 차별을 띄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중 차별적 구조 안에서 장애 여성이 본인을 위해 선택하도록 주어진 상황이나 혜택, 조건은 많지 않다. 또한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해도 사회경험의 부족,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은 관계 설정, 정보의 부족,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부재 등으로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당당해지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이런 여성의 모성경험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경험이며, 또한 다중적인 관계와 의미를 포괄하는 경험이 된다(서해정, 장명선. 2018).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범주로는 크게 임신 및 피임의 자기결정권, 출산 통제 및 출산 선택권, 안전한 임신 및 출산권 보장으로 볼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1) 임신 및 출산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행복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된다.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존중되어야 하고, 타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 이렇듯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피임의 선택권 역시 통제되어서는 안된다. 임신, 피임, 출산의 과정은 모든 여성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자기결정권 권리의 실행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고 제정하여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외부적 간섭이나 영향 없이 주도적 자기결정 행동을 수행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임신 및 피임에 관하여 여성장애인들에게 각각 어떠한 상황이 있으며, 각 상황에 따른 여성장애인 각자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아존중이 기본이 되어 심리적 역량 강화 및 자아실현을 위한 커리큘럼과 시민권적 권리교육에서부터 임신 및 피임에 관한 교육의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커리큘럼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서해정, 장명선, 2018)

2) 출산통제 및 선택권

여성의 성·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은 개인이 어떠한 강압이나 차별, 폭력없이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가질 여부와 시기·방법·자녀의 수 등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괄한다.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재생산 권리를 건강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인권으로 인정했다. 성교육, 피임, 임신유지 및 낙태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성 지식 부족과 정확하지 않은 피임을 함으로써 원치 않은 임신 및 안전하지 못한 임공임신중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낙태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출산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애인지적 관점의 제도적 지원 유무에 따라 처벌이 아닌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건강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3) 안전한 임신과 출산 보장권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국가의 행복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임신과 출산 보장권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적 체계와 연계되고 임신 후 산전관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

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권리, 그리고 출산 후 필수적인 산후관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출산을 계획하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는 건강한 아이와 만나기 위해 모든 순간이 걱정이고 두렵다. 여성장애인의 출산권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침해를 받게 된다.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 출산이 '선택'이라는 영역을 벗어나게 되어 힘들게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여성장애인산모가 약 10개월 간 자신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비장애인보다는 몇 배 더 조심하며 보내야 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계획 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임신이 되기 전부터 몸을 관리하고, 임신 전 병원을 방문해 부부가 위험요인이나 검사를 통해 혹시 모를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경우 병원까지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검사대에 누울 수 있도록 보조기구와 추가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과정의 모든 내용을 수화로 통역하고 문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력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여성장애인이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의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국가가 지정한 '장애친화적 산부인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해 인건비와 사업비 등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위치한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수는 13개소에 불과하다.

〈표 1〉 지자체 지정 장애친화적 산부인과 현황

(단위: 개소)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	-	-	-	-	2	1	-	-	-	-	2	-	3	4	-	1	-

출처 : 보건복지부(2022)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산부인과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여성장애인들은 산부인과 병·의원 건물은 물론이고 병·의원 내 각종 시설 각종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시설 이용의 불편함 정도를 넘어 좌절감과 불안감, 공포감까지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련 정보의 접근성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해정, 장명선, 2018).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나 고위험 산모는 미리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임신을 계획해야 한다. 특히 예전과 다른 결혼에 대한 인지와 다른 이유로 인해 늦어지는 결혼으로 출산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VOICEYE
voiceye.com

3. 사회진화론 관점에서의 모성권

사회진화론은 자연도태의 원칙을 모든 사회적 갈등의 메커니즘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인종적 불평등의 설명을 말한다. 이 이론은 인간과 인간사회의 평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민주적이고, 생존경쟁, 약육강식을 강조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의 의지나 세력을 관철시키는 에고이즘을 조장하는 사회윤리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인간애를 위한 어떠한 여지도 없고, 강한 자와 힘 있는 자의 권리만이 인정될 뿐이다. 즉 사회진화를 위해서는 부적격자를 배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론 하에 장애인은 사회의 약자,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권명옥, 서화자, 2004). 즉 보호받아야 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사회진화론적 관점에 의해 차별받고 소외되었었다.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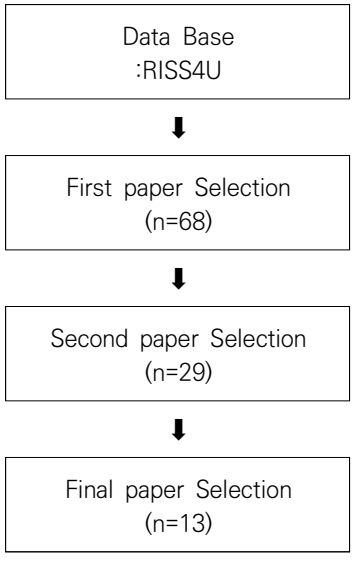
1. 문헌연구법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히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장애인들의 임신·출산의 욕구를 파악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의 어려움과 한계 등을 현실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문헌들을 탐색함에 있어 관련 연구 문헌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로 인해 다소 제한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 속에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중에서도 임신과 출산영역에 관한 핵심적인 연구주제들을 가지고 장애인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 문헌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 수집 과정을 거쳤다. 첫째,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표적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를 통해서 장애인지적, 여성장애인, 모성권, 임신, 출산의 검색어들로 석·박사학위 논문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로 등재된 학술지, ISBN에 등록된 서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검색 결과 일차적으로 학위 논문 35편과 학술지 논문 33편이 검색되었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관련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 및 여성장애인의 세대에 따른 욕구도 차이가 있어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근 10년간의 관련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학위 논문 17편과 학술지 논문 13편이 확인되었다. 셋째, 연구자는 선정된 논문들의 초록(요약)을 읽고 선정된 논문들이 본 연구의 논문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키워드 검색에서는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논문으로 검색이 되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여성장애인과는 관련성이 적은 학위논문들과 학술지 논문이 발견되어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논문의 본문 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논문 선정기준에 적합한 논문으로 학위 논문 2편과 학술지 논문 9편, 단행본 1권이 선정되었다. 학위논문을 대부분 제외한 이유는 상호 검증된(peer reviewed)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결정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문헌 검색 절차와 결과이다. 연구자는 분석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 Literature search procedures and results

3. 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적 이슈

연구의 질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자료수집에 있어서 국내외 석·박사 논문, 학회나 학술단체에서 발행한 학술지의 피인용 횟수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선행연구에서 일부 불일치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한 서적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VOICEYE
KCI
voiceye.com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 두 명은 각자 수집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뒤에 함께 공유하고 회람하면서 교차 분석하였으며, 2022년 6월 27일~7월 25일까지 주 3회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치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려한 윤리적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신문기사 및 서적은 연구자료에서 배제하고 출처가 분명한 경우에만 참고문헌에 표기를 하고 자료수집을 포함한 연구과정을 진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주로 진행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의 모성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영역에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의 출산현황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여성장애인의 출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81명에 비해 지난해에 출산한 산모가 약 6% 증가해 828명에 달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7명 소폭 증가한 것이다. 물론 여성장애인의 출산 현황도 일반적인 출산율 감소 흐름을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2018년 1,482명에서 갈수록 출산 산모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만 다소 반등한 상황이다.

〈표 2〉 최근 4년간 여성장애인의 출산현황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482	1,073	781	828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

지만, 1인당 100만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지원율이 채 80%도 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이 73.8%였는데, 지난해에는 70%로 되려 하락했다.

〈표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성과달성도 : 2019~2021년〉

(단위: %)

구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201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80.0	73.8
202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80.0	76.9
202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80.0	70.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여성장애인 중 출산 산모는 30~39세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 산모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적·자폐, 시각장애, 청각장애 순이었다. 즉 지체장애 여성들의 출산관련 서비스를 고안하고 30대 여성장애인을 표적으로 다양한 임신 출산 관련 정책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표 4〉 최근 4년간 여성장애인의 출산 현황(장애유형별, 산모연령별)

(단위: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자폐	기타 장애	합계
2018	~19	1	.	.	.	4	.	5
	20~24	11	3	6	3	75	4	102
	25~29	65	14	22	26	87	12	226
	30~34	219	26	88	76	60	27	496
	35~39	245	23	90	66	57	41	522
	40~44	63	9	21	14	11	9	127
	45~49	3	.	.	.	1	.	4
2019	~19	.	.	.	.	3	.	3
	20~24	9	5	2	2	42	2	62
	25~29	44	8	15	27	61	5	160

VOICEYE
voiceye.com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자폐	기타 장애	합계
2019	30~34	164	12	58	74	38	23	369
	35~39	166	18	50	49	40	34	357
	40~44	60	2	14	12	11	12	111
	45~49	7	.	1	1	.	1	10
	50~	1	.	.	.	.	.	1
2020	~19	.	.	.	.	7	.	7
	20~24	3	.	1	2	53	2	61
	25~29	35	4	16	16	56	6	133
	30~34	107	13	44	42	44	16	266
	35~39	105	17	44	34	17	26	243
	40~44	24	5	12	12	8	5	66
	45~49	4	.	1	.	.	.	5
2021	~19	.	.	.	.	3	.	3
	20~24	1	1	2	3	42	2	51
	25~29	35	4	22	16	53	4	134
	30~34	102	12	50	43	49	14	270
	35~39	121	6	58	28	36	17	266
	40~44	40	5	18	14	12	10	99
	45~49	3	.	.	1	.	1	5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이처럼 여성장애인의 출산 관련 정책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사회는 모성권 확립을 위한 지원에서 여성이라는 젠더에 집중된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여성성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을 무성의 존재로 치부하는 시각과 장애에 부정적 사회적 편견으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낮은 기대감, 장애가 유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장애부모의 빈곤으로 인해 자녀의 삶의 질이 낮아 질 것이라는 가치 및 평가절하[1]하게 이끈다(Fawcett.2000). 무성의 존재로서의 시각은 부모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시각과 동일선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그리

고 육아와 같은 모성은 고유한 권한이며, 무성적 존재로 여겨왔던 여성장애인에게 여성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장애여성학자들은 이러한 장애에 대한 시각이 전통적인 관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다중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것을 강조해 왔다. Morris(1998)역시 신체적 기능이 부모역량(parenting capacity)으로 환원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역할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필요한 지원요구를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이 단순히 여성인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에도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 권리를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방안과 지원절차를 제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이 장애인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다양한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그리고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양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최선경, 2018).

여성장애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과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삶에 필요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공통점은 장애 유형의 개별성을 고려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모성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성장애인의 경험과 상이하게 다른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성권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농촌지역 지적장애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질적 사례를 연구한 김미옥, 김은경, 박신애 2013년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해 대부분 교육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에 무지함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교육 및 정보의 부재 등으로 다수의 여성장애인들이 산전기간 동안 불안감이 증가하는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측면에서 장애인의 장애유형이 고려된 임신·출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한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 및출산 등을 통해 긍정적 자아 형성 혹은 심리적 장애극복 등의 긍정적 경험을 하는 반면, 장애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임신·출산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들도 비장애여성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권리 중 하나인 임신·출산을 하면서 겪게

---

1) 국립국어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960 어떠한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 대외 가치를 내리는 것을 뜻함.

VOICEYE
KOR
voiceye.com

되는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고,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주요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관련 애로사항을 추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인실태 조사시 세부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실질적인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V. 결론 및 논의

현재 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법」제7조, 제9조, 제37조, 제55조 등에서 여성장애인의 출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전후도우미,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전국 단위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당사자들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경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수에 해당하는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지지집단의 양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지지집단간의 결집과 공유를 어렵게 만드는 질적인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한다. 또한, 행정부처 내 전담부서의 부재이다. 현재 여성장애인의 출산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박사무엘, 2011). 더군다나 여성가족부는 현재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 향후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는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권 보호를 포함한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임신·출산 여성장애인의 우선 보호

여성장애인은 장애유형, 연령, 교육수준, 결혼 여부, 가족과의 동거여부, 자녀여부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이들이 풀어야 할 당면 문제가 다르며, 요구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여성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복지 전반에 필요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여성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개인별 실태 및 욕구 편차의 파악을 통해 여성장애인 가운데 임신·출산 집단을 확인하고, 이들을 우선보호지원대상으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전담부서 설치 필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있는 업무의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경제적 상황별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장애인실태조사도 1년 혹은 2년 주기로 단축하여 실시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 현황 및 생애주기별 건강 상태, 특히 가임기 여성에 대한 건강 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담보되는 정책이 입안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지만 예산 편성시 통합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김윤자, 2021)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권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부지를 해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출산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기관은 지속적으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과 모성권, 육아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방편으로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여성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야만 되는 의사, 교사 등 전문가 집단 및 관련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4. 임신·출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등에서 겪는 어려움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임신한 여성장애인의 정기검진 의무화,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피임, 출산, 부부간의 성관계 등에 대한 교육 및 책자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그리고 여성장애인 의료진을 위한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가이드북 및 비디오 제작·배포 등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5. 특성을 고려한 의료, 생활서비스의 제공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각 전문병원은 신체 특성에 알맞은 산부인과 기자재를 비치하여야 한다. 의사 등 의료진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산비용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초지방자치

VOICEYE
KOR
voiceye.com

단체별로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출산비용을 신청하여야 하기에 장애인이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즉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One-stop'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장애인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 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여성장애인 출산현황 안내.

기획재정부. (2019). 범부처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파주: 오월의 봄

김미옥. (2002).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기와 장년기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0: 9-36.

김미옥, 김은경, 박신애. (2013). 농촌지역 지적장애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사회복지연구.

김윤자. (2021).『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우, 이미옥. (2000).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장애의 심리적 극복과의 관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권명옥, 서화자. (2004). 장애인관의 발달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박사무엘. (2011). 여성장애인의 출산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서해정. (2018).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장명선. (2018).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방안. 이화젠더법학, 10(2):177-211.

오혜경. (2003).『재가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실태 및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은주. (2016).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과 출산 돌봄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 여성간호학회지, 10(4): 308-321.

보건복지부. (2020). 2020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1). 2020 장애인실태조사.

정정희. (2022). 여성장애인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최선경. (2018).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모성권(임신과 출산, 자녀양육)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Fawcett, B. (2000). Feminist perspectives on disability. London: Prentice Hall.

Morris, J. (1996). Encounters with strangers: Feminism and disability, London: The Women's Press.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9	게재확정 : 2022. 11. 29.

VOICEYE
KOR
voiceye.com

Abstract

A Study on Social Support Plans for the Maternity Rights of Disabled Women From a Disability-Sensitive Perspective: focused on pregnancy and childbirth

Jeong Jin Yi*·Lee Jae Moon**

Women with disabilities are experiencing numerous problems in a double and triple discriminatory structure across various areas of life due to their gender and disability. Among them, in the maternal right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social support measur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so that they do not feel the burde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by approaching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women with disabilities compared to non-disabled women from a perspective of disability awareness rather than from a non-disabled perspective. The maternity right of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not be simply viewed as a right for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childbirth. But the right to enjoy social services for various maternity policies due to pregnancy and childbirth should also be included. Currently, there is a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maternity, but suppor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s very passive compared to non-disabled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spire positive perceptions about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that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n pregnancy and childbirth by studying more active social support measures

Keywords :Disability-Sensitive Perspective, female disabled, maternal right, pregnancy, childbirthbirth

* Master's course in Department of Health. Daegu Haany University
**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VOICEYE
voiceye.com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3호)

발행처 한국장애인재단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이성규
전화 02)6399-6235
팩스 02)6399-6238
홈페이지 https://www.herbnanum.org/
주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순화동 바비엥3)
인쇄처 타라티피에스 그래픽스사업부문

편집위원회

위원장 백은령(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 원 공마리아(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
권선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숙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진자(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